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 2022-9

ISBN 979-11-92238-24-1



청년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에 관한 연구

류주연, 김수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Daejeon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청년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에 관한 연구

• 책임연구원

류 주 연 _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 공동연구원

김 수 진 _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차 례

요 약	i
제 1 장 서론	3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 2 절 연구 내용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9
제 1 절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 정립	9
제 2 절 청년과 코로나 19 팬데믹	12
제 3 장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실태	17
제 1 절 조사개요	17
제 2 절 분석결과	23
제 3 절 소결	141
제 4 장 사회적 고립 위험군 실태분석	147
제 1 절 분석 개요	147
제 2 절 분석 결과	147
제 3 절 소결	238
제 5 장 코로나 19와 청년의 삶	243
제 1 절 조사개요	243
제 2 절 코로나 19와 청년 삶의 주요 지표 변화	243
제 3 절 소결	266
제 6 장 제언 도출	271
참고문헌	285
부록: 설문조사표	291

표 차례

[표 1-1] 연구의 흐름 및 진행 과정	6
[표 3-1] 패널조사 응답률	22
[표 3-2] 응답자 특성	23
[표 3-3] 인구사회학적 특성(N = 905)	25
[표 3-4] 사회적 역할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27
[표 3-5]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29
[표 3-6] 연령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31
[표 3-7] 근로 여부	32
[표 3-8] 근로 시간	33
[표 3-9] 종사자 지위	34
[표 3-10] 근로시간 형태	35
[표 3-11] 구직 및 이직 의사	36
[표 3-12] 구직 및 이직 준비 여부	37
[표 3-13] 구직 기간	38
[표 3-14] 본인의 월평균 소득	39
[표 3-15] 경제적 독립 여부	40
[표 3-16] 사회경제적 지위	41
[표 3-17] 평소 외출 정도	42
[표 3-18] 평소 외출 정도의 지속 기간	43
[표 3-19] 평소 외출하지 않은 계기	45
[표 3-20]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47
[표 3-21]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자원망 - 1+2 순위 (1)	48
[표 3-22]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자원망 - 1+2 순위 (2)	48
[표 3-23]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49
[표 3-24]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1)	50
[표 3-25]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2)	50

[표 3-26]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51
[표 3-27]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1) ...	52
[표 3-28]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2) ...	53
[표 3-29]	내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54
[표 3-30]	내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1)	55
[표 3-31]	내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2)	55
[표 3-32]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56
[표 3-33]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1)	57
[표 3-34]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2)	57
[표 3-35]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58
[표 3-36]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1)	59
[표 3-37]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2)	59
[표 3-38]	연락두절시 안부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60
[표 3-39]	연락두절시 안부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1)	61
[표 3-40]	연락두절시 안부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2)	61
[표 3-41]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62
[표 3-42]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63
[표 3-43]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빈도	64
[표 3-44]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65
[표 3-45]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면교류 빈도	66
[표 3-46]	가족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67
[표 3-47]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68
[표 3-48]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69
[표 3-49]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비대면 교류 빈도	70
[표 3-50]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	71
[표 3-51]	소속감 여부	72
[표 3-52]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1)	74
[표 3-53]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2)	74

[표 3-54] 외로움 전반	75
[표 3-55]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합	77
[표 3-56] 친구관계 부족	78
[표 3-57]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음	79
[표 3-58] 혼자라고 느낌	80
[표 3-59]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음	81
[표 3-60]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낌	82
[표 3-61]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낌	83
[표 3-62] 스스로 적극적, 호의적이라고 느낌	84
[표 3-63]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낌	85
[표 3-64] 소외감	86
[표 3-65] 타인과의 관계 무의미하다고 느낌	87
[표 3-66]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느낌	88
[표 3-67] 내가 원할 때 함께 있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낌	89
[표 3-68]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낌	90
[표 3-69]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으로 느낌	91
[표 3-70]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함	92
[표 3-71]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낌	93
[표 3-72] 타인들로부터 고립감 느낌	94
[표 3-73] 혼자 참음	96
[표 3-74] 음주	96
[표 3-75] 운동, 문화생활 등 활동적인 취미생활	97
[표 3-76] TV, 게임, 유튜브 시청	98
[표 3-77] 종교활동, 종교모임 참여	98
[표 3-78] 반려견, 반려 동·식물 등 키움	99
[표 3-79]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담, 대화	99
[표 3-80] 온라인 상담, 대화	100
[표 3-81] 전문가 상담, 대화	100

[표 3-82]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전문가와 대화, 상담하지 않은 이유(복수 선택)	101
[표 3-83]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본인 활용해본 방법 중 가장 도움된 방법 (1)	103
[표 3-84]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본인 활용해본 방법 중 가장 도움된 방법 (2)	103
[표 3-85] 본인의 건강, 장애 등의 어려움으로 활동 제약 경험	105
[표 3-86] 본인의 건강, 장애 등의 어려움에 따른 활동 제약 경험의 영향 정도	105
[표 3-87] 외모, 체형 등 본인 외형에 자신감 잃었던 경험	106
[표 3-88] 외모, 체형 등 본인 형에 자신감 잃었던 경험의 영향 정도	106
[표 3-89] 부모님과 떨어져 타인 집에서 양육된 경험	107
[표 3-90] 부모님과 떨어져 타인 집에서 양육된 경험의 영향 정도	107
[표 3-91] 부모님께서 이혼, 별거 경험	108
[표 3-92] 부모님께서 이혼, 별거 경험의 영향 정도	108
[표 3-93] 장애, 질환 등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었던 경험	109
[표 3-94] 정서, 정신, 신체건강장애, 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었던 경험의 영향 정도	109
[표 3-95]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110
[표 3-96]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의 영향 정도	110
[표 3-97] 가까운 사람 사망 경험	111
[표 3-98] 가까운 사람 사망 경험의 영향 정도	111
[표 3-99] 친구 및 대인관계에서 배신 등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	112
[표 3-100] 친구 및 대인관계에서 배신 등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의 영향 정도	112
[표 3-101] 연애 및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배신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	113
[표 3-102] 연애 및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부터 배신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의 영향 정도	113
[표 3-103] 과도한 체벌, 정서적 공격 등 학대당한 경험	114
[표 3-104] 과도한 체벌, 정서적 공격 등 학대당한 경험의 영향 정도	114
[표 3-105] 타인에게 괴롭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115
[표 3-106] 타인에게 괴롭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의 영향 정도	115
[표 3-107] 직장에서 상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116
[표 3-108] 직장에서 상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의 영향 정도	116
[표 3-109] 범죄(스토킹,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 경험	117

[표 3-110]	범죄(스토킹,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 경험의 영향 정도	117
[표 3-111]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 취업을 못했던 경험	118
[표 3-112]	내가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 취업을 못했던 경험의 영향 정도	118
[표 3-113]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 진로 변경 강요받은 경험	119
[표 3-114]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 진로 변경 강요받은 경험의 영향 정도	119
[표 3-115]	전학, 이사 등 이동을 자주 한 경험 유무	120
[표 3-116]	전학, 이사 등 이동을 자주 한 경험의 영향 정도	120
[표 3-117]	나, 가까운 지인이 전염성 질환(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 제약 경험	121
[표 3-118]	나, 가까운 지인이 전염성 질환(코로나 19)으로 인해 사회생활 제약 경험의 영향 정도	121
[표 3-119]	행복감	122
[표 3-120]	코로나 19 발생 전후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변화 정도	123
[표 3-121]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고립 문제 심각 정도	124
[표 3-122]	우리 사회의 고독사 문제 심각 정도	125
[표 3-123]	본인에게도 고독사의 위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126
[표 3-124]	주관적 신체적 건강 수준	128
[표 3-125]	건강,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사회활동에 제한 받고 있는 정도	128
[표 3-126]	우울수준	130
[표 3-127]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	131
[표 3-128]	최근 1년 동안 자살 계획	131
[표 3-129]	최근 1년 동안 자살 시도	132
[표 3-130]	운동 빈도	133
[표 3-131]	음주 빈도	134
[표 3-132]	흡연 여부	134
[표 3-133]	청년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 등 해소 위해 필요한 지원 - 1+2 순위 (1)	136
[표 3-134]	청년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 등 해소 위해 필요한 지원 - 1+2 순위 (2)	136
[표 3-135]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이용하기 위해 전문가 만나야 한다면 선호 방법	137
[표 3-136]	고향이 대전 또는 본가 대전여부	138
[표 3-137]	대전 총 거주기간	139

[표 3-138] 대전광역시 거주 만족도	140
[표 3-139] 대전광역시 거주 희망정도	141
[표 4-1] 응답자 특성	147
[표 4-2] 외로움 위험군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149
[표 4-3] 외로움 위험군에 따른 경제적 특성	151
[표 4-4] 평소 외출 정도	152
[표 4-5] 평소 외출 지속기간	153
[표 4-6] 평소 외출하지 않은 계기	154
[표 4-7]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155
[표 4-8]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1)	156
[표 4-9]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2)	156
[표 4-10]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157
[표 4-11]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1) ..	158
[표 4-1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2) ..	158
[표 4-13]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158
[표 4-14]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1) ..	159
[표 4-15]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2) ..	159
[표 4-16] 내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159
[표 4-17] 내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1)	160
[표 4-18] 내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2)	160
[표 4-19]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161
[표 4-20]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1)	162
[표 4-21]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2)	162
[표 4-22]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162
[표 4-23]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1)	163
[표 4-24]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2)	163
[표 4-25]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163
[표 4-26]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1) ..	164

[표 4-27]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2) ..	164
[표 4-28]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165
[표 4-29]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166
[표 4-30]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빈도	167
[표 4-31]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168
[표 4-32]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169
[표 4-33] 가족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170
[표 4-34]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171
[표 4-35]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172
[표 4-36]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비대면 교류 빈도	173
[표 4-37]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	174
[표 4-38] 소속감 여부	175
[표 4-39] 소속감 집단	176
[표 4-40] 외로움 전반	177
[표 4-41]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합	178
[표 4-42] 친구 관계 부족	179
[표 4-43]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음	180
[표 4-44] 혼자라고 느낌	181
[표 4-45]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음	182
[표 4-46]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낌	183
[표 4-47]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낌	184
[표 4-48] 스스로 적극적, 호의적이라고 느낌	185
[표 4-49]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낌	186
[표 4-50] 소외감	187
[표 4-51] 타인과의 관계 무의미하다고 느낌	188
[표 4-52]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느낌	189
[표 4-53] 내가 원할 때 함께 있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낌	190
[표 4-54]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낌	191

[표 4-55]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으로 느낌	192
[표 4-56]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함	193
[표 4-57]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낌	194
[표 4-58] 타인들로부터 고립감 느낌	195
[표 4-59] 혼자 참음	196
[표 4-60] 음주	197
[표 4-61] 운동, 문화생활 등 활동적인 취미생활	197
[표 4-62] TV, 게임, 유튜브 시청	198
[표 4-63] 종교활동, 종교모임 참여	198
[표 4-64] 반려견, 반려 동·식물 등 키움	199
[표 4-65]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담, 대화	199
[표 4-66] 온라인 상담, 대화	200
[표 4-67] 전문가 상담, 대화	200
[표 4-68]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전문가와 대화, 상담하지 않은 이유 (복수 선택)	202
[표 4-69]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본인 활용해본 방법 중 가장 도움 된 방법 - 1+2 순위 (1) ..	203
[표 4-70]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본인 활용해본 방법 중 가장 도움 된 방법 - 1+2 순위 (2) ..	203
[표 4-71] 본인의 건강, 장애 등의 어려움으로 활동 제약 경험	205
[표 4-72] 본인의 건강, 장애 등의 어려움으로 활동 제약 경험의 영향 정도	205
[표 4-73] 외모, 체형 등 본인 외형에 자신감 잃었던 경험	206
[표 4-74] 외모, 체형 등 본인 외형에 자신감 잃었던 경험의 영향 정도	206
[표 4-75] 부모님과 떨어져 타인 집에서 양육된 경험	207
[표 4-76] 부모님과 떨어져 타인 집에서 양육된 경험의 영향 정도	207
[표 4-77] 부모님께서 이혼, 별거 경험	208
[표 4-78] 부모님께서 이혼, 별거 경험의 영향 정도	208
[표 4-79] 장애, 질환 등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었던 경험	209
[표 4-80] 정서, 정신, 신체건강 장애, 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었던 경험의 영향 정도 ..	209
[표 4-81]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210
[표 4-82]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의 영향 정도	210

[표 4-83] 가까운 사람 사망 경험	211
[표 4-84] 가까운 사람 사망 경험의 영향 정도	211
[표 4-85] 친구 및 대인관계에서 배신 등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	212
[표 4-86] 친구 및 대인관계에서 배신 등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의 영향 정도	212
[표 4-87] 연애 및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배신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	213
[표 4-88] 연애 및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배신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의 영향 정도	213
[표 4-89] 과도한 체벌, 정서적 공격 등 학대당한 경험	214
[표 4-90] 과도한 체벌, 정서적 공격 등 학대당한 경험의 영향 정도	214
[표 4-91] 타인에게 괴롭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215
[표 4-92] 타인에게 괴롭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의 영향 정도	215
[표 4-93] 직장에서 상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216
[표 4-94] 직장에서 상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의 영향 정도	216
[표 4-95] 범죄(스토킹,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 경험	217
[표 4-96] 범죄(스토킹,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 경험의 영향 정도	217
[표 4-97]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 취업을 못했던 경험	218
[표 4-98] 내가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 취업을 못했던 경험의 영향 정도	218
[표 4-99]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 진로 변경 강요받은 경험	219
[표 4-100]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 진로 변경 강요받은 경험의 영향 정도	219
[표 4-101] 전학, 이사 등 이동을 자주 한 경험	220
[표 4-102] 전학, 이사 등 이동을 자주 한 경험의 영향 정도	220
[표 4-103] 나, 가까운 지인이 전염성질환(코로나 19)으로 인해 사회생활 제약 경험	221
[표 4-104] 나, 가까운 지인이 전염성질환(코로나 19)으로 인해 사회생활 제약 경험의 영향 정도 ..	221
[표 4-105] 행복감	222
[표 4-106] 코로나 19 발생 전후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변화 정도	223
[표 4-107]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고립 문제 심각 정도	224
[표 4-108] 우리 사회의 고독사 문제 심각 정도	225
[표 4-109] 본인에게도 고독사의 위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226
[표 4-110] 주관적 신체적 건강 수준	227

[표 4-111] 건강,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사회활동에 제한 받고 있는 정도	228
[표 4-112] 우울수준	229
[표 4-113] 최근 1 년 동안 자살 생각	230
[표 4-114] 최근 1 년 동안 자살계획	231
[표 4-115] 최근 1 년 동안 자살 시도	232
[표 4-116] 운동 빈도	232
[표 4-117] 음주 빈도	233
[표 4-118] 흡연 여부	233
[표 4-119] 청년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 등 해소 위해 필요한 지원 - 1+2 순위 (1)	235
[표 4-120] 청년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 등 해소 위해 필요한 지원 - 1+2 순위 (2)	235
[표 4-121]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이용하기 위해 전문가 만나야 한다면 선호 방법	235
[표 4-122] 고향이 대전 또는 본가 대전 여부	236
[표 4-123] 대전 총 거주기간 (1)	236
[표 4-124] 대전 총 거주기간 (2)	236
[표 4-125] 대전광역시 거주 만족도	237
[표 4-126] 대전광역시 거주 희망정도	237
[표 5-1] 인구사회학적 특성	244
[표 5-2] 마스크착용	245
[표 5-3] 배달배송으로 인한 소비활동 증가	245
[표 5-4] 재택근무	246
[표 5-5] 온라인 학습	246
[표 5-6] 직장 회식 감소	247
[표 5-7] 친목모임 감소	247
[표 5-8] 재택여가 취미	248
[표 5-9] 결혼에 대한 생각	249
[표 5-10] 가족 간 소통	249
[표 5-11] 배우자 관계 만족도	249
[표 5-12] 자녀관계 만족도	250

[표 5-13] 자녀부모 관계만족도	250
[표 5-14] 배우자 부모 관계만족도	250
[표 5-15] 형제자매 관계 만족도	251
[표 5-16] 배우자 형제자매 관계 만족도	251
[표 5-17]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251
[표 5-18] 직장 구성원 간 소통	252
[표 5-19] 이웃 간 소통	252
[표 5-20] 세대 간 소통	252
[표 5-21] 집안일 부탁도움	253
[표 5-22] 많은 돈 빌릴 때 도움	253
[표 5-23] 우울할 때 도움	253
[표 5-24] 소득수준 만족도	254
[표 5-25] 소비생활 만족도	254
[표 5-26] 임금 또는 소득만족도	254
[표 5-27] 2019 년 경제활동 상태	255
[표 5-28] 2021 년 경제활동 상태	255
[표 5-29] 직장	256
[표 5-30] 직종	256
[표 5-31] 종사상 지위	257
[표 5-32] 일 내용 만족도	257
[표 5-33] 근로환경 만족도	257
[표 5-34] 근로 시간 만족도	258
[표 5-35] 이직 생각	258
[표 5-36] 이직 고려이유	259
[표 5-37] 일과 가정생활	259
[표 5-38] 향후 취업의사	260
[표 5-39] 구직활동 여부	260
[표 5-40] 구직시 고려사항	261

[표 5-41] 근무하고 싶은 직장	262
[표 5-42] 근무하고 싶은 이유	262
[표 5-43] 직업선택시 어려운 점	263
[표 5-44] 필요한 공공시설(1 순위)	264
[표 5-45] 필요한 복지서비스(1 순위)	264
[표 5-46] 구직시 필요한 지원정책	265
[표 5-47] 출산시 필요한 지원 정책	266
[표 6-1]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조항	272

그림 차례

[그림 3-1] 근로 여부	32
[그림 3-2] 종사자의 지위	34
[그림 3-3] 근로시간 형태	35
[그림 3-4] 구직 및 이직 의사	36
[그림 3-5] 구직 및 이직 준비 여부	37
[그림 3-6] 구직기간	38
[그림 3-7] 경제적 독립 여부	40
[그림 3-8] 사회경제적 지위	41
[그림 3-9] 평소 외출 정도	42
[그림 3-10] 평소 외출 정도의 지속 기간	43
[그림 3-11] 평소 외출하지 않은 계기	44
[그림 3-12] 특정 영역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46
[그림 3-13] 취업/진로 도움	46
[그림 3-14]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자원망	48
[그림 3-15]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49
[그림 3-16]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50
[그림 3-17] 집안일 도움	51

[그림 3-18]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52
[그림 3-19] 내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53
[그림 3-20] 내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54
[그림 3-21]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56
[그림 3-22]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57
[그림 3-23]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58
[그림 3-24]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59
[그림 3-25] 연락두절시 안부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60
[그림 3-26] 연락두절시 안부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61
[그림 3-27]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62
[그림 3-28]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63
[그림 3-29]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빈도	64
[그림 3-30] 이외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65
[그림 3-31]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면교류 빈도 ...	66
[그림 3-32] 가족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67
[그림 3-33]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68
[그림 3-34]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69
[그림 3-35]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비대면 교류 빈도	70
[그림 3-36]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	71
[그림 3-37] 소속감 여부	72
[그림 3-38]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73
[그림 3-39] 주요 영역별 외로움 수준	76
[그림 3-40]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합	77
[그림 3-41] 친구관계 부족	78
[그림 3-42]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음	79
[그림 3-43] 혼자라고 느낌	80
[그림 3-44]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음	81
[그림 3-45]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낌	82

[그림 3-46]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낌	83
[그림 3-47] 스스로 적극적, 호의적이라고 느낌	84
[그림 3-48]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낌	85
[그림 3-49] 소외감	86
[그림 3-50] 타인과의 관계 무의미하다고 느낌	87
[그림 3-51]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느낌	88
[그림 3-52] 내가 원할 때 함께 있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낌	89
[그림 3-53]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낌	90
[그림 3-54]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으로 느낌	91
[그림 3-55]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함	92
[그림 3-56]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낌	93
[그림 3-57] 타인들로부터 고립감 느낌	94
[그림 3-58]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활용하는 방법	95
[그림 3-59]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전문가 상담하지 않은 이유	101
[그림 3-60]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본인이 활용해본 방법 중 가장 도움 된 방법	102
[그림 3-61] 과거의 경험 및 해당 경험의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영향 정도	104
[그림 3-62] 행복감	122
[그림 3-63]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한 인식도	124
[그림 3-64]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	125
[그림 3-65] 본인에게도 고독사의 위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126
[그림 3-66] 주관적 신체적 건강 수준	127
[그림 3-67] 우울수준	129
[그림 3-68] 청년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 등 해소 위해 필요한 지원	135
[그림 3-69] 전문가 만나야 한다면 선호 방법	137
[그림 4-1] 평소 외출 정도	152
[그림 4-2] 평소 외출 지속기간	153
[그림 4-3] 평소 외출하지 않은 계기	154
[그림 4-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55

[그림 4-5]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1+2 순위	156
[그림 4-6]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157
[그림 4-7]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159
[그림 4-8] 내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160
[그림 4-9]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161
[그림 4-10]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163
[그림 4-11]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164
[그림 4-12]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165
[그림 4-13]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166
[그림 4-14]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빈도	167
[그림 4-15]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168
[그림 4-16]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	169
[그림 4-17] 가족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170
[그림 4-18]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171
[그림 4-19]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172
[그림 4-20]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비대면 교류 빈도	173
[그림 4-21]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	174
[그림 4-22] 소속감 여부	175
[그림 4-23] 소속감 집단	176
[그림 4-24] 외로움 전반	177
[그림 4-25]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함	178
[그림 4-26] 친구 관계 부족	179
[그림 4-27]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음	180
[그림 4-28] 혼자라고 느낌	181
[그림 4-29]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음	182
[그림 4-30]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낌	183
[그림 4-31]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낌	184
[그림 4-32] 스스로 적극적, 호의적이라고 느낌	185

[그림 4-33]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낌	186
[그림 4-34] 소외감	187
[그림 4-35] 타인과의 관계 무의미하다고 느낌	188
[그림 4-36]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느낌	189
[그림 4-37] 내가 원할 때 함께 있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낌	190
[그림 4-38]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낌	191
[그림 4-39]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으로 느낌	192
[그림 4-40]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함	193
[그림 4-41]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낌	194
[그림 4-42] 타인들로부터 고립감 느낌	195
[그림 4-43]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방법	196
[그림 4-44]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전문가와 대화, 상담하지 않은 이유 (복수 선택)	201
[그림 4-45]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본인 활용해본 방법 중 가장 도움 된 방법 - 1+2 순위 ..	203
[그림 4-46] 과거의 경험 여부	204
[그림 4-47] 과거 경험의 부정적 영향 수준	204
[그림 4-48] 행복감	222
[그림 4-49] 코로나 19 발생 전후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변화 정도	223
[그림 4-50]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고립 문제 심각 정도	224
[그림 4-51] 우리 사회의 고독사 문제 심각 정도	225
[그림 4-52] 본인에게도 고독사의 위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226
[그림 4-53] 주관적 신체적 건강 수준	227
[그림 4-54] 우울수준	229
[그림 4-55] 최근 1 년 동안 자살 생각	230
[그림 4-56] 최근 1 년 동안 자살계획	231
[그림 4-57] 최근 1 년 동안 자살 시도	232
[그림 4-58] 청년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 등 해소 위해 필요한 자원 - 1+2 순위 (1)	234
[그림 4-59]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이용하기 위해 전문가 만나야 한다면 선호 방법	235
[그림 6-1] 정책적 제언	282

요 약

I.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대전광역시를 범위로 만18세~39세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실천적 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신사회적 위험의 발생으로 청년세대가 직면한 위험이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문제로 인정되고 있음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는 요인이 다양해지고 정도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건강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야기함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의제가 되었고 국내외에서 관련 법,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적극적 대응이 실현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로 청년의 고립문제가 심화되었고 그 영향력은 계속 청년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연구질문
 - 대전시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수준은 어떠한가?
 - 위험군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수준은 비위험군 청년과 차이가 있는가?
 - 코로나19 전후 청년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외로움: 개인이 갖는 보편적이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
- 사회적 고립: 사회적으로 관계망이 적고 교류하지 않는 단절된 상태를 의미

III.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실태

□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2년 10월 19일~10월 28일

- 조사방법: 조사기관이 보유한 온라인 패널 대상 웹 설문
- 최종완료: 905명
- 분석방법: SPSS 통계 패키지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카이제곱 검정, t-test, ANOVA검정 실시
- 응답자 주요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905	100.0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58.8
	대학생	173	19.1
	취준생	200	22.1
성별	남성	338	37.3
	여성	567	62.7
연령대	20대	422	46.6
	30대	483	53.4
외로움 위험군	위험군	88	9.7
	비위험군	817	90.3

□ 주요 결과

- 외출에 관한 사항에서는 응답 청년의 일부가 ‘필수생활을 위해서만 집 밖으로 외출’하거나 ‘자기방,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청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은 사적영역으로 한정되어 있음
- 청년이 타인과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을 때, 단순한 응답률 정도의 비교이지만 비대면 보다는 대면 교류가 비교적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음
-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외로움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중간을 약간 웃도는 정도의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음
-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에는 청년이 경험한 다양한 경험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음

IV. 사회적 고립 위험군 실태분석

□ 분석 개요

- UCLA외로움 척도를 활용한 16번의 18개 문항을 활용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여 4점 만점 중 3점 이상을 ‘위험군’, 3점 미만을 ‘비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집단을 구분

구분		사례수	비율
외로움 위험군	위험군	88	9.7
	비위험군	817	90.3

□ 주요 결과

- 위험군과 비위험군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음. 즉, 청년의 보편적인 특성이 두 집단 모두에게 있기도 하며 동시에 위험군이 갖는 독특한 특성이 있음
- 건강과 관련된 지표에서 위험군의 수준이 낮았음
- 위험군은 평소의 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더 오랫동안 이러한 외출경향을 가짐
- 위험군의 경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았음
- 위험군이 가족, 친인척, 친구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대면, 비대면 교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위험군을 외로움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한 만큼 전반적인 외로움 영역에서 위험군이 느끼는 외로움의 정도가 비위험군에 비해서 높았음
- 위험군의 경우 비위험군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험을 더욱 많이 경험하였고 그 영향력 또한 더욱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V. 코로나19와 청년의 삶

□ 조사개요

- 분석자료: 2019년과 2021년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 분석대상: 만20세~39세 청년 총5,400명(자료의 한계로 만18세부터 반영하지 못함)

□ 주요 결과

- 일상의 변화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원격 및 유연근무제 확산, 배송배달 증가, 집에서 하는 여가와 취미 증가, 직장 회식 감소에 긍정적이었음
- 가족과의 소통이 증가한 반면, 가족관계에서는 불만족한 경향이 높아짐
-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직장 구성원 간의 소통이나 세대 간 소통은 감소하고 이웃 간의 소통이 소폭 증가함
- 일자리와 관련하여 소득수준 만족, 소비생활 만족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후로 낮아짐
- 복지서비스의 경우 고용(취업)지원서비스가 크게 증가하였고, 소득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한 것을 보아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확인할 수 있었음

VI. 제언도출

- 청년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
 - 조례를 통한 법적 기반 마련
 -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로의 재편
 - 대전 청년 포털 등 청년 플랫폼의 기능 고도화
 - 청년을 대상으로 한 광역-기초 전달체계의 개편
 -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마련
- 청년 대상 서비스 강화
 - 위험도 진단
 - 발굴
 - 지역사회유관기관을 통한 공모사업 실시 및 인센티브 제공
 - 청년 접점 홍보를 통한 발굴전략 마련
 - 지원
 - 공적 지원구조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한 청년자조모임 등 청년조직 운영
 - 위험군 청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 외로움과 고립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적 대응 전략 마련
 -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전략 개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를 범위로 만18세~39세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실천적 개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년기는 다른 생애주기보다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대이며 동시에 취업, 결혼 등 삶에 중요한 이행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사회정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아픔과 고생은 청춘의 당연한 몫이었으며 이를 딛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라는 통념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범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 빈곤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청년세대가 직면한 위험이 더 이상 청년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소득, 고용, 건강, 주거, 안전, 관계 등의 복합적 문제는 청년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주목하고자 한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외로움이 가지고 오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실제 정책화되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가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은 영국으로 영국은 2018년 1월 외로움부(Ministry of Loneliness)를 설립하여 우울증, 고독, 외로움 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임을 분명히 공표하고 있다(윤혜준, 2018). 우리나라에서도 광주, 부산, 강원 횡성군, 대구 수성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로움에 대한 조례, 센터 등의 설립을 도모하면서 이를 사회문제로 대응해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외로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사실 외로움은 전 시대에 걸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보편적인 감정이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사람들 간의 교류가 단절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가 표면 위로 등장하게 되었고 일각에서는 외로움 자체를 하나의 사회적 질병이라 주장하고 있다(노리나 허츠, 2021). 외로움이라는 것은 단지 혼자 있어서 발생하는 감정만이 아니며 오늘날의 개인들이 살면서 겪는 소외감, 배제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로 이는 곧 사회적 관계가 상실된다는 것은 존엄한 삶이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제약가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관계의 문제로 인해 파생된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단순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외로움 등은 건강의 문제이다. 영국의 외로움부의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조 콕스의 고독문제대책보고서에서는 고독감을 느낀 사람의 38%가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3/1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기 힘들 정도의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The Joe Cox Loneliness Commission on Loneliness(이하 TJCLCL), 2017; 윤혜준, 2018 재인용). 또한 이에 따르면 고독은 알코올의존증은 물론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개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비만보다는 2배 이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JCLCL, 2017; 윤혜준, 2018 재인용).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와해시키는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으로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되었다.

동시에 외로움은 경제적 문제로, 외로움과 고립 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고립의 사회적 비용을 추계한 김성아(2022)에 따르면 고립된 자를 행복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반 가구소득의 4.79배의 비용이 필요하며, 청년기 은둔형 외톨이를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1인당 약 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 경제활동인구인 청년 한 명이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기회비용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처럼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교류가 단절된 상황은 이미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이러한 문제를 논하는 데 청년이 주요 대상은 아니었다. 노인 등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다수 연구되면서(김영범, 2021; 송선주, 고성희, 김지영, 김현경, 2022; 최희경, 이선희, 2022) 청년의 고립 등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하지만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청년기라는 생애주기가 갖는 특성상 다른 연령층과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또한 결과 역시 청년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을 가져오는 등 그 발생과 결과적 맥락이 상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년이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실재를 이해하고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청년의 고립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청년의 사회활동은 철저히 줄어들었다. 대학의 비대면 수업이나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타인을 만날 기회 자체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뿐 만 아니라 코로나19가 미친 사회경제적 파급력은 취업 등 청년기에 이행해야 하는 과업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청년은 고립감, 우울증 등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였으며(강진호, 박아름, 한승태, 2020),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는 다른 어떤 세대보다 청년층이 코로나로 인해 정신건강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a, 2021). 비록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강요된 사회적 단절은 일정부분 완화되었지만, 삶의 연속선상에서 당시의 경험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지금의 정신건강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드(with)코로나19로 돌입한 지금, 즉 코로나19의 이후 시기에도 코로나19의 영향력을 고민하고 코로나

19에서부터 고통받았던 청년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다라는 느낌을 청년이 받게 된다면 이는 청년세대의 미래에 대한 견해와 기대를 더욱 비관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청년들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Mascherini, 2022).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이에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청년의 안녕(well-being)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친화도시 대전’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광역시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위험군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수준은 비위험군 청년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코로나19 전후 청년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제2절 연구 내용

전반적인 연구의 흐름 및 진행 과정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1단계 연구설계, 2단계 조사연구, 3단계 제언도출,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의 과정을 거쳤다.

[표1-1] 연구의 흐름 및 진행 과정

단계	구 분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1단계 연구설계	연구방향 수립	8월	- 고독사의 개념 정의 및 특성 도출 - 전문가 자문회의
2단계 조사연구	↓		
	문헌분석	9월 2주	관련 선행연구 분석
	설문조사	9~10월	- 설문지표 개발 -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3단계 제언도출	2차자료 분석	9~10월	2차 자료 분석 - 사회조사를 활용한 코로나19 전후 비교
	↓		
3단계 제언도출	정책적·실천적 제언도출	11월	-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도출 - 전문가 자문 실시
4단계 최종보고	↓		
	보고서 수정 및 보완	11~12월	- 평가 및 연구설명회 - 평가결과 반영
4단계 최종보고	↓		
	결과 보고회 및 보고서 발간	12월	- 연구보고서 발간 - 기타 행정업무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 정립

제2절 청년과 코로나19 팬데믹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 정립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분명히 구분 짓기는 어려운 개념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동일한 개념으로 여겨지는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는 연구자 역시 외로움 안에 사회적 고립을 포함하기도 하며, 반대로 사회적 고립 안에 외로움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처럼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분리된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외로움이란 무엇일까? 외로움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감정 중 하나로 외로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외로움이란 개념은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다. 선행연구에서는 외로움을 4가지 이론적 접근을 통해 이해한다(서영석, 안수정, 김현진, 고세인, 2020).

첫째, 사회욕구 접근이다. 대표적으로 Weiss(1973)의 주장에 따르면 외로움은 ‘관계 결핍으로 인한 좌절반응’이며(서영석 외, 2020) 애착, 사회적 통합, 양육, 가치의 재확인, 의지할 수 있다는 감각, 문제적 상황에 대한 도움과 같이 6가지 관계적 기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았다(Weiss, 1973; 황수진 외, 2021 재인용). 예컨대, 누구든지 나이와 대상을 불문하고 부모, 연인, 또래, 배우자 등 애착 대상의 상실과 부재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고 이러한 고통이 외로움의 정수가 되는 것이다(Heinrich & Gullone, 2006; 서영석 외, 2020 재인용).

둘째, 인지적 접근으로 Perlman & Peplau(1981)는 인간이 현재의 대인관계 상황이 양적, 질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고 지각할 때 외로움이라는 불쾌한 감정을 경험한다고 보았다(서영석 외, 2020; 황수진 외, 2021). 이는 앞선 사회욕구 접근과 다른 것으로 사회욕구 접근이 관계에서의 결핍에 초점을 둔다면, 인지적 접근은 개인이 관계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주관적 평가를 내리는지에 따라 소망과 평가의 간극에 초점을 두었다(서영석 외, 2020). 결국 외로움이라는 것이 양적인 객관적 고립상태만이 아니라 질적인 주관적 경험에서도 발생하며, 결핍과 같은 병리적 측면보다는 일반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 이해되는 것이다(서영석 외, 2020). 한편, 외로움을 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사회적 관계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와 평가가 외로움의 바탕이 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서

영석 외, 2020; 강수현, 이동형, 최주희, 2022). Anderson, Horowitz, French(1983)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은 외롭지 않은 사람보다 상대방의 의도와 행동을 훨씬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였으며, Duck & Leatham(1994)도 외로운 사람은 긍정적인 피드백보다 부정적인 피드백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강수현 외, 2022). 즉,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외로움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셋째, 실존적 관점에서의 외로움이다. 여기에서의 외로움은 ‘공허하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정서적 반응’으로 이해된다(서영석 외, 2020). 외로움이 인지적 접근에서의 주관적 평가나 사회욕구 접근에서 관계욕구의 결핍이라기보다는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모든 인간이 불가피하게 경험하는 정서 상태로 사람마다 외로움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중요하게 보게 된다(서영석 외, 2020).

네 번째는 상호영향론적 접근으로 앞선 세 가지 접근이 외로움을 개인의 반응으로 한정한 것에 비하여 외로움은 맥락, 문화, 시간 등의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 개인적 요인과 문화·상황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서영석 외, 2020). 예컨대 배우자의 사별은 애착대상의 상실로 인한 부정적 경험은 물론 배우자와 형성했던 사회적 연결망의 축소로 사회적 외로움까지 나타나는 것이다(서영석 외, 2020).

결과적으로 사회욕구 접근에서는 ‘관계욕구의 좌절’, 인지적 접근에서는 ‘주관적 경험’, 실존적 접근에서는 ‘고통스러운 정서’, 상호영향론적 접근에서는 ‘상황과 맥락적 차이’를 강조하면서 외로움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얼마나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서영석 외, 2020). 박주홍(2021)의 연구에서도 외로움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지만 이러한 감정의 유발 상황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어 외로움의 복합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최현영, 이동혁(2016)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외로움과 사회적 외로움으로 구분하여, 정서적 외로움을 자신이 좋아하는 친한 친구나 부모, 배우자 등 중요한 애착 대상이 없을 때 나타나는 쓸쓸함, 불안, 불안정한 느낌으로 보았고, 사회적 외로움은 공통된 관심과 활동을 공유하는 친구나 동료집단에 소속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연결망이 없거나 붕괴되었을 때 나타나는 상실감, 지루함, 사회적 배제의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정서적·사회적 외로움 모두 느낌과 감정처럼 개인이 느끼는 것으로 귀결되지만, 사회적 외로움은 정서적 외로움과 달리 사회적 활동, 연결망 등에 대한 소속의 부재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접근한 것이다. 즉, 같은 부정적 감정이라도 개인적 관계에서의 기인인지, 사회적 관계에서의 기인인지의 영향력을 구분하여 접근한 것이다.

한편, 사회적 고립은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대부분의 연구자는 사회적 고립이 갖는 특성을 중심으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유민상, 신동훈, 2021). 특히, 이러한 특성을 강조

하고 있는 유민상, 신동훈(202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한 개인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외부적 고립과 내부적 고립으로 구분하였다. 외부적 고립은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망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사회적 연락, 사회적 지원, 개인 간 정서적 교류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고, 내부적 고립은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상태로 인지된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의 개념을 통해 이해하고 있다. 또한, 류주연, 김수진, 성기옥(2022)의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 관계의 양이나 질이 낮은 수준이라고 정의하였고 질적인 수준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외로움의 감정을 적용하여 이해하였다.

이처럼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에서는 결국 외로움이라는 개념 안에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며 사회적 고립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반대로 사회적 고립의 개념 안에 ‘내적인 상태’로 외로움이 포함된 것이다. 이에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각 개념의 성격은 비교적 일관된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연구에서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이려정, 정병웅, 2020; 강수현, 이동형, 최주희, 2022). 이에 외로움은 주관적인 질적 평가를 통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 사회적 고립은 집단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배척당하는 관계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객관성과 주관성을 기준으로 사회적 고립은 객관성으로 ‘개인이 개별집단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적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부족으로 생기는 것’, 외로움은 주관성으로 ‘우리가 갖고 싶은 관계와 실제 가진 관계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경험하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이다(HM Government, 2018; 박주홍, 2021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이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구분함으로써 각각이 갖는 특성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이라는 드러나는 단절의 상태만이 아니라 고립되지 않더라도 경험할 수 있는 개인의 외로움을 별개로 다루게 됨으로써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관계에 기인한 고통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될 수 있는 만큼, 외로움이라는 개념을 분리하여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더라도 개인이 경험하는 외로움이 클 수 있고 그것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외로움이란 개인이 갖는 보편적이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며, 사회적 고립이란 사회적으로 관계망이 적고 교류하지 않는 단절된 상태를 의미한다.

제2절 청년과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 하에서 기존의 일상은 더 이상 일상이 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며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만들어내는 사회경제적인 위축과 감염병에 대한 위험이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삶에도 많은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락다운(lockdown) 수준의 극단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코로나확진자의 발생에 따라 특정 장소가 폐쇄되기도 하였고 다수의 재택근무, 재택수업 등으로 사회적인 대면 교류가 현저히 줄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삶은 많은 부분이 변화하였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영역이 정신건강이다. 코로나19 초기에는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모든 사람이 고립과 외출 자제 등이 이루어지면서 다수의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않거나 일상을 잃어버리고 단절된 생활을 지속하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이은환, 2020; 이소영, 최혜진, 2021). 실제 많은 연구자는 코로나19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보고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초기 몇 달간 사람들의 우울, 불안, 정신적 괴로움이 증가하였음을 밝혔다(Pierce et al., 2021; Aknin et al., 2022; 배정희, 2022 재인용).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코로나 블루’인 만큼 코로나가 정신건강 영역에 야기하는 개인의 우울감이나 무력감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

한편, 이처럼 코로나19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청년을 향한 코로나19의 위협은 다른 어떤 세대 못지않게 심각하였다(최상미, 주영선, 2021; 임윤서, 2022). 청년 대상의 복지체계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한계는 청년에 대한 위협으로 고스란히 다가왔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은 생애주기상 노동시장 참여와 사회활동 등 다른 세대에 비하여 활발하게 타인과 접촉하고 활동하며 여가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세대라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야기한 비접촉, 단절 등의 상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적 위험은 취업으로 이행해야 하는 청년세대의 취업 등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 어려움은 청년으로 하여금 좌절감, 실패감, 우울감, 자살생각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 관계의 단절, 가족과의 갈등과 같은 다각적인 사회적 어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최상미, 주영선, 2021). 또한 남재욱(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자살 충동 경험이 5%이상 증가하여 청년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최상미, 주영선, 2021 재인용).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이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 상황은 청년의 삶 전반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우울, 자살생각 등과 같은 정신건강 관련 지표의 급격한 상승

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서울시청년활동센터, 2021). 이러한 선행연구는 오늘날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정신건강과도 밀접히 관련된 영역인 만큼 코로나19 팬데믹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삶에 가져온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실태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분석결과

제3절 소결



제3장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실태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및 조사설계 기본방향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을 주제로 수준과 특성 등을 이해하는 것이 조사의 주요 방향이다. 하지만 조사내용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 단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수준만을 살펴본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에서 드러나듯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어떤 청년에게 어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양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건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청년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수준과 특성을 비롯하여 나아가 관련한 인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만이 아니라 사회적 교류라는 개념을 함께 활용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세 가지 개념을 모두 활용해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년기의 특성을 포함하고자 시도하였다. 더불어 청년기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를 사정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고독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여 청년의 제반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수준과 관련하여 의미 있게 살펴보아야 하는 청년의 삶 관련 문항을 설문조사에 포함하였다. 대표적으로 건강의 영역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 활동의 어려움, 자살 등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다.

셋째, 청년의 욕구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과 서비스 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청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외로움 등과 관련된 정책이나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할 때 어떤 전달체계로, 어떤 내용으로 전달되어야 할지 등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넷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청년에게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은 학교생활이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저해하면서 실질적인 고립의 문제를 야기한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청년들이 실제 본인들의 삶이 코로나 발생 전과 비교하여 위드

(with) 코로나 시대로 들어 온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응답자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어떤 특성을 가진 청년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수준이 높은지 등을 심도 있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라는 특수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하고자 한다. 이에 경제적 독립 수준, 취업 준비 여부 등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이 외에도 대전시 정주에 관한 문항 등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교류와 외로움·사회적 고립, 건강, 정책수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한 인식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으로 조사영역을 구성하였다. 세부 문항은 기존의 선행연구 및 설문조사 지표를 검토하여 도출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문항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의 문항을 인용하거나 수정 및 보완, 추가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더불어 연구의 방향에 맞게 연구진이 필요 문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로 이루어진 자문단 및 현장 전문가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설문 문항을 고도화하였다.

1) 사회적 교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1)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의 수준

① UCLA 외로움 척도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UCLA 외로움 척도를 활용하였다. UCLA 외로움 척도를 활용한 이유는 국내 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온 척도로써 외로움 등과 관련된 통합적 이해를 통해 개발되어 외로움을 관계 욕구 좌절, 주관적 경험, 고통스러운 정서 등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면서 외로움이라는 개념이 가진 통합적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서영석 외, 2020). 구체적으로 진은주, 황석현(2019)가 변안한 Russell(1996)의 UCLA Loneliness Scale(Version3) 20문항을 18문항으로 수정한 유민상, 신동훈(2021)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② 사회적 관계망

청년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양을 통해 사회적 고립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항을 포함하였다.

첫째, 외출의 빈도와 이를 지속한 기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민상, 신동훈(2021)의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을 참고하였다. 구체적으로 평소에 얼마나 외출하는지를 질문하고,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 기간, 나아가 이러한 상태가 된 계기에 대해 질문하였다.

둘째,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망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2019), 이문웅(1998), 김재우(2015)의 연구에 기반한 관련 문항을 구축한 유민상, 신동훈(2021)의 지표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유민상, 신동훈(2021)의 연구에서 나아가 문항별 자원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나 자원을 활용하는지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셋째, 타인과의 실질적인 교류 수준을 측정하였다. 청년은 대면만이 아니라 온라인 등 비대면 교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물리적 연결망은 낮을지라도 온라인으로는 적극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도 있는 등 오늘날 청년이 경험하는 교류의 맥락을 다각적으로 반영한 것이다(유민상, 신동훈, 2021). 이를 위하여 유민상, 신동훈(2021)의 연구에서 활용한 대면 교류와 비대면 교류 문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2)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의 원인

청년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의 원인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류정희 외(2018), 임형문 외(2020), 유민상, 신동훈(2021)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총 17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각 문항의 경험이 있을 경우 그 경험이 현재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10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3)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현황

소속감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 특성과 현황을 보여줄 수 있다(유민상, 신동훈, 2021). 소속감은 온라인(비대면)과 오프라인(대면)에서의 소속감을 모두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유민상, 신동훈(2021)이 청년의 생태체계를 고려해 개발한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4)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의 대응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청년들의 노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2020)의 서울청년실태조사의 문항을 전면 수정보완하여 평소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활용하는 9개의 방법에 대한 활용 정도를 질문하고 이 중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전문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자 서울청년실태조사 문항을 기반으로 관련 문항을 수정해 전문가를 만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5)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의 결과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이 청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이 스스로의 행복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를 10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2) 건강

건강의 중요성을 토대로 건강관련 영역을 설문 문항에 포함하였다. 건강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운동과 음주, 흡연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2021)와 서울청소년실태조사(2020)의 조사표를 부분적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건강수준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신체적 건강은 신체적으로 스스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주관적 인식에 대한 문항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정신적 건강은 우울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건강검진사업에서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PHQ-9척도를 사용하였다. PHQ-9척도는 0~3점을 부여하여 0~4점까지는 우울증 아님, 5~9점은 가벼운 우울증, 10~19점은 중간 정도 우울증, 20~27점은 심한 우울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보건복지부b, 2021). 더불어 자살에 관한 3문항을 추가하여 정신건강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자살에 대한 측정 문항은 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 수준에 따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문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신체 및 정신건강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중심주제

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초점을 두고 지표를 개발하여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현재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항은 2021 서울서베이의 코로나19 설문문항을 기본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4)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한 인식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한 인식은 3개의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먼저, 우리사회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고독사라는 심각한 상황이 본인에게도 발생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질문하였다.

5) 정책 수요

정책 수요에 대한 문항은 유민상, 신동훈(2021)이 개발한 문항을 기반으로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에 기존 설문 문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 더하여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관련 정책영역을 부분적으로 추가하였다. 더불어 유민상, 신동훈(2021)의 연구에서 활용한 상담 서비스에 대한 선호 방식을 일부 수정하여 전문가 대면에 대한 서비스 이용 방법을 질문하였다.

3. 조사 진행 과정

조사기간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로 조사기관이 보유한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웹 설문 참여 링크를 발송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기관 보유 온라인 패널은 전국 기준 약 400,000명 규모로, 일정 주기로 갱신된 패널 정보를 통해 설문 참여 요청 대상자를 1차로 분류하고, 이후 검증 문항을 통해 응답 자격을 검증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응답 자격은 대전광역시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으로, 연령은 조사 시점인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1982년 11월 이후부터 2004년 10월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설문 참여 요청 발송 수는 12,926건이고, 발송된 링크를 통해 조사에 참여한 수는 2,064건, 최종 완료 표본 수는 905건으로, 응답률은 조사 참여 요청 대비 7.0%, 조사 참여 대비 43.8%로 나타났다.

[표3-1] 패널조사 응답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조사 참여 요청 (A)		12,926
조사 참여 (B)		2,064
응답 제외 (C)	조건 미달 탈락	875
	응답 도중 중단	272
응답 완료 (D = B-C)		917
불량/불성실 응답 (E)		12
최종 유효 표본수 (F = D-E)		905
구분		비율
응답률	조사 참여 요청 대비 (F/A)	7.0
	조사 참여 대비 (F/B)	43.8

4. 분석방법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Raw Data)는 cleaning 과정을 거쳐 통계 프로그램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항별 결과는 열(Row)에 따라 백분율로 산출되며 결과값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값이 제시되기 때문에 백분율 합산 시 라운딩 에러(반올림 오차)가 나타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카이제곱 검정, t-test, ANOVA검정을 실시하였다. ANOVA의 경우 사후분석을 위해 Scheffé방법을 활용하였다.

응답자 특성은 사회적 역할, 성별, 연령대로 구분했다. 이때 사회적 역할은 ‘직장인’, ‘대학생’, ‘취준생’으로 나누었는데 ‘직장인’의 경우 현재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학생, 대학원생과 같이 학생이 아닌 경우로 정의하였다. ‘대학생’은 최종학력이 전문대 이상 재학 중인 사람으로 현재 학교를 다니거나 휴학 중인 사람을 의미한다. 이 외는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들의 대표적인 특성은 학생이 아니며 전일제 직장인으로 근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구직 의사를 가지고 있는 시간제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을 ‘취준생’으로 분류했다. 편의상 ‘취준생’으로 명명하기는 하였지만, 이들 모두가 취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준생’으로 구분되었기는 하지만 실제 취업을 준비하

지 않는 경우가 있어 육아나 출산을 위하여 일하고 있지 않은 집단 또한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학생도 아닌 경우이기에 ‘취준생’으로 구분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연령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구분하여 ‘20대 이하(이하 20대)’와 ‘30대’로 구분하였다.

[표3-2]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905	100.0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58.8
	대학생	173	19.1
	취준생	200	22.1
성별	남성	338	37.3
	여성	567	62.7
연령대	20대	422	46.6
	30대	483	53.4
외로움 위험군	위험군	88	9.7
	비위험군	817	90.3

제2절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전체 집단

조사응답자 전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성별, 연령대, 거주지, 최종학력, 사회적 역할, 가구원수, 혼인상태, 자녀수, 주거유형, 주거점유형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은 ‘남성’이 338명(37.3%), ‘여성’ 567명(62.7%)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로는 ‘20대’(만18세~29세)가 422명(46.6%), ‘30대’(만30세~39세)가 53.4%로 30대가 조금 더 많았다. 거주지는 ‘서구’, ‘유성구’, ‘동구’, ‘중구’, ‘대덕구’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으로는 ‘대학교 졸업’이 416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전문대학 졸업’(13.3%), ‘고등학교 졸업’(12.7%), ‘대학교 재·휴학’(11.7%), ‘대학원 졸업’(7.1%), ‘전문대학 재·휴학’(4.3%), ‘대학원 재·휴학’(3.1%), ‘중학교 졸업’(1.9%)이 따랐다. 사회적 역할은 ‘직장인’이 532명(58.8%)로 과반수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취준생’이 200명(22.1%), ‘대

학생'이 173명(19.1%)의 순이었다.

가구원수는 '1명', 즉 혼자 사는 경우가 25.3%였으며, '2명'인 경우는 22.4%, '3명'인 경우는 23.9%, '4명 이상'인 경우는 28.4%로 '4명 이상'이 함께 사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594명(65.6%)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은 262명(29.0%)이었다. 이 외에도 '사실혼'이 29명(3.2%), '사별, 이혼, 별거'가 20명(2.2%)으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와 관련없이 자녀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자녀가 없는 경우'가 80.7%로 대부분이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는 19.3%였다.

주거관련 문항을 살펴보면, 주거유형은 '아파트'가 57.9%로 가장 많았고 '연립/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이 28.3%, '단독주택'이 9.1%,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2.7%, '기숙사' 1.8%, '고시원' 0.3%이 뒤를 따랐다. 주거점유 형태는 '자가'가 421명(46.7%), '보증금이 있는 월세나 사글세' 220명(24.4%), '전세' 218명(24.2%), '보증금이 없는 월세나 사글세' 28명(3.1%), '무상'이 15명(1.7%)으로 나타났다.

[표3-3] 인구사회학적 특성(N = 905)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338	37.3
	여성	567	62.7
연령	20대	422	46.6
	30대	483	53.4
거주지	동구	133	14.7
	중구	116	12.8
	서구	308	34.0
	유성구	261	28.8
	대덕구	87	9.6
최종 학력	중학교졸업	17	1.9
	고등학교졸업	115	12.7
	전문대학재휴학	39	4.3
	전문대학 졸업	120	13.3
	대학교 재휴학	106	11.7
	대학교 졸업	416	46.0
	대학원 재휴학	28	3.1
	대학원 졸업	64	7.1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58.8
	대학생	173	19.1
	취준생	200	22.1
가구원수	1명	229	25.3
	2명	203	22.4
	3명	216	23.9
	4명 이상	257	28.4
혼인상태	미혼	594	65.6
	기혼	262	29.0
	사실혼	29	3.2
	사별, 이혼, 별거	20	2.2
자녀수	없다	730	80.7
	있다	175	19.3
주거 유형	단독주택	82	9.1
	아파트	524	57.9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256	28.3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4	2.7
	기숙사	16	1.8
	고시원	3	0.3
주거점유 형태	자가	421	46.7
	전세	218	24.2
	월세, 사글세(보증금 유)	220	24.4
	월세, 사글세(보증금 무)	28	3.1
	무상	15	1.7

2) 사회적 역할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역할에 따라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은 직장인, 대학생, 취준생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대학생과 취준생의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직장인은 '30대'가 64.1%로 많았으며, 대학생은 '20대'가 74.0%로 대부분이었고, 취준생은 '20대'와 '30대'가 비교적 유사한 비율이었다. 거주지를 살펴보면, 직장인은 '서구'(36.5%), '유성구'(30.4%), '동구'(13.5%), '중구'(11.7%), '대덕구'(7.9%)의 순이었고, 대학생은 '서구'와 '유성구'(27.8%), '중구'(18.5%), '동구'(14.4%), '대덕구'(11.5%)였다. 취준생은 '서구'(33.0%), '유성구'(25.5%), '동구'(18.0%), '대덕구'(12.5%), '중구'(11.0%)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최종학력의 경우 직장인과 취준생은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대학생은 '대학교 재휴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직장인의 경우 '3명 이상'이 26.5%로 가장 많았으나 '1명'인 경우도 26.1%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학생과 취준생의 경우 '4명 이상'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로는 '미혼'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기혼'은 직장인의 경우가 34.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취준생에서도 '기혼'은 28.5%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준생으로 명명하기는 하였지만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 응답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자녀 수는 전반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집단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 직장인 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

주거유형은 직장인의 경우 '아파트' 거주가 60.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이 28.8%로 뒤를 이었다. 대학생과 취준생도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는데 다만, 대학생의 경우 '기숙사'에 거주하는 비율이 6.9%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거점유형태로는 직장인, 대학생, 취준생 모두 '자가'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직장인은 그 뒤를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나 사글세' 등의 순이었던 반면, 대학생과 취준생은 '보증금이 있는 월세나 사글세', '전세' 등의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표3-4] 사회적 역할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직장인 (n = 532)		대학생 (n = 173)		취준생 (n = 200)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21	41.5	57	33.0	60	30.0	10.044**
	여성	311	58.5	116	67.0	140	70.0	
연령	20대 이하	191	35.9	128	74.0	103	51.5	78.539***
	30대	341	64.1	45	26.0	97	48.5	
거주지	동구	72	13.5	25	14.4	36	18.0	15.785*
	중구	62	11.7	32	18.5	22	11.0	
	서구	194	36.5	48	27.8	66	33.0	
	유성구	162	30.4	48	27.8	51	25.5	
	대덕구	42	7.9	20	11.5	25	12.5	
최종 학력	중학교졸업	1	0.2	0	0.0	16	8.0	982.702***
	고등학교졸업	70	13.2	0	0.0	45	22.5	
	전문대학재휴학	0	0.0	39	22.5	0	0.0	
	전문대학 졸업	78	14.7	0	0.0	42	21.0	
	대학교 재휴학	0	0.0	106	61.3	0	0.0	
	대학교 졸업	329	61.8	0	0.0	87	43.5	
	대학원 재휴학	0	0.0	28	16.2	10	5.0	
가구원수	대학원 졸업	54	10.2	0	0.0	10	5.0	14.384*
	1명	139	26.1	44	25.4	46	23.0	
	2명	124	23.3	34	19.7	45	22.5	
	3명	141	26.5	32	18.5	43	21.5	
혼인상태	4명 이상	128	24.1	63	36.4	66	33.0	30.5223***
	미혼	322	60.5	135	78.0	137	68.5	
	기혼	181	34.0	24	13.9	57	28.5	
	사실혼	19	3.6	7	4.0	3	1.5	
자녀수	사별, 이혼, 별거	10	1.9	7	4.0	3	1.5	11.998**
	없다	413	77.6	155	89.6	162	81.0	
주거 유형	있다	119	22.4	18	10.4	38	19.0	56.931***
	단독주택	46	8.6	14	8.1	22	11.0	
	아파트	320	60.2	91	52.6	113	56.5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53	28.8	45	26.0	58	29.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0	1.9	11	6.4	3	1.5	
	가속사	3	0.6	12	6.9	1	0.5	
주거점유 형태	고시원	0	0.0	0	0.0	3	1.5	67.560***
	자가	253	47.7	74	43.0	94	47.0	
	전세	151	28.5	27	15.7	40	20.0	
	월세, 사글세(보증금 유)	114	21.5	53	30.8	53	26.5	
	월세, 사글세(보증금 무)	9	1.7	12	7.0	7	3.5	
	무상	3	0.6	6	3.5	6	3.0	

* $p < .05$, ** $p < .01$, *** $p < .001$

3)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성별에 따라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해보았다. 연령별로는 남성은 '20대'가 34.5%, '30대'가 65.4%로 '30대'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20대'가 53.8%로 '30대'(46.2%)에 비해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거주지역은 남성의 경우 '유성구'(31.4%), '서구'(30.8%), '동구'(16.9%) 등의 순이었고 여성은 '유성구'(37.3%), '서구'(36.0%), '중구'(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력의 경우 남성은 '대학교 졸업'(48.8%), '고등학교 졸업'(17.2%), '대학교 재휴학'(10.4%), '전문대학 졸업'(7.4%) 등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대학교 졸업'(44.3%), '전문대학 졸업'(16.8%), '대학교 재휴학'(16.8%), '고등학교 졸업'(10.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역할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직장인', '취준생', '대학생'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직장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는 '취준생'의 비중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의 경우에는 응답자 본인을 포함하여 남성은 '3명'(28.4%), '4명 이상'(27.2%), '1명'(24.9%), '2명'(19.5%)의 순이었고, 여성은 '4명 이상'(29.1%), '1명'(25.6%), '2명'(24.2%), '3명'(21.2%)의 순으로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혼인상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미혼'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뒤는 '기혼', '사실혼', '사별, 이혼, 별거'의 순이었다. 자녀 유무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주거 관련 영역에서는 주거유형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거점유 형태는 남성의 경우 '자가'(50.9%), '전세'(22.9%), '보증금이 있는 월세나 사글세'(21.1%)의 순서였고 여성은 '자가'(44.2%), '보증금이 있는 월세나 사글세'(26.3%), '전세'(24.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3-5]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남성 (n = 338)		여성 (n = 567)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20대 이하	117	34.6	305	53.8	31.292***
	30대	221	65.4	262	46.2	
거주지	동구	57	16.9	76	13.4	6.887
	중구	36	10.7	80	14.1	
	서구	104	30.8	204	36.0	
	유성구	106	31.4	155	37.3	
	대덕구	35	10.4	52	9.2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2	0.6	15	2.6	33.078***
	고등학교 졸업	58	17.2	57	10.1	
	전문대학 재휴학	12	3.6	27	4.8	
	전문대학 졸업	25	7.4	95	16.8	
	대학교 재휴학	35	10.4	71	12.5	
	대학교 졸업	165	48.8	251	44.3	
	대학원 재휴학	10	3.0	18	3.2	
	대학원 졸업	31	9.2	33	5.8	
사회적 역할	직장인	221	65.4	311	54.9	10.044**
	대학생	57	16.9	116	20.5	
	취준생	60	17.8	140	24.7	
가구원수	1명	84	24.9	145	25.6	6.985
	2명	66	19.5	137	24.2	
	3명	96	28.4	120	21.2	
	4명 이상	92	27.2	165	29.1	
혼인 상태	미혼	218	64.5	376	66.3	5.540
	기혼	108	32.0	154	27.2	
	사실혼	8	2.4	21	3.7	
	사별, 이혼, 별거	4	1.2	16	2.8	
자녀수	없다	257	76.0	473	83.4	7.406**
	있다	81	24.0	94	16.6	
주거 유형	단독주택	39	11.5	43	7.6	0.190
	아파트	199	58.9	325	57.3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88	26.0	168	29.6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7	2.1	17	3.0	
	기숙사	5	1.5	11	1.9	
	고시원	0	0.0	3	0.5	
주거점유 형태	자가	171	50.9	250	44.2	0.268
	전세	77	22.9	141	24.9	
	전세, 사글세(보증금 유)	71	21.1	149	26.3	
	전세, 사글세(보증금 무)	12	3.6	16	2.8	
	무상	5	1.5	10	1.8	

** $p < .01$, *** $p < .001$

4) 연령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별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20대에서는 ‘남성’이 34.6%, ‘여성’은 53.8%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수가 많았지만 30대에서는 반대로 ‘남성’이 65.4%로 더욱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유의한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거주지의 경우, 20대는 ‘서구’(29.4%), ‘유성구’(28.4%), ‘동구’(18.0%), ‘중구’(12.8%), ‘대덕구’(11.4%)의 순이었고, 30대는 ‘서구’(38.1%), ‘유성구’(29.2%), ‘중구’(12.8%), ‘동구’(11.8%), ‘대덕구’(8.1%)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최종학력은 20대는 ‘대학교 졸업’이 33.6%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재휴학’이 20.6%, ‘고등학교 졸업’ 16.1% 등의 순이었다. 30대에서는 ‘대학교 졸업’(56.7%), ‘전문대학 졸업’(12.4%), ‘고등학교 졸업’(9.7%) 등의 순으로 20대에서는 대학생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사회적 역할에 따라 구분해보면, 20대와 30대 모두 ‘직장인’이 가장 많기는 하였지만 20대에서는 ‘대학생’(30.3%)과 ‘취준생’(24.4%)의 비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가구원 수는 20대의 경우 ‘4명 이상’이 35.1%로 가장 많았고 ‘1명’ 27.7%, ‘3명’ 20.6%, ‘2명’ 16.6%의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30대에서는 ‘3명’이 26.7%로 가장 많았고 ‘2명’(27.5%), ‘3명’(26.7%), ‘1명’(23.2%)의 순으로 나타나 20대 이하와 30대 모두 ‘4명 이상’이 가장 많았으나 20대 이하에서는 1인 가구의 비중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혼인상태로는 20대는 ‘미혼’이 87.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30대에서는 ‘기혼’이 47.2%였다. 자녀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30대는 자녀가 ‘있는 경우’도 32.3%로 20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거유형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20대와 30대 모두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 이하의 경우는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가 30대에 비해서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점유형태는 20대와 30대가 모두 ‘자가’의 비중이 높았다. 다만 30대의 경우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가 28.8%로 나타나 20대보다 상대적으로 주거안정성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3-6] 연령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20대 (n = 422)		30대 (n = 483)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17	4.6	221	65.4	31.292***
	여성	305	53.8	262	46.2	
거주지	동구	76	18.0	57	11.8	13.524***
	중구	54	12.8	62	12.8	
	서구	124	29.4	184	38.1	
	유성구	120	28.4	141	29.2	
	대덕구	48	11.4	39	8.1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17	4.0	0	0.0	146.169***
	고등학교 졸업	68	16.1	47	9.7	
	전문대학 재휴학	22	5.2	17	3.5	
	전문대학 졸업	60	14.2	60	12.4	
	대학교 재휴학	87	20.6	19	3.9	
	대학교 졸업	142	33.6	274	56.7	
	대학원 재휴학	19	4.5	9	1.9	
	대학원 졸업	7	1.7	57	11.8	
사회적 역할	직장인	191	45.3	341	70.6	78.539***
	대학생	128	30.3	45	9.32	
	취준생	103	24.4	97	20.1	
가구원수	1명	117	27.7	112	23.2	29.769***
	2명	70	16.6	133	27.5	
	3명	87	20.6	129	26.7	
	4명 이상	148	35.1	109	22.6	
혼인 상태	미혼	369	87.4	225	46.6	
	기혼	34	8.1	228	47.2	
	사실혼	11	2.6	18	3.7	
	사별, 이혼, 별거	8	1.9	12	2.5	
자녀수	없다	403	95.5	327	67.7	111.559***
	있다	19	4.5	156	32.3	
주거 유형	단독주택	37	8.8	45	9.3	18.662**
	아파트	226	53.6	298	61.7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37	32.5	119	24.6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7	1.7	17	3.5	
	기숙사	13	3.1	3	0.6	
	고시원	2	0.5	1	0.2	
주거점유 형태	자가	188	44.8	233	48.3	27.410***
	전세	79	18.8	139	28.8	
	월세, 사글세(보증금 유)	133	31.7	87	18.0	
	월세, 사글세(보증금 무)	14	3.3	14	2.9	
	무상	6	1.4	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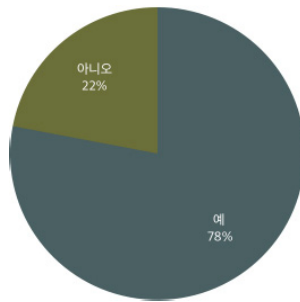
** $p < .01$, *** $p < .001$

2. 경제적 특성

1) 경제활동

(1) 근로 여부

응답자의 근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을 하는 경우’가 78.0%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22.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응답자 특성별로 사회적 역할, 성별, 연령대에 따라 근로 여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대학생의 64.7%와 취업생의 31.0%가 근로활동에 참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3-1] 근로 여부

[표3-7] 근로 여부

단위 : 명, %

구분		계	예		아니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706	78.0	199	22.0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532	100.0	0	0.0	425.390***
	대학생	(173)	112	64.7	61	35.3	
	취준생	(200)	62	31.0	138	69.0	
성별	남성	(338)	284	84.0	54	16.0	11.370***
	여성	(567)	422	74.4	145	25.6	
연령대	20대	(422)	296	70.1	126	29.9	28.542***
	30대	(483)	410	84.9	73	15.1	

*** $p < .001$

(2) 근로 시간

근로 시간에서는 ‘40시간’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시간 미만’(33.0%), ‘40시간 초과’(23.7%) 순이었다. 한편, 응답자 특성별로 사회적 역할, 성별, 연령대에 따라 근로 시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직장인은 ‘40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대학생과 취업생은 ‘40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사회적 역할상 본격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는 대학생과 취업생 집단에서도 ‘40시간 이상’ 일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낮은 수준은 아니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40시간’, ‘40시간 초과’, ‘40시간 미만’의 순이었지만 여성은 ‘40시간’, ‘40시간 미만’, ‘40시간 초과’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로는 20대는 ‘40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고 30대는 40시간이 높았다.

[표3-8] 근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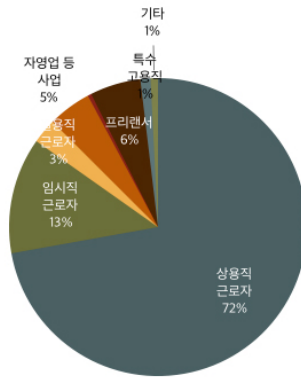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40시간 미만		40시간		40시간 초과		$X^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706)	233	33.0	306	43.3	167	23.7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126	23.7	264	49.6	142	26.7	87.171***
	대학생	(112)	66	58.9	26	23.2	20	17.9	
	취준생	(62)	41	66.1	16	25.8	5	8.1	
성별	남성	(284)	74	26.1	119	41.9	91	32.0	21.307***
	여성	(422)	159	37.7	187	44.3	76	18.0	
연령대	20대	(296)	128	43.2	118	39.9	50	16.9	27.472***
	30대	(410)	105	25.6	188	45.9	117	28.5	

*** $p < .001$

(3) 종사자 지위

종사자 지위는 ‘상용직 근로자’가 7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임시직 근로자’(12.6%), ‘프리랜서’(5.5%), ‘자영업 등 사업’(4.7%)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직장인과 대학생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가 가장 많았으며 취업생에서는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상용직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임시직 근로자’의 순이었다. 이 외 남성은 ‘사업’과 ‘일용직 근로자’의 응답이 뒤를 이었지만, 여성은 ‘프리랜서’와 ‘사업’의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20대와 30대 모두 ‘상용직 근로자’가 많았는데 20대 집단에서는 ‘임시직 근로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3-2] 종사자의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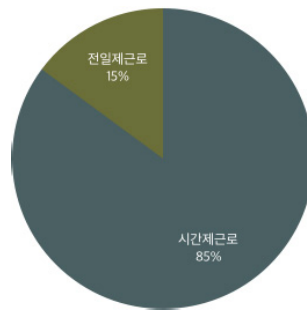
[표3-9] 종사자 지위

단위 : 명, %

구분		계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 등 사업		무급가족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 고용직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706)	509	72.1	89	12.6	19	2.7	33	4.7	3	0.4	39	5.5	8	1.1	6	0.8
사회적연락	직장인	(532)	459	86.3	26	4.9	4	0.8	32	6.0	1	0.2	6	1.1	1	0.2	3	0.6
	대학생	(112)	50	44.6	34	30.4	9	8.0	1	0.9	1	0.9	10	8.9	5	4.5	2	1.8
	취준생	(62)	0	0.0	29	46.8	6	9.7	0	0.0	1	1.6	23	37.1	2	3.2	1	1.6
성별	남성	(284)	214	75.4	33	11.6	12	4.2	13	4.6	0	0.0	8	2.8	2	0.7	2	0.7
	여성	(422)	295	69.9	56	13.3	7	1.7	20	4.7	3	0.7	31	7.3	6	1.4	4	0.9
연령대	20대	(236)	187	63.2	66	22.3	8	2.7	11	3.7	0	0.0	15	5.1	5	1.7	4	1.4
	30대	(410)	322	78.5	23	5.6	11	2.7	22	5.4	3	0.7	24	5.9	3	0.7	2	0.5

(4) 근로시간 형태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라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형태를 확인하였다. ‘전일제 근로’가 79.1%로 ‘시간제 근로’(20.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사회적 역할과 연령대에 따라 근로시간 형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일제 근로’라는 응답은 직장인, 30대인 경우 상대적으로 많아 특히, 사회적 역할에서 직장인과 대학생은 ‘전일제 근로’의 비중이 높았다.



[그림3-3] 근로시간 형태

[표3-10] 근로시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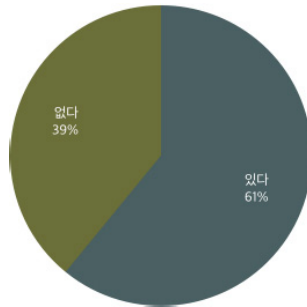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시간제 근로		전일제 근로		$\chi^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08)	127	20.9	481	79.1	-
사회적 역할	직장인	(484)	51	10.5	433	89.5	196.345***
	대학생	(90)	42	46.7	48	53.3	
	취준생	(34)	34	100.0	0	0.0	
성별	남성	(259)	53	20.5	206	79.5	0.049
	여성	(349)	74	21.2	275	78.8	
연령대	20대	(254)	87	34.3	167	65.7	47.147***
	30대	(354)	40	11.3	314	88.7	

*** $p < .001$

(5) 구직 및 이직 의사

구직 및 이직 의사에 대해 물었을 때, ‘있다’가 60.9%로 ‘없다’(39.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응답자 특성별로 사회적 역할, 연령대에 따라 구직 및 이직 의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응답은 취준생, 20대인 경우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취준생과 20대의 경우, 아직 본격적인 일자리의 진입 전으로 임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인 중에서도 54.3%가 이직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취준생의 경우는 21.5%가 구직의 의사가 없었다.



[그림3-4] 구직 및 이직 의사

[표3-11] 구직 및 이직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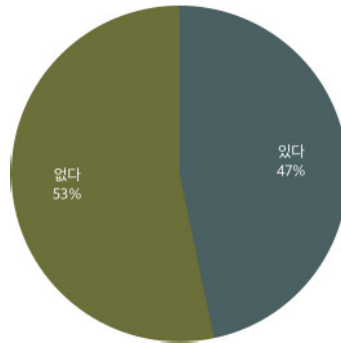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있다		없다		$X^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551	60.9	354	39.1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289	54.3	243	45.7	35.678***
	대학생	(173)	105	60.7	68	39.3	
	취준생	(200)	157	78.5	43	21.5	
성별	남성	(338)	215	63.6	123	36.4	1.683
	여성	(567)	336	59.3	231	40.7	
연령대	20대	(422)	279	66.1	143	33.9	9.081**
	30대	(483)	272	56.3	211	43.7	

** $p < .01$, *** $p < .001$

(6) 구직 및 이직 준비 중 여부

구직 및 이직의사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구직 및 이직을 준비 중인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아니다’가 53.3%로 ‘그렇다’(46.7%)에 비해 높았다.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사회적 역할에서만 구직 및 이직 준비 중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직장인과 대학생의 경우 실제 구직 및 이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취준생의 경우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주목해보아야 할 수치는 취준생 중 구직 및 이직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37%이다. 이들 중 일부는 구직을 포기한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3-5] 구직 및 이직 준비 여부

[표3-12] 구직 및 이직 준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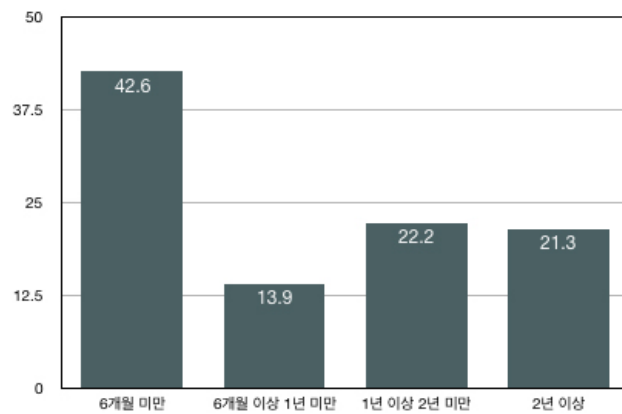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그렇다		아니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423	46.7	482	53.3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221	41.5	311	58.5	27.565***
	대학생	(173)	76	43.9	97	56.1	
	취준생	(200)	126	63.0	74	37.0	
성별	남성	(338)	163	48.2	175	51.8	0.478
	여성	(567)	260	45.9	307	54.1	
연령대	20대	(422)	210	49.8	212	50.2	2.902
	30대	(483)	213	44.1	270	55.9	

*** $p < .001$

(7) 구직 및 이직 준비 기간

구직이나 이직을 준비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준비 기간에 대해 물었을 때, ‘6개월 미만’이 4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1년 이상 2년 미만’(22.2%), ‘2년 이상’(21.3%), ‘6개월 이상 1년 미만’(13.9%)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응답자 유형별로 연령대에서 구직 기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20대는 ‘6개월 미만’과 ‘6개월 이상 1년 미만’에서 많았고, 30대는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에서 높은 수준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구직 및 이직의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취업준비의 장기화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3-6] 구직기간

[표3-13] 구직 기간

단위 : 명, %

구분		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423)	180	42.6	59	13.9	94	22.2	90	21.3	-
사회적 역할	직장인	(221)	84	38.0	28	12.7	50	22.6	59	26.7	10.355
	대학생	(76)	38	50.0	11	14.5	18	23.7	9	11.8	
	취준생	(126)	58	46.0	20	15.9	26	20.6	22	17.5	
성별	남성	(163)	67	41.1	25	15.3	38	23.3	33	20.2	0.772
	여성	(260)	113	43.5	34	13.1	56	21.5	57	21.9	
연령대	20대	(210)	100	47.6	33	15.7	35	16.7	42	20.0	9.560*
	30대	(213)	80	37.6	26	12.2	59	27.7	48	22.5	

* $p < .05$

2) 경제적 수준

(1) 월평균 소득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3.1%로 가장 높았다. 그 뒤는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8.7%), ‘100만원 미만’(14%),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3.5%)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역할에서는 직장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비율이 더 높았으며(‘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500만원 이상’), 대학생과 취준생은 반대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이는 아직 적극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 집단과 본격적인 직장생활을 준비하는 취준생의 경우 안정적인 소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27.2%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7.8%로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남성의 고소득 분포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는 ‘200만원 미만’이 45.1%였던 반면 30대에서는 17.4%로 나타나 20대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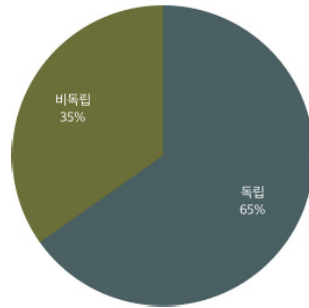
[표3-14] 본인의 월평균 소득

단위 : 명, %

구분		계	없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855)	25	2.9	120	14.0	115	13.5	283	33.1	160	18.7	60	7.0	92	10.8
사회적 역할	직장인	(494)	0	0.0	14	2.8	52	10.5	202	40.9	118	23.9	42	8.5	66	13.4
	대학생	(167)	5	3.0	52	31.1	30	18.0	42	25.1	21	12.6	6	3.6	11	6.6
	취준생	(194)	20	10.3	54	27.8	33	17.0	39	20.1	21	10.8	12	6.2	15	7.7
성별	남성	(320)	6	1.9	39	12.2	36	11.3	81	25.3	87	27.2	33	10.3	38	11.9
	여성	(535)	19	3.6	81	15.1	79	14.8	202	37.8	73	13.6	27	5.0	54	10.1
연령대	20대	(402)	14	3.5	100	24.9	67	16.7	135	33.6	44	10.9	14	3.5	28	7.0
	30대	(453)	11	2.4	20	4.4	48	10.6	148	32.7	116	25.6	46	10.2	64	14.1

(2) 경제적 독립 유무

실질적인 월평균 소득과 관계없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65.2%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34.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사회적 역할과 연령대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에 사회적 역할로는 직장인의 경우 78.8%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생은 60.7%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취업생의 경우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유사하였다. 이에 직장을 가지고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을 지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에서는 20대는 독립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0대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림3-7] 경제적 독립 여부

[표3-15] 경제적 독립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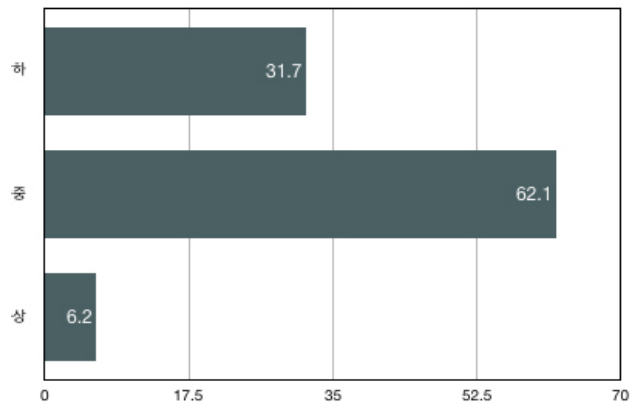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590	65.2	315	34.8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419	78.8	113	21.2	110.765***
	대학생	(173)	68	39.3	105	60.7	
	취준생	(200)	103	51.5	97	48.5	
성별	남성	(338)	227	67.2	111	32.8	0.919
	여성	(567)	363	64.0	204	36.0	
연령대	20대	(422)	203	48.1	219	51.9	101.762***
	30대	(483)	387	80.1	96	19.9	

*** $p < .001$

(3) 사회경제적 지위

응답자가 스스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중의 하’가 35.4%로 가장 많았으며, ‘중의 상’이 26.7%, ‘하의 상’ 22.1%, ‘하의 하’ 9.6%, ‘상의 하’ 5.4%, ‘상의 상’ 0.4%의 순서였다. ‘상’, ‘중’, ‘하’의 3집단으로 구분해보면 ‘상’은 6.2%로 가장 낮았고 ‘중’은 62.1로 가장 많았으며 ‘하’는 31.7%였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인은 ‘중의 하’, 대학생은 ‘중의 상’, 취준생은 ‘중의 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상’, ‘중’, ‘하’의 세 그룹으로 구분했을 때, 직장인과 취준생은 약 60%가량의 ‘중’이라고 응답한 반면, 취준생은 49%가 ‘중’, 45.5%는 ‘하’로 응답하였다. 성별과 연령대별로는 모두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하’라고 응답한 비중도 남성과 여성, 20대와 30대 모두 약 30%가량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3-8] 사회경제적 지위

[표3-16] 사회경제적 지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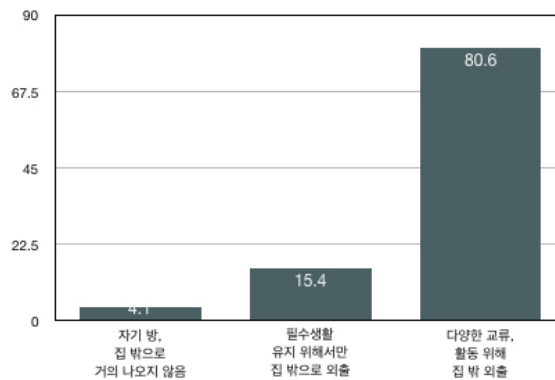
구분		계	하의 하		하의 상		중의 하		중의 상		상의 하		상의 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87	9.6	200	22.1	320	35.4	242	26.7	49	5.4	7	0.8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33	6.2	109	20.5	207	38.9	151	28.4	30	5.6	2	0.4
	대학생	(173)	16	9.2	38	22.0	52	30.1	54	31.2	9	5.2	4	2.3
	취준생	(200)	38	19.0	53	26.5	61	30.5	37	18.5	10	5.0	1	0.5
성별	남성	(338)	34	10.1	73	21.6	124	36.7	94	27.8	13	3.8	0	0.0
	여성	(567)	53	9.3	127	22.4	196	34.6	148	26.1	36	6.3	7	1.2
연령대	20대	(422)	41	9.7	94	22.3	142	33.6	115	27.3	25	5.9	5	1.2
	30대	(483)	46	9.5	106	21.9	178	36.9	127	26.3	24	5.0	2	0.4

3. 사회적 교류와 외로움, 사회적 고립

1) 외출에 관한 사항

(1) 평소 외출 정도

평소 외출 정도에 대해 물었을 때, ‘다양한 교류, 활동 위해 집 밖 외출’이 8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필수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집 밖으로 외출’(15.4%), ‘자기 방,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음’(4.1%) 순이었다. 한편, 응답자 특성별로 구분하였을 때에는 사회적 역할, 연령대에서 평소 외출 정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취준생은 ‘필수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외출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6.5%로 가장 높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응답도 11%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 준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필수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외출하거나 거의 외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림3-9] 평소 외출 정도

[표3-17] 평소 외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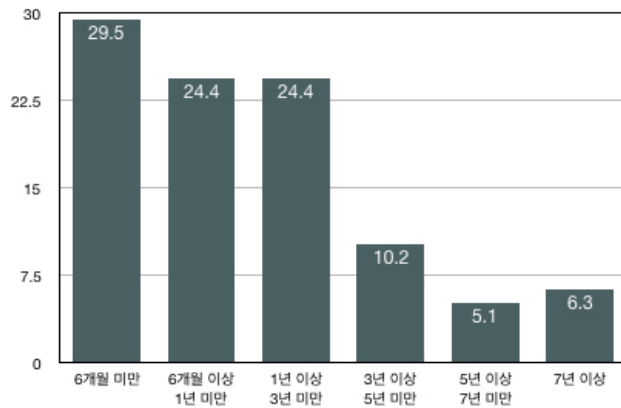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자기 방,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음		필수생활 유지 위해서만 집 밖으로 외출		다양한 교류, 활동 위해 집 밖 외출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37	4.1	139	15.4	729	80.6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0	0.0	0	0.0	532	100.0	342.497***
	대학생	(173)	15	8.7	46	26.6	112	64.7	
	취준생	(200)	22	11.0	93	46.5	85	42.5	
성별	남성	(338)	13	3.8	45	13.3	280	82.8	1.898
	여성	(567)	24	4.2	94	16.6	449	79.2	
연령대	20대	(422)	25	5.9	72	17.1	325	77.0	9.239**
	30대	(483)	12	2.5	67	13.9	404	83.6	

** $p < .01$, *** $p < .001$

(2) 평소 외출 양상의 지속 기간

평소 외출 정도를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음’과 ‘필수생활 유지 위해서만 집 밖으로 외출’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상태가 얼마정도 지속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6개월 미만’이 2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과 ‘1년 이상 3년 미만’(각각 24.4%), ‘3년 이상 5년 미만’(10.2%), ‘7년 이상’(6.3%), ‘5년 이상 7년 미만’(5.1%) 순이었다. 특히, 소수였지만 3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9.6%에 이르렀다는 결과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30대에서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자가 가장 많다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고연령대에서 외출하지 않는 경향이 장기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3-10] 평소 외출 정도의 지속 기간

[표3-18] 평소 외출 정도의 지속 기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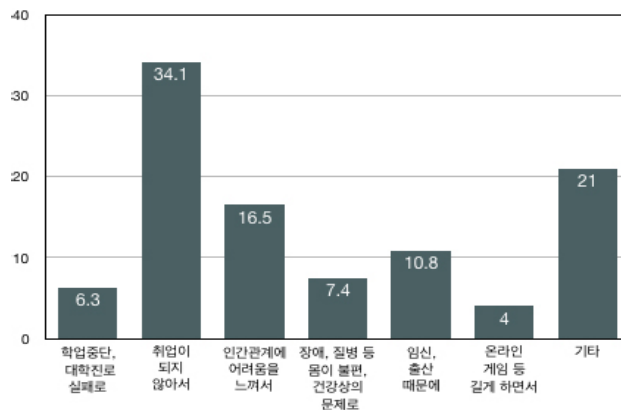
구분	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76)	52	29.5	43	24.4	43	24.4	18	10.2	9	5.1	11	6.3	-
사회적 역할	직장인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2.123
	대학생	(61)	20	32.8	14	23.0	17	27.9	5	8.2	2	3.3	3	
	취준생	(115)	32	27.8	29	25.2	26	22.6	13	11.3	7	6.1	8	
성별	남성	(58)	17	29.3	18	31.0	13	22.4	4	6.9	2	3.4	4	3.155
	여성	(118)	35	29.7	25	21.2	30	25.4	14	11.9	7	5.9	7	
연령 대	20대	(97)	36	37.1	24	24.7	23	23.7	7	7.2	1	1.0	6	13.204*
	30대	(79)	16	20.3	9	24.1	20	25.3	11	13.9	8	10.1	5	

* $p < .05$

(3) 평소 외출하지 않은 계기

평소 외출 정도를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음’과 ‘필수 생활 유지 위해서만 집 밖으로 외출’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상태가 된 계기를 확인하였다. ‘취업이 되지 않아서’가 3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기타’(21.0%),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껴서’(16.5%), ‘임신, 출산 때문에’(10.8%), ‘장애, 질병 등 몸이 불편, 건강상의 문제로’(7.4%) 등의 순이었다. 기타 의견에는 ‘그냥’, ‘나갈 필요가 없어서’ 등이 있었다.

한편, 응답자 특성별로 사회적 역할, 성별, 연령대에서 평소 외출 정도 계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 취업이 되지 않아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껴서가 각각 23.0%로 비교적 많았고 건강상의 문제도 13.1%를 차지하였다. 취준생의 경우 40%가 ‘취업이 되지 않아서’로 가장 많았고 ‘임신·출산’이 16.5%로 가장 많아 응답자 중 일부가 ‘출산준비’ 등으로 인해 다른 사회적 역할을 단절한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13.0%로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취업이 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따랐다. 반면, 여성은 ‘취업이 되지 않아서’가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하였으나 다음으로 ‘임신·출산’의 이유가 있어 차이를 보여 임신, 출산 여성에 대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이처럼 응답자의 구체적인 경험 내용은 다르지만 특정 계기로 외출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3-11] 평소 외출하지 않은 계기

[표3-19] 평소 외출하지 않은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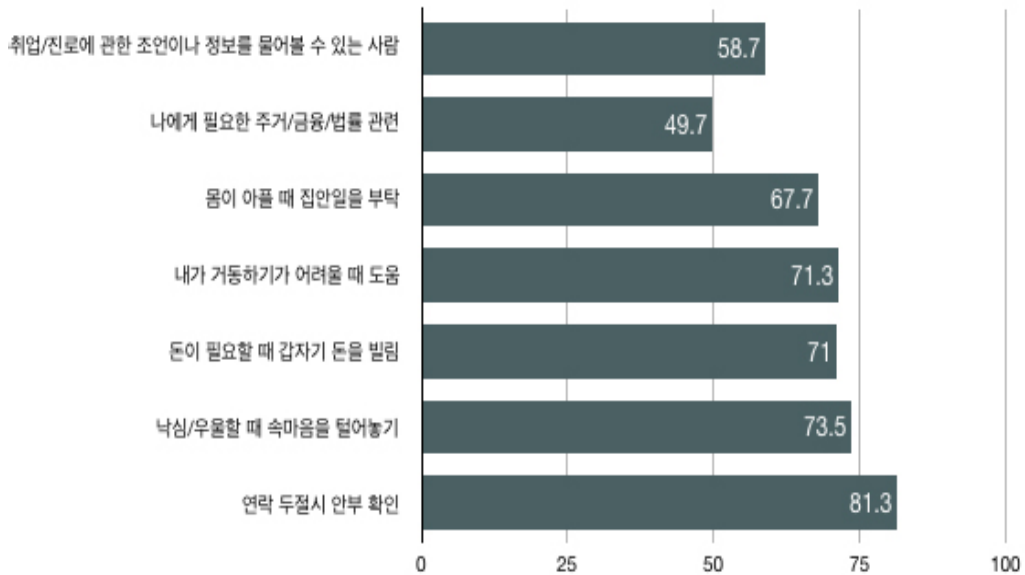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학업중단, 대학진로 실패로		취업이 되지 않아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껴서		장애, 질병 등 몸이 불편, 건강상의 문제로		임신, 출산 때문에		온라인 게임 등 길게 하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76)	11	6.3	60	34.1	29	16.5	13	7.4	19	10.8	7	4.0	37	21.0
사회적 역할	직장인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대학생	(61)	4	6.6	14	23.0	14	23.0	8	13.1	0	0.0	5	8.2	16	26.2
	취준생	(115)	7	6.1	46	40.0	15	13.0	5	4.3	19	16.5	2	1.7	21	18.3
성별	남성	(58)	4	6.9	22	37.9	14	24.1	3	5.2	0	0.0	3	5.2	12	20.7
	여성	(118)	7	5.9	38	32.2	15	12.7	10	8.5	19	16.1	4	3.4	25	21.2
연령대	20대	(97)	10	10.3	33	34.0	16	16.5	6	6.2	3	3.1	5	5.2	24	24.7
	30대	(79)	1	1.3	27	34.2	13	16.5	7	8.9	16	20.3	2	2.5	13	16.5

2)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응답자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총 7개 영역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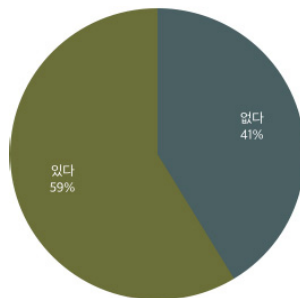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 중 응답자가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한 영역은 ‘연락 두절시 안부 확인’으로 81.3%가 안부를 확인해 줄 사람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다음으로는 ‘낙심/우울할 때 속마음 털어놓기’로 73.3%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뒤로는 ‘내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움’(71.3%),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림’(71.0%),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67.7%),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58.7%)이 이었으며 가장 적은 것은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49.7%)에 대한 도움으로 나타났다.



[그림3-12] 특정 영역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1)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가 58.7%로 ‘없다’(4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특성별로 사회적 역할, 연령대에 따라 여부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사회적 역할로는 직장인의 경우 있다가 60.2%, 대학생의 경우는 64.7%로 과반수였으며, 취준생은 ‘없다’가 50.5%로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20대와 30대 모두 ‘있다’가 많았는데 20대에서는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더 많았다.



[그림3-13] 취업/진로 도움

[표3-20]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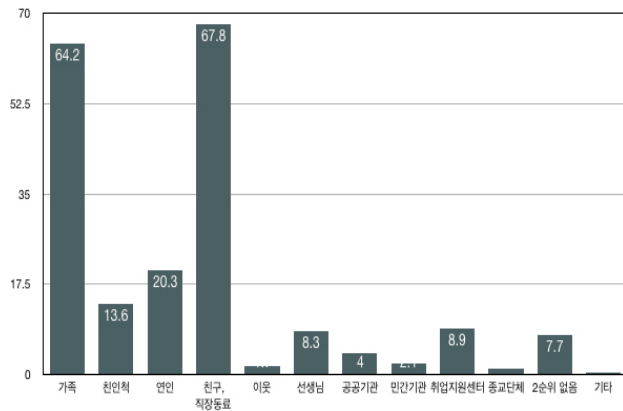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chi^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374	41.3	531	58.7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212	39.8	320	60.2	10.045**
	대학생	(173)	61	35.3	112	64.7	
	취준생	(200)	101	50.5	99	49.5	
성별	남성	(338)	139	41.1	199	58.9	0.009
	여성	(567)	235	41.4	332	58.6	
연령대	20대	(422)	153	36.3	269	63.7	8.382**
	30대	(483)	221	45.8	262	54.2	

** $p < .01$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지 확인한 결과, ‘친구, 직장동료’가 6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가족’(64.2%), ‘연인’(20.3%), ‘친인척’(13.6%)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공공기관’(4.0%), ‘민간기관’(2.1%), ‘취업지원센터’(8.9%) 등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역할과 연령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직장인은 ‘친구, 직장동료’가 72.2%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가족’이 65.9%로 뒤따랐으며, 대학생은 ‘가족’이 62.5%, ‘친구, 직장동료’가 58.0%의 순이었고, 취준생은 ‘친구, 직장동료’가 64.6%, ‘가족’이 60.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이었다. 대학생의 경우,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3%로 나타나 학생 신분으로서 교수 등이 중요한 관계망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준생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취업지원센터’라고 응답한 비중이 16.2%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친구와 직장동료’, ‘가족’의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이 외에 남성은 ‘친인척’이, 여성은 ‘연인’으로부터 조언을 얻는다는 의견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모두 ‘친구와 직장동료’, ‘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연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3-14]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자원망

[표3-21]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자원망 - 1+2순위 (1)

단위 : 명, %

구분		계	가족		친인척		연인		친구, 직장동료		이웃		선생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531)	341	64.2	72	13.6	108	20.3	360	67.8	9	1.7	44	8.3
사회적 역할	직장인	(320)	211	65.9	44	13.8	66	20.6	231	72.2	7	2.2	8	2.5
	대학생	(112)	70	62.5	17	15.2	23	20.5	65	58.0	2	1.8	25	22.3
	취준생	(99)	60	60.6	11	11.1	19	19.2	64	64.6	0	0.0	11	11.1
성별	남성	(199)	132	66.3	34	17.1	29	14.6	134	67.3	3	1.5	18	9.0
	여성	(332)	209	63.0	38	11.4	79	23.8	226	68.1	6	1.8	26	7.8
연령대	20대	(269)	177	65.8	34	12.6	65	24.2	180	66.9	1	0.4	30	11.2
	30대	(262)	164	62.6	38	14.5	43	16.4	180	68.7	8	3.1	14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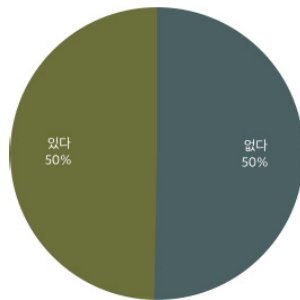
[표3-22]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자원망 - 1+2순위 (2)

단위 : 명, %

구분		계	공공기관		민간기관		취업지원센터		종교단체		2순위 없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531)	21	4.0	11	2.1	47	8.9	6	1.1	41	7.7	2	0.4
사회적 역할	직장인	(320)	15	4.7	5	1.6	21	6.6	2	0.6	29	9.1	1	0.3
	대학생	(112)	1	0.9	3	2.7	10	8.9	1	0.9	7	6.3	0	0.0
	취준생	(99)	5	5.1	3	3.0	16	16.2	3	3.0	5	5.1	1	1.0
성별	남성	(199)	10	5.0	3	1.5	15	7.5	2	1.0	16	8.0	2	1.0
	여성	(332)	11	3.3	8	2.4	32	9.6	4	1.2	25	7.5	0	0.0
연령대	20대	(269)	5	1.9	5	1.9	21	7.8	2	0.7	17	6.3	1	0.4
	30대	(262)	16	6.1	6	2.3	26	9.9	4	1.5	24	9.2	1	0.4

(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없다’가 50.3%로 ‘있다’(49.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연령대에 따라 여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20대의 경우 ‘있다’는 응답이 55.7%, 30대는 ‘없다’가 55.5%로 더 많았다.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사회적 역할에서는 대학생만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56.1%), 남성과 여성은 ‘있다’와 ‘없다’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3-15]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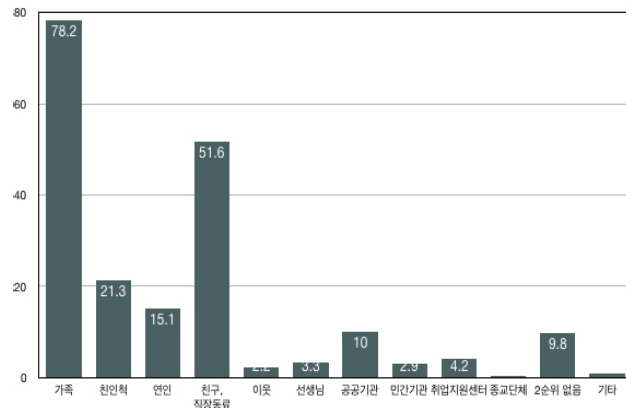
[표3-23]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455	50.3	450	49.7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270	50.8	262	49.2
	대학생	(173)	76	43.9	97	56.1
	취준생	(200)	109	54.5	91	45.5
성별	남성	(338)	168	49.7	170	50.3
	여성	(567)	287	50.6	280	49.4
연령대	20대	(422)	187	44.3	235	55.7
	30대	(483)	268	55.5	215	44.5

*** $p < .001$

구체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에 대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에 대해 물었을 때, ‘가족’이 7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친구, 직장동료’(51.6%), ‘친인척’(21.3%), ‘연인’(15.1%), ‘공공기관’(10.0%)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모든 유형에서 ‘가족’과 ‘친구 및 직장동료’의 비중이 높았다.



[표3-16]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표3-24]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1+2순위 (1)

단위 : 명, %

구분		계	가족		친인척		연인		친구, 직장동료		이웃		선생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450)	352	78.2	96	21.3	68	15.1	232	51.6	10	2.2	15	3.3
사회적 역할	직장인	(262)	194	74.0	59	22.5	43	16.4	144	55.0	5	1.9	6	2.3
	대학생	(97)	84	86.6	22	22.7	12	12.4	41	42.3	5	5.2	1	1.0
	취준생	(91)	74	81.3	15	16.5	13	14.3	47	51.6	0	0.0	8	8.8
성별	남성	(170)	118	69.4	50	29.4	19	11.2	86	50.6	5	2.9	3	1.8
	여성	(280)	234	83.6	46	16.4	49	17.5	146	52.1	5	1.8	12	4.3
연령대	20대	(235)	196	83.4	40	17.0	38	16.2	107	45.5	5	2.1	13	5.5
	30대	(215)	156	72.6	56	26.0	30	14.0	125	58.1	5	2.3	2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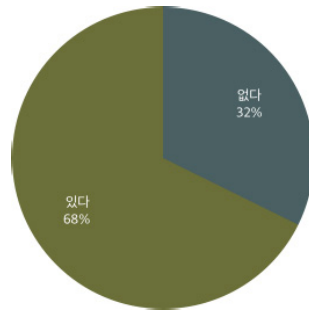
[표3-25]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1+2순위 (2)

단위 : 명, %

구분		계	공공기관		민간기관		취업지원센터		종교단체		2순위 없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450)	45	10.0	13	2.9	19	4.2	2	0.4	44	9.8	4	0.9
사회적 역할	직장인	(262)	28	10.7	6	2.3	10	3.8	2	0.8	25	9.5	2	0.8
	대학생	(97)	10	10.3	6	6.2	5	5.2	0	0.0	8	8.2	0	0.0
	취준생	(91)	7	7.7	1	1.1	4	4.4	0	0.0	11	12.1	2	2.2
성별	남성	(170)	20	11.8	7	4.1	7	4.1	1	0.6	22	12.9	2	1.2
	여성	(280)	25	8.9	6	2.1	12	4.3	1	0.4	22	7.9	2	0.7
연령대	20대	(235)	25	10.6	9	3.8	11	4.7	1	0.4	23	9.8	2	0.9
	30대	(215)	20	9.3	4	1.9	8	3.7	1	0.5	21	9.8	2	0.9

(3)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있다’가 67.7%로 ‘없다’(32.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응답자 특성별로 연령대에 따라 여부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 살펴보면, 20대와 30대 모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20대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컸다.



[그림3-17] 집안일 도움

[표3-26]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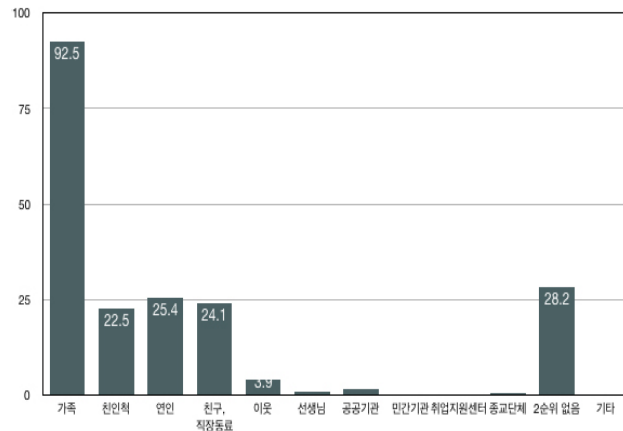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292	32.3	613	67.7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167	31.4	365	68.6	0.644
	대학생	(173)	56	32.4	117	67.6	
	취준생	(200)	69	34.5	131	65.5	
성별	남성	(338)	121	35.8	217	64.2	3.082
	여성	(567)	171	30.2	396	69.8	
연령대	20대	(422)	114	27.0	308	73.0	9.976**
	30대	(483)	178	36.9	305	63.1	

** $p < .01$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물었을 때, ‘가족’이 92.5%로 대부분 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2순위 없음’에도 28.2%가 응답하여 대부분 가족에 전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 ‘연인’(25.4%), ‘친구, 직장동료’(24.1%), ‘친인척’(22.5%)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공적 도움을 구하는 경우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족’이라는 응답을 제외하고, 사회적 역할에서는 직장인은 ‘연인’(27.4%), 대학생은 ‘친구, 직장동료’(33.3%), 취준생은 ‘2순위 없음’(38.2%)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친인척’(32.3%), 여성은 ‘2순위 없음’(30.6%), 연령별로는 20대는 ‘2순위 없음’(29.5%), 30대는 ‘친인척’(27.9%)로 나타났다.



[그림3-18]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표3-27]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 1+2순위 (1)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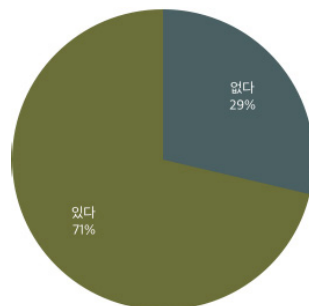
구분		계	가족		친인척		연인		친구, 직장동료		이웃		선생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13)	567	92.5	138	22.5	156	25.4	148	24.1	24	3.9	4	0.7
사회적 역할	직장인	(365)	339	92.9	76	20.8	100	27.4	89	24.4	13	3.6	3	0.8
	대학생	(117)	109	93.2	24	20.5	29	24.8	39	33.3	6	5.1	0	0.0
	취준생	(131)	119	90.8	38	29.0	27	20.6	20	15.3	5	3.8	1	0.8
성별	남성	(217)	198	91.2	70	32.3	41	18.9	49	22.6	15	6.9	1	0.5
	여성	(396)	369	93.2	68	17.2	115	29.0	99	25.0	9	2.3	3	0.8
연령대	20대	(308)	281	91.2	53	17.2	90	29.2	81	26.3	11	3.6	3	1.0
	30대	(305)	286	93.8	85	27.9	66	21.6	67	22.0	13	4.3	1	0.3

[표3-28]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 1+2순위 (2)
단위 : 명, %

구분		계	공공기관		민간기관		취업지원센터		종교단체		2순위 없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13)	9	1.5	1	0.2	2	0.3	3	0.5	173	28.2	1	0.2
사회적 역할	직장인	(365)	8	2.2	1	0.3	2	0.5	2	0.5	97	26.6	0	0.0
	대학생	(117)	1	0.9	0	0.0	0	0.0	0	0.0	26	22.2	0	0.0
	취준생	(131)	0	0.0	0	0.0	0	0.0	1	0.8	50	38.2	1	0.8
성별	남성	(217)	3	1.4	1	0.5	2	0.9	2	0.9	52	24.0	0	0.0
	여성	(396)	6	1.5	0	0.0	0	0.0	1	0.3	121	30.6	1	0.3
연령대	20대	(308)	4	1.3	1	0.3	1	0.3	0	0.0	91	29.5	0	0.0
	30대	(305)	5	1.6	0	0.0	1	0.3	3	1.0	82	26.9	1	0.3

(4) 내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있다’가 71.3%로 ‘없다’(28.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응답자 특성별로 성별, 연령대에 따라 여부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성과 여성, 20대와 30대 모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여성, 20대 응답자가 비교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통계적 차이는 없었지만 사회적 역할에서도 직장인, 대학생, 취준생 모두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배 이상 많았는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림3-19] 내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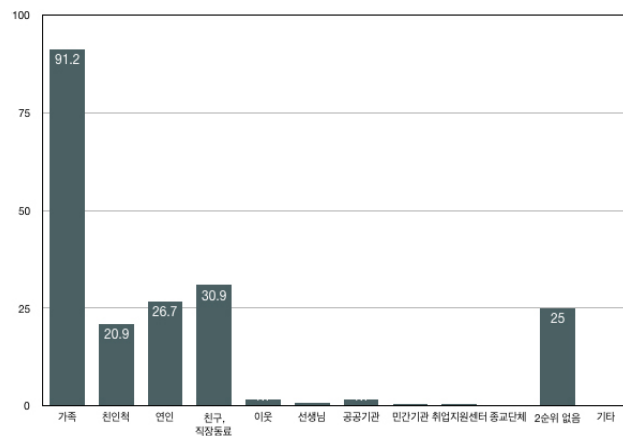
[표3-29] 내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260	28.7	645	71.3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148	27.8	384	72.2	1.013
	대학생	(173)	55	31.8	118	68.2	
	취준생	(200)	57	28.5	143	71.5	
성별	남성	(338)	118	34.9	220	65.1	10.069**
	여성	(567)	142	25.0	425	75.0	
연령대	20대	(422)	102	24.2	320	75.8	8.025**
	30대	(483)	158	32.7	325	67.3	

** $p < .01$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물었을 때, ‘가족’이 91.2%로 가장 높았고, ‘친구, 직장동료’(30.9%), ‘연인’(26.7%), ‘친인척’(20.9%), ‘2순위 없음’(25.0%)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족’이라는 응답은 모든 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가족’을 제외하고는 직장인은 ‘친구, 직장동료’(29.2%), 대학생 역시 ‘친구, 직장동료’(39.8%)가 많았으나 취준생은 ‘2순위 없음’을 선택한 경우가 33.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친구, 직장동료’(35.0%), 여성은 ‘연인’(31.1%)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는 ‘친구, 직장동료’(34.7%), 30대는 ‘2순위 없음’(27.4%)이 가족의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거동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 대부분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개인의 근접한 인적 자원망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3-20] 내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표3-30] 내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1+2순위 (1)

단위 : 명, %

구분		계	가족		친인척		연인		친구, 직장동료		이웃		선생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45)	588	91.2	135	20.9	172	26.7	199	30.9	11	1.7	5	0.8
사회적 역할	직장인	(384)	350	91.1	74	19.3	111	28.9	112	29.2	7	1.8	3	0.8
	대학생	(118)	108	91.5	25	21.2	33	28.0	47	39.8	3	2.5	2	1.7
	취준생	(143)	130	90.9	36	25.2	28	19.6	40	28.0	1	0.7	0	0.0
성별	남성	(220)	197	89.5	56	25.5	40	18.2	77	35.0	8	3.6	4	1.8
	여성	(425)	391	92.0	79	18.6	132	31.1	122	28.7	3	0.7	1	0.2
연령대	20대	(320)	290	90.6	59	18.4	100	31.3	111	34.7	3	0.9	0	0.0
	30대	(325)	298	91.7	76	23.4	72	22.2	88	27.1	8	2.5	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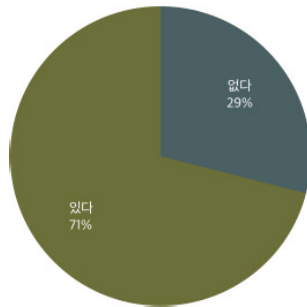
[표3-31] 내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1+2순위 (2)

단위 : 명, %

구분		계	공공기관		민간기관		취업지원센터		종교단체		2순위 없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45)	11	1.7	3	0.5	3	0.5	1	0.2	161	25.0	1	0.2
사회적 역할	직장인	(384)	7	1.8	3	0.8	3	0.8	1	0.3	97	25.3	0	0.0
	대학생	(118)	2	1.7	0	0.0	0	0.0	0	0.0	16	13.6	0	0.0
	취준생	(143)	2	1.4	0	0.0	0	0.0	0	0.0	48	33.6	1	0.7
성별	남성	(220)	5	2.3	1	0.5	2	0.9	0	0.0	50	22.7	0	0.0
	여성	(425)	6	1.4	2	0.5	1	0.2	1	0.2	111	26.1	1	0.2
연령대	20대	(320)	2	0.6	1	0.3	2	0.6	0	0.0	72	22.5	0	0.0
	30대	(325)	9	2.8	2	0.6	1	0.3	1	0.3	89	27.4	1	0.3

(5)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림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있다’가 71.0%로 ‘없다’(29.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는 성별, 연령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없다’ 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컸다. 연령대에서는 20대가 상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림3-21]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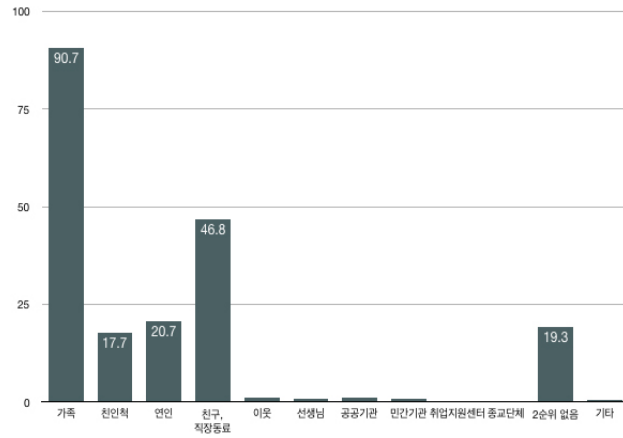
[표3-32]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262	29.0	643	71.0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154	28.9	378	71.1	4.332
	대학생	(173)	41	23.7	132	76.3	
	취준생	(200)	67	33.5	133	66.5	
성별	남성	(338)	117	34.6	221	65.4	8.418**
	여성	(567)	145	25.6	422	74.4	
연령대	20대	(422)	96	22.7	326	77.3	14.784***
	30대	(483)	166	34.4	317	65.6	

** $p < .01$, *** $p < .001$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물었을 때, ‘가족’이 9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친구, 직장동료’(46.8%), ‘연인’(20.7%), ‘친인척’(17.7%) 등의 순이었다. 모든 유형마다 ‘가족’이라는 응답은 가장 많았고 ‘친구, 직장동료’가 그 뒤를 이었다. 이후로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어 사회적 역할에서는 직장인과 취준생은 ‘연인’, 대학생은 ‘2순위 없음’의 응답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친인척’, 여성은 ‘연인’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연령대로는 20대는 ‘연인’, 30대는 ‘친인척’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공공 및 민간 기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0.0%~1.5%수준으로 나타나 매우 저조하였다.



[그림3-22]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표3-33]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1+2순위 (1)

단위 : 명, %

구분		계	가족		친인척		연인		친구, 직장동료		이웃		선생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43)	583	90.7	114	17.7	133	20.7	301	46.8	7	1.1	6	0.9
사회적 역할	직장인	(378)	346	91.5	66	17.5	83	22.0	173	45.8	6	1.6	2	0.5
	대학생	(132)	117	88.6	25	18.9	24	18.2	60	45.5	1	0.8	2	1.5
	취준생	(133)	120	90.2	23	17.3	26	19.5	68	51.1	0	0.0	2	1.5
성별	남성	(221)	194	87.8	53	24.0	33	14.9	115	52.0	3	1.4	3	1.4
	여성	(422)	389	92.2	61	14.5	100	23.7	186	44.1	4	0.9	3	0.7
연령대	20대	(326)	293	89.9	45	13.8	81	24.8	155	47.5	2	0.6	5	1.5
	30대	(317)	290	91.5	69	21.8	52	16.4	146	46.1	5	1.6	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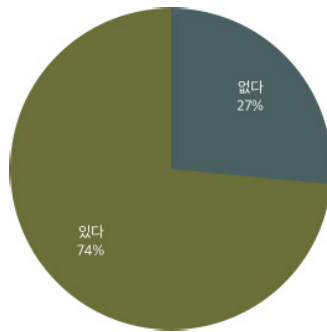
[표3-34]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1+2순위 (2)

단위 : 명, %

구분		계	공공기관		민간기관		취업지원센터		종교단체		2순위 없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43)	7	1.1	5	0.8	2	0.3	0	0.0	124	19.3	4	0.6
사회적 역할	직장인	(378)	5	1.3	2	0.5	0	0.0	0	0.0	71	18.8	2	0.5
	대학생	(132)	2	1.5	2	1.5	2	1.5	0	0.0	29	22.0	0	0.0
	취준생	(133)	0	0.0	1	0.8	0	0.0	0	0.0	24	18.0	2	1.5
성별	남성	(221)	3	1.4	1	0.5	1	0.5	0	0.0	35	15.8	1	0.5
	여성	(422)	4	0.9	4	0.9	1	0.2	0	0.0	89	21.1	3	0.7
연령대	20대	(326)	3	0.9	1	0.3	2	0.6	0	0.0	63	19.3	2	0.6
	30대	(317)	4	1.3	4	1.3	0	0.0	0	0.0	61	19.2	2	0.6

(6) 낙심/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기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있다’가 73.5%로 ‘없다’(26.5%)에 비해 높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모든 유형마다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성별, 연령대의 경우에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30대에서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3-23]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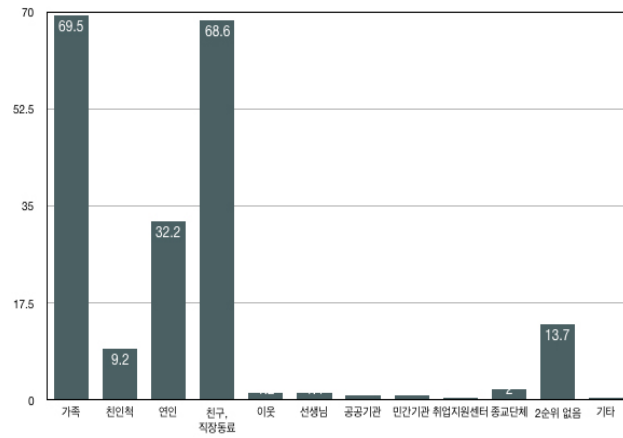
[표3-35]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240	26.5	665	73.5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129	24.2	403	75.8	5.080
	대학생	(173)	46	26.6	127	73.4	
	취준생	(200)	65	32.5	135	67.5	
성별	남성	(338)	109	32.2	229	67.8	9.087**
	여성	(567)	131	23.1	436	76.9	
연령대	20대	(422)	87	20.6	335	79.4	14.140***
	30대	(483)	153	31.7	330	68.3	

** $p < .01$, *** $p < .001$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물었을 때, ‘가족’이 6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친구, 직장동료’(68.6%), ‘연인’(32.2%)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전반적으로 ‘가족’, ‘친구, 직장동료’, ‘연인’에 대한 응답이 높은 추세를 보였다. 단, ‘2순위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취준생, 여성, 3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작은 관계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3-24]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표3-36]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1+2순위 (1)

단위 : 명, %

구분		계	가족		친인척		연인		친구, 직장동료		이웃		선생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65)	462	69.5	61	9.2	214	32.2	456	68.6	8	1.2	9	1.4
사회적 역할	직장인	(403)	282	70.0	41	10.2	140	34.7	274	68.0	5	1.2	3	0.7
	대학생	(127)	95	74.8	8	6.3	40	31.5	85	66.9	1	0.8	2	1.6
	취준생	(135)	85	63.0	12	8.9	34	25.2	97	71.9	2	1.5	4	3.0
성별	남성	(229)	167	72.9	30	13.1	61	26.6	152	66.4	3	1.3	4	1.7
	여성	(436)	295	67.7	31	7.1	153	35.1	304	69.7	5	1.1	5	1.1
연령대	20대	(335)	224	66.9	20	6.0	130	38.8	230	68.7	3	0.9	5	1.5
	30대	(330)	238	72.1	41	12.4	84	25.5	226	68.5	5	1.5	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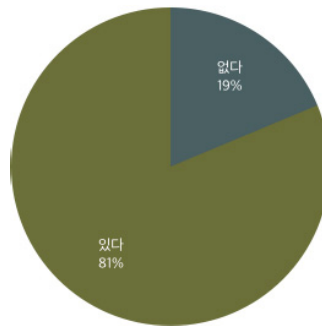
[표3-37]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1+2순위 (2)

단위 : 명, %

구분		계	공공기관		민간기관		취업지원센터		종교단체		2순위 없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65)	6	0.9	5	0.8	3	0.5	13	2.0	91	13.7	2	0.3
사회적 역할	직장인	(403)	4	1.0	2	0.5	2	0.5	6	1.5	46	11.4	1	0.2
	대학생	(127)	0	0.0	1	0.8	1	0.8	3	2.4	18	14.2	0	0.0
	취준생	(135)	2	1.5	2	1.5	0	0.0	4	3.0	27	20.0	1	0.7
성별	남성	(229)	4	1.7	3	1.3	1	0.4	7	3.1	25	10.9	1	0.4
	여성	(436)	2	0.5	2	0.5	2	0.5	6	1.4	66	15.1	1	0.2
연령대	20대	(335)	3	0.9	4	1.2	2	0.6	4	1.2	45	13.4	0	0.0
	30대	(330)	3	0.9	1	0.3	1	0.3	9	2.7	46	13.9	2	0.6

(7) 연락 두절시 안부 확인

연락 두절시 안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있다’가 81.3%로 ‘없다’(18.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응답자 특성별로 성별, 연령대에 따라 여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여성, 30대에서가 각각 상대적으로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사회적 역할의 경우 취준생 집단이 상대적으로 ‘없다’고 응답한 비중(23.5%)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3-25] 연락두절시 안부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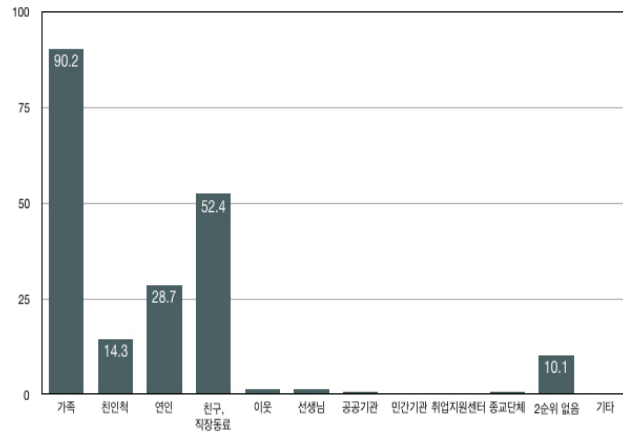
[표3-38] 연락두절시 안부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169	18.7	736	81.3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87	16.4	445	83.6	5.230
	대학생	(173)	35	20.2	138	79.8	
	취준생	(200)	47	23.5	153	76.5	
성별	남성	(338)	81	24.0	257	76.0	9.943**
	여성	(567)	88	15.5	479	84.5	
연령대	20대	(422)	64	15.2	358	84.8	6.408*
	30대	(483)	105	21.7	378	78.3	

* $p < .05$, ** $p < .01$.

연락 두절시 안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물었을 때, ‘가족’이 9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친구, 직장동료’(52.4%), ‘연인’(28.7%), ‘친인척’(14.3%)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취준생의 경우 큰 차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적고 ‘친구, 직장동료’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남성과 여성, 20대와 30대 모두 ‘가족’, ‘친구, 직장동료’, ‘연인’의 순까지는 동일하였으나 남성과 30대는 그 뒤를 ‘친인척’, 여성과 20대는 ‘2순위 없음’이 그 뒤를 이어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그림3-26] 연락두절시 안부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표3-39] 연락두절시 안부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 1+2순위 (1)

단위 : 명, %

구분		계	가족		친인척		연인		친구, 직장동료		이웃		선생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736)	664	90.2	105	14.3	211	28.7	386	52.4	9	1.2	11	1.5
사회적 역할	직장인	(445)	404	90.8	65	14.6	131	29.4	228	51.2	3	0.7	5	1.1
	대학생	(138)	126	91.3	15	10.9	44	31.9	72	52.2	3	2.2	4	2.9
	취준생	(153)	134	87.6	25	16.3	36	23.5	86	56.2	3	2.0	2	1.3
성별	남성	(257)	234	91.1	58	22.6	59	23.0	136	52.9	2	0.8	1	0.4
	여성	(479)	430	89.8	47	9.8	152	31.7	250	52.2	7	1.5	10	2.1
연령대	20대	(358)	311	86.9	35	9.8	128	35.8	185	51.7	3	0.8	7	2.0
	30대	(378)	353	93.4	70	18.5	83	22.0	201	53.2	6	1.6	4	1.1

[표3-40] 연락두절시 안부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 1+2순위 (2)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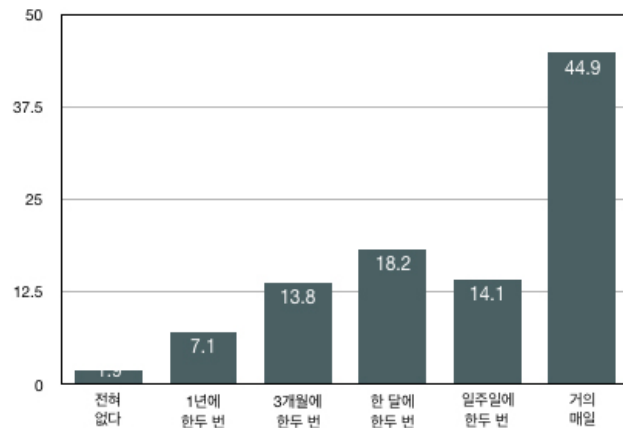
구분		계	공공기관		민간기관		취업지원센터		종교단체		2순위 없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736)	4	0.5	2	0.3	0	0.0	6	0.8	74	10.1	0	0.0
사회적 역할	직장인	(445)	2	0.4	2	0.4	0	0.0	5	1.1	45	10.1	0	0.0
	대학생	(138)	1	0.7	0	0.0	0	0.0	0	0.0	11	8.0	0	0.0
	취준생	(153)	1	0.7	0	0.0	0	0.0	1	0.7	18	11.8	0	0.0
성별	남성	(257)	2	0.8	1	0.4	0	0.0	1	0.4	20	7.8	0	0.0
	여성	(479)	2	0.4	1	0.2	0	0.0	5	1.0	54	11.3	0	0.0
연령대	20대	(358)	3	0.8	2	0.6	0	0.0	3	0.8	39	10.9	0	0.0
	30대	(378)	1	0.3	0	0.0	0	0.0	3	0.8	35	9.3	0	0.0

3) 타인과의 교류

(1) 대면 교류

①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물었을 때, ‘거의 매일’이 4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한 달에 한두 번’(18.2%), ‘일주일에 한두 번’(14.1%), ‘3개월에 한두 번’(13.8%)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가족들과의 대면교류 빈도가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은 약 절반 정도였는데 특히, 취준생, 여성, 20대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년에 한두 번’ 이하로 만난다고 한 비율에서는 취준생은 13.5% (‘전혀 없다’+‘1년에 한두 번’)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3-27]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표3-41]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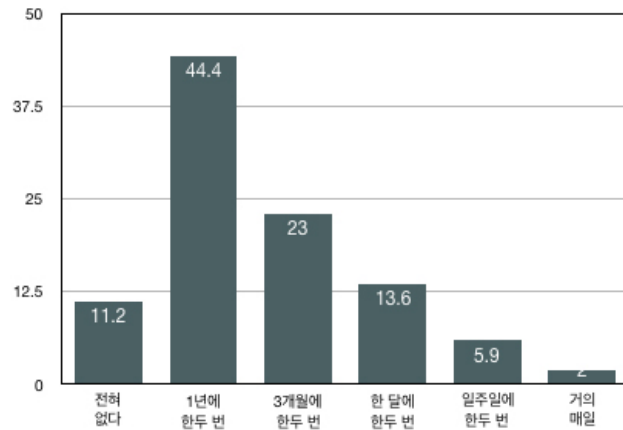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17	1.9	64	7.1	125	13.8	165	18.2	128	14.1	406	44.9	4.7	1.4	
사회적응할	직장인 (532)	6	1.1	34	6.4	79	14.8	106	19.9	82	15.4	225	42.3	4.7	1.4	0.06
	대학생 (173)	0	0.0	14	8.1	22	12.7	37	21.4	24	13.9	76	43.9	4.7	1.4	
	취준생 (200)	11	5.5	16	8.0	24	12.0	22	11.0	22	11.0	105	52.5	4.7	1.6	
성별	남성 (338)	6	1.8	31	9.2	56	16.6	64	18.9	47	13.9	134	39.6	4.5	1.5	-2.831**
	여성 (567)	11	1.9	33	5.8	69	12.2	101	17.8	81	14.3	272	48.0	4.8	1.4	
연령대	20대 (422)	11	2.6	26	6.2	56	13.3	75	17.8	55	13.0	199	47.2	4.7	1.5	.721
	30대 (483)	6	1.2	38	7.9	69	14.3	90	18.6	73	15.1	207	42.9	4.7	1.4	

** $p < .01$

②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물었을 때, '1년에 한두 번'이 4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3개월에 한두 번'(23.0%). '한 달에 한두 번'(13.6%), '전혀 없다'(11.2%)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 과반수가 1년에 한두 번 미만('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준생은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8.5%로 높은 편이었다.



[그림3-28]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표3-42]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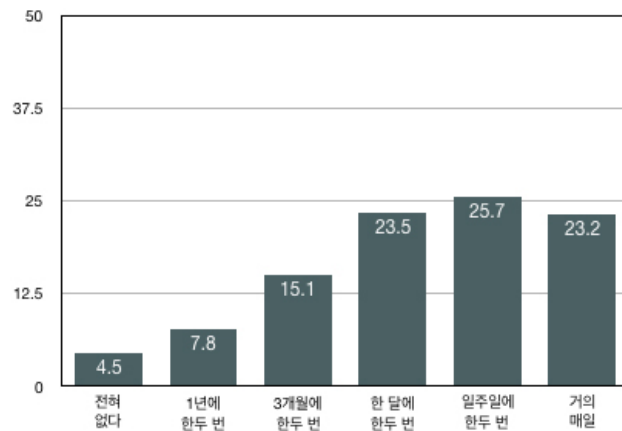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101	11.2	402	44.4	208	23.0	123	13.6	53	5.9	18	2.0	2.6	1.1	
사회적 역할	직장인 ^a	(532)	49	9.2	236	44.4	126	23.7	74	13.9	36	6.8	11	2.1	2.7	1.2	3.80 [*] a > c
	대학생	(173)	15	8.7	81	46.8	42	24.3	19	11.0	12	6.9	4	2.3	2.7	1.1	
	취준생 ^c	(200)	37	18.5	85	42.5	40	20.0	30	15.0	5	2.5	3	1.5	2.5	1.1	
성별	남성	(338)	33	9.8	142	42.0	90	26.6	41	12.1	26	7.7	6	1.8	2.7	1.1	1.372
	여성	(567)	68	12.0	260	45.9	118	20.8	82	14.5	27	4.8	12	2.1	2.6	1.1	
연령대	20대	(422)	45	10.7	191	45.3	103	24.4	53	12.6	23	5.5	7	1.7	2.6	1.1	-.657
	30대	(483)	56	11.6	211	43.7	105	21.7	70	14.5	30	6.2	11	2.3	2.7	1.2	

* $p < .05$

③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빈도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물었을 때, ‘일주일에 한두 번’이 2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한 달에 한두 번’(23.5%), ‘거의 매일’(23.2%), ‘3개월에 한두 번’(15.1%) 등의 순이었다. 한편, ‘1년에 한두 번’이 7.8%, ‘전혀 없다’는 4.5%로 나타나 친한 사람 등과의 교류가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취준생의 경우가 약 42% 가량이 ‘3개월에 한두 번’ 이하(‘전혀 없다’+‘1년에 한두 번’+‘3개월에 한두 번’)로 만나 다른 유형에 비해 만남의 빈도가 낮았다.



[그림3-29]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빈도

[표3-43]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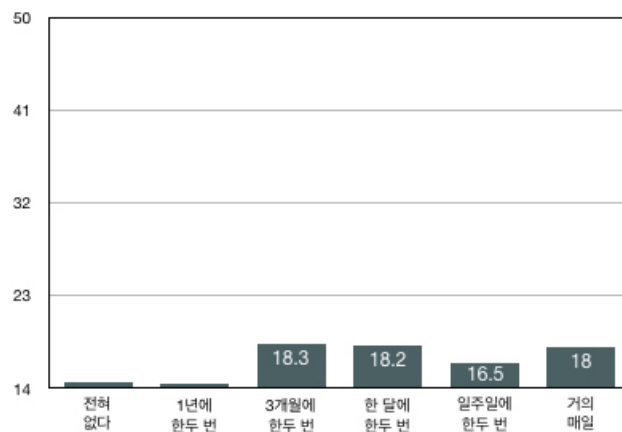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41	4.5	71	7.8	137	15.1	213	23.5	233	25.7	210	23.2	4.3	1.4	
사회적 고립	직장인 ^a	(532)	16	3.0	41	7.7	69	13.0	143	26.9	141	26.5	122	22.9	4.3	1.3
	대학생 ^b	(173)	5	2.9	9	5.2	25	14.5	32	18.5	58	33.5	44	25.4	4.5	1.3
	취준생 ^c	(200)	20	10.0	21	10.5	43	21.5	38	19.0	34	17.0	44	22.0	3.9	1.6
성별	남성	(338)	22	6.5	41	12.1	51	15.1	89	26.3	75	22.2	60	17.8	4.0	1.5
	여성	(567)	19	3.4	30	5.3	86	15.2	124	21.9	158	27.9	150	26.5	4.4	1.3
연령대	20대	(422)	13	3.1	21	5.0	46	10.9	99	23.5	120	28.4	123	29.1	4.6	1.3
	30대	(483)	28	5.8	50	10.4	91	18.8	114	23.6	113	23.4	87	18.0	4.0	1.4

*** $p < .001$

④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물었을 때, ‘3개월에 한두 번’이 1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한 달에 한두 번’(18.2%), ‘거의 매일’(18.0%), ‘일주일에 한두 번’(16.5%), ‘전혀 없다’(14.6%), ‘1년에 한두 번’(14.4%)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취준생의 경우 ‘1년에 한두 번’ 이하로 만나는 경우가 47.5%(‘전혀 없다’+‘1년에 한두 번’)로 과반수에 가까워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다른 집단들과 차이가 있었다.



[그림3-30] 이외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표3-44]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업무상 교류 제외)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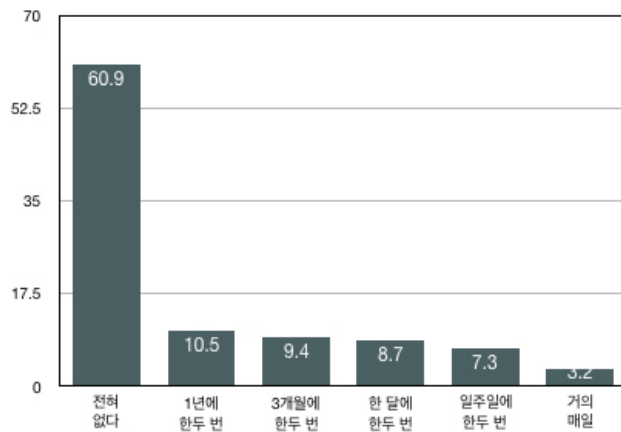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132	14.6	130	14.4	166	18.3	165	18.2	149	16.5	163	18.0	3.6	1.7	
사회적 역할	직장인a	59	11.1	68	12.8	107	20.1	115	21.6	86	16.2	97	18.2	3.7	1.6	21.56 *** a,b)>c
	대학생b	18	10.4	22	12.7	22	12.7	29	16.8	45	26.0	37	21.4	4.0	1.6	
	취준생c	55	27.5	40	20.0	37	18.5	21	10.5	18	9.0	29	14.5	3.0	1.8	
성별	남성	37	10.9	47	13.9	67	19.8	79	23.4	61	18.0	47	13.9	3.7	1.5	.533
	여성	95	16.8	83	14.6	99	17.5	86	15.2	88	15.5	116	20.5	3.6	1.8	
연령대	20대	66	15.6	59	14.0	63	14.9	75	17.8	77	18.2	82	19.4	3.7	1.7	.945
	30대	66	13.7	71	14.7	103	21.3	90	18.6	72	14.9	81	16.8	3.6	1.6	

*** $p < .001$

⑤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면교류빈도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없다’가 6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1년에 한두 번’(10.5%), ‘3개월에 한두 번’(9.4%) 등의 순이었다. 이는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대면으로 만난 경우가 약 40%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었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혀 없다’라는 응답은 취준생, 여성,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반대로 대학생, 남성, 30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31]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면교류 빈도

[표3-45]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면교류 빈도

단위 :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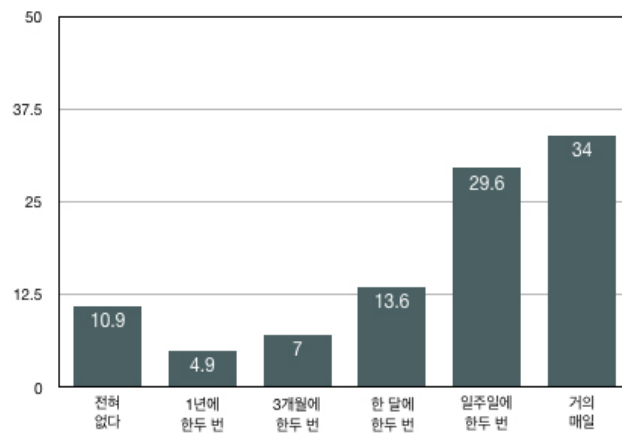
구분	계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551	60.9	95	10.5	85	9.4	79	8.7	66	7.3	29	3.2	2.0	1.5	
사회적연락할	직장인 (532)	327	61.5	52	9.8	43	8.1	49	9.2	45	8.5	16	3.0	2.0	1.5	2.03
	대학생 (173)	96	55.5	17	9.8	24	13.9	18	10.4	11	6.4	7	4.0	2.1	1.5	
	취준생 (200)	128	64.0	26	13.0	18	9.0	12	6.0	10	5.0	6	3.0	1.8	1.4	
성별	남성 (338)	177	52.4	38	11.2	42	12.4	40	11.8	30	8.9	11	3.3	2.2	1.5	3.560**
	여성 (567)	374	66.0	57	10.1	43	7.6	39	6.9	36	6.3	18	3.2	1.9	1.4	
연령대	20대 (422)	264	62.6	44	10.4	40	9.5	31	7.3	26	6.2	17	4.0	1.9	1.5	-0.839
	30대 (483)	287	59.4	51	10.6	45	9.3	48	9.9	40	8.3	12	2.5	2.0	1.5	

**p < .01

(2) 비대면 교류

① 가족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가족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물었을 때, ‘거의 매일’이 3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29.6%), ‘한 달에 한두 번’(13.6%), ‘전혀 없다’(10.9%)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취준생에서 26.5%가 ‘1년에 한두 번 미만’ 이하로 나타나(‘전혀 없다’+‘1년에 한두 번’)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의 비대면 교류 빈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3-32] 가족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표3-46] 가족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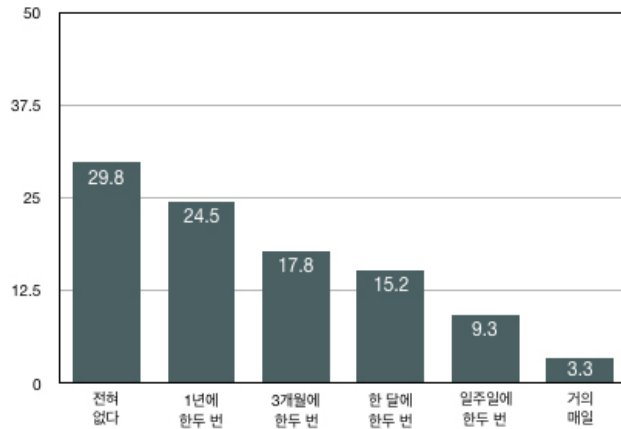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99	10.9	44	4.9	63	7.0	123	13.6	268	29.6	308	34.0	4.9	1.6	
사회적연할	직장인a	(532)	35	6.6	21	3.9	33	6.2	84	15.8	176	33.1	183	34.4	4.7	1.4	10.98*** a > c
	대학생b	(173)	24	13.9	10	5.8	15	8.7	16	9.2	50	28.9	58	33.5	4.3	1.8	
	취준생c	(200)	40	20.0	13	6.5	15	7.5	23	11.5	42	21.0	67	33.5	4.1	1.9	
성별	남성	(338)	31	9.2	22	6.5	28	8.3	65	19.2	112	33.1	80	23.7	4.3	1.5	-2.351*
	여성	(567)	68	12.0	22	3.9	35	6.2	58	10.2	156	27.5	228	40.2	4.6	1.7	
연령대	20대	(422)	60	14.2	17	4.0	27	6.4	46	10.9	124	29.4	148	35.1	4.2	1.7	-.981
	30대	(483)	39	8.1	27	5.6	36	7.5	77	15.9	144	29.8	160	33.1	4.5	1.5	

* $p < .05$, *** $p < .001$

②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없다’가 29.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1년에 한두 번’(24.5%), ‘3개월에 한두 번’(17.8%), ‘한 달에 한두 번’(15.2%) 등이 뒤를 따랐다. 전반적으로 친인척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응답자 유형별로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림3-33]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표3-47]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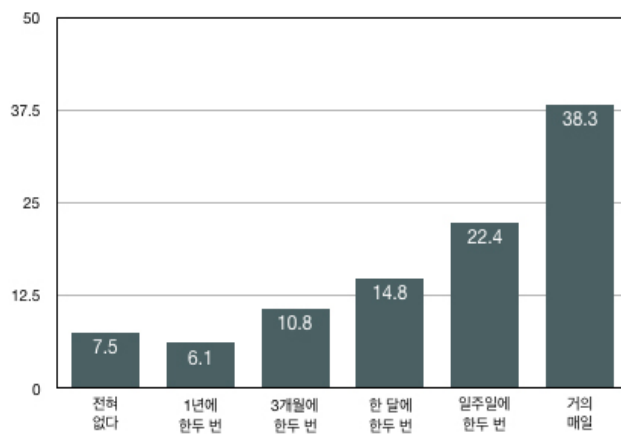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270	29.8	222	24.5	161	17.8	138	15.2	84	9.3	30	3.3	4.5	1.6	
사회적연결할	직장인a	(532)	138	25.9	133	25.0	96	18.0	91	17.1	56	10.5	18	3.4	2.7	1.5	8.22 ^{**} a,b > c
	대학생b	(173)	51	29.5	41	23.7	30	17.3	27	15.6	17	9.8	7	4.0	2.6	1.5	
	취준생c	(200)	81	40.5	48	24.0	35	17.5	20	10.0	11	5.5	5	2.5	2.2	1.4	
성별	남성	(338)	84	24.9	77	22.8	76	22.5	64	18.9	31	9.2	6	1.8	2.7	1.4	1.694
	여성	(567)	186	32.8	145	25.6	85	15.0	74	13.1	53	9.3	24	4.2	2.5	1.5	
연령층	20대	(422)	142	33.6	85	20.1	76	18.0	62	14.7	42	10.0	15	3.6	2.6	1.5	-.337
	30대	(483)	128	26.5	137	28.4	85	17.6	76	15.7	42	8.7	15	3.1	2.6	1.4	

^{**} $p < .01$

③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물었을 때, ‘거의 매일’이 3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22.4%), ‘한 달에 한두 번’(14.8%), ‘3개월에 한두 번’(10.8%) 등이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의 경우 비대면 교류의 빈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은 여성, 20대, 대학생인 경우 상대적으로 많았고 반대로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취준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그림3-34]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표3-48]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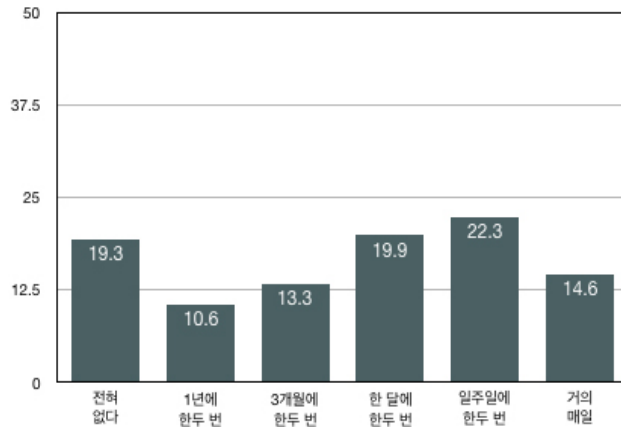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68	7.5	55	6.1	98	10.8	134	14.8	203	22.4	347	38.3	4.5	1.6	
사회적연락	직장인 ^a	(532)	29	5.5	34	6.4	52	9.8	85	16.0	124	23.3	208	39.1	4.6	1.5	3.87 [*] a > c
	대학생 ^b	(173)	15	8.7	7	4.0	18	10.4	28	16.2	34	19.7	71	41.0	4.6	1.6	
	취준생 ^c	(200)	24	12.0	14	7.0	28	14.0	21	10.5	45	22.5	68	34.0	4.3	1.7	
성별	남성	(338)	32	9.5	32	9.5	46	13.6	61	18.0	78	23.1	89	26.3	4.1	1.6	-5.800 ^{***}
	여성	(567)	36	6.3	23	4.1	52	9.2	73	12.9	125	22.0	258	45.5	4.8	1.5	
연령대	20대	(422)	32	7.6	16	3.8	35	8.3	47	11.1	76	18.0	216	51.2	4.8	1.6	5.075 ^{***}
	30대	(483)	36	7.5	39	8.1	63	13.0	87	18.0	127	26.3	131	27.1	4.3	1.5	

* $p < .05$, *** $p < .001$

④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물었을 때, ‘3개월에 한두 번’이 1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한 달에 한두 번’(18.2%), ‘거의 매일’(18.0%), ‘일주일에 한두 번’(16.5%), ‘전혀 없다’(14.6%), ‘1년에 한두 번’(14.4%) 등의 순서였다. 이때 ‘취준생’의 경우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2.5%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3-35]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비대면 교류(업무상 교류 제외)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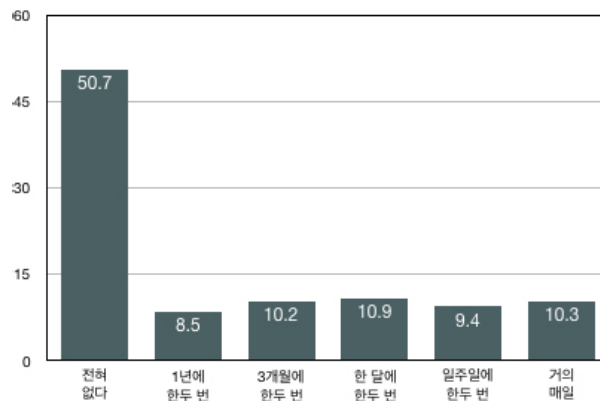
[표3-49]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비대면 교류(업무상 교류 제외) 빈도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175	19.3	96	10.6	120	13.3	180	19.9	202	22.3	132	14.6	3.6	1.7	
사회적연할	직장인a	(532)	83	15.6	49	9.2	75	14.1	116	21.8	126	23.7	83	15.6	3.8	1.6	19.01*** a,b)>c
	대학생b	(173)	27	15.6	18	10.4	19	11.0	33	19.1	46	26.6	30	17.3	3.8	1.7	
	취준생c	(200)	65	32.5	29	14.5	26	13.0	31	15.5	30	15.0	19	9.5	2.9	1.8	
성별	남성	(338)	54	16.0	38	11.2	51	15.1	81	24.0	78	23.1	36	10.7	3.6	1.6	-.018
	여성	(567)	121	21.3	58	10.2	69	12.2	99	17.5	124	21.9	96	16.9	3.6	1.8	
연령대	20대	(422)	91	21.6	43	10.2	51	12.1	71	16.8	102	24.2	64	15.2	3.6	1.8	-.272
	30대	(483)	84	17.4	53	11.0	69	14.3	109	22.6	100	20.7	68	14.1	3.6	1.7	

*** $p < .001$

⑤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없다’가 5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한 달에 한두 번’(10.9%), ‘거의 매일’(10.3%), ‘3개월에 한두 번’(10.2%), ‘일주일에 한두 번’(9.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혀 없다’가 가장 많아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들이라도 비대면으로라도 교류를 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 유형별로는 취준생, 여성, 30대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3-36]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표3-50]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단위 :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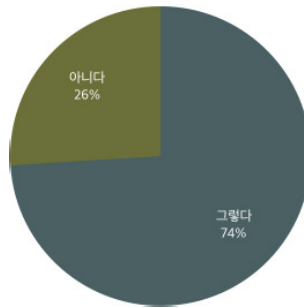
구분	계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459	50.7	77	8.5	92	10.2	99	10.9	85	9.4	93	10.3	2.5	1.8	
사회적역할	직장인 (532)	273	51.3	45	8.5	61	11.5	59	11.1	44	8.3	50	9.4	2.4	1.8	1.00
	대학생 (173)	80	46.2	17	9.8	15	8.7	20	11.6	23	13.3	18	10.4	2.7	1.9	
	취준생 (200)	106	53.0	15	7.5	16	8.0	20	10.0	18	9.0	25	12.5	2.5	1.9	
성별	남성 (338)	144	42.6	35	10.4	41	12.1	55	16.3	39	11.5	24	7.1	2.7	1.7	1.859*
	여성 (567)	315	55.6	42	7.4	51	9.0	44	7.8	46	8.1	69	12.2	2.4	1.9	
연령대	20대 (422)	212	50.2	40	9.5	36	8.5	46	10.9	39	9.2	49	11.6	2.5	1.9	.567
	30대 (483)	247	51.1	37	7.7	56	11.6	53	11.0	46	9.5	44	9.1	2.5	1.8	

* $p < .05$

4) 소속감

(1) 소속감 여부

가족,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렇다’가 74.0%로 ‘아니다’(26.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특성별로 사회적 역할에서 소속감 여부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그렇다’는 응답은 직장인인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아니다’라는 응답은 취준생에서 많았다.



[그림3-37] 소속감 여부

[표3-51] 소속감 여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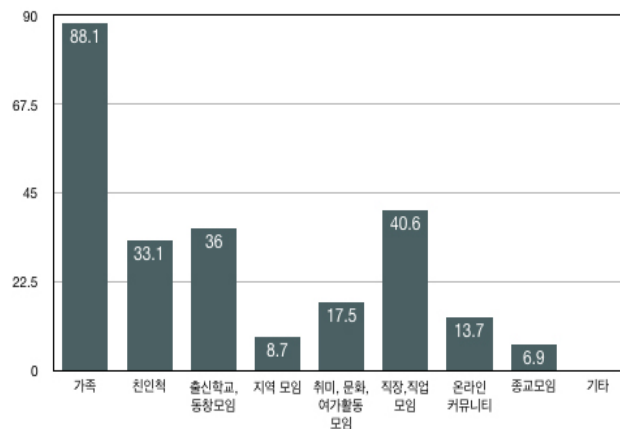
구분		계	그렇다		아니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670	74.0	235	26.0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419	78.8	113	21.2	25.347***
	대학생	(173)	130	75.1	43	24.9	
	취준생	(200)	121	60.5	79	39.5	
성별	남성	(338)	243	71.9	95	28.1	1.285
	여성	(567)	427	75.3	140	24.7	
연령대	20대	(422)	321	76.1	101	23.9	1.700
	30대	(483)	349	72.3	134	27.7	

*** $p < .001$

(2)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가족,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지 물었다. 그 결과, ‘가족’이 8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장이나 직업 관련 모임’(40.6%),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36.0%), ‘친인척’(33.1%), ‘취미, 문화, 여가활동 모임’(17.5%), ‘온라인 커뮤니티’(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유형에서 ‘가족’에게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직장인, 여성,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장이나 직업 관련 모임’이라는 응답은 직장인, 30대,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직장인이 가장 많기는 하였지만 53.2%에 그쳐 거의 절반 정도는 직장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이라는 응답은 대학생, 여성,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취미, 문화, 여가 활동’은 직장인, 남성, 20대에서 높았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취준생, 여성, 20대에서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취준생의 경우, 직장이나 학교라는 소속이 사라지고 취업을 준비하는 행위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림3-38]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표3-52]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1)

단위 : 명, %

구분		계	가족		친인척		출신학교, 동창모임		지역 모임		취미, 문화, 여가활동 모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70)	590	88.1	222	33.1	241	36.0	58	8.7	117	17.5
사회적 역할	직장인	(419)	374	89.3	138	32.9	138	32.9	36	8.6	81	19.3
	대학생	(130)	112	86.2	46	35.4	59	45.4	11	8.5	19	14.6
	취준생	(121)	104	86.0	38	31.4	44	36.4	11	9.1	17	14.0
성별	남성	(243)	209	86.0	73	30.0	93	38.3	23	9.5	48	19.8
	여성	(427)	381	89.2	149	34.9	148	34.7	35	8.2	69	16.2
연령대	20대	(321)	285	88.8	108	33.6	118	36.8	18	5.6	58	18.1
	30대	(349)	305	87.4	114	32.7	123	35.2	40	11.5	59	16.9

[표3-53]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2)

단위 : 명, %

구분		계	직장, 직업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종교모임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70)	272	40.6	92	13.7	46	6.9	1	0.1
사회적 역할	직장인	(419)	223	53.2	37	8.8	28	6.7	0	0.0
	대학생	(130)	33	25.4	23	17.7	11	8.5	0	0.0
	취준생	(121)	16	13.2	32	26.4	7	5.8	1	0.8
성별	남성	(243)	103	42.4	24	9.9	17	7.0	0	0.0
	여성	(427)	169	39.6	68	15.9	29	6.8	1	0.2
연령대	20대	(321)	110	34.3	49	15.3	21	6.5	1	0.3
	30대	(349)	162	46.4	43	12.3	25	7.2	0	0.0

5) 외로움 정도

(1) 외로움 전반

평소 감정 빈도를 묻는 18개 문항의 4점 환산 평균은 2.3점으로 긍정에 가까운 편임을 알 수 있다(높을수록 부정적 감정 자주 느낌). 한편, 응답자 특성별로 사회적 역할, 연령대, 외로움 위험군에서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사회적 역할에서는 취준생이 가장 부정적 감정 수준이 높았고 20대보다 30대가 부정적 감정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부정적 감정 수준이 높았다.

[표3-54] 외로움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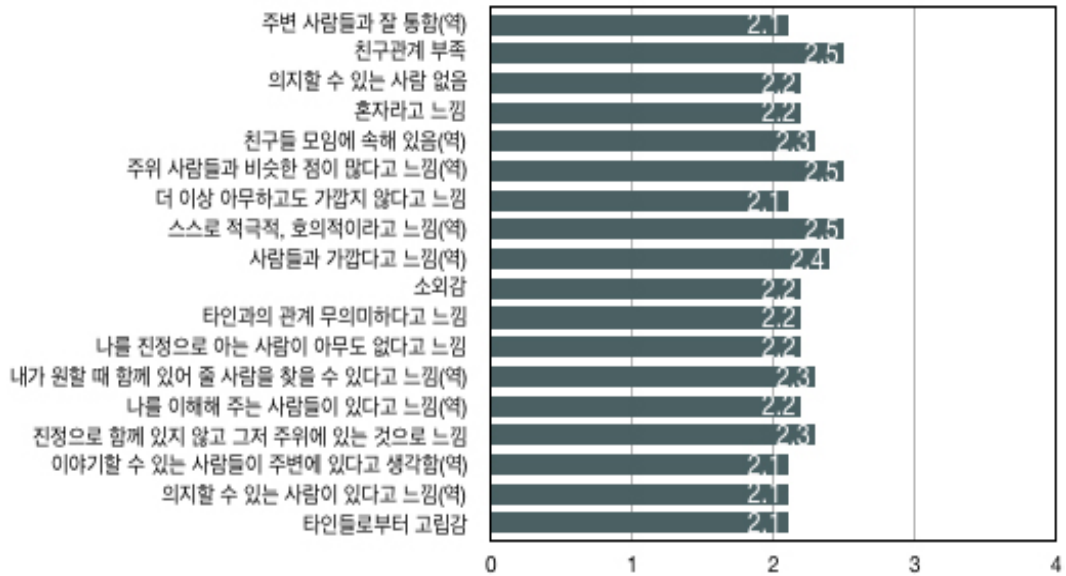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905)	2.3	0.6	-
사회적 역할	직장인a	(532)	2.2	0.6	5.903** a, b < c
	대학생b	(173)	2.2	0.7	
	취준생c	(200)	2.4	0.7	
성별	남성	(338)	2.2	0.6	-0.497
	여성	(567)	2.3	0.6	
연령대	20대	(422)	2.2	0.6	-3.480***
	30대	(483)	2.3	0.6	

** $p < .01$, *** $p < .001$

※ 평균은 4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의미가 되도록 환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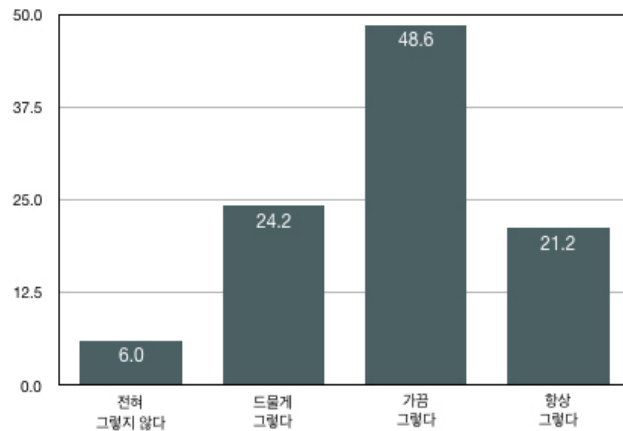
외로움 전반을 도출하는 데에 있어서 아래 18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긍정적인 문항은 역코딩을 통해 부정적 문항으로 변환하였는데 해당 문항은 (역)으로 표시하였다. 4점 만점(4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에 대부분 2.1~2.5점 사이였는데 ‘친구관계 부족’,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낌(역)’, ‘스스로 적극적, 호의적이라고 느낌(역)’의 문항이 가장 부정적이다.



[그림3-39] 주요 영역별 외로움 수준

①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함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한다고 느끼는지 물었을 때, 평균은 2.9점으로 긍정적인 편이었다(4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준생, 남성, 30대, 위험군에서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모든 유형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3-40]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함

[표3-55]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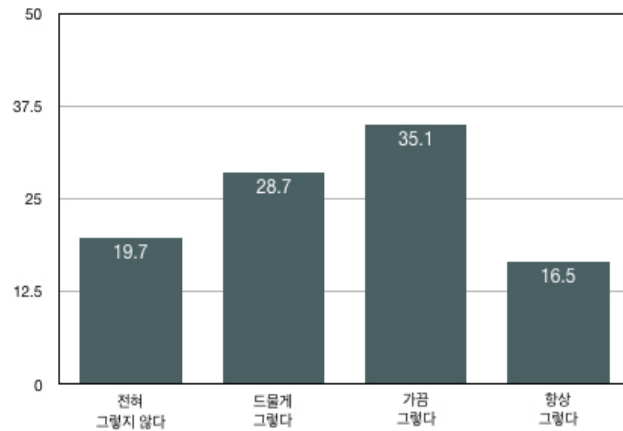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54	6.0	219	24.2	440	48.6	192	21.2	2.9	0.8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21	3.9	124	23.3	276	51.9	111	20.9	2.9	0.8	7.173*** a, b < c
	대학생	(173)	11	6.4	33	19.1	86	49.7	43	24.9	2.9	0.8	
	취준생	(200)	22	11.0	62	31.0	78	39.0	38	19.0	2.7	0.9	
성별	남성	(338)	20	5.9	96	28.4	162	47.9	60	17.8	2.8	0.8	2.150*
	여성	(567)	34	6.0	123	21.7	278	49.0	132	23.3	2.9	0.8	
연령대	20대	(422)	24	5.7	94	22.3	196	46.4	108	25.6	2.9	0.8	-2.360*
	30대	(483)	30	6.2	125	25.9	244	50.5	84	17.4	2.8	0.8	

* $p < .05$, *** $p < .001$

② 친구관계 부족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평균은 2.5점이었다(4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한편, 응답자 특성별로 성별, 연령대에서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여성,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3-41] 친구관계 부족

[표3-56] 친구관계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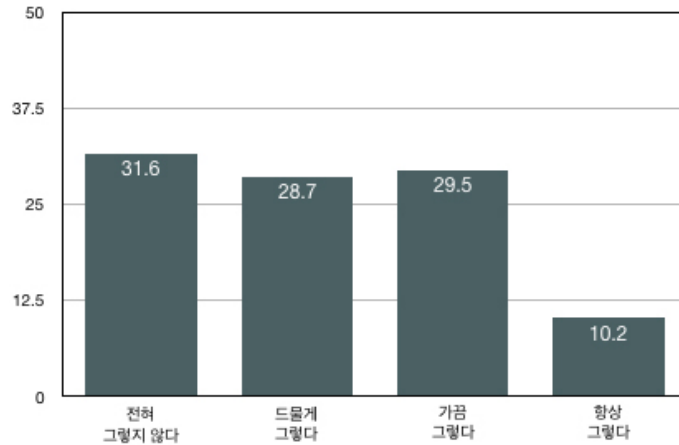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178	19.7	260	28.7	318	35.1	149	16.5	2.5	1.0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94	17.7	167	31.4	195	36.7	76	14.3	2.5	0.9	2.689
	대학생	(173)	46	26.6	42	24.3	60	34.7	25	14.5	2.4	1.0	
	취준생	(200)	38	19.0	51	25.5	63	31.5	48	24.0	2.6	1.1	
성별	남성	(338)	77	22.8	100	29.6	122	36.1	39	11.5	2.4	1.0	-2.838**
	여성	(567)	101	17.8	160	28.2	196	34.6	110	19.4	2.6	1.0	
연령대	20대	(422)	105	24.9	120	28.4	130	30.8	67	15.9	2.4	1.0	-3.052**
	30대	(483)	73	15.1	140	29.0	188	38.9	82	17.0	2.6	0.9	

**p < .01

③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지 물었을 때, 평균 2.2점이었다(4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한편, 응답자 특성별로 연령대에서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30대, 위험군에서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3-42]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음

[표3-57]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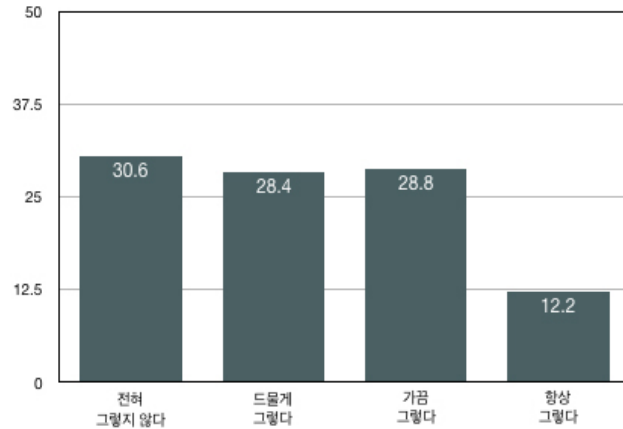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286	31.6	260	28.7	267	29.5	92	10.2	2.2	1.0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162	30.5	160	30.1	159	29.9	51	9.6	2.2	1.0	1.520
	대학생	(173)	64	37.0	46	26.6	48	27.7	15	8.7	2.1	1.0	
	취준생	(200)	60	30.0	54	27.0	60	30.0	26	13.0	2.3	1.0	
성별	남성	(338)	106	31.4	100	29.6	99	29.3	33	9.8	2.2	1.0	-0.182
	여성	(567)	180	31.7	160	28.2	168	29.6	59	10.4	2.2	1.0	
연령대	20대	(422)	154	36.5	125	29.6	105	24.9	38	9.0	2.1	1.0	-3.371***
	30대	(483)	132	27.3	135	28.0	162	33.5	54	11.2	2.3	1.0	

*** $p < .001$

④ 혼자라고 느낌

혼자라고 느끼는지의 평균은 2.2점이었다(4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한편, 응답자 유형별로 사회적 역할, 연령대, 외로움 위험군에서 평소 감정 빈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취준생, 30대에서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43] 혼자라고 느낌

[표3-58] 혼자라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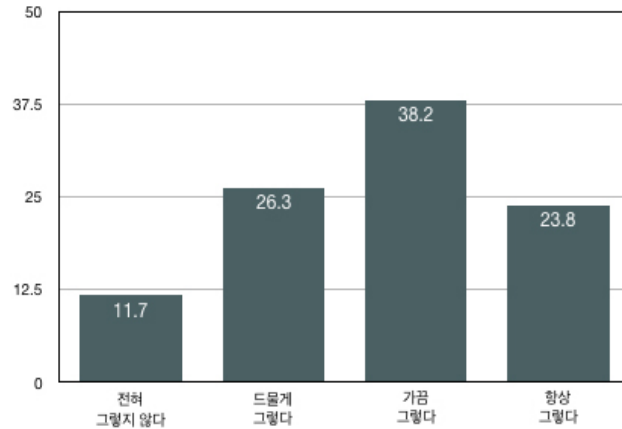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277	30.6	257	28.4	261	28.8	110	12.2	2.2	1.0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166	31.2	162	30.5	149	28.0	55	10.3	2.2	1.0	3.608* a < c
	대학생	(173)	57	32.9	43	24.9	57	32.9	16	9.2	2.2	1.0	
	취준생	(200)	54	27.0	52	26.0	55	27.5	39	19.5	2.4	1.1	
성별	남성	(338)	111	32.8	97	28.7	93	27.5	37	10.9	2.2	1.0	-1.367
	여성	(567)	166	29.3	160	28.2	168	29.6	73	12.9	2.3	1.0	
연령대	20대	(422)	139	32.9	127	30.1	112	26.5	44	10.4	2.1	1.0	-2.244*
	30대	(483)	138	28.6	130	26.9	149	30.8	66	13.7	2.3	1.0	

* $p < .05$

⑤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음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지 물었을 때 평균은 2.7점이었다(4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응답자 유형별로는 사회적 역할, 연령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취업생, 30대에서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3-44]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음

[표3-59]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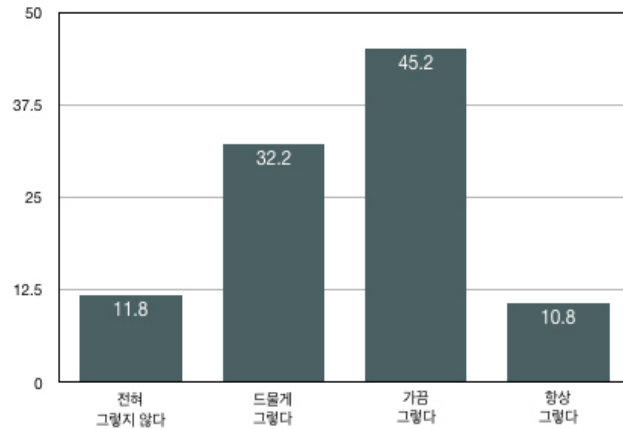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106	11.7	238	26.3	346	38.2	215	23.8	2.7	1.0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50	9.4	132	24.8	231	43.4	119	22.4	2.8	0.9	5.880** a, b< c
	대학생	(173)	14	8.1	52	30.1	57	32.9	50	28.9	2.8	0.9	
	취준생	(200)	42	21.0	54	27.0	58	29.0	46	23.0	2.5	1.1	
성별	남성	(338)	38	11.2	94	27.8	124	36.7	82	24.3	2.7	1.0	0.017
	여성	(567)	68	12.0	144	25.4	222	39.2	133	23.5	2.7	1.0	
연령대	20대	(422)	40	9.5	104	24.6	152	36.0	126	29.9	2.9	1.0	-3.642***
	30대	(483)	66	13.7	134	27.7	194	40.2	89	18.4	2.6	0.9	

** $p < .01$, *** $p < .001$.

⑥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낌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끼는지의 평균은 2.6점이었다(4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구체적으로 응답자 유형별로 사회적 역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준생의 경우에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3-45]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낌

[표3-60]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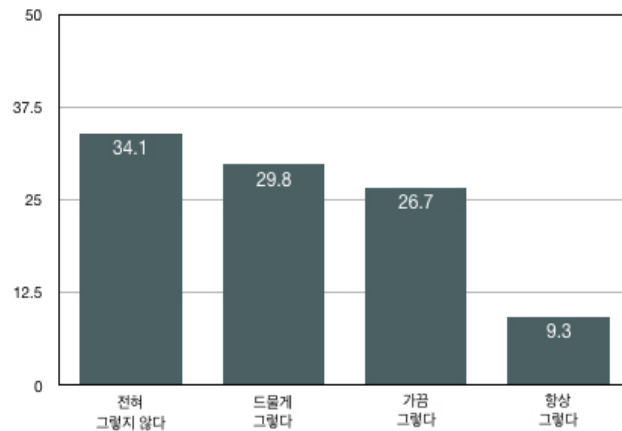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107	11.8	291	32.2	409	45.2	98	10.8	2.6	0.8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53	10.0	156	29.3	269	50.6	54	10.2	2.6	0.8	10.445*** a, b < c
	대학생	(173)	15	8.7	58	33.5	74	42.8	26	15.0	2.6	0.8	
	취준생	(200)	39	19.5	77	38.5	66	33.0	18	9.0	2.3	0.9	
성별	남성	(338)	38	11.2	104	30.8	167	49.4	29	8.6	2.6	0.8	-0.083
	여성	(567)	69	12.2	187	33.0	242	42.7	69	12.2	2.5	0.9	
연령대	20대	(422)	46	10.9	141	33.4	180	42.7	55	13.0	2.6	0.9	-0.938
	30대	(483)	61	12.6	150	31.1	229	47.4	43	8.9	2.5	0.8	

*** $p < .001$

⑦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낌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끼는지 물었을 때의 질문에 대한 평균은 2.1점이었
다(4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응답자 유형별로 연령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30대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3-46]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낌

[표3-61]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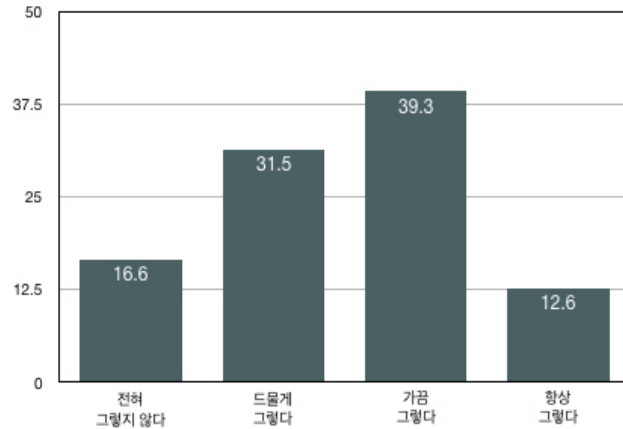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309	34.1	270	29.8	242	26.7	84	9.3	2.1	1.0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175	32.9	165	31.0	151	28.4	41	7.7	2.1	1.0	0.670
	대학생	(173)	66	38.2	51	29.5	37	21.4	19	11.0	2.1	1.0	
	취준생	(200)	68	34.0	54	27.0	54	27.0	24	12.0	2.2	1.0	
성별	남성	(338)	116	34.3	95	28.1	102	30.2	25	7.4	2.1	1.0	-0.120
	여성	(567)	193	34.0	175	30.9	140	24.7	59	10.4	2.1	1.0	
연령대	20대	(422)	168	39.8	134	31.8	89	21.1	31	7.3	2.0	1.0	-4.396***
	30대	(483)	141	29.2	136	28.2	153	31.7	53	11.0	2.2	1.0	

*** $p < .001$

⑧ 스스로 적극적, 호의적이라고 느낌

스스로 적극적, 호의적이라고 느끼는지 물었을 때에 대한 평균은 2.5점이었다(4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한편, 응답자 유형별로 사회적 역할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취업준생에서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3-47] 스스로 적극적, 호의적이라고 느낌

[표3-62] 스스로 적극적, 호의적이라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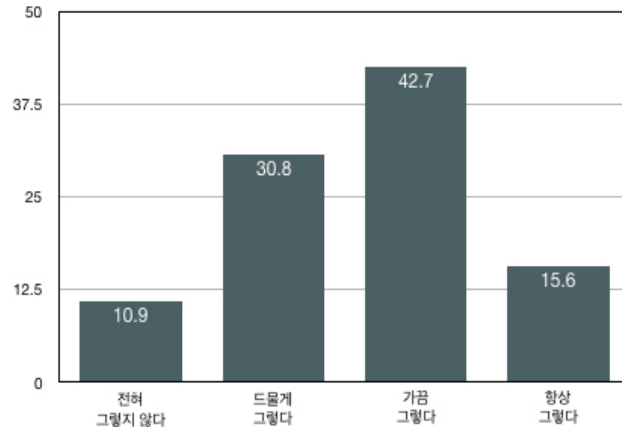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150	16.6	285	31.5	356	39.3	114	12.6	2.5	0.9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78	14.7	174	32.7	215	40.4	65	12.2	2.5	0.9
	대학생	(173)	24	13.9	48	27.7	75	43.4	26	15.0	2.6	0.9
	취준생	(200)	48	24.0	63	31.5	66	33.0	23	11.5	2.3	1.0
성별	남성	(338)	43	12.7	114	33.7	137	40.5	44	13.0	2.5	0.9
	여성	(567)	107	18.9	171	30.2	219	38.6	70	12.3	2.4	0.9
연령대	20대	(422)	68	16.1	129	30.6	159	37.7	66	15.6	2.5	0.9
	30대	(483)	82	17.0	156	32.3	197	40.8	48	9.9	2.4	0.9

** $p < .01$

⑨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낌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끼는지 물었을 때, 평균은 2.6점이었다(4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한편, 응답자 유형별로 사회적 역할에 따른 평균 점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준생에서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3-48]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낌

[표3-63]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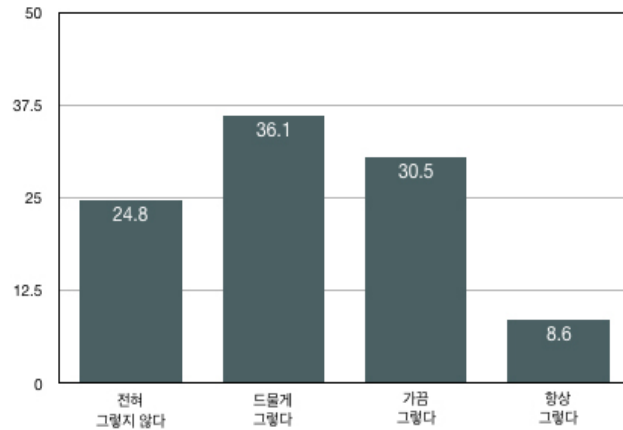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99	10.9	279	30.8	386	42.7	141	15.6	2.6	0.9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43	8.1	172	32.3	243	45.7	74	13.9	2.7	0.8
	대학생	(173)	15	8.7	47	27.2	79	45.7	32	18.5	2.7	0.9
	취준생	(200)	41	20.5	60	30.0	64	32.0	35	17.5	2.5	1.0
성별	남성	(338)	33	9.8	98	29.0	154	45.6	53	15.7	2.7	0.9
	여성	(567)	66	11.6	181	31.9	232	40.9	88	15.5	2.6	0.9
연령대	20대	(422)	40	9.5	131	31.0	181	42.9	70	16.6	2.7	0.9
	30대	(483)	59	12.2	148	30.6	205	42.4	71	14.7	2.6	0.9

** $p < .01$

⑩ 소외감

소외감을 느끼는지 물었을 때의 평균은 2.2점이었다(4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응답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림3-49] 소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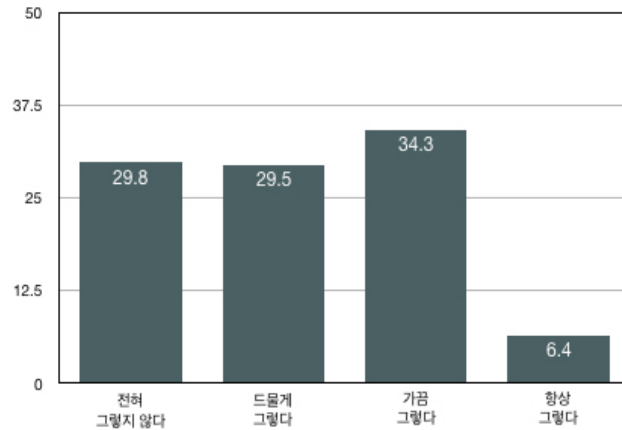
[표3-64] 소외감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224	24.8	327	36.1	276	30.5	78	8.6	2.2	0.9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125	23.5	201	37.8	170	32.0	36	6.8	2.2	0.9	2.688
	대학생	(173)	50	28.9	67	38.7	40	23.1	16	9.2	2.1	0.9	
	취준생	(200)	49	24.5	59	29.5	66	33.0	26	13.0	2.3	1.0	
성별	남성	(338)	83	24.6	122	36.1	111	32.8	22	6.5	2.2	0.9	-0.425
	여성	(567)	141	24.9	205	36.2	165	29.1	56	9.9	2.2	0.9	
연령대	20대	(422)	111	26.3	163	38.6	113	26.8	35	8.3	2.2	0.9	-1.813
	30대	(483)	113	23.4	164	34.0	163	33.7	43	8.9	2.3	0.9	

⑪ 타인과의 관계 무의미하다고 느낌

타인과의 관계를 무의미하다고 느끼는지 물어본 결과, 평균은 2.2점이었다(평균이 높을수록 부정적 의미). 한편, 응답자 특성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여성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3-50] 타인과의 관계 무의미하다고 느낌

[표3-65] 타인과의 관계 무의미하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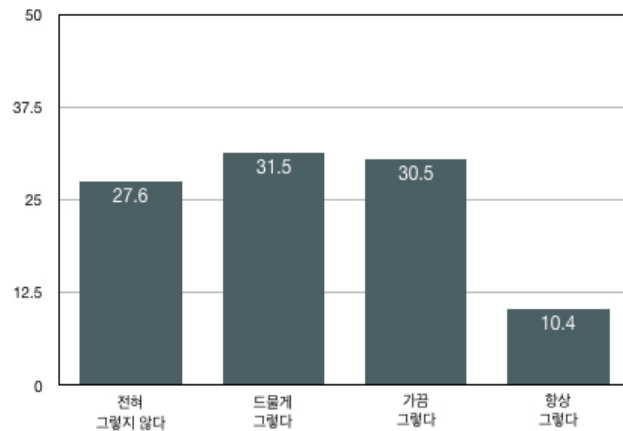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270	29.8	267	29.5	310	34.3	58	6.4	2.2	0.9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155	29.1	166	31.2	184	34.6	27	5.1	2.2	0.9	0.249
	대학생	(173)	59	34.1	41	23.7	56	32.4	17	9.8	2.2	1.0	
	취준생	(200)	56	28.0	60	30.0	70	35.0	14	7.0	2.2	0.9	
성별	남성	(338)	104	30.8	112	33.1	110	32.5	12	3.6	2.1	0.9	-2.136*
	여성	(567)	166	29.3	155	27.3	200	35.3	46	8.1	2.2	1.0	
연령대	20대	(422)	139	32.9	113	26.8	145	34.4	25	5.9	2.1	0.9	-1.197
	30대	(483)	131	27.1	154	31.9	165	34.2	33	6.8	2.2	0.9	

* $p < .05$

⑫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느낌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에 대한 문항에서는 평균이 2.2점이었다(4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응답자 특성별로는 연령대에서 평균에 통계적인 차이가 있어 30대에서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3-51]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느낌

[표3-66]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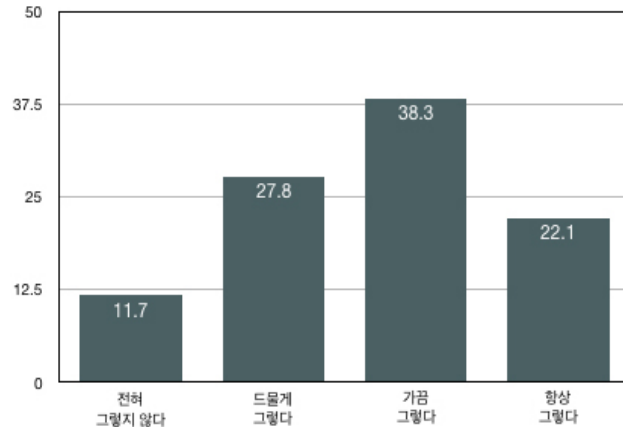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250	27.6	285	31.5	276	30.5	94	10.4	2.2	1.0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137	25.8	179	33.6	172	32.3	44	8.3	2.2	0.9	2.853
	대학생	(173)	60	34.7	51	29.5	44	25.4	18	10.4	2.1	1.0	
	취준생	(200)	53	26.5	55	27.5	60	30.0	32	16.0	2.4	1.0	
성별	남성	(338)	93	27.5	116	34.3	101	29.9	28	8.3	2.2	0.9	-1.145
	여성	(567)	157	27.7	169	29.8	175	30.9	66	11.6	2.3	1.0	
연령대	20대	(422)	135	32.0	123	29.1	122	28.9	42	10.0	2.2	1.0	-1.980*
	30대	(483)	115	23.8	162	33.5	154	31.9	52	10.8	2.3	0.9	

* $p < .05$

⑬ 내가 원할 때 함께 있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낌

내가 원할 때 함께 있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끼는지 물었을 때, 평균은 2.7점이었다(4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한편, 응답자 유형별로 사회적 역할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여 취업준생의 경우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3-52] 내가 원할 때 함께 있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낌

[표3-67] 내가 원할 때 함께 있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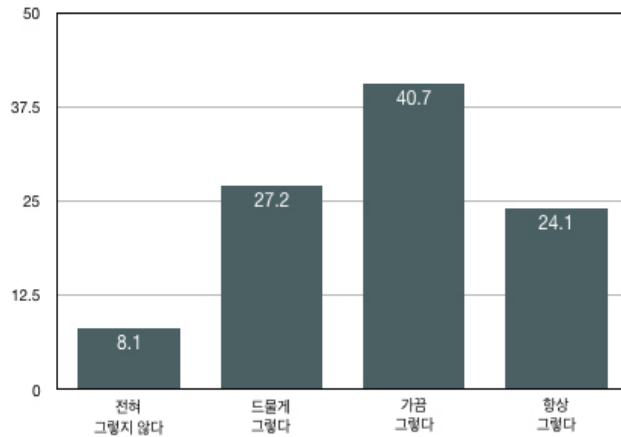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106	11.7	252	27.8	347	38.3	200	22.1	2.7	0.9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55	10.3	151	28.4	212	39.8	114	21.4	2.7	0.9	4.094* b < c
	대학생	(173)	13	7.5	47	27.2	69	39.9	44	25.4	2.8	0.9	
	취준생	(200)	38	19.0	54	27.0	66	33.0	42	21.0	2.6	1.0	
성별	남성	(338)	34	10.1	99	29.3	132	39.1	73	21.6	2.7	0.9	-0.336
	여성	(567)	72	12.7	153	27.0	215	37.9	127	22.4	2.7	1.0	
연령대	20대	(422)	43	10.2	119	28.2	151	35.8	109	25.8	2.8	0.9	-1.924
	30대	(483)	63	13.0	133	27.5	196	40.6	91	18.8	2.7	0.9	

* $p < .05$

⑭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끼는지 물었을 때, 평균은 2.8점이었다(4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한편, 응답자 특성별로 사회적 역할, 연령대에서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취업준생, 30대에서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3-53]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낌

[표3-68]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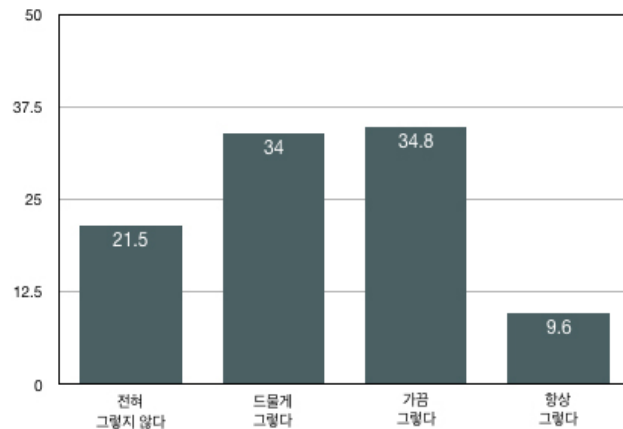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73	8.1	246	27.2	368	40.7	218	24.1	2.8	0.9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32	6.0	144	27.1	224	42.1	132	24.8	2.9	0.9
	대학생	(173)	13	7.5	47	27.2	69	39.9	44	25.4	2.8	0.9
	취준생	(200)	28	14.0	55	27.5	75	37.5	42	21.0	2.7	1.0
성별	남성	(338)	23	6.8	97	28.7	141	41.7	77	22.8	2.8	0.9
	여성	(567)	50	8.8	149	26.3	227	40.0	141	24.9	2.8	0.9
연령대	20대	(422)	30	7.1	105	24.9	172	40.8	115	27.3	2.9	0.9
	30대	(483)	43	8.9	141	29.2	196	40.6	103	21.3	2.7	0.9

* $p < .05$

⑮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으로 느낌

사람들이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으로 느끼는지의 문항에 대한 평균은 2.3점이었다(4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한편, 연령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30대에서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3-54]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으로 느낌

[표3-69]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으로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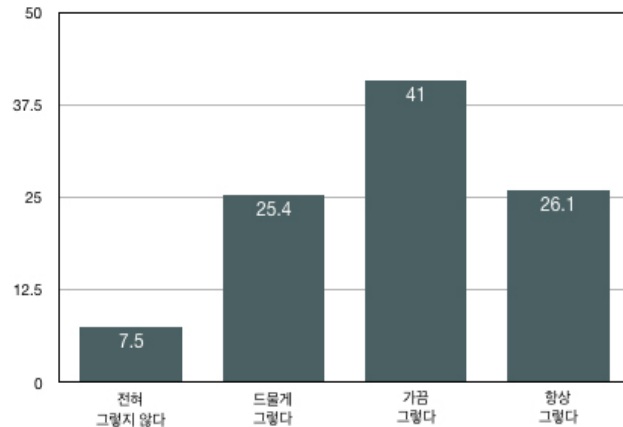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195	21.5	308	34.0	315	34.8	87	9.6	2.3	0.9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103	19.4	197	37.0	184	34.6	48	9.0	2.3	0.9	0.297
	대학생	(173)	49	28.3	44	25.4	63	36.4	17	9.8	2.3	1.0	
	취준생	(200)	43	21.5	67	33.5	68	34.0	22	11.0	2.3	0.9	
성별	남성	(338)	72	21.3	111	32.8	129	38.2	26	7.7	2.3	0.9	-0.060
	여성	(567)	123	21.7	197	34.7	186	32.8	61	10.8	2.3	0.9	
연령대	20대	(422)	106	25.1	144	34.1	138	32.7	34	8.1	2.2	0.9	-2.701**
	30대	(483)	89	18.4	164	34.0	177	36.6	53	11.0	2.4	0.9	

** $p < .01$

⑯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함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평균은 2.9점이었다(4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이때, 연령대에서 평균 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30대에서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3-55]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함

[표3-70]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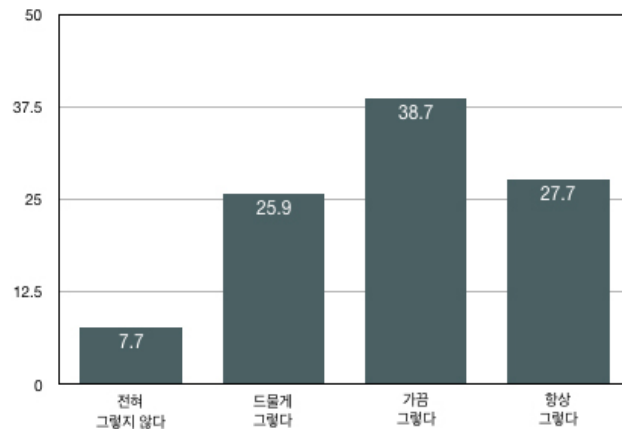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68	7.5	230	25.4	371	41.0	236	26.1	2.9	0.9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28	5.3	144	27.1	229	43.0	131	24.6	2.9	0.8	1.543
	대학생	(173)	12	6.9	42	24.3	67	38.7	52	30.1	2.9	0.9	
	취준생	(200)	28	14.0	44	22.0	75	37.5	53	26.5	2.8	1.0	
성별	남성	(338)	28	8.3	93	27.5	135	39.9	82	24.3	2.8	0.9	1.422
	여성	(567)	40	7.1	137	24.2	236	41.6	154	27.2	2.9	0.9	
연령대	20대	(422)	29	6.9	97	23.0	175	41.5	121	28.7	2.9	0.9	-1.992*
	30대	(483)	39	8.1	133	27.5	196	40.6	115	23.8	2.8	0.9	

* $p < .05$

⑰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끼는지 물었을 때, 평균은 2.9점이었다(4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한편, 성별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가 낮았다.



[그림3-56]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낌

[표3-71]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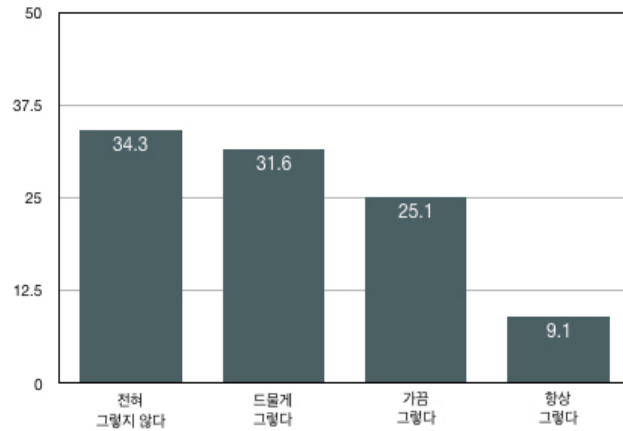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70	7.7	234	25.9	350	38.7	251	27.7	2.9	0.9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33	6.2	137	25.8	220	41.4	142	26.7	2.9	0.9	1.773
	대학생	(173)	14	8.1	39	22.5	67	38.7	53	30.6	2.9	0.9	
	취준생	(200)	23	11.5	58	29.0	63	31.5	56	28.0	2.8	1.0	
성별	남성	(338)	31	9.2	95	28.1	130	38.5	82	24.3	2.8	0.9	2.200*
	여성	(567)	39	6.9	139	24.5	220	38.8	169	29.8	2.9	0.9	
연령대	20대	(422)	35	8.3	97	23.0	162	38.4	128	30.3	2.9	0.9	-1.345
	30대	(483)	35	7.2	137	28.4	188	38.9	123	25.5	2.8	0.9	

* $p < .05$

⑱ 타인들로부터 고립감

타인들로부터 고립감을 느끼는지 물었을 때, 평균은 2.1점이었다(4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연령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여 30대에서 평균이 높은 편이었다.



[그림3-57] 타인들로부터 고립감 느낌

[표3-72] 타인들로부터 고립감 느낌

단위 :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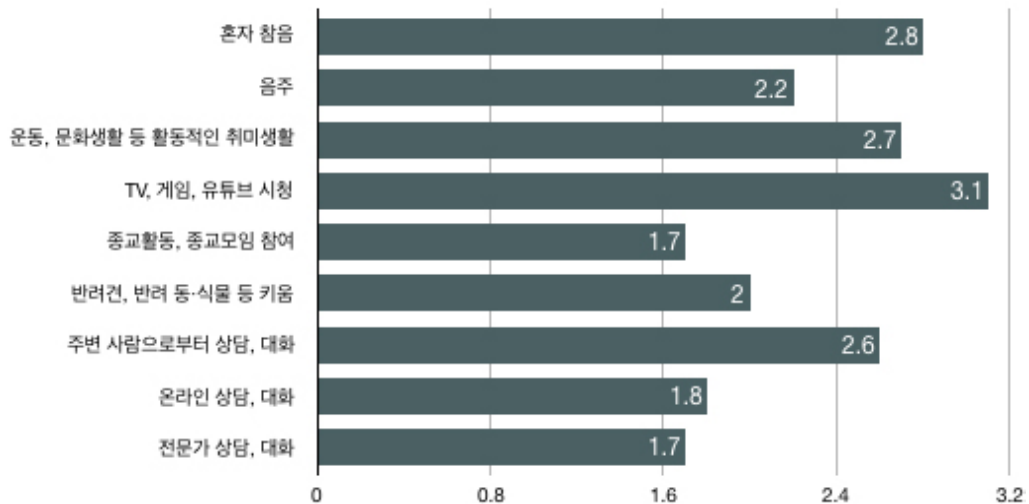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310	34.3	286	31.6	227	25.1	82	9.1	2.1	1.0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178	33.5	177	33.3	134	25.2	43	8.1	2.1	1.0	1.548
	대학생	(173)	67	38.7	50	28.9	43	24.9	13	7.5	2.0	1.0	
	취준생	(200)	65	32.5	59	29.5	50	25.0	26	13.0	2.2	1.0	
성별	남성	(338)	115	34.0	106	31.4	88	26.0	29	8.6	2.1	1.0	0.053
	여성	(567)	195	34.4	180	31.7	139	24.5	53	9.3	2.1	1.0	
연령대	20대	(422)	164	38.9	131	31.0	96	22.7	31	7.3	2.0	1.0	-3.007**
	30대	(483)	146	30.2	155	32.1	131	27.1	51	10.6	2.2	1.0	

** $p < .01$

(2)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방법

응답자를 대상으로 스스로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 질문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 9개의 방법을 질문하였으며 각각의 방법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총4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계산하였다. 이에 점수가 높을수록 많은 응답자가 외로움 및 고립을 해결하기 위하여 활용한 방법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한 방법은 ‘TV, 게임, 유튜브 시청’으로 평균 3.1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혼자 참음’으로 평균 2.8점이었다. 두 방법 모두 혼자 행하는 정적인 활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외에는 ‘운동, 문화생활 등 활동적인 취미생활’이 평균 2.7점으로 나타났으며,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담, 대화’가 평균 2.6점이었다. 제일 낮은 방법은 ‘종교활동, 종교모임 참여’와 ‘전문가 상담, 대화’로 두 방법은 동일하게 평균 1.7점으로 나타났다.



[그림3-58]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활용하는 방법

① 혼자 참음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혼자서 그냥 참는지 물었을 때, ‘그렇다’는 응답이 70.4%(‘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로 ‘그렇지 않다’ 30.2%(‘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성별에 따라 대처 방법 활용 정도 차이가 유의하여 ‘그렇다’는 응답은 여성,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3-73] 혼자 참음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71	7.8	197	21.8	449	49.6	188	20.8	268	29.6	637	70.4	2.8	0.8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40	7.5	119	22.4	280	52.6	93	17.5	159	29.9	373	70.1	2.8	0.8
	대학생	(173)	17	9.8	38	22.0	67	38.7	51	29.5	55	31.8	118	68.2	2.9	0.9
	취준생	(200)	14	7.0	40	20.0	102	51.0	44	22.0	54	27.0	146	73.0	2.9	0.8
성별	남성	(338)	32	9.5	76	22.5	176	52.1	54	16.0	108	32.0	230	68.0	2.7	0.8
	여성	(567)	39	6.9	121	21.3	273	48.1	134	23.6	160	28.2	407	71.8	2.9	0.8
연령대	20대	(422)	35	8.3	83	19.7	203	48.1	101	23.9	118	28.0	304	72.0	2.9	0.9
	30대	(483)	36	7.5	114	23.6	246	50.9	87	18.0	150	31.1	333	68.9	2.8	0.8

* $p < .05$

② 음주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술을 마시는지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9.4%(‘전혀 그렇지 않다’ 34.1%+‘그렇지 않은 편이다’)로 ‘그렇다’ 40.6%(‘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응답자 유형별로 사회적 역할, 성별, 연령대에서 대처 방법 활용 정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취준생, 여성, 20대, ‘그렇다’는 응답은 직장인, 남성, 30대에서 많았다.

[표3-74] 음주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309	34.1	229	25.3	278	30.7	89	9.8	538	59.4	367	40.6	2.2	1.0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164	30.8	129	24.2	183	34.4	56	10.5	293	55.1	239	44.9	2.2	1.0
	대학생	(173)	60	34.7	42	24.3	49	28.3	22	12.7	102	59.0	71	41.0	2.2	1.1
	취준생	(200)	85	42.5	58	29.0	46	23.0	11	5.5	143	71.5	57	28.5	1.9	0.9
성별	남성	(338)	92	27.2	95	28.1	118	34.9	33	9.8	187	55.3	151	44.7	2.3	1.0
	여성	(567)	217	38.3	134	23.6	160	28.2	56	9.9	351	61.9	216	38.1	2.1	1.0
연령대	20대	(422)	157	37.2	109	25.8	117	27.7	39	9.2	266	63.0	156	37.0	2.1	1.0
	30대	(483)	152	31.5	120	24.8	161	33.3	50	10.4	272	56.3	211	43.7	2.2	1.0

③ 운동, 문화생활 등 활동적인 취미생활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운동, 문화생활 등 활동적인 취미생활을 하는지 물었을 때, ‘그렇다’는 응답이 63.8%(‘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로 ‘그렇지 않다’ 36.2%(‘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때, 성별에 따라 대처 방법 활용 정도 차이가 유의하여 ‘그렇다’는 응답은 남성,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많았다.

[표3-75] 운동, 문화생활 등 활동적인 취미생활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86	9.5	242	26.7	438	48.4	139	15.4	328	36.2	577	63.8	2.7	0.8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46	8.6	137	25.8	268	50.4	81	15.2	183	34.4	349	65.6	2.7	0.8	0.864
	대학생	(173)	18	10.4	50	28.9	72	41.6	33	19.1	68	39.3	105	60.7	2.7	0.9	
	취준생	(200)	22	11.0	55	27.5	98	49.0	25	12.5	77	38.5	123	61.5	2.6	0.8	
성별	남성	(338)	20	5.9	80	23.7	174	51.5	64	18.9	100	29.6	238	70.4	2.8	0.8	3.910
	여성	(567)	66	11.6	162	28.6	264	46.6	75	13.2	228	40.2	339	59.8	2.6	0.9	
연령대	20대	(422)	44	10.4	117	27.7	191	45.3	70	16.6	161	38.2	261	61.8	2.7	0.9	-0.533
	30대	(483)	42	8.7	125	25.9	247	51.1	69	14.3	167	34.6	316	65.4	2.7	0.8	

④ TV, 게임, 유튜브 시청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TV, 게임, 유튜브 시청을 하는지 물었을 때, ‘그렇다’는 응답이 85.3%(‘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로 ‘그렇지 않다’ 14.7%(‘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응답자 연령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그렇다’는 응답은 20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3-76] TV, 게임, 유튜브 시청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30	3.3	103	11.4	487	53.8	285	31.5	133	14.7	772	85.3	3.1	0.7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16	3.0	68	12.8	293	55.1	155	29.1	84	15.8	448	84.2	3.1	0.7	1.215
	대학생	(173)	8	4.6	15	8.7	90	52.0	60	34.7	23	13.3	150	86.7	3.2	0.8	
	취준생	(200)	6	3.0	20	10.0	104	52.0	70	35.0	26	13.0	174	87.0	3.2	0.7	
성별	남성	(338)	14	4.1	40	11.8	187	55.3	97	28.7	54	16.0	284	84.0	3.1	0.8	-1.545
	여성	(567)	16	2.8	63	11.1	300	52.9	188	33.2	79	13.9	488	86.1	3.2	0.7	
연령대	20대	(422)	10	2.4	40	9.5	216	51.2	156	37.0	50	11.8	372	88.2	3.2	0.7	3.569***
	30대	(483)	20	4.1	63	13.0	271	56.1	129	26.7	83	17.2	400	82.8	3.1	0.7	

*** $p < .001$

⑤ 종교활동, 종교모임 참여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종교활동이나 종교모임에 참여하는지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5.2%(‘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로 ‘그렇다’ 24.8%(‘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에 비해 높았다. 한편, 응답자 유형별로 성별, 연령대에서 대처 방법 활용 정도 차이가 유의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여성, 20대, ‘그렇다’는 응답은 남성,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3-77] 종교활동, 종교모임 참여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539	59.6	142	15.7	172	19.0	52	5.7	681	75.2	224	24.8	1.7	1.0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309	58.1	88	16.5	101	19.0	34	6.4	397	74.6	135	25.4	1.7	1.0	2.208
	대학생	(173)	98	56.6	28	16.2	36	20.8	11	6.4	126	72.8	47	27.2	1.8	1.0	
	취준생	(200)	132	66.0	26	13.0	35	17.5	7	3.5	158	79.0	42	21.0	1.6	0.9	
성별	남성	(338)	176	52.1	63	18.6	73	21.6	26	7.7	239	70.7	99	29.3	1.8	1.0	3.307***
	여성	(567)	363	64.0	79	13.9	99	17.5	26	4.6	442	78.0	125	22.0	1.6	0.9	
연령대	20대	(422)	269	63.7	59	14.0	71	16.8	23	5.5	328	77.7	94	22.3	1.6	0.9	-2.030*
	30대	(483)	270	55.9	83	17.2	101	20.9	29	6.0	353	73.1	130	26.9	1.8	1.0	

* $p < .05$, *** $p < .001$

⑥ 반려견, 반려 동·식물 등 키움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반려견, 반려 동·식물 등을 키우는지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6.3%(‘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로 ‘그렇다’ 33.7%(‘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3-78] 반려견, 반려 동·식물 등 키움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442	48.8	158	17.5	189	20.9	116	12.8	600	66.3	305	33.7	2.0	1.1	-
사회적연결	직장인 (532)	249	46.8	96	18.0	117	22.0	70	13.2	345	64.8	187	35.2	2.0	1.1	0.970
	대학생 (173)	87	50.3	38	22.0	29	16.8	19	11.0	125	72.3	48	27.7	1.9	1.1	
	취준생 (200)	106	53.0	24	12.0	43	21.5	27	13.5	130	65.0	70	35.0	2.0	1.1	
성별	남성 (338)	159	47.0	66	19.5	85	25.1	28	8.3	225	66.6	113	33.4	1.9	1.0	-0.652
	여성 (567)	283	49.9	92	16.2	104	18.3	88	15.5	375	66.1	192	33.9	2.0	1.1	
연령대	20대 (422)	214	50.7	67	15.9	88	20.9	53	12.6	281	66.6	141	33.4	2.0	1.1	-0.618
	30대 (483)	228	47.2	91	18.8	101	20.9	63	13.0	319	66.0	164	34.0	2.0	1.1	

⑦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담, 대화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담을 받거나 대화를 나누는 지 물었을 때, ‘그렇다’는 응답이 57.7%(‘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로 ‘그렇지 않다’ 42.3%(‘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비해 높았다. 응답자 유형별로 사회적 역할, 성별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있어 ‘그렇다’는 응답은 직장인, 여성,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취준생,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3-79]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담, 대화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134	14.8	249	27.5	401	44.3	121	13.4	383	42.3	522	57.7	2.6	0.9	-
사회적연결	직장인 (532)	59	11.1	152	28.6	251	47.2	70	13.2	211	39.7	321	60.3	2.6	0.8	5.204* a < c
	대학생 (173)	30	17.3	39	22.5	78	45.1	26	15.0	69	39.9	104	60.1	2.6	0.9	
	취준생 (200)	45	22.5	58	29.0	72	36.0	25	12.5	103	51.5	97	48.5	2.4	1.0	
성별	남성 (338)	45	13.3	119	35.2	144	42.6	30	8.9	164	48.5	174	51.5	2.5	0.8	-2.449*
	여성 (567)	89	15.7	130	22.9	257	45.3	91	16.0	219	38.6	348	61.4	2.6	0.9	
연령대	20대 (422)	67	15.9	106	25.1	183	43.4	66	15.6	173	41.0	249	59.0	2.6	0.9	0.788
	30대 (483)	67	13.9	143	29.6	218	45.1	55	11.4	210	43.5	273	56.5	2.5	0.9	

* $p < .05$

⑧ 온라인 상담, 대화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온라인에서 상담을 받거나 대화를 나누는지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1.6%(‘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로 ‘그렇다’ 28.4%(‘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응답자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3-80] 온라인 상담, 대화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433	47.8	215	23.8	221	24.4	36	4.0	648	71.6	257	28.4	1.8	0.9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262	49.2	127	23.9	126	23.7	17	3.2	389	73.1	143	26.9	1.8	0.9
	대학생	(173)	79	45.7	36	20.8	45	26.0	13	7.5	115	66.5	58	33.5	2.0	1.0
	취준생	(200)	92	46.0	52	26.0	50	25.0	6	3.0	144	72.0	56	28.0	1.9	0.9
성별	남성	(338)	144	42.6	86	25.4	99	29.3	9	2.7	230	68.0	108	32.0	1.9	0.9
	여성	(567)	289	51.0	129	22.8	122	21.5	27	4.8	418	73.7	149	26.3	1.8	0.9
연령대	20대	(422)	201	47.6	94	22.3	106	25.1	21	5.0	295	69.9	127	30.1	1.9	1.0
	30대	(483)	232	48.0	121	25.1	115	23.8	15	3.1	353	73.1	130	26.9	1.8	0.9

⑨ 전문가 상담, 대화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대화를 나누는지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7.0%(‘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로 ‘그렇다’ 23.0%(‘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 해당 대처방법 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여성, ‘그렇다’는 응답은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3-81] 전문가 상담,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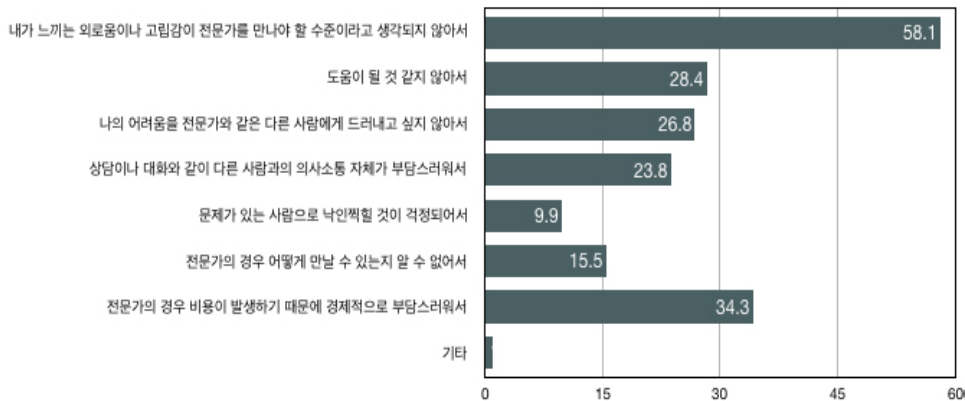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496	54.8	201	22.2	170	18.8	38	4.2	697	77.0	208	23.0	1.7	0.9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281	52.8	131	24.6	104	19.5	16	3.0	412	77.4	120	22.6	1.7	0.9
	대학생	(173)	91	52.6	36	20.8	31	17.9	15	8.7	127	73.4	46	26.6	1.8	1.0
	취준생	(200)	124	62.0	34	17.0	35	17.5	7	3.5	158	79.0	42	21.0	1.6	0.9
성별	남성	(338)	161	47.6	88	26.0	76	22.5	13	3.8	249	73.7	89	26.3	1.8	0.9
	여성	(567)	335	59.1	113	19.9	94	16.6	25	4.4	448	79.0	119	21.0	1.7	0.9
연령대	20대	(422)	243	57.6	79	18.7	78	18.5	22	5.2	322	76.3	100	23.7	1.7	0.9
	30대	(483)	253	52.4	122	25.3	92	19.0	16	3.3	375	77.6	108	22.4	1.7	0.9

** $p < .01$

(3)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전문가 상담하지 않은 이유 (복수 선택)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내가 느끼는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전문가를 만나야 할 수준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가 58.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전문가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34.3%),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8.4%), ‘나의 어려움을 전문가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26.8%), ‘상담이나 대화와 같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자체가 부담스러워서’(23.8%),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것이 걱정되어서’(9.9%), ‘전문가의 경우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서’(15.5%), ‘전문가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34.3%)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유형별로는 사회적 역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3-59]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전문가 상담하지 않은 이유

[표3-82]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전문가와 대화, 상담하지 않은 이유(복수 선택)

단위 : 명, %

구분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496)	288	58.1	141	28.4	133	26.8	118	23.8	49	9.9	77	15.5	170	34.3	5	1.0	-	
사회적 역할	직장인	(281)	178	63.3	76	27.0	71	25.3	71	25.3	25	8.9	48	17.1	87	31.0	0	0.0	31.801 _*
	대학생	(91)	52	57.1	21	23.1	30	33.0	18	19.8	8	8.8	12	13.2	35	38.5	3	3.3	
	취준생	(124)	58	46.8	44	35.5	32	25.8	29	23.4	16	12.9	17	13.7	48	38.7	2	1.6	
성별	남성	(161)	90	55.9	51	31.7	42	26.1	41	25.5	17	10.6	22	13.7	55	34.2	2	1.2	3.014
	여성	(335)	198	59.1	90	26.9	91	27.2	77	23.0	32	9.6	55	16.4	115	34.3	3	0.9	
연령대	20대	(243)	143	58.8	63	25.9	68	28.0	56	23.0	24	9.9	32	13.2	89	36.6	4	1.6	7.191
	30대	(253)	145	57.3	78	30.8	65	25.7	62	24.5	25	9.9	45	17.8	81	32.0	1	0.4	

① 내가 느끼는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전문가를 만나야 할 수준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②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③ 나의 어려움을 전문가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④ 상담이나 대화와 같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⑤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것이 걱정되어서

⑥ 전문가(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상담가, 사회복지사 등)의 경우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서

⑦ 전문가(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상담가, 사회복지사 등)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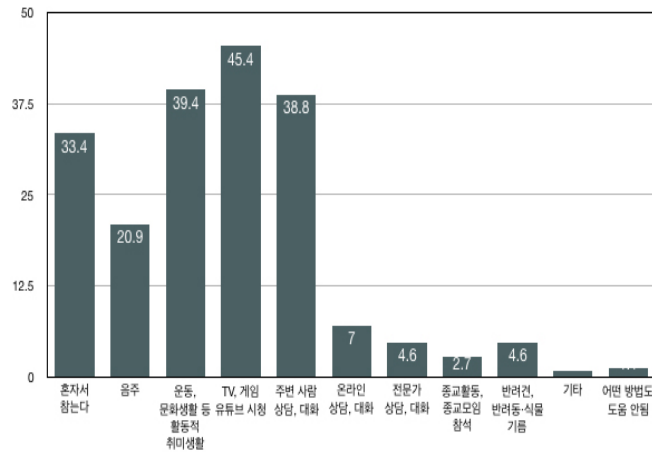
⑧ 기타

* $p < .05$

(4)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본인이 활용해본 방법 중 가장 도움 된 방법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활용해본 방법 중 가장 도움이 된 방법에 대해 물었을 때, ‘TV, 게임, 유튜브 시청’이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운동, 문화생활 등 활동적 취미생활’(39.4%), ‘주변 사람 상담, 대화’(38.8%), ‘혼자서 그냥 참음’(33.4%)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TV, 게임, 유튜브 시청’이라는 응답은 남성, 20대, 위험군인 경우 상대적으로 많았음. ‘운동, 문화생활 등 활동적 취미생활’이라는 응답은 남성, 20대, 비위험군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주변 사람 상담, 대화’이라는 응답은 여성, 20대, 비위험군, ‘혼자서 그냥 참음’이라는 응답은 여성, 20대, 위험군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3-60]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본인이 활용해본 방법 중 가장 도움 된 방법

[표3-83]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본인 활용해본 방법 중 가장 도움된 방법 (1)

단위 : 명, %

구분		계	혼자서 참는다		음주		운동, 문화생활 등 활동적 취미생활		TV, 게임 유튜브 시청		주변 사람 상담, 대화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302	33.4	189	20.9	357	39.4	411	45.4	351	38.8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177	33.3	122	22.9	217	40.8	222	41.7	213	40.0
	대학생	(173)	54	31.2	37	21.4	67	38.7	88	50.9	65	37.6
	취준생	(200)	71	35.5	30	15.0	73	36.5	101	50.5	73	36.5
성별	남성	(338)	111	32.8	85	25.1	159	47.0	164	48.5	90	26.6
	여성	(567)	191	33.7	104	18.3	198	34.9	247	43.6	261	46.0
연령대	20대	(422)	144	34.1	77	18.2	169	40.0	209	49.5	165	39.1
	30대	(483)	158	32.7	112	23.2	188	38.9	202	41.8	186	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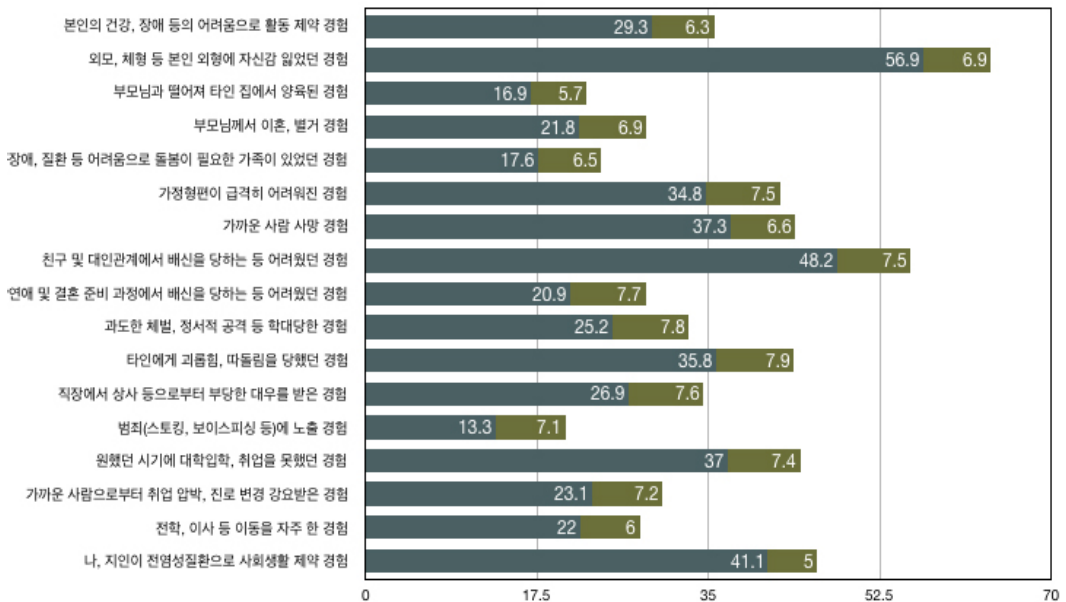
[표3-84]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본인 활용해본 방법 중 가장 도움된 방법 (2)

단위 : 명, %

구분		계	온라인 상담, 대화		전문가 상담, 대화		종교활동, 종교모임 참석		반려견, 반려동물·식물 기름		기타		어떤 방법도 도움 안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63	7.0	42	4.6	24	2.7	42	4.6	7	0.8	10	1.1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34	6.4	23	4.3	17	3.2	24	4.5	3	0.6	5	0.9
	대학생	(173)	15	8.7	10	5.8	2	1.2	5	2.9	1	0.6	1	0.6
	취준생	(200)	14	7.0	9	4.5	5	2.5	13	6.5	3	1.5	4	2.0
성별	남성	(338)	24	7.1	11	3.3	7	2.1	5	1.5	2	0.6	8	2.4
	여성	(567)	39	6.9	31	5.5	17	3.0	37	6.5	5	0.9	2	0.4
연령대	20대	(422)	29	6.9	16	3.8	5	1.2	23	5.5	3	0.7	2	0.5
	30대	(483)	34	7.0	26	5.4	19	3.9	19	3.9	4	0.8	8	1.7

6) 과거의 경험 및 해당 경험의 영향 정도

응답자가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들이 현재의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총 17개의 문항을 물어보았으며 아래와 같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는 ‘외모, 체형 등 본인 외형에 자신감을 잃었던 경험’(56.9%)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친구 및 대인관계에서 배신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48.2%), ‘나, 지인이 전염성 질환(코로나19)으로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던 경험’(4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험은 ‘타인에게 괴롭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7.9점)이었으며 그 다음은 ‘과도한 체벌, 정서적 공격 등 학대당한 경험’(7.8점), ‘연애 및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배신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7.7점), ‘직장에서 상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6점)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3-61] 과거의 경험 및 해당 경험의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영향 정도

(1) 본인의 건강, 장애 등의 어려움으로 활동 제약 경험

본인의 건강이나 장애 등의 어려움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없다’는 응답이 70.7%로 ‘있다’는 응답에 비해 높았다. 한편, 응답자 유형별로 경험 여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3-85] 본인의 건강, 장애 등의 어려움으로 활동 제약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χ^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640	70.7	265	29.3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384	72.2	148	27.8	2.500
	대학생	(173)	114	65.9	59	34.1	
	취준생	(200)	142	71.0	58	29.0	
성별	남성	(338)	239	70.7	99	29.3	0.000
	여성	(567)	401	70.7	166	29.3	
연령대	20대	(422)	300	71.1	122	28.9	0.053
	30대	(483)	340	70.4	143	29.6	

나아가 이러한 건강, 장애 등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점수가 클수록 부정적 경험). 그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6.3점으로 비교적 부정적인 수준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연령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20대보다 30대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3-86] 본인의 건강, 장애 등의 어려움에 따른 활동 제약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65)	6.3	2.4	-
사회적 역할	직장인	(148)	6.4	2.3	0.406
	대학생	(59)	6.0	2.6	
	취준생	(58)	6.2	2.6	
성별	남성	(99)	6.1	2.3	-0.858
	여성	(166)	6.4	2.5	
연령대	20대	(122)	5.9	2.5	-2.268*
	30대	(143)	6.6	2.3	

*p< .05

(2) 외모, 체형 등 본인 외형에 자신감 잃었던 경험

외모나 체형 등 본인의 외형에 자신감을 잃었던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있다’는 응답이 56.9%로 ‘없다’(43.1%)는 응답에 비해 높았다. 한편, 응답자 유형별로 모두 경험 여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있다’는 응답은 취준생, 여성, 20대, ‘없다’는 응답은 직장인, 남성, 30대에서 많은 편이었다.

[표3-87] 외모, 체형 등 본인 외형에 자신감 잃었던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390	43.1	515	56.9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254	47.7	278	52.3	12.448**
	대학생	(173)	68	39.3	105	60.7	
	취준생	(200)	68	34.0	132	66.0	
성별	남성	(338)	189	55.9	149	44.1	36.175***
	여성	(567)	201	35.4	366	64.6	
연령대	20대	(422)	157	37.2	265	62.8	11.186***
	30대	(483)	233	48.2	250	51.8	

** $p < .01$, *** $p < .001$

외모, 체형 등 본인의 외형에 자신감을 잃었던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점수가 클수록 부정적 경험을 함). 그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6.9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부정적이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3-88] 외모, 체형 등 본인 형에 자신감 잃었던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515)	6.9	2.2	-
사회적 역할	직장인	(278)	6.8	2.1	0.891
	대학생	(105)	6.7	2.4	
	취준생	(132)	7.1	2.2	
성별	남성	(149)	6.9	2.0	-0.167
	여성	(366)	6.9	2.3	
연령대	20대	(265)	6.8	2.3	-0.705
	30대	(250)	6.9	2.1	

(3) 부모님과 떨어져 타인 집에서 양육된 경험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사람 집에서 양육된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없다’는 응답이 83.1%로 ‘있다’(16.9%)는 응답에 비해 높았다. 한편, 응답자 유형별로 성별에서 경험 여부 차이가 유의하여 ‘없다’는 응답은 남성, ‘있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3-89] 부모님과 떨어져 타인 집에서 양육된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752	83.1	153	16.9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447	84.0	85	16.0	2.320
	대학생	(173)	137	79.2	36	20.8	
	취준생	(200)	168	84.0	32	16.0	
성별	남성	(338)	298	88.2	40	11.8	9.878**
	여성	(567)	454	80.1	113	19.9	
연령대	20대	(422)	343	81.3	79	18.7	1.853
	30대	(483)	409	84.7	74	15.3	

** $p < .01$

부모님과 떨어져 타인 집에서 양육된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점수가 클수록 부정적 경험을 함). 그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5.7점으로 나타나 중간보다 약간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부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3-90] 부모님과 떨어져 타인 집에서 양육된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53)	5.7	2.5	-
사회적 역할	직장인	(85)	5.6	2.3	0.040
	대학생	(36)	5.7	3.1	
	취준생	(32)	5.8	2.0	
성별	남성	(40)	6.3	2.3	1.897
	여성	(113)	5.5	2.5	
연령대	20대	(79)	5.4	2.4	-1.202
	30대	(74)	5.9	2.5	

(4) 부모님께서 이혼, 별거 경험

부모님께서 이혼 혹은 별거를 한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없다’는 응답이 78.2%로 ‘있다’(21.8%)는 응답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유형별로는 사회적 역할에서 경험 여부 차이가 유의하여 ‘없다’는 응답은 직장인, ‘있다’는 응답은 대학생에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3-91] 부모님께서 이혼, 별거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708	78.2	197	21.8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432	81.2	100	18.8	7.264*
	대학생	(173)	125	72.3	48	27.7	
	취준생	(200)	151	75.5	49	24.5	
성별	남성	(338)	273	80.8	65	19.2	2.039
	여성	(567)	435	76.7	132	23.3	
연령대	20대	(422)	328	77.7	94	22.3	0.119
	30대	(483)	380	78.7	103	21.3	

* $p < .05$

외모, 체형 등 본인의 외형에 자신감을 잃었던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점수가 클수록 부정적 경험을 함). 그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6.9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부정적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3-92] 부모님께서 이혼, 별거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97)	6.9	2.5	-
사회적 역할	직장인	(100)	7.1	2.2	3.141*
	대학생	(48)	6.2	2.9	
	취준생	(49)	7.4	2.4	
성별	남성	(65)	7.2	2.0	0.961
	여성	(132)	6.8	2.7	
연령대	20대	(94)	6.4	2.7	-2.764**
	30대	(103)	7.4	2.1	

* $p < .05$, ** $p < .01$

(5) 장애, 질환 등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었던 경험

정서·정신·신체 건강의 장애, 질환 등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었던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없다’는 응답이 82.4%로 ‘있다’(17.6%)는 응답에 비해 높았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 경험 여부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없다’는 응답은 남성, ‘있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93] 장애, 질환 등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었던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746	82.4	159	17.6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446	83.8	86	16.2	3.033
	대학생	(173)	135	78.0	38	22.0	
	취준생	(200)	165	82.5	35	17.5	
성별	남성	(338)	293	86.7	45	13.3	6.746**
	여성	(567)	453	79.9	114	20.1	
연령대	20대	(422)	352	83.4	70	16.6	0.526
	30대	(483)	394	81.6	89	18.4	

** $p < .01$

가족을 돌보았던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점수가 클수록 부정적 경험을 함). 그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6.5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부정적인 경향이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연령대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30대가 20대에 비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94] 정서, 정신, 신체건강장애, 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었던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59)	6.5	2.7	-
사회적 역할	직장인	(86)	6.7	2.5	0.971
	대학생	(38)	6.1	3.0	
	취준생	(35)	6.3	2.7	
성별	남성	(45)	6.4	2.5	-0.081
	여성	(114)	6.5	2.7	
연령대	20대	(70)	6.0	2.6	-2.127*
	30대	(89)	6.9	2.6	

* $p < .05$

(6)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없다’는 응답이 65.2%로 ‘있다’(34.8%)는 응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95]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χ^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590	65.2	315	34.8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350	65.8	182	34.2	0.456
	대학생	(173)	109	63.0	64	37.0	
	취준생	(200)	131	65.5	69	34.5	
성별	남성	(338)	232	68.6	106	31.4	2.823
	여성	(567)	358	63.1	209	36.9	
연령대	20대	(422)	281	66.6	141	33.4	0.677
	30대	(483)	309	64.0	174	36.0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점수가 클수록 부정적 경험을 함). 그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7.5점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96]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15)	7.5	2.2	-
사회적 역할	직장인	(182)	7.4	2.1	1.106
	대학생	(64)	7.4	2.6	
	취준생	(69)	7.9	2.0	
성별	남성	(106)	7.0	2.2	-3.210**
	여성	(209)	7.8	2.2	
연령대	20대	(141)	7.5	2.4	-0.389
	30대	(174)	7.6	2.1	

** $p < .01$

(7) 가까운 사람 사망 경험

가까운 사람이 사망한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없다’는 응답이 62.7%로 ‘있다’(37.3%)는 응답에 비해 높았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표3-97] 가까운 사람 사망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χ^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567	62.7	338	37.3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332	62.4	200	37.6	0.447
	대학생	(173)	106	61.3	67	38.7	
	취준생	(200)	129	64.5	71	35.5	
성별	남성	(338)	211	62.4	127	37.6	0.012
	여성	(567)	356	62.8	211	37.2	
연령대	20대	(422)	278	65.9	144	34.1	3.514
	30대	(483)	289	59.8	194	40.2	

가까운 사람의 사망을 경험한 것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점수가 클수록 부정적 경험을 함), 10점 만점에 평균 6.6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3-98] 가까운 사람 사망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38)	6.6	2.6	-
사회적 역할	직장인	(200)	6.7	2.5	0.859
	대학생	(67)	6.2	2.8	
	취준생	(71)	6.5	2.6	
성별	남성	(127)	6.5	2.4	-0.491
	여성	(211)	6.6	2.7	
연령대	20대	(144)	6.6	2.6	0.099
	30대	(194)	6.5	2.6	

(8) 친구 및 대인관계에서 배신 등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

친구 및 대인관계에서 배신 등을 당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없다’는 응답이 51.8%로 ‘있다’(48.2%)에 비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역할, 성별에 따라 경험여부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직장인과 남성은 ‘없다’라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취준생과 여성에서는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표3-99] 친구 및 대인관계에서 배신 등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469	51.8	436	48.2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305	57.3	227	42.7	16.055***
	대학생	(173)	79	45.7	94	54.3	
	취준생	(200)	85	42.5	115	57.5	
성별	남성	(338)	219	64.8	119	35.2	36.348***
	여성	(567)	250	44.1	317	55.9	
연령대	20대	(422)	206	48.8	216	51.2	2.866
	30대	(483)	263	54.5	220	45.5	

*** $p < .001$

친구 및 대인관계에서 배신 등을 당한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 10점 만점에 7.5점으로 나타나 상당히 높았다(점수가 클수록 부정적 경험을 함).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3-100] 친구 및 대인관계에서 배신 등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436)	7.5	2.0	-
사회적 역할	직장인	(227)	7.5	1.9	0.760
	대학생	(94)	7.5	2.5	
	취준생	(115)	7.7	1.9	
성별	남성	(119)	7.3	2.1	-1.497
	여성	(317)	7.6	2.0	
연령대	20대	(216)	7.5	2.1	-0.821
	30대	(220)	7.6	2.0	

(9) 연애 및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배신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

연애 및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배신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없다’는 응답이 79.1%로 ‘있다’(20.9%)는 응답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한편, 연령대에서 경험 여부 차이가 유의하여 20대에서는 ‘없다’, 30대에서는 ‘있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표3-101] 연애 및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배신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716	79.1	189	20.9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407	76.5	125	23.5	5.361
	대학생	(173)	144	83.2	29	16.8	
	취준생	(200)	165	82.5	35	17.5	
성별	남성	(338)	276	81.7	62	18.3	2.108
	여성	(567)	440	77.6	127	22.4	
연령대	20대	(422)	353	83.6	69	16.4	9.835**
	30대	(483)	363	75.2	120	24.8	

**p < .01

연애 및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7.7점으로 나타나 상당히 부정적이었다(점수가 클수록 부정적 경험을 함).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3-102] 연애 및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89)	7.7	2.1	-
사회적 역할	직장인	(125)	7.7	2.1	0.809
	대학생	(29)	7.2	2.3	
	취준생	(35)	7.7	1.9	
성별	남성	(62)	7.6	2.1	-0.275
	여성	(127)	7.7	2.1	
연령대	20대	(69)	7.4	2.1	-1.189
	30대	(120)	7.8	2.0	

(10) 과도한 체벌, 정서적 공격 등 학대당한 경험

과도한 체벌, 정서적 공격 등 학대당한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없다’는 응답이 74.8%로 ‘있다’(25.2%)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 유형별로 사회적 역할, 성별에서 경험 여부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대학생의 경우 ‘없다’와 ‘있다’의 비율 차이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작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에서 체벌 등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3-103] 과도한 체벌, 정서적 공격 등 학대당한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677	74.8	228	25.2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416	78.2	116	21.8	9.326**
	대학생	(173)	116	67.1	57	32.9	
	취준생	(200)	145	72.5	55	27.5	
성별	남성	(338)	267	79.0	71	21.0	5.019*
	여성	(567)	410	72.3	157	27.7	
연령대	20대	(422)	311	73.7	111	26.3	0.517
	30대	(483)	366	75.8	117	24.2	

* $p < .05$, ** $p < .01$

과도한 체벌, 정서적 공격 등 학대당한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점수가 클수록 부정적 경험을 함). 그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7.8점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세부 유형별로는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3-104] 과도한 체벌, 정서적 공격 등 학대당한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28)	7.8	1.9	-
사회적 역할	직장인	(116)	7.8	1.9	1.473
	대학생	(57)	7.6	2.0	
	취준생	(55)	8.2	2.0	
성별	남성	(71)	7.4	1.9	-2.215*
	여성	(157)	8.0	1.9	
연령대	20대	(111)	7.8	1.9	-0.409
	30대	(117)	7.9	2.0	

* $p < .05$

(11) 타인에게 괴롭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타인에게 괴롭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에서는 ‘없다’는 응답이 64.2%로 ‘있다’(35.8%)에 비해 높았고 모든 응답자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에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3-105] 타인에게 괴롭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581	64.2	324	35.8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364	68.4	168	31.6
	대학생	(173)	102	59.0	71	41.0
	취준생	(200)	115	57.5	85	42.5
성별	남성	(338)	256	75.7	82	24.3
	여성	(567)	325	57.3	242	42.7
연령대	20대	(422)	254	60.2	168	39.8
	30대	(483)	327	67.7	156	32.3

* $p < .05$, ** $p < .01$, *** $p < .001$

타인에게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점수가 클수록 부정적 경험을 함). 그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7.9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3-106] 타인에게 괴롭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24)	7.9	1.9	-
사회적 역할	직장인	(168)	7.9	1.9
	대학생	(71)	7.8	2.0
	취준생	(85)	8.2	1.9
성별	남성	(82)	7.7	1.9
	여성	(242)	8.0	1.9
연령대	20대	(168)	7.9	2.0
	30대	(156)	8.0	1.9

(12) 직장에서 상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직장에서 상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없다’는 응답이 73.1%로 ‘있다’(26.9%)는 응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성별에 따라 경험 여부 차이가 유의하여 남성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던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3-107] 직장에서 상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662	73.1	243	26.9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381	71.6	151	28.4	2.283
	대학생	(173)	134	77.5	39	22.5	
	취준생	(200)	147	73.5	53	26.5	
성별	남성	(338)	261	77.2	77	22.8	4.549*
	여성	(567)	401	70.7	166	29.3	
연령대	20대	(422)	317	75.1	105	24.9	1.561
	30대	(483)	345	71.4	138	28.6	

**p < .01

직장에서 상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점수가 클수록 부정적 경험을 함). 그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7.6점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세부 유형별로는 사회적 역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취준생의 경우 관련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더욱 크다고 응답하였다.

[표3-108] 직장에서 상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43)	7.6	2.0	-
사회적 역할	직장인	(151)	7.5	1.9	6.085**
	대학생	(39)	7.1	2.7	
	취준생	(53)	8.4	1.4	
성별	남성	(77)	7.6	1.9	-0.043
	여성	(166)	7.6	2.1	
연령대	20대	(105)	7.7	2.1	0.826
	30대	(138)	7.5	1.9	

**p < .01

(13) 범죄(스토킹,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 경험

범죄(스토킹,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없다’는 응답이 86.7%로 ‘있다’(13.3%)는 응답에 비해 높았다. 한편, 응답자 특성별로 사회적 역할, 성별에서 경험 여부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직장인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대학생, 취업생보다 많았다. 취업생의 경우가 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에게 비하여 여성이 범죄 노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표3-109] 범죄(스토킹,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785	86.7	120	13.3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473	88.9	59	11.1	6.298*
	대학생	(173)	148	85.5	25	14.5	
	취준생	(200)	164	82.0	36	18.0	
성별	남성	(338)	304	89.9	34	10.1	4.805*
	여성	(567)	481	84.8	86	15.2	
연령대	20대	(422)	371	87.9	51	12.1	0.948
	30대	(483)	414	85.7	69	14.3	

* $p < .05$

범죄(스토킹,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된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는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점수가 클수록 부정적 경험을 함). 그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7.1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3-110] 범죄(스토킹,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20)	7.1	2.3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9)	7.0	2.3	2.098
	대학생	(25)	6.4	2.0	
	취준생	(36)	7.6	2.3	
성별	남성	(34)	6.6	2.2	-1.354
	여성	(86)	7.2	2.3	
연령대	20대	(51)	7.1	2.4	0.084
	30대	(69)	7.0	2.2	

(14)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 취업을 못했던 경험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 취업을 못했던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없다’는 응답이 63.0%로 ‘있다’(37.0%)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때 세부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3-111]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 취업을 못했던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570	63.0	335	37.0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334	62.8	198	37.2	2.652
	대학생	(173)	117	67.6	56	32.4	
	취준생	(200)	119	59.5	81	40.5	
성별	남성	(338)	216	63.9	122	36.1	0.197
	여성	(567)	354	62.4	213	37.6	
연령대	20대	(422)	272	64.5	150	35.5	0.734
	30대	(483)	298	61.7	185	38.3	

내가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 취업을 못했던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점수가 클수록 부정적 경험을 함). 그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7.4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3-112] 내가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 취업을 못했던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35)	7.4	2.1	-
사회적 역할	직장인	(198)	7.5	2.0	0.292
	대학생	(56)	7.3	2.4	
	취준생	(81)	7.4	2.1	
성별	남성	(122)	7.3	2.0	-0.639
	여성	(213)	7.5	2.2	
연령대	20대	(150)	7.5	2.2	0.142
	30대	(185)	7.4	2.1	

(15)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 진로 변경 강요받은 경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 진로 변경 강요받은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없다’는 응답이 76.9%로 ‘있다’(23.1%)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응답자 유형별로 사회적 역할, 성별에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취준생의 경우 직장인, 대학생에 비하여,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3-113]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 진로 변경 강요받은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696	76.9	209	23.1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426	80.1	106	19.9	18.812***
	대학생	(173)	139	80.3	34	19.7	
	취준생	(200)	131	65.5	69	34.5	
성별	남성	(338)	276	81.7	62	18.3	6.856**
	여성	(567)	420	74.1	147	25.9	
연령대	20대	(422)	318	75.4	104	24.6	1.070
	30대	(483)	378	78.3	105	21.7	

** $p < .01$, *** $p < .001$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 진로 변경을 강요받은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점수가 클수록 부정적 경험을 함). 그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7.2점이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3-114]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 진로 변경 강요받은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09)	7.2	2.2	-
사회적 역할	직장인	(106)	7.2	2.0	0.981
	대학생	(34)	6.7	2.6	
	취준생	(69)	7.4	2.3	
성별	남성	(62)	7.0	2.0	-0.714
	여성	(147)	7.3	2.3	
연령대	20대	(104)	7.1	2.4	-0.617
	30대	(105)	7.3	2.0	

(16) 전학, 이사 등 이동을 자주 한 경험

전학, 이사 등 이동을 자주 한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없다’는 응답이 78.0%로 ‘있다’(22.0%)는 응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남성에 비해 여성이 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3-115] 전학, 이사 등 이동을 자주 한 경험 유무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chi^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706	78.0	199	22.0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412	77.4	120	22.6	0.250
	대학생	(173)	136	78.6	37	21.4	
	취준생	(200)	158	79.0	42	21.0	
성별	남성	(338)	277	82.0	61	18.0	4.886*
	여성	(567)	429	75.7	138	24.3	
연령대	20대	(422)	339	80.3	83	19.7	2.483
	30대	(483)	367	76.0	116	24.0	

* $p < .05$

전학, 이사 등 이동을 자주 한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점수가 클수록 부정적 경험을 함). 그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6.0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3-116] 전학, 이사 등 이동을 자주 한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99)	6.0	2.6	-
사회적 역할	직장인	(120)	5.8	2.6	1.543
	대학생	(37)	6.5	2.7	
	취준생	(42)	6.4	2.4	
성별	남성	(61)	6.0	2.5	-0.032
	여성	(138)	6.0	2.6	
연령대	20대	(83)	6.0	2.6	-0.283
	30대	(116)	6.1	2.6	

(17) 나, 지인이 전염성 질환으로 사회생활 제약 경험

응답자나 또는 가까운 지인이 전염성 질환(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 제약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없다’는 응답이 58.9%로 ‘있다’(41.1%)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응답자 유형별로 사회적 역할, 성별에서 경험 여부가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과 여성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3-117] 나, 가까운 지인이 전염성 질환(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 제약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533	58.9	372	41.1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328	61.7	204	38.3	7.731*
	대학생	(173)	86	49.7	87	50.3	
	취준생	(200)	119	59.5	81	40.5	
성별	남성	(338)	222	65.7	116	34.3	10.260**
	여성	(567)	311	54.9	256	45.1	
연령대	20대	(422)	236	55.9	186	44.1	2.883
	30대	(483)	297	61.5	186	38.5	

* $p < .05$, ** $p < .01$

본인이나 가까운 지인이 코로나19 등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은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점수가 클수록 부정적 경험을 함). 그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5.0점으로 나타나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다. 세부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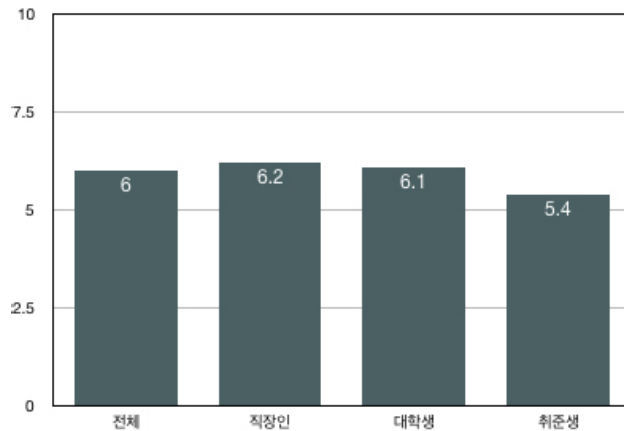
[표3-118] 나, 가까운 지인이 전염성 질환(코로나19)으로 인해 사회생활 제약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72)	5.0	2.8	-
사회적 역할	직장인	(204)	4.9	2.8	0.132
	대학생	(87)	5.1	2.9	
	취준생	(81)	5.0	2.9	
성별	남성	(116)	5.0	2.9	0.135
	여성	(256)	5.0	2.8	
연령대	20대	(186)	4.8	2.9	-0.823
	30대	(186)	5.1	2.8	

7) 행복감

스스로 요즘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평균 6.0점으로 나타나 중간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사회적 역할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어 취업생이 평균 5.4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감을 보였다.



[그림3-62] 행복감

[표3-119] 행복감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905)	6.0	2.2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6.2	2.0	10.691*** a, b > c
	대학생	(173)	6.1	2.2	
	취업생	(200)	5.4	2.4	
성별	남성	(338)	6.1	2.1	1.728
	여성	(567)	5.9	2.2	
연령대	20대	(422)	6.0	2.2	-0.311
	30대	(483)	6.0	2.2	

*** $p < .001$

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응답자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에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1~10점으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클수록 변화가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체적으로 6.1점으로 중간 이상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형별로 특별한 차이는 없었고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3-120] 코로나19 발생 전후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변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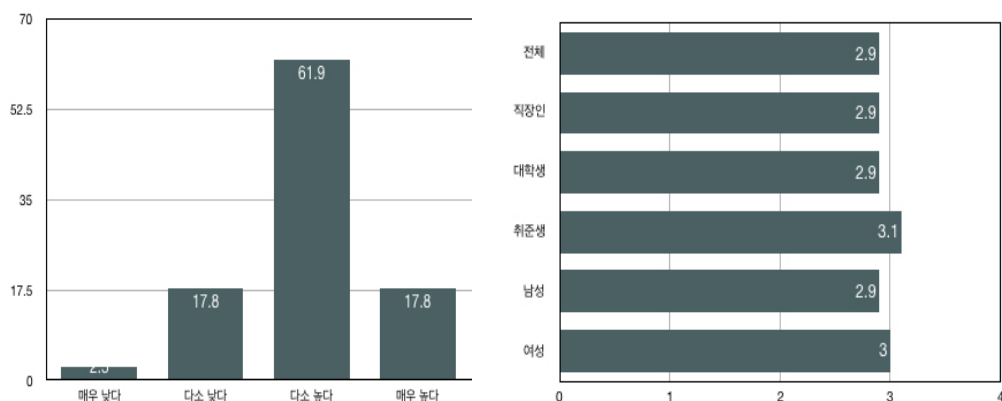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905)	6.1	1.7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6.1	1.7	0.323
	대학생	(173)	6.1	1.8	
	취준생	(200)	6.0	1.7	
성별	남성	(338)	6.0	1.7	-1.657
	여성	(567)	6.2	1.7	
연령대	20대	(422)	6.0	1.7	-1.178
	30대	(483)	6.2	1.7	

4.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한 인식도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질문하였다. 전체적으로 ‘다소 높다’가 61.9%로 가장 많았으며, ‘낮다’와 ‘높다’의 두 가지로 다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79.7%가 ‘높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이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4점까지의 평균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에는 4점 만점에서 2.9점으로 나타났다(높을수록 심각하다고 인식).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사회적 역할에서 취준생이 직장인, 대학생 보다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평균 점수도 3.1점으로 나타나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높은 점수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사회적 고립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연령대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20대에서 더 높았다.



[그림3-63]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한 인식도

[표3-121]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고립 문제 심각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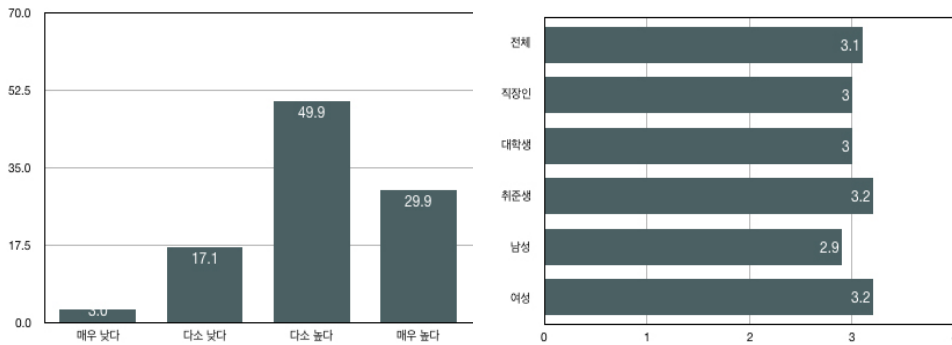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매우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매우 높다		낮다		높다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23	2.5	161	17.8	560	61.9	161	17.8	184	20.3	721	79.7	2.9	0.7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9	1.7	104	19.5	333	62.6	86	16.2	113	21.2	419	78.8	2.9	0.6	3.996 * b < c
	대학생 (173)	9	5.2	29	16.8	110	63.6	25	14.5	38	22.0	135	78.0	2.9	0.7	
	취준생 (200)	5	2.5	28	14.0	117	58.5	50	25.0	33	16.5	167	83.5	3.1	0.7	
성별	남성 (338)	10	3.0	82	24.3	186	55.0	60	17.8	92	27.2	246	72.8	2.9	0.7	-2.457 *
	여성 (567)	13	2.3	79	13.9	374	66.0	101	17.8	92	16.2	475	83.8	3.0	0.6	
연령 대	20대 (422)	12	2.8	71	16.8	257	60.9	82	19.4	83	19.7	339	80.3	3.0	0.7	0.834
	30대 (483)	11	2.3	90	18.6	303	62.7	79	16.4	101	20.9	382	79.1	2.9	0.7	

* $p < .05$

우리 사회의 고독사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전체적으로 ‘다소 높다’는 응답이 49.9%로 가장 많았으며 ‘높다’(29.9%), ‘다소 낮다’(17.1%), ‘매우 낮다’(3.0%)가 뒤를 이었다. ‘낮다’와 ‘높다’의 두 가지로 구분해보았을 때는 ‘높다’의 비율이 79.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평균으로 봤을 때는 4점 만점에 3.1점의 수준이었다(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역할에서 취업생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4.0%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생이 ‘76.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으로는 취업생이 3.2점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고독사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71.0%가, 여성은 85.2%가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았고 평균점수도 남성은 2.9점, 여성은 3.2점으로 여성의 점수가 더 높았다. 연령대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30대에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3-64]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

[표3-122] 우리 사회의 고독사 문제 심각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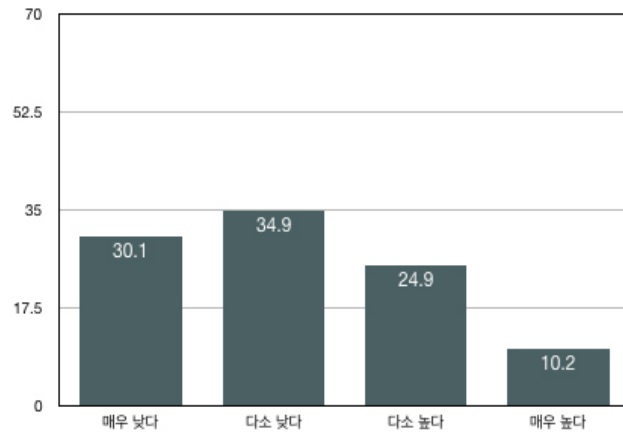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매우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매우 높다		낮다		높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27	3.0	155	17.1	452	49.9	271	29.9	182	20.1	723	79.9	3.1	0.8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14	2.6	95	17.9	276	51.9	147	27.6	109	20.5	423	79.5	3.0	0.7	3.479 *
	대학생 (173)	8	4.6	33	19.1	83	48.0	49	28.3	41	23.7	132	76.3	3.0	0.8	
	취업생 (200)	5	2.5	27	13.5	93	46.5	75	37.5	32	16.0	168	84.0	3.2	0.8	
성별	남성 (338)	14	4.1	84	24.9	161	47.6	79	23.4	98	29.0	240	71.0	2.9	0.8	5.111 ***
	여성 (567)	13	2.3	71	12.5	291	51.3	192	33.9	84	14.8	483	85.2	3.2	0.7	
연령대	20대 (422)	16	3.8	74	17.5	199	47.2	133	31.5	90	21.3	332	78.7	3.1	0.8	0.166
	30대 (483)	11	2.3	81	16.8	253	52.4	138	28.6	92	19.0	391	81.0	3.1	0.7	

* $p < .05$, *** $p < .001$

마지막으로 본인에게도 고독사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정도를 물어보았다. 전체적으로 ‘다소 낮다’(34.9%)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낮다’(30.1%), ‘다소 높다’(24.9%), ‘매우 높다’(10.2%)의 순이었다. ‘낮다’와 ‘높다’로 나누어보았을 때에는 ‘낮다’가 65%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을 도출했을 때는 2.2점이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역할에서는 ‘높다’라는 응답은 취업생에서 39.5%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도 2.3점으로 다른 두 유형에 비하여 높은 점수였다. 반면, 대학생은 본인의 고독사 위험이 ‘높다’고 인식한 경우는 31.8%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28.1%)에 비하여 여성(39.2%)이 본인의 고독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연령대로는 거의 유사한 비율이었다.



[그림3-65] 본인에게도 고독사의 위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표3-123] 본인에게도 고독사의 위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단위 : 명, %, 점

구분		계	매우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매우 높다		낮다		높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272	30.1	316	34.9	225	24.9	92	10.2	588	65.0	317	35.0	2.2	1.0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165	31.0	184	34.6	135	25.4	48	9.0	349	65.6	183	34.4	2.1	1.0	1.806
	대학생	(173)	57	32.9	61	35.3	35	20.2	20	11.6	118	68.2	55	31.8	2.1	1.0	
	취준생	(200)	50	25.0	71	35.5	55	27.5	24	12.0	121	60.5	79	39.5	2.3	1.0	
성별	남성	(338)	115	34.0	128	37.9	68	20.1	27	8.0	243	71.9	95	28.1	2.0	0.9	-3.200 **
	여성	(567)	157	27.7	188	33.2	157	27.7	65	11.5	345	60.8	222	39.2	2.2	1.0	
연령 대	20대	(422)	141	33.4	133	31.5	108	25.6	40	9.5	274	64.9	148	35.1	2.1	1.0	-1.164
	30대	(483)	131	27.1	183	37.9	117	24.2	52	10.8	314	65.0	169	35.0	2.2	1.0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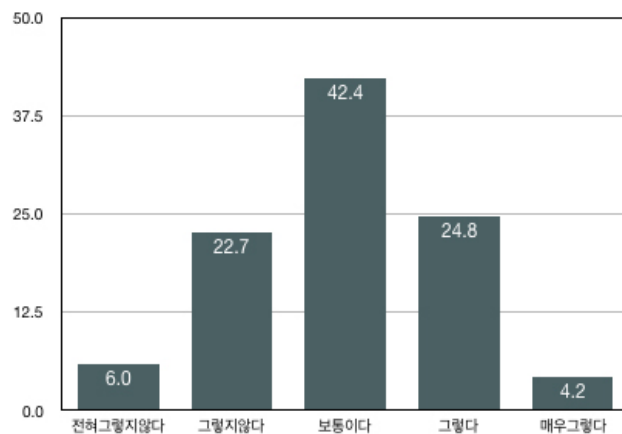
5. 건강 특성

1) 신체적 건강

(1) 주관적 신체적 건강 수준

응답자의 자신의 건강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전체적으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4%로 가장 높았으며 긍정적 응답이 29.0%(‘그렇다’+‘매우 그렇다’)이었고 부정적인 응답은 28.7%(‘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로 긍정과 부정 응답이 크게 차이가 없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으로 부여했을 때 평균은 3.0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직장인, 대학생, 취준생 모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부정적 응답은 직장인이 26.5%, 대학생은 30.1%, 취준생은 33.0%로 나타나 취준생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평균 점수로 보았을 때에는 대학생이 3.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취준생이 2.9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아 평균 점수도 남자는 3.1점, 여성은 2.9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긍정적 인식 비율(‘그렇다’+‘매우 그렇다’)이 30.6%로 30대(27.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점수로도 20대 3.0점, 30대 2.9점으로 20대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림3-66] 주관적 신체적 건강 수준

[표3-124] 주관적 신체적 건강 수준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54	6.0	205	22.7	384	42.4	224	24.8	38	4.2	3.0	0.9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28	5.3	113	21.2	238	44.7	135	25.4	18	3.4	0.9	3.204*	
	대학생	(173)	11	6.4	41	23.7	59	34.1	46	26.6	16	9.2	3.1		1.1
	취준생	(200)	15	7.5	51	25.5	87	43.5	43	21.5	4	2.0	2.9		0.9
성별	남성	(338)	14	4.1	66	19.5	156	46.2	79	23.4	23	6.8	3.1	0.9	2.633**
	여성	(567)	40	7.1	139	24.5	228	40.2	145	25.6	15	2.6	2.9	0.9	
연령대	20대	(422)	22	5.2	101	23.9	170	40.3	100	23.7	29	6.9	3.0	1.0	1.354
	30대	(483)	32	6.6	104	21.5	214	44.3	124	25.7	9	1.9	2.9	0.9	

* $p < .05$, ** $p < .01$

(2) 건강, 장애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 정도

건강,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를 1~10점까지의 점수로 물어보았다. 10점에 가까울수록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3.7점으로 제한을 받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령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어 20대는 3.5점, 30대는 3.9점으로 20대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제한을 덜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3-125] 건강,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사회활동에 제한 받고 있는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905)	3.7	2.8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3.7	2.8	0.059
	대학생	(173)	3.8	3.0	
	취준생	(200)	3.8	2.8	
성별	남성	(338)	4.0	2.8	1.864
	여성	(567)	3.6	2.9	
연령대	20대	(422)	3.5	2.9	-2.053*
	30대	(483)	3.9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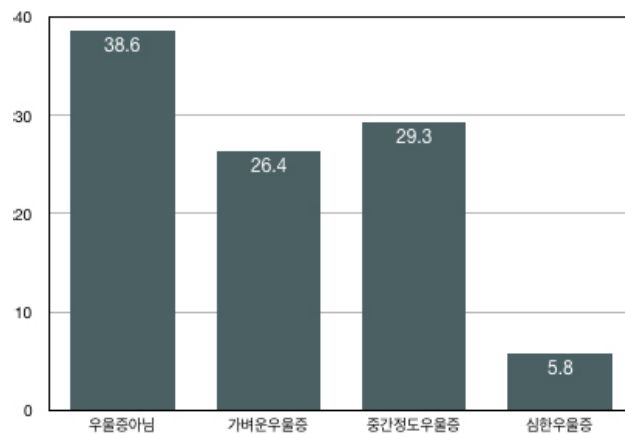
* $p < .05$

2) 정신적 건강 수준

(1) 우울수준

응답자의 우울수준은 전체적으로 ‘우울증 아님’ 38.6%, ‘가벼운 우울증’ 26.4%, ‘중간정도 우울증’ 29.3%, ‘심한 우울증’ 5.8%로 나타나 ‘우울증 아님’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중간 정도 우울증’이 차지하였다. 우울수준에 대한 평균을 구했을 때에는 7.9점으로 나타나 ‘가벼운 우울증’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역할에 따른 우울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직장인, 대학생, 취준생 모두 ‘우울증 아님’이 가장 많았다. 다만, 그다음으로는 직장인의 경우 ‘가벼운 우울증’이 28.8%로 뒤를 이었으나, 대학생과 취준생은 ‘중간 정도 우울증’으로 각각 28.9%, 34.5%로 나타났다. 특히, 취준생은 ‘심한 우울증’의 비율도 6.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평균점수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직장인이 7.4점으로 가장 낮았고 취준생은 9.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남성과 여성 모두 우울증 아님이 가장 많았으나 남성은 그 뒤를 ‘가벼운 우울증’(25.4%)가 따른 반면 여성은 ‘중간정도 우울증’(30.3%)로 나타나 여성이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심각하였다. 평균점수도 남성은 7.2점이었으나 여성은 8.3점으로 여성이 더 높았다.



[그림3-67] 우울수준

[표3-126] 우울수준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우울증 아님		가벼운 우울증		중간정도 우울증		심한 우울증		X^2F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349	38.6	239	26.4	265	29.3	52	5.8	-	7.9	6.3		
사회적 역할	직장인a	(532)	212	39.9	153	28.8	146	27.4	21	3.9	15.079*	7.4	5.9	4.30* a < c
	대학생b	(173)	69	39.9	42	24.3	50	28.9	12	6.9		7.8	6.9	
	취준생c	(200)	68	34.0	44	22.0	69	34.5	19	9.5		9.0	6.5	
성별	남성	(338)	146	43.2	86	25.4	93	27.5	13	3.9	7.155	7.2	6.0	-2.587**
	여성	(567)	203	35.8	153	27.0	172	30.3	39	6.9		8.3	6.4	
연령대	20대	(422)	159	37.7	110	26.1	129	30.8	24	5.7	0.648	8.1	6.5	.998
	30대	(483)	190	39.3	129	26.7	136	28.2	28	5.8		7.7	6.1	

* $p < .05$, ** $p < .01$

(2) 자살에 대한 생각 및 행동

자살에 관한 문항을 질문하였다. 자살 관련 문항은 총 3개로 구성되어 자살에 대한 생각과 계획, 행동에 관한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자살 생각

먼저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53.7%로 가장 많았고 ‘며칠 동안’이 26.0%, ‘1주일 이상’ 15.2%, ‘거의 매일’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혀 그렇지 않다’가 많기는 하였지만 자살을 생각한 응답자도 절반에 가까웠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때에는 사회적 역할에서는 취준생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6.0%로 가장 적어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1주일 이상’, ‘거의 매일’이 더하여 27.5%로 나타나 다른 유형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의 매일’도 9.5%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자살생각을 했던 경험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3-127]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

단위 : 명, %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며칠 동안 (1~6일)		1주일 이상		거의 매일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486	53.7	235	26.0	138	15.2	46	5.1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304	57.1	134	25.2	76	14.3	18	3.4	15.857*
	대학생	(173)	90	52.0	48	27.7	26	15.0	9	5.2	
	취준생	(200)	92	46.0	53	26.5	36	18.0	19	9.5	
성별	남성	(338)	206	60.9	78	23.1	47	13.9	7	2.1	17.275***
	여성	(567)	280	49.4	157	27.7	91	16.0	39	6.9	
연령대	20대	(422)	230	54.5	101	23.9	62	14.7	29	6.9	6.494
	30대	(483)	256	53.0	134	27.7	76	15.7	17	3.5	

* $p < .05$, *** $p < .001$

② 자살계획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74.7%로 가장 많았고 ‘며칠 동안’은 16.5%, ‘1주일 이상’은 7.0%, ‘거의 매일’은 1.9%였다. 이는 25.3%에 이르는 응답자가 자살을 계획해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역할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대학생이 67.6%로 가장 낮았다. 이는 반대로 대학생의 자살 계획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거의 매일’ 자살을 계획한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4.0%로 나타나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과 연령대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만, 성별로 보았을 때에는 여성의 경우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이 2.3%로 나타났고, 연령대에서는 20대에서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이 2.1%로 나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128] 최근 1년 동안 자살 계획

단위 : 명, %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며칠 동안 (1~6일)		1주일 이상		거의 매일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676	74.7	149	16.5	63	7.0	17	1.9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409	76.9	81	15.2	35	6.6	7	1.3	9.374
	대학생	(173)	117	67.6	34	19.7	15	8.7	7	4.0	
	취준생	(200)	150	75.0	34	17.0	13	6.5	3	1.5	
성별	남성	(338)	254	75.1	55	16.3	25	7.4	4	1.2	1.561
	여성	(567)	422	74.4	94	16.6	38	6.7	13	2.3	
연령대	20대	(422)	312	73.9	72	17.1	29	6.9	9	2.1	0.514
	30대	(483)	364	75.4	77	15.9	34	7.0	8	1.7	

③ 자살 시도 행동

응답자에게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전체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81.3%로 가장 많았으며, ‘며칠 동안’이 10.8%, ‘1주일 이상’이 6.5%, ‘거의 매일’이 1.3%로 나타났다. 비록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많았지만 실제 시도를 했다는 응답도 18.7%(‘며칠동안’+‘1주일 이상’+‘거의 매일’)에 이르렀고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도 1.3%가 있었다는 점에서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응답자 유형별로 보았을 때에는 사회적 역할에서는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자살시도를 해본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거의 매일’ 한다는 응답도 2.3%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대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에서는 남성(0.3%)에 비해서 여성(1.9%)이, 20대(0.9%)에 비하여 30대(1.7%)에서 보다 높았다.

[표3-129] 최근 1년 동안 자살 시도

단위 : 명, %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며칠 동안 (1~6일)		1주일 이상		거의 매일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736	81.3	98	10.8	59	6.5	12	1.3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441	82.9	52	9.8	33	6.2	6	7.101
	대학생	(173)	129	74.6	26	15.0	14	8.1	4	
	취준생	(200)	166	83.0	20	10.0	12	6.0	2	
성별	남성	(338)	276	81.7	40	11.8	21	6.2	1	4.906
	여성	(567)	460	81.1	58	10.2	38	6.7	11	
연령대	20대	(422)	348	82.5	43	10.2	27	6.4	4	1.295
	30대	(483)	388	80.3	55	11.4	32	6.6	8	

3) 건강행태

(1) 운동 빈도

응답자의 건강행태를 살펴보고자 운동, 음주, 흡연의 세 가지 행위를 질문하였다. 먼저, 운동의 경우 운동빈도를 질문하였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7.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주 3회 이상’ 20.7%, ‘주 2회’ 16.6% 등이 따랐다. 응답자의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사회적 역할에서 직장인, 대학생, 취준생 모두 ‘거의 하지 않음’이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취준생은 33.5%가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거의 매일 운동한다’에서도 취준생이 15.0%로 다른 두 유형에 비

해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주 3회 이상’ 운동한다는 비율이 25.1%로 가장 높았으나 여성은 ‘거의 하지 않음’이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연령대에서는 20대 이하와 30대에서 모두 ‘거의 하지 않음’이 가장 많았는데 30대에 비하여 20대에서 응답률이 더 높았다. 하지만 ‘거의 매일’에서도 30대에 비하여 20대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는 특징이 있다.

[표3-130] 운동 빈도

단위 : 명, %

구분		계	거의 매일		주 3회 이상		주2회		주1회		월1~2회		거의 하지 않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101	11.2	187	20.7	150	16.6	114	12.6	104	11.5	249	27.5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55	10.3	110	20.7	105	19.7	72	13.5	56	10.5	134	25.2
	대학생	(173)	16	9.2	41	23.7	22	12.7	19	11.0	27	15.6	48	27.7
	취준생	(200)	30	15.0	36	18.0	23	11.5	23	11.5	21	10.5	67	33.5
성별	남성	(338)	40	11.8	85	25.1	67	19.8	50	14.8	36	10.7	60	17.8
	여성	(567)	61	10.8	102	18.0	83	14.6	64	11.3	68	12.0	189	33.3
연령대	20대	(422)	51	12.1	97	23.0	64	15.2	48	11.4	42	10.0	120	28.4
	30대	(483)	50	10.4	90	18.6	86	17.8	66	13.7	62	12.8	129	26.7

(2) 음주 빈도

다음으로 음주 빈도를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한 달에 2~4번 정도’ 음주한다는 비율이 23.3%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 한 달간 마시지 않았다’도 21.5%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주일에 2번 이상’ 마신다는 비율도 21.2%(‘일주일에 2~3번 정도’+‘일주일에 4번 이상’)였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역할에서는 직장인의 경우 ‘한 달에 2~4번’이 25.9%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생도 ‘한 달에 2~4번’이 24.9%로 가장 많았다. 취준생은 ‘마시지 않았다’가 3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주일에 2번 이상’을 확인해보면 직장인은 22.2%, 대학생은 23.1%, 취준생은 17.0%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치였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한 달에 2~4번’이 가장 많았다. ‘마시지 않았다’는 비율은 여성이 24.3%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일주일에 2번 이상’ 마시는 비율은 남성은 21.0%, 여성은 21.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대에서는 20대 이하의 ‘마시지 않았다’가 25.8%로 가장 많은 반면 30대에서는 ‘한 달에 2~4번’이 24.0%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일주일에 2번 이상’을 마시는 경우는 20대 이상이 19.9%, 30대가 22.4%로 3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20대 이상의 비율도 비교적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표3-131] 음주 빈도

단위 : 명, %

구분		계	마시지 않았다		한 달에 1번 미만		한 달에 1번 정도		한 달에 2~4번		일주일에 2~3번 정도		일주일에 4번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195	21.5	161	17.8	146	16.1	211	23.3	135	14.9	57	6.3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92	17.3	92	17.3	92	17.3	138	25.9	81	15.2	37	7.0
	대학생	(173)	31	17.9	33	19.1	26	15.0	43	24.9	31	17.9	9	5.2
	취준생	(200)	72	36.0	36	18.0	28	14.0	30	15.0	23	11.5	11	5.5
성별	남성	(338)	57	16.9	47	13.9	69	20.4	94	27.8	51	15.1	20	5.9
	여성	(567)	138	24.3	114	20.1	77	13.6	117	20.6	84	14.8	37	6.5
연령대	20대	(422)	109	25.8	78	18.5	56	13.3	95	22.5	63	14.9	21	5.0
	30대	(483)	86	17.8	83	17.2	90	18.6	116	24.0	72	14.9	36	7.5

(3) 흡연 여부

흡연여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피우지 않는다’가 78.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응답자 유형별로는 사회적 역할의 경우 직장인은 77.8%, 대학생은 74.6%, 취준생은 83.0%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피우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여성의 피우지 않는 비중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의 80.6%, 30대의 76.4%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3-132] 흡연 여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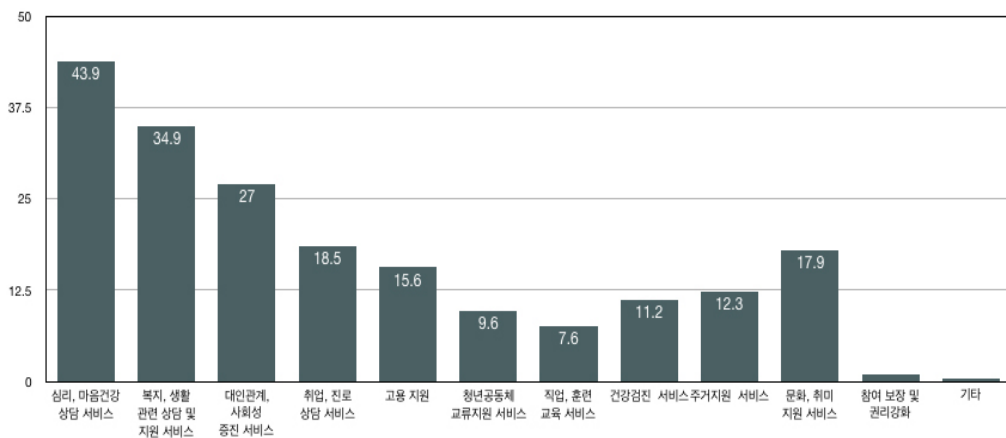
구분	계	피우지 않는다		파운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709	78.3	196	21.7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414	77.8	118	22.2
	대학생	(173)	129	74.6	44	25.4
	취준생	(200)	166	83.0	34	17.0
성별	남성	(338)	226	66.9	112	33.1
	여성	(567)	483	85.2	84	14.8
연령대	20대	(422)	340	80.6	82	19.4
	30대	(483)	369	76.4	114	23.6

*** $p < .001$

6. 정책 수요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해 물어보았다. 아래 표의 결과는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이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심리,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43.9%)였고 그 뒤를 ‘복지, 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34.9%),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서비스’(27.0%), ‘취업, 진로 상담 서비스’(18.5%), ‘문화, 취미 지원 서비스’(17.9%), ‘고용지원’(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의 해결을 위한 응답이었던 만큼, 실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심리,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의 순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유형에서 전체적인 결과와 유사한 순이었다. 다만, 사회적 역할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서비스’와 ‘문화, 취미 지원서비스’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높게 나온 편이었으며, 취업생에게서는 ‘취업, 진로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른 유형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림3-68] 청년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 등 해소 위해 필요한 지원

[표3-133] 청년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 등 해소 위해 필요한 지원 - 1+2순위 (1)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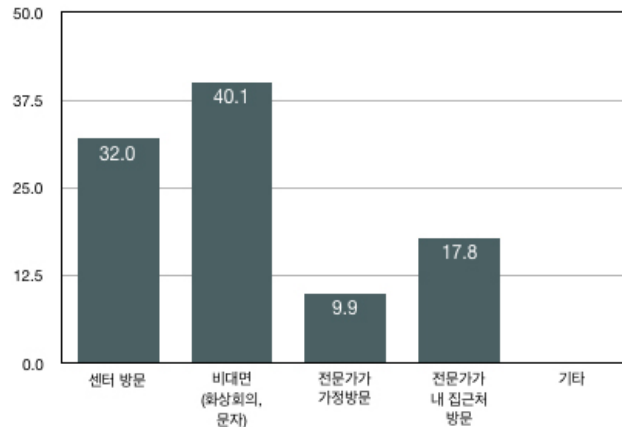
구분		계	심리,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복지, 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서비스		취업, 진로 상담 서비스		고용 지원		청년공동체 교류지원 서비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397	43.9	316	34.9	244	27.0	167	18.5	141	15.6	87	9.6
사회적연 락자 모임	직장인	(532)	236	44.4	193	36.3	145	27.3	81	15.2	83	15.6	58	10.9
	대학생	(173)	77	44.5	51	29.5	51	29.5	36	20.8	25	14.5	11	6.4
	취준생	(200)	84	42.0	72	36.0	48	24.0	50	25.0	33	16.5	18	9.0
성별	남성	(338)	133	39.3	118	34.9	116	34.3	64	18.9	60	17.8	30	8.9
	여성	(567)	264	46.6	198	34.9	128	22.6	103	18.2	81	14.3	57	10.1
연령대	20대	(422)	187	44.3	146	34.6	107	25.4	84	19.9	66	15.6	36	8.5
	30대	(483)	210	43.5	170	35.2	137	28.4	83	17.2	75	15.5	51	10.6

[표3-134] 청년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 등 해소 위해 필요한 지원 - 1+2순위 (2)

단위 : 명, %

구분		계	직업, 훈련 교육 서비스		건강검진 서비스		주거지원 서비스		문화, 취미 지원 서비스		참여 보장 및 권리강화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69	7.6	101	11.2	111	12.3	162	17.9	9	1.0	4	0.4
사회적연 할	직장인	(532)	42	7.9	61	11.5	61	11.5	93	17.5	7	1.3	3	0.6
	대학생	(173)	10	5.8	27	15.6	18	10.4	39	22.5	1	0.6	0	0.0
	취준생	(200)	17	8.5	13	6.5	32	16.0	30	15.0	1	0.5	1	0.5
성별	남성	(338)	32	9.5	33	9.8	38	11.2	48	14.2	1	0.3	1	0.3
	여성	(567)	37	6.5	68	12.0	73	12.9	114	20.1	8	1.4	3	0.5
연령대	20대	(422)	30	7.1	53	12.6	49	11.6	79	18.7	2	0.5	4	0.9
	30대	(483)	39	8.1	48	9.9	62	12.8	83	17.2	7	1.4	0	0.0

만약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면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지 질문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비대면(화상회의, 문자 등)’이 40.1%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센터 방문’(32.0%), ‘전문가가 내 집 근처를 방문’(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역할에서는 직장인과 취준생은 ‘비대면’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었지만 대학생은 ‘센터방문’이 가장 많아 차이가 있었다.



[그림3-69] 전문가 만나야 한다면 선호 방법

[표3-135]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이용하기 위해 전문가 만나야 한다면 선호 방법

단위 : 명, %

구분		계	센터 방문		비대면 (화상회의, 문자)		전문가가 가정방문		전문가가 내 집 근처 방문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290	32.0	363	40.1	90	9.9	161	17.8	1	0.1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164	30.8	220	41.4	52	9.8	95	17.9	1	0.2
	대학생	(173)	63	36.4	56	32.4	25	14.5	29	16.8	0	0.0
	취준생	(200)	63	31.5	87	43.5	13	6.5	37	18.5	0	0.0
성별	남성	(338)	108	32.0	131	38.8	44	13.0	54	16.0	1	0.3
	여성	(567)	182	32.1	232	40.9	46	8.1	107	18.9	0	0.0
연령대	20대	(422)	135	32.0	169	40.0	38	9.0	80	19.0	0	0.0
	30대	(483)	155	32.1	194	40.2	52	10.8	81	16.8	1	0.2

7. 정주특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주 특성을 확인하고자 관련 질문을 하였다. 먼저, 대전이 고향이거나 본가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65.6%가 ‘예’라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이 대전이 연고가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 큰 차이가 없었지만 연령대에서는 20대의 경우 70.6%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30대에서는 61.3%에 그쳐 30대는 대전에 연고가 없이 대전으로 이주하였다는 특성을 가진 응답자가 많았다.

[표3-136] 고향이 대전 또는 본가 대전여부

단위 : 명, %

구분		계	예		아니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594	65.6	311	34.4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340	63.9	192	36.1	1.735
	대학생	(173)	117	67.6	56	32.4	
	취준생	(200)	137	68.5	63	31.5	
성별	남성	(338)	221	65.4	117	34.6	0.015
	여성	(567)	373	65.8	194	34.2	
연령대	20대	(422)	298	70.6	124	29.4	8.697**
	30대	(483)	296	61.3	187	38.7	

** $p < .01$

응답자의 대전 거주기간을 살펴보았다. 25년 이상이 30.4%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임의표의 중간 정도인 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5년 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1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 직장인은 20.5%, 대학생은 35.3%, 취준생은 29.0%로 나타나 대학생의 경우가 5년 미만 거주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23.6%, 여성이 26.1%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로는 20대에서는 30.4%, 30대는 20.7%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표3-137] 대선 총 거주기간

단위 : 명, %

구분	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X ² F	유의 수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35	3.9	43	4.8	69	7.6	81	9.0	106	11.7	94	10.4	74	8.2	128	14.1	275	30.4	-	-
사회적 역할	직장인	13	2.4	17	3.2	35	6.6	44	8.3	76	14.3	67	12.6	38	7.1	57	10.7	185	34.8		
	대학생	10	5.8	9	5.2	22	12.7	20	11.6	12	6.9	12	6.9	14	8.1	43	24.9	31	17.9	71.549	0.000***
	취준생	12	6.0	17	8.5	12	6.0	17	8.5	18	9.0	15	7.5	22	11.0	28	14.0	59	29.5		
성별	남성	14	4.1	14	4.1	22	6.5	30	8.9	38	11.2	43	12.7	30	8.9	37	10.9	110	32.5	9.392	0.310
	여성	21	3.7	29	5.1	47	8.3	51	9.0	68	12.0	51	9.0	44	7.8	91	16.0	165	29.1		
연령대	20대	23	5.5	24	5.7	40	9.5	41	9.7	38	9.0	26	6.2	43	10.2	96	22.7	91	21.6		
	30대	12	2.5	19	3.9	29	6.0	40	8.3	68	14.1	68	14.1	31	6.4	32	6.6	184	38.1	94.777	0.000***

***P < .001

대전광역시 거주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다’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많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해보았을 때, 부정적 답변(‘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은 7.2%에 그쳤으며 긍정적 답변(‘어느 정도 그렇다’+‘매우 그렇다’)은 66.4%로 나타났다. 이를 점수로 환산해 보았을 때는 3.8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긍정적인 답변이 직장인의 경우 68.0%, 대학생은 68.2%였던 반면 취준생은 60.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평균점수로 환산했을 때에도 취준생이 3.6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긍정적 답변이 64.5%, 여성은 67.5%로 유사하였고, 연령별로는 20대는 67.8%, 30대는 65.2%로 20대가 약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표3-138] 대전광역시 거주 만족도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21	2.3	44	4.9	239	26.4	388	42.9	213	23.5	3.8	0.9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7	1.3	23	4.3	140	26.3	225	42.3	137	25.8	3.9	0.9	5.265** a > c
	대학생	(173)	4	2.3	9	5.2	42	24.3	77	44.5	41	23.7	3.8	0.9	
	취준생	(200)	10	5.0	12	6.0	57	28.5	86	43.0	35	17.5	3.6	1.0	
성별	남성	(338)	6	1.8	18	5.3	96	28.4	148	43.8	70	20.7	3.8	0.9	-1.026
	여성	(567)	15	2.6	26	4.6	143	25.2	240	42.3	143	25.2	3.8	0.9	
연령 대	20대	(422)	10	2.4	18	4.3	108	25.6	178	42.2	108	25.6	3.8	0.9	1.185
	30대	(483)	11	2.3	26	5.4	131	27.1	210	43.5	105	21.7	3.8	0.9	

**p < .01

앞으로 대전광역시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지의 희망정도를 질문하였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다’가 39.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에는 부정적 답변(‘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은 9.6%였고 긍정적 답변(‘어느 정도 그렇다’+‘매우 그렇다’)은 67.1%였으며 이를 5점 만점의 평균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3.8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다.

응답자 유형별로는 사회적 역할의 경우 직장인은 긍정적 응답이 69.7%, 대학생은 65.3%, 취준생은 61.5%로 취준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평균도 취준생이 3.6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긍정적 응답은 67.8%, 여성은 66.7%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는 65.6%, 30대에서 68.3%로 나타나 30대에서의 거주 희망 정도가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3-139] 대전광역시 거주 희망정도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5)	21	2.3	66	7.3	211	23.3	361	39.9	246	27.2	3.8	1.0	-
사회적 역할	직장인	(532)	7	1.3	31	5.8	123	23.1	216	40.6	155	29.1	3.9	0.9	5.560** a > c
	대학생	(173)	3	1.7	15	8.7	42	24.3	68	39.3	45	26.0	3.8	1.0	
	취준생	(200)	11	5.5	20	10.0	46	23.0	77	38.5	46	23.0	3.6	1.1	
성별	남성	(338)	7	2.1	18	5.3	84	24.9	146	43.2	83	24.6	3.8	0.9	0.125
	여성	(567)	14	2.5	48	8.5	127	22.4	215	37.9	163	28.7	3.8	1.0	
연령대	20대	(422)	11	2.6	38	9.0	96	22.7	159	37.7	118	28.0	3.8	1.0	-0.831
	30대	(483)	10	2.1	28	5.8	115	23.8	202	41.8	128	26.5	3.8	0.9	

**p < .01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9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등과 관련된 주요 영역에 대한 청년의 실태를 분석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청년의 전체적인 양상을 비롯하여 사회적 역할과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았다. 무엇보다 본 장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외로움 등의 수준이 어떠한지 현주소를 알아보고자 한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는 점에서 소결은 9개 영역의 사회적 교류와 외로움, 사회적 고립 실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먼저, 외출에 관한 사항에서는 응답 청년의 일부가 ‘필수 생활을 위해서만 집 밖으로 외출’하거나 ‘자기방,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1년 이상’ 이러한 생활을 유지해 온 경우가 약 절반 정도가 되었으며 ‘7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응답률도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관련하여 ‘취준생’ 집단에서 낮은 외출

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에는 사회적, 관계적, 심리적, 신체적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등의 부정적인 이유가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관련 원인이 되는 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고립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밖으로 나와 교류하는 것에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에 고립된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더욱 심각한 은둔과 고립 생활을 선택하지 않도록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은 사적영역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각 영역별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연락 두절시 안부 확인’의 경우 81.3%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다른 영역에 비하여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 ‘안부’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응답자의 전부가 이러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이는 18.7% 가량은 안부를 확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이 외에는 ‘속마음을 털어놓기’, ‘거동이 힘들 때 도움’, ‘돈을 빌림’, ‘집안일을 도와줌’ 등도 60%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다.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것은 ‘취업/진로에 대한 조언’, ‘주거/금융/법률에 대한 도움’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의 부분이었다. 청년층에게 있어 취업과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업이라는 점, 그리고 첫 사회활동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전문적 정보라는 점에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청년의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가 활용하고 있는 자원망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가족’, ‘친구/직장동료’, ‘연인’과 같은 사적인 인적 자원망이 주를 이루었으며 1순위 외에는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응답도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의 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이 타인과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을 때, 단순한 응답률 정도의 비교이지만 비대면 보다는 대면 교류가 비교적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족, 친구 등과 같이 근접한 네트워크망의 경우에서 교류가 많았다. 즉, 대면과 비대면 모두 특정 유형이 동일하게 빈도가 높았다. 한편, 취준생의 경우가 타인과의 교류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직장인’, ‘대학생’ 보다 알고 지내는 사람의 양이 적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이유도 있을 것이며 동시에 취업 준비에 집중하면서 타인과의 교류를 단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대면 교류와 비대면 교류에서 가족과 친구에서도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정 비율 존재한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대부분이 혈연에 기반한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대부분이었고 다음으로

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직장이나 학교’ 등에 관한 소속감이 많았다. 이 외에도 ‘취미, 문화, 여가활동’을 비롯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이 자신의 관심사 등 자연스럽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노력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활동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취준생의 경우 사회적으로 부여된 소속이 없고 활동의 폭이 넓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소속감이 다른 사회적 역할에 비해 낮은 부분이 있었다. 대신 취준생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가질 수 있는 소속감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만큼 청년의 삶을 고려하여 긍정적이고 건강한 소속감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외로움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중간을 약간 웃도는 정도의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취준생과 20대의 외로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친구관계가 부족한가’,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끼는가’, ‘적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이었다. 한편,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TV, 유튜브, 게임’을 하거나 ‘혼자 참는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대부분의 응답자가 혼자서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TV, 유튜브, 게임’을 하는 것이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활동적인 취미생활’이나 ‘주변 사람과의 대화’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음주’라고 응답한 경우도 낮지 않은 수준이었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다’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를 찾지 않는 것은 외로움의 수준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지만, 비용의 발생이나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것,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외로움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어떤 해결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로움이 혼자 참으며 견뎌내는 것이 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에는 청년이 경험한 다양한 경험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 각 경험마다 10점을 만점으로 경험별 부정적 영향력 정도를 질문하였을 때 모든 경험이 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또한, ‘관계적’ 경험이 갖는 부정적인 영향력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상위를 차지한 경험에는 ‘타인의 괴롭힘이나 따돌림’, ‘과도한 체벌이나 정서적 공격 등의 학대’, ‘연인 등의 배신’,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스스로에 대한 평가, 실패경험, 사회경제적 환경 등의 영향력 전반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생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경험이 청년의 외로움 및 고립감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고립에 대응하기 위한 생애과정에서의 일상적 대응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당사자인 청년이 인식하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응답에 참여한 청년의 다수는 사회적으로 청년의 고립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아직 자신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 전반의 고독사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미 청년에게 사회적 고립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의 일환이 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이 의미하는 것은 청년 누구에게나 고립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은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또 다른 소외와 배제, 고립 등의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친화도시인 대전시가 실제로 청년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외로움 등과 관련된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심리,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복지, 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서비스’, ‘취업, 진로 상담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청년의 다양한 현실과 정책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한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분석 결과에서 아직 대전시 청년의 행복이 많이 높지 못하였다. 행복감은 중간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으며, 그 안에서 취준생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의 행복감은 그보다도 낮았다. 신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의 건강과 정신적으로는 가벼운 우울증 수준 정도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1년에 몇 차례 자살을 생각해본 경우도 절반 정도는 되었다. 즉, 청년친화도시 대전에서 살아가는 청년은 마음의 행복감과 체감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이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청년이 다가갈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과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제4장

사회적 고립 위험군 실태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제4장 사회적 고립 위험군 실태분석

제1절 분석 개요

본 장에서는 앞선 제3장에서 분석한 자료를 심화분석하여 응답자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외로움 위험군은 외로움 위험군 집단은 UCLA외로움 척도를 활용한 16번의 18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문항에 1~4점을 부여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이때 긍정적 문항인 (1), (5), (6), (8), (9), (14), (16), (17)번은 역코딩하여 활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총 18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4점 만점 중 3점 이상(‘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을 ‘위험군’, 3점 미만을 ‘비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표4-1]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905	100
외로움 위험군	위험군	88	9.7
	비위험군	817	90.3

제2절 분석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로움 위험군에 따라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은 위험군과 비위험군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위험군은 30대가 62.5%로 많았으며, 비위험군은 30대가 52.4%로 비교적 유사한 비율이었다. 거주지를 살펴보면, 위험군과 비위험군 모두 서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유성구, 동구, 중구, 대덕구의 순으로 동일하였다. 최종학력의 경우 위험군과 비위험군은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고 전문대학졸업, 고등학교졸업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위험군은 홀로 사는 경우가 39.8%로 가장 많았고, 비위험군은 4명 이상이 29.0%로 가장 많았다. 주거유형은 두 집단 모두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그 뒤는 동일하게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순이었다. 주거점유형태로는 위험군은 보증금이 있는 월세와 사글세가 가장 많았고, 그 뒤는 자가, 전세 등의 순이었다. 비위험군에서는 자가가 제일 많았으며 그 뒤를 전세, 보증금있는 월세와 사글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4-2] 외로움 위험군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위험군 (n = 88)		비위험군 (n = 817)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성	31	35.2	307	37.6	0.187
	여성	57	64.8	510	62.4	
연령	20대 이하	33	37.5	389	47.6	3.265
	30대	55	62.5	428	52.4	
거주지	동구	15	17.1	118	14.4	0.723
	중구	10	11.4	106	13.0	
	서구	28	31.8	280	34.3	
	유성구	26	30.0	235	28.8	
	대덕구	9	10.2	78	9.6	
최종 학력	중학교졸업	0	0.0	17	2.1	6.153
	고등학교졸업	12	13.6	103	12.6	
	전문대학재휴학	4	4.5	35	4.3	
	전문대학 졸업	12	13.6	108	13.2	
	대학교 재휴학	9	10.2	97	11.9	
	대학교 졸업	46	52.3	370	45.3	
	대학원 재휴학	3	3.4	25	3.1	
	대학원 졸업	2	2.3	62	7.6	
가구원수	1명	35	39.8	194	23.7	13.533**
	2명	21	23.9	182	22.3	
	3명	12	13.6	204	25.0	
	4명 이상	20	22.7	237	29.0	
혼인상태	미혼	66	75.0	528	64.6	9.262*
	기혼	18	20.5	244	29.9	
	사실혼	0	0.0	29	3.5	
	사별, 이혼, 별거	4	4.5	16	2.0	
자녀수	없다	75	85.2	655	80.2	1.302
	있다	13	14.8	162	19.8	
주거 유형	단독주택	10	11.4	72	8.8	4.589
	아파트	44	50.0	480	58.8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31	35.2	225	27.5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	1.1	23	2.8	
	기숙사	2	2.3	14	1.7	
	고시원	0	0.0	3	0.4	
주거점유 형태	자가	31	35.2	390	47.9	14.943**
	전세	17	19.3	201	24.7	
	월세, 사글세(보증금 유)	32	36.4	188	23.1	
	월세, 사글세(보증금 무)	4	4.5	24	2.9	
	무상	4	4.5	11	1.4	

* $P < .05$, ** $P < .01$, *** $P < .001$

2. 경제적 특성

외로움 위험군에 따라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근로 여부에서는 위험군과 비위험군 모두 '일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대부분이었다. '일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종사상의 지위를 확인한 결과 두 집단 모두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와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사상 지위는 위험군과 비위험군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험군에서는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일한다는 비율이 비위험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시간 형태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전일제 근로'가 많았다.

구직 및 이직 의사에서는 해당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였지만 비위험군과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실제 구직 및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위험군에서는 '실제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7%였으나 비위험군에서는 45.8%로 나타났는데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구직 및 이직준비 기간에 관한 질문에서는 두 집단 모두 '6개월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두 집단에 통계적 차이가 있었는데 위험군과 비위험군 모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는 차이가 있었다. 위험군의 경우 뒤를 이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등의 순으로 비교적 소득이 낮은 구간에 응답률이 높았던 반면, 비위험군에서는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뒤를 따랐다. 경제적 독립 유무에서는 '하였다'와 '하지 못하였다'의 비율이 두 집단에서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위험군에서는 '하의 상'이 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하의 하' 29.5%, '중의 하' 26.1% 등의 순이었고 비위험군에서는 '중의 하'(36.4%), '중의 상'(29.0%), '하의 상'(20.9%) 등의 순이었다. '상', '중', '하'로 구분해보았을 때 위험군에서는 '하'를 차지한 비율이 62.5%로 가장 많았으나(29.5%+33.0%), 비위험군에서는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5.4%로 가장 높았다.

[표4-3] 외로움 위험군에 따른 경제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위험군 (n = 88)		비위험군 (n = 481)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근로여부	예	63	71.6	643	78.7	2.342
	아니오	25	28.4	174	21.3	
근로시간 (위험군 n = 63) (비위험군 n = 481)	40시간 미만	21	33.3	212	33.0	0.540
	40시간	25	39.7	281	43.7	
	40시간 초과	17	27.0	150	23.3	
종사장 지위 (위험군 n = 63) (비위험군 n = 481)	상용직근로자	39	61.9	470	73.1	24.609***
	임시직근로자	9	14.3	80	12.4	
	일용직근로자	4	6.3	15	2.3	
	자영업 등 사업	0	0.0	33	5.1	
	무급가족 종사자	2	3.2	1	0.2	
	프리랜서	7	11.1	32	5.0	
	특수고용직	1	1.6	7	1.1	
	기타	1	1.6	5	0.8	
근로시간형태 (위험군 n = 52) (비위험군 n = 556)	시간제 근로	14	26.9	113	20.3	1.253
	전일제 근로	38	73.1	443	79.7	
구직 및 이직의사	있다	62	70.5	489	59.9	3.749
	없다	26	29.5	328	40.1	
구직 및 이직준비	하고 있다	49	55.7	374	45.8	3.131
	하고 있지 않다	39	44.3	443	54.2	
구직 및 이직준비 기간 (위험군 n = 49) (비위험군 n = 374)	6개월 미만	26	53.1	154	41.2	2.715
	6개월 이상 1년 미만	5	10.2	54	14.4	
	1년 이상 2년 미만	10	20.4	84	22.5	
	2년 이상	8	16.3	82	21.9	
월평균 소득	없음	4	4.6	21	2.7	14.238*
	100만원 미만	18	20.7	102	13.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7	19.5	98	12.8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	34.5	253	32.9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1	12.6	149	19.4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4	4.6	56	7.3	
	500만원 이상	3	3.4	89	11.6	
경제적독립 유무	하였다	56	63.6	534	65.4	0.104
	하지 못하였다	32	36.4	283	34.6	
사회경제적 지위	하의 하	26	29.5	61	7.5	64.296***
	하의 상	29	33.0	171	20.9	
	중의 하	23	26.1	297	36.4	
	중의 상	5	5.7	237	29.0	
	상의 하	4	4.5	45	5.5	
	상의 상	1	1.1	6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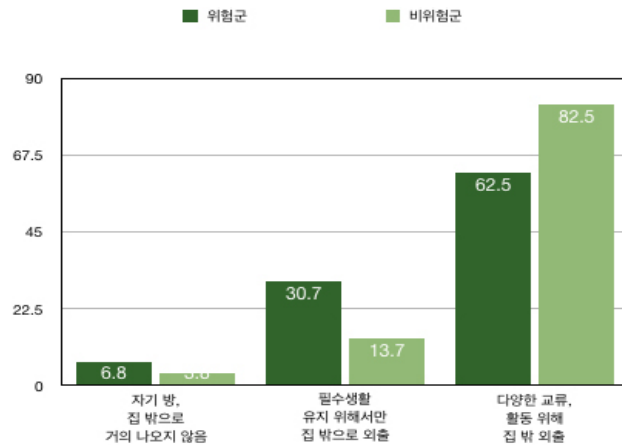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3. 사회적 교류와 외로움, 사회적 고립

1) 외출에 관한 사항

(1) 평소 외출 정도

평소 외출 정도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은 ‘다양한 교류, 활동 위해 집 밖 외출’이 6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필수생활 유지 위해서만 집 밖으로 외출’(30.7%), ‘자기 방,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음’(6.8%) 순으로 나타났다. 비위험군에서도 위험군과 순서는 동일하였지만 ‘다양한 교류, 활동 위해 집 밖 외출’의 82.5%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다른 두 문항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림4-1] 평소 외출 정도

[표4-4] 평소 외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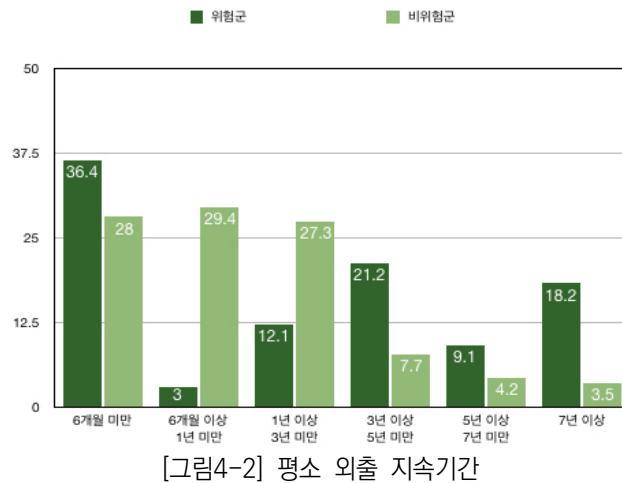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자기 방,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음		필수생활 유지 위해서만 집 밖으로 외출		다양한 교류, 활동 위해 집 밖 외출		χ^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6	6.8	27	30.7	55	62.5	20.621***
비위험군	(817)	31	3.8	112	13.7	674	82.5	

*** $P < .001$

(2) 평소 외출 양상의 지속 기간

평소 외출 정도를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음’과 ‘필수생활 유지 위해서만 집 밖으로 외출’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상태가 얼마정도 지속되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먼저, 위험군에서는 ‘6개월 미만’이 3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3년 이상 5년 미만’(21.2%)과 ‘7년 이상’(18.2%), ‘1년 이상 3년 미만’(12.1%), ‘5년 이상 7년 미만’(9.1%), ‘6개월 이상 3년 미만’(3.0%) 순으로 나타났다. 비위험군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29.4%), ‘6개월 미만’(28.0%), ‘1년 이상 3년 미만’(27.3%) 등의 순으로 위험군과는 달리 현재 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단기간 지속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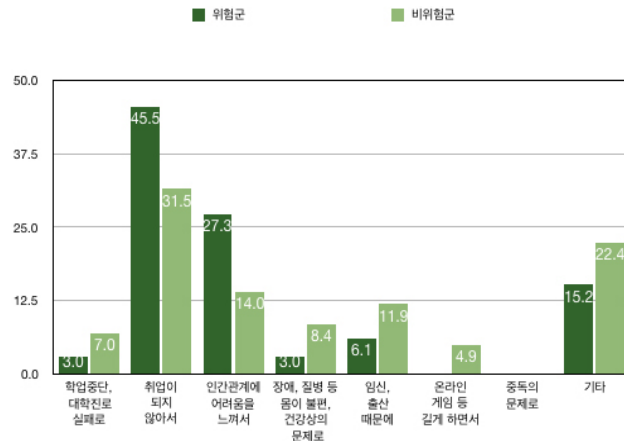
[표4-5] 평소 외출 지속기간

단위 : 명, %

구분	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33)	12	36.4	1	3.0	4	12.1	7	21.2	3	9.1	6	18.2
비위험군	(143)	40	28.0	42	29.4	39	27.3	11	7.7	6	4.2	5	3.5

(3) 평소 외출하지 않은 계기

평소 외출 정도를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음’과 ‘필수생활 유지 위해서만 집 밖으로 외출’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평소 외출하지 않은 계기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위험군과 비위험군이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었지만 상위 4개의 계기는 ‘취업이 되지 않아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껴서’, ‘기타’, ‘임신, 출산 때문에’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4-3] 평소 외출하지 않은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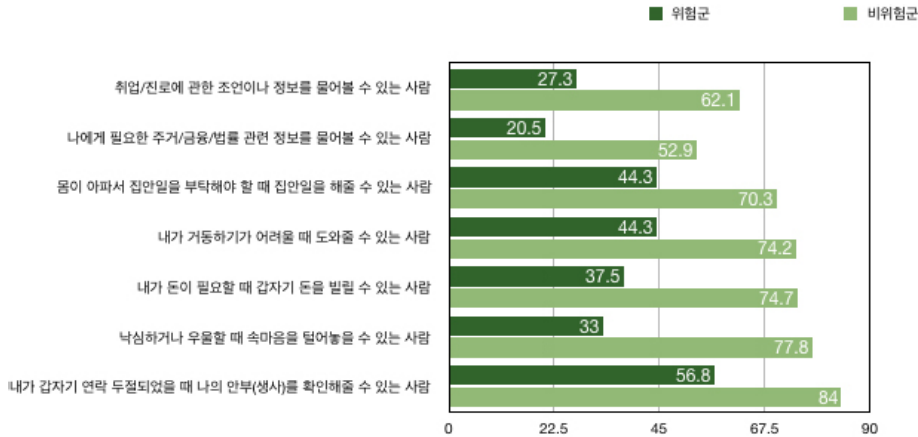
[표4-6] 평소 외출하지 않은 계기

단위 : 명, %

구분	계	학업중단, 대학진로 실패로		취업이 되지 않아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껴서		장애, 질병 등 몸이 불편, 건강상의 문제로		임신, 출산 때문에		온라인 게임 등 길게 하면서		중독의 문제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33)	1	3.0	15	45.5	9	27.3	1	3.0	2	6.1	0	0.0	0	0.0	5	15.2
비위험군	(143)	10	7.0	45	31.5	20	14.0	12	8.4	17	11.9	7	4.9	0	0.0	32	22.4

2)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위험군과 비위험군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다양한 영역에서 비교분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영역에서 비위험군이 위험군에 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4-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지에 대하여 위험군은 72.7%가 ‘없다’로 응답하였다. 반면 비위험군은 37.9%가 ‘없다’라고 응답하여 두 집단간 비율의 차이가 상당히 컸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으며 위험군의 경우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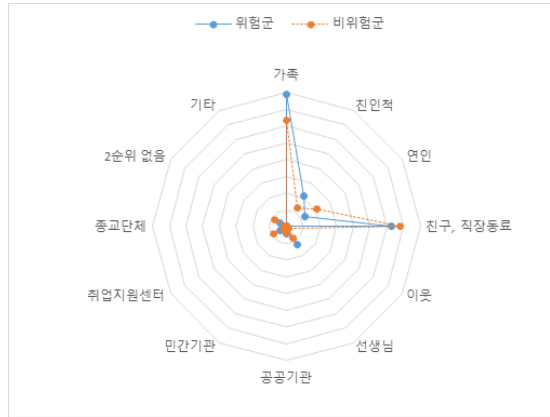
[표4-7]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64	72.7	24	27.3	39.640***
비위험군	(817)	310	37.9	507	62.1	

***P < .001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은 ‘가족’(79.2%), ‘친구, 직장동료’(62.5%), ‘친인척’(20.8%), ‘연인’(12.5%), ‘선생님’(12.5%) 등의 순이었다. 반면, 비위험군에서는 ‘친구, 직장동료’(68.0%), ‘가족’(63.5%), ‘연인’(20.7%), ‘친인척’(13.2%) 등의 순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그림4-5]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1+2순위

[표4-8]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1+2순위 (1)

단위 : 명, %

구분	계	가족		친인척		연인		친구, 직장동료		이웃		선생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24)	19	79.2	5	20.8	3	12.5	15	62.5	0	0.0	3	12.5
비위험군	(507)	322	63.5	67	13.2	105	20.7	345	68.0	9	1.8	41	8.1

[표4-9] 취업/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1+2순위 (2)

단위 : 명, %

구분	계	공공기관		민간기관		취업지원센터		종교단체		2순위 없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24)	1	4.2	0	0.0	1	4.2	0	0.0	1	4.2	0	0.0
비위험군	(507)	20	3.9	11	2.2	46	9.1	6	1.2	40	7.9	2	0.4

(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과 비위험군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위험군에서는 ‘없다’가 79.5%로 대부분이었던 반면, 비위험군은 52.9%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주거/금융/법률과 관련해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위험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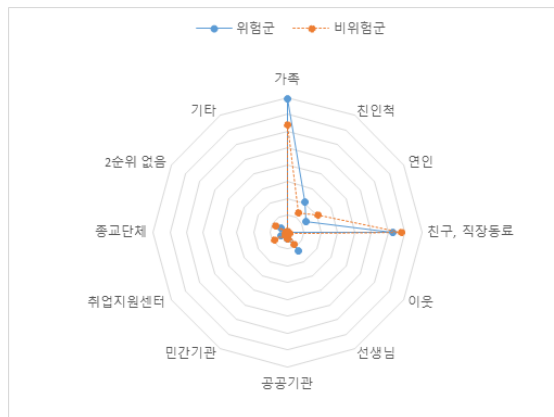
[표4-10]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70	79.5	18	20.5	33.404***
비위험군	(817)	385	47.1	432	52.9	

***P < .001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에 대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과 비위험군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위험군의 경우 ‘가족’이 8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친구, 직장동료’(55.6%), ‘친인척’(22.2%), ‘2순위 없음’(16.7%), ‘공공기관’(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위험군에서는 ‘가족’이 77.8%, ‘친구, 직장동료’(51.4%), ‘친인척’(21.3%), ‘연인’(15.7%), ‘공공기관’(9.7%) 등의 순이었다. 이때, 위험군에서는 ‘2순위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4-6]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표4-11]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1+2순위 (1)

단위 : 명, %

구분	계	가족		친인척		연인		친구, 직장동료		이웃		선생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18)	16	88.9	4	22.2	0	0.0	10	55.6	0	0.0	0	0.0
비위험군	(432)	336	77.8	92	21.3	68	15.7	222	51.4	10	2.3	15	3.5

[표4-1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1+2순위 (2)

단위 : 명, %

구분	계	공공기관		민간기관		취업지원센터		종교단체		2순위 없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18)	3	16.7	0	0.0	0	0.0	0	0.0	3	16.7	0	0.0
비위험군	(432)	42	9.7	13	3.0	19	4.4	2	0.5	41	9.5	4	0.9

(3)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에서는 ‘없다’가 55.7%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비위험군에서는 ‘있다’가 70.3%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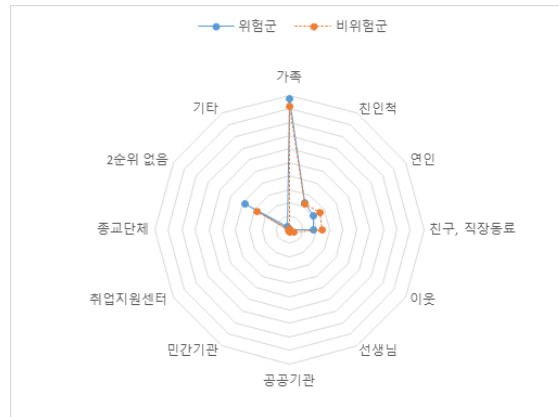
[표4-13]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49	55.7	39	44.3	24.457***
비위험군	(817)	243	29.7	574	70.3	

*** $P < .001$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위험군은 ‘가족’(97.4%), ‘친인척’(23.1%), ‘연인’(20.5%), ‘친구, 직장동료’(17.9%), ‘기타’(2.6%)가 있었으며 ‘2순위 없음’은 38.5%로 나타났다. 반면, 비위험군에서는 ‘가족’(92.2%), ‘연인’(25.8%), ‘친구, 직장동료’(24.6%), ‘친인척’(22.5%), ‘이웃’(4.2%), ‘공공기관’(1.6%), ‘선생님’(0.7%), ‘종교단체’(0.5%) 등이 있었으며 ‘2순위 없음’은 27.5%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원의 종류가 비위험군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2순위 없음’의 경우 위험군에서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4-7]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표4-14]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 1+2순위 (1) 단위 : 명, %

구분	계	가족		친인척		연인		친구, 직장동료		이웃		선생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39)	38	97.4	9	23.1	8	20.5	7	17.9	0	0.0	0	0.0
비위험군	(574)	529	92.2	129	22.5	148	25.8	141	24.6	24	4.2	4	0.7

[표4-15]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 1+2순위 (2) 단위 : 명, %

구분	계	공공기관		민간기관		취업지원센터		종교단체		2순위 없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39)	0	0.0	0	0.0	0	0.0	0	0.0	15	38.5	1	2.6
비위험군	(574)	9	1.6	1	0.2	2	0.3	3	0.5	158	27.5	0	0.0

(4) 내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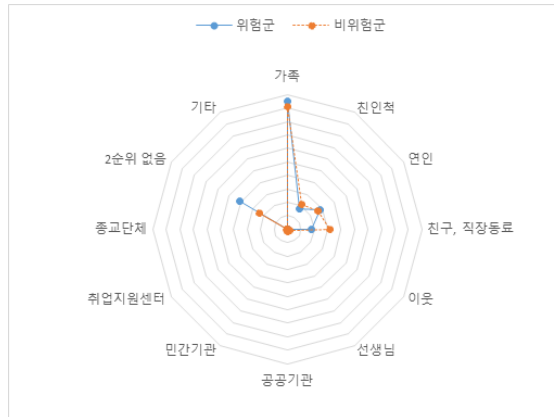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에서는 55.7%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비위험군에서는 74.2%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표4-16] 내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49	55.7	39	44.3	34.584***
비위험군	(817)	211	25.8	606	74.2	

*** $P < .001$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94.9%)과 비위험군(90.9%) 모두 ‘가족’이 전적으로 높았다. 그 뒤로 위험군은 ‘2순위 없음’(41.0%), ‘연인’(28.2%) 등의 순이었으며, 비위험군에서는 ‘친구, 직장동료’(31.7%), ‘연인’(26.6%) 등의 순이었다. 위험군은 ‘2순위 없음’이 높다는 특징이 있었으며 비위험군과 달리 ‘친구, 직장동료’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차이가 있었다.



[그림4-8] 내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표4-17] 내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1+2순위 (1)

단위 : 명, %

구분	계	가족		친인척		연인		친구, 직장동료		이웃		선생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39)	37	94.9	7	17.9	11	28.2	7	17.9	0	0.0	0	0.0
비위험군	(606)	551	90.9	128	21.1	161	26.6	192	31.7	11	1.8	5	0.8

[표4-18] 내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1+2순위 (2)

단위 : 명, %

구분	계	공공기관		민간기관		취업지원센터		종교단체		2순위 없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39)	0	0.0	0	0.0	0	0.0	0	0.0	16	41.0	0	0.0
비위험군	(606)	11	1.8	3	0.5	3	0.5	1	0.2	145	23.9	1	0.2

(5)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림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위험군은 62.5%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비위험군에서는 74.7%로 ‘있다’고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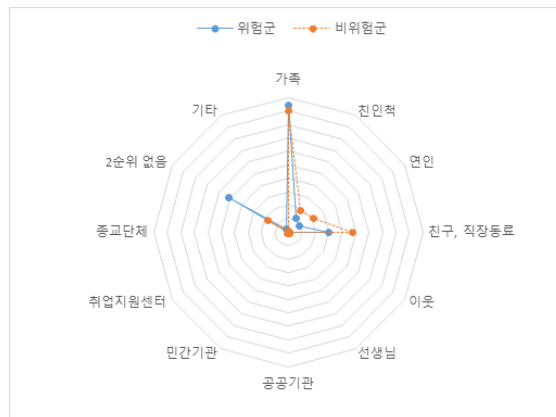
[표4-19]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χ^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55	62.5	33	37.5	53.342***
비위험군	(817)	207	25.3	610	74.7	

*** $P < .001$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에 대해 물었다. 위험군에서는 ‘가족’(93.9%), ‘2순위 없음’(51.5%), ‘친구, 직장동료’(30.3%), ‘친인척’(12.1%), ‘연인’(9.1%) 등의 순이었고, 비위험군에서는 ‘가족’(90.5%), ‘친구, 직장동료’(47.7%), ‘연인’(21.3%), ‘친인척’(18.0%), ‘2순위없음’(17.5%) 등의 순이었다. 특징이 비교적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2순위 없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위험군에서 매우 높다는 점이다.



[그림4-9]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표4-20]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1+2순위 (1)

단위 : 명, %

구분	계	가족		친인척		연인		친구, 직장동료		이웃		선생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33)	31	93.9	4	12.1	3	9.1	10	30.3	0	0.0	0	0.0
비위험군	(610)	552	90.5	110	18.0	130	21.3	291	47.7	7	1.1	6	1.0

[표4-21]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1+2순위 (2)

단위 : 명, %

구분	계	공공기관		민간기관		취업지원센터		종교단체		2순위 없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33)	0	0.0	0	0.0	0	0.0	0	0.0	17	51.5	1	3.0
비위험군	(610)	7	1.1	5	0.8	2	0.3	0	0.0	107	17.5	3	0.5

(6) 낙심/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기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은 67.0%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비위험군에서는 77.8%가 ‘있다’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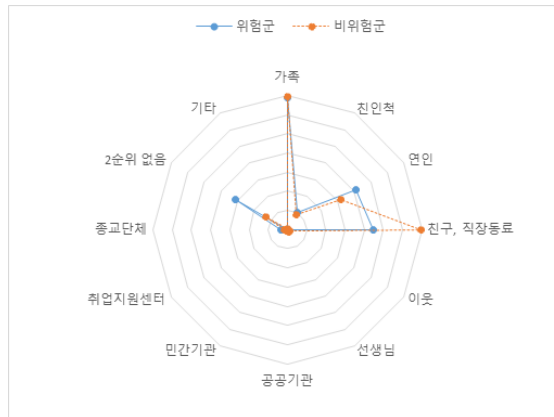
[표4-22]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59	67.0	29	33.0	82.157***
비위험군	(817)	181	22.2	636	77.8	

*** $P < .001$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은 ‘가족’(69.5%), ‘친구, 직장동료’(44.8%), ‘연인’(41.4%), ‘2순위 없음’(3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위험군은 ‘친구, 직장동료’(69.7%), ‘가족’(69.5%), ‘연인’(31.8%), ‘2순위 없음’(12.9%) 등의 순서였다.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2순위 없음’의 비율이 위험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10]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표4-23]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1+2순위 (1)

단위 : 명, %

구분	계	가족		친인척		연인		친구, 직장동료		이웃		선생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29)	20	69.0	3	10.3	12	41.4	13	44.8	0	0.0	0	0.0
비위험군	(636)	442	69.5	58	9.1	202	31.8	443	69.7	8	1.3	9	1.4

[표4-24]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1+2순위 (2)

단위 : 명, %

구분	계	공공기관		민간기관		취업지원센터		종교단체		2순위 없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29)	0	0.0	0	0.0	0	0.0	1	3.4	9	31.0	0	0.0
비위험군	(636)	6	0.9	5	0.8	3	0.5	12	1.9	82	12.9	2	0.3

(7) 연락 두절시 안부 확인

연락 두절시 안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위험군과 비위험군 모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지만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위험군에서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3.2%였으나 '비위험군'에서는 16.0%로 나타나 위험군의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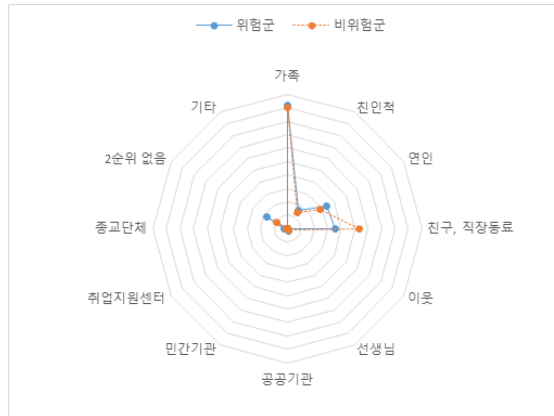
[표4-25]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위험군	(88)	38	43.2	50	56.8
비위험군	비위험군	(817)	131	16.0	686	

***P < .001

연락 두절시 안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위험군과 비위험군 모두 ‘가족’, ‘친구, 직장동료’, ‘연인’의 순으로 동일하였다. 다만, 위험군에서는 4순위가 ‘2순위 없음’(18.0%)으로 나타나 ‘친인척’(14.1%)이었던 비위험군과 차이가 있었으며 비위험군에서는 ‘2순위 없음’이 9.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4-11]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표4-26]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 1+2순위 (1)
단위 : 명, %

구분	계	가족		친인척		연인		친구, 직장동료		이웃		선생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50)	46	92.0	8	16.0	17	34.0	18	36.0	0	0.0	1	2.0
비위험군	(686)	618	90.1	97	14.1	194	28.3	368	53.6	9	1.3	10	1.5

[표4-27]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 1+2순위 (2)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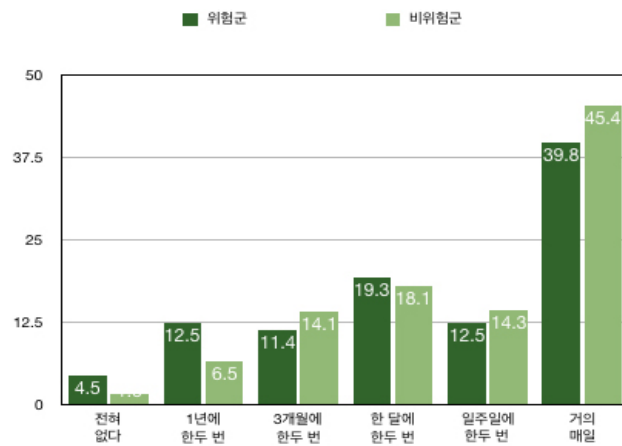
구분	계	공공기관		민간기관		취업지원센터		종교단체		2순위 없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50)	0	0.0	0	0.0	0	0.0	1	2.0	9	18.0	0	0.0
비위험군	(686)	4	0.6	2	0.3	0	0.0	5	0.7	65	9.5	0	0.0

3) 타인과의 교류

(1) 대면 교류 빈도

①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과 비위험군 모두 ‘거의 매일’,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집단 모두 ‘가족’과의 교류가 비교적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과 같이 낮은 빈도에서는 위험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12]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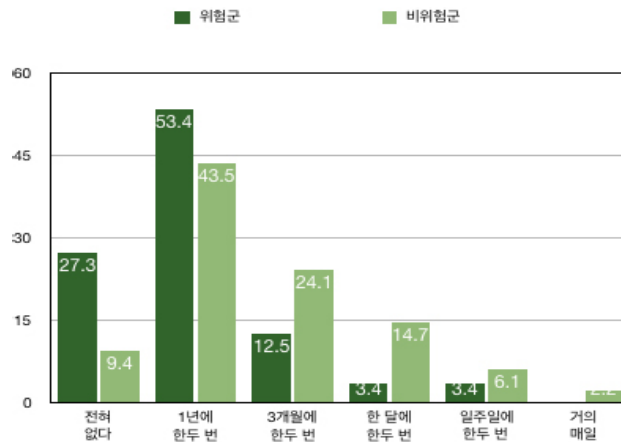
[표4-28]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단위 : 명, %

구분	계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χ^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4	4.5	11	12.5	10	11.4	17	19.3	11	12.5	35	39.8	8.988
비위험군	(81)	13	1.6	53	6.5	115	14.1	148	18.1	117	14.3	371	45.4	

②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위험군과 비위험군 모두, '1년에 한두 번'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위험군의 경우 '전혀 없다'가 27.3%로 나타났으며 비위험군은 '3개월에 한두 번'이 24.1%로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비위험군에서 친인척과의 대면만남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위험군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그림4-13]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표4-29]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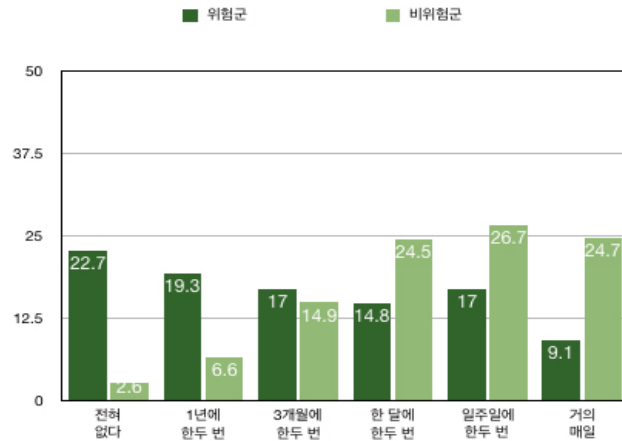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24	27.3	47	53.4	11	12.5	3	3.4	3	3.4	0	0.0	39.482***
비위험군	(817)	77	9.4	355	43.5	197	24.1	120	14.7	50	6.1	18	2.2	

*** $P < .001$

③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빈도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은 ‘전혀 없다’(22.7%), ‘1년에 한두 번’(19.3%)이 높았다. 반면, 비위험군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26.7%), ‘거의 매일’(24.7%)이 높은 순으로 나타나 정반대의 결과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그림4-14]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빈도

[표4-30]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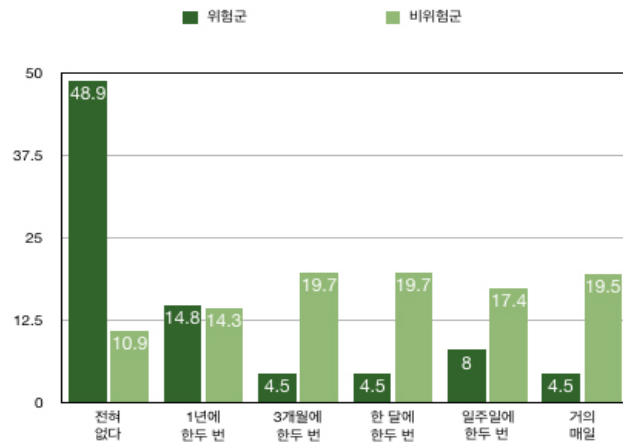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chi^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20	22.7	17	19.3	15	17.0	13	14.8	15	17.0	8	9.1	102.251***
비위험군	(817)	21	2.6	54	6.6	122	14.9	200	24.5	218	26.7	202	24.7	

*** $P < .001$

④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위험군에서는 ‘전혀 없다’가 48.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위험군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19.7%)과 ‘거의 매일’(19.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위험군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대면 교류가 적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림4-15]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업무상 교류 제외)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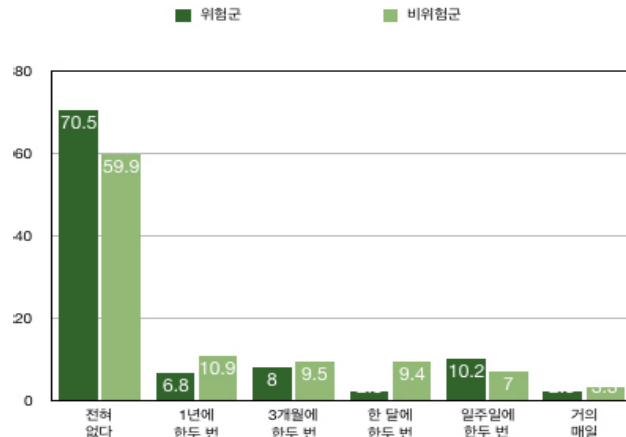
[표4-31]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업무상 교류 제외) 빈도
단위 : 명, %

구분	계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43	48.9	13	14.8	17	19.3	4	4.5	7	8.0	4	4.5	102.704***
비위험군	(817)	89	10.9	117	14.3	149	18.2	161	19.7	142	17.4	159	19.5	

***P < .001

⑤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과 비위험군 모두 ‘전혀 없다’가 가장 높았다. 특이점으로는 위험군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이 10.2%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이였다. 비위험군의 경우는 두 번째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1년에 한두 번’(10.9%)이었다.



[그림4-16]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표4-32]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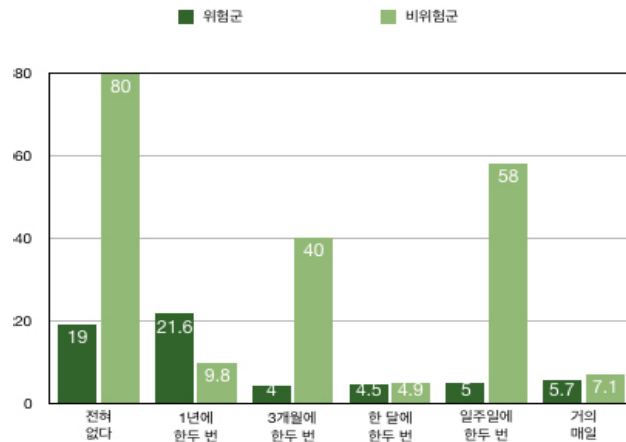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62	70.5	6	6.8	7	8.0	2	2.3	9	10.2	2	2.3	9.008
비위험군	(817)	489	59.9	89	10.9	78	9.5	77	9.4	57	7.0	27	3.3	

(2) 비대면 교류

① 가족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가족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은 ‘일주일에 한두 번’(30.7%), ‘거의 매일’(22.7%), ‘전혀 없다’(21.6%) 등의 순이었고 비위험군은 ‘거의 매일’(35.3%), ‘일주일에 한두 번’(29.5%), ‘한 달에 한두 번’(13.5%) 등의 순이었다. 위험군에서는 ‘전혀 없다’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림4-17] 가족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표4-33] 가족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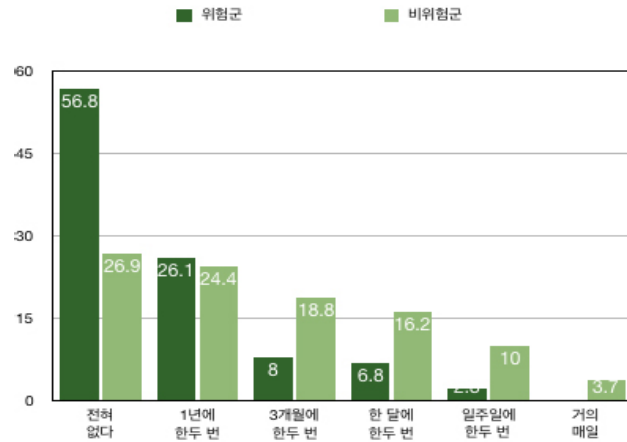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chi^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19	21.6	4	4.5	5	5.7	13	14.8	27	30.7	20	22.7	14.158*
비위험군	(817)	80	9.8	40	4.9	58	7.1	110	13.5	241	29.5	288	35.3	

* $P < .05$

②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위험군과 비위험군 모두 ‘전혀 없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만, 위험군에서는 ‘전혀 없다’가 56.8%로 나타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비위험군에서는 ‘전혀 없다’가 26.9%에 그쳤다. 또한 ‘거의 매일’이나 ‘일주일에 한 두 번’과 같은 잦은 비대면 교류도 비위험군에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그림4-18]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표4-34]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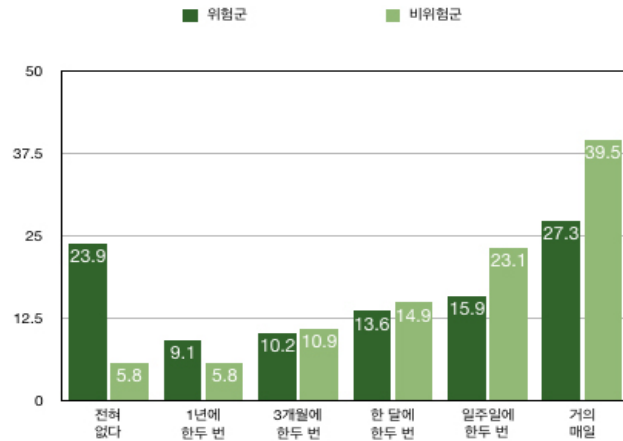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50	56.8	23	26.1	7	8.0	6	6.8	2	2.3	0	0.0	42.128***
비위험군	(817)	220	26.9	199	24.4	154	18.8	132	16.2	82	10.0	30	3.7	

*** $P < .001$

③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은 ‘거의 매일’이 27.3%로 가장 높았으나 두 번째로는 ‘전혀 없다’가 23.9%로 뒤를 이었다. 비위험군에서는 ‘거의 매일’(39.5%), ‘일주일에 한두 번’(23.1%) 등의 순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4-19]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표4-35]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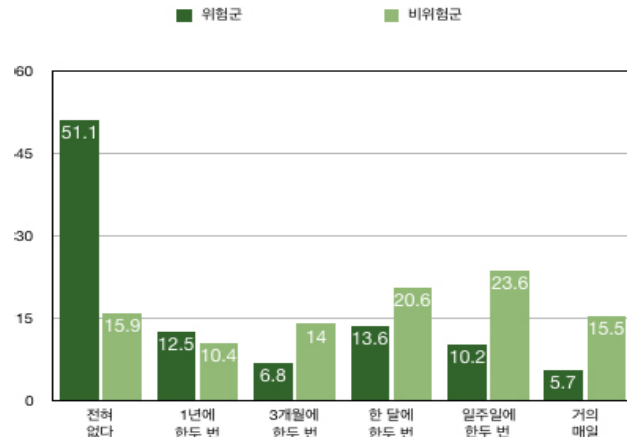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χ^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21	23.9	8	9.1	9	10.2	12	13.6	14	15.9	24	27.3	41.223***
비위험군	(817)	47	5.8	47	5.8	89	10.9	122	14.9	189	23.1	323	39.5	

*** $P < .001$

④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비대면 교류 빈도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위험군에서는 ‘전혀 없다’가 51.1%로 가장 많았으며 비위험군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2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험군에서는 ‘전혀 없다’가 15.9%에 그쳐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비교적 두드러졌고 이는 통계적인 의미가 있었다.



[그림4-20]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비대면 교류(업무상 교류 제외)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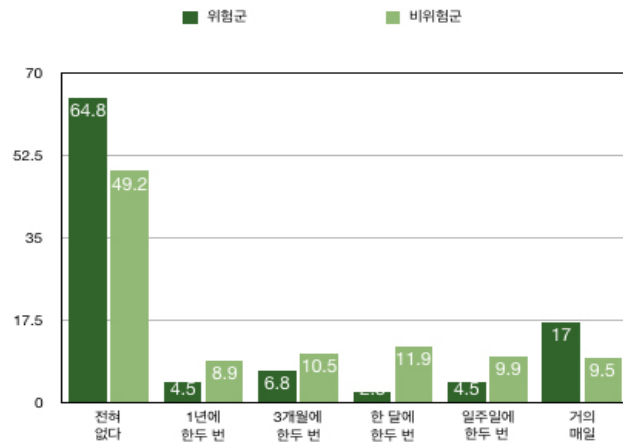
[표4-36]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비대면 교류(업무상 교류 제외) 빈도
단위 : 명, %

구분	계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45	51.1	11	12.5	6	6.8	12	13.6	9	10.2	5	5.7	67.956***
비위험군	(817)	130	15.9	85	10.4	114	14.0	168	20.6	193	23.6	127	15.5	

*** $P < .001$

⑤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과 비위험군 모두 ‘전혀 없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 위험군에서는 ‘거의 매일’이 17.0%로 나타났지만 비위험군은 ‘한 달에 한두 번’이 11.9%로 뒤를 이어 차이가 있었다. 위험군의 경우 1순위와 2순위가 극단적인 값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21]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표4-37]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빈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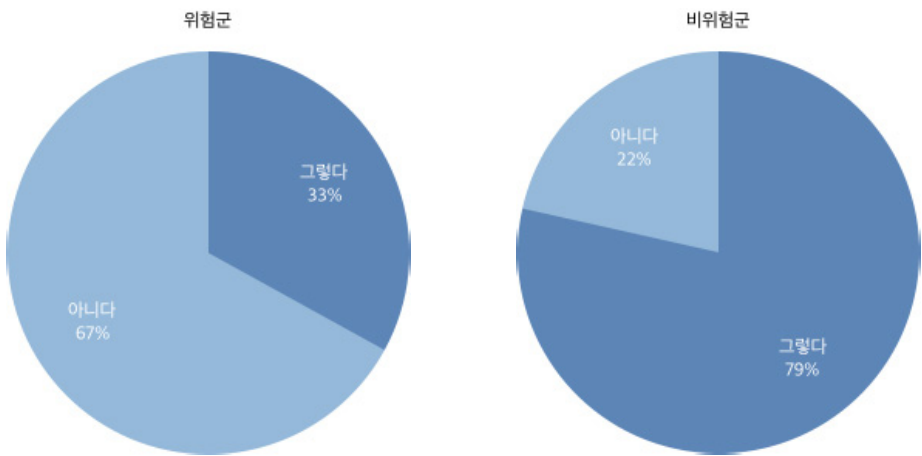
구분	계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57	64.8	4	4.5	6	6.8	2	2.3	4	4.5	15	17.0	20.148**
비위험군	(817)	402	49.2	73	8.9	86	10.5	97	11.9	81	9.9	78	9.5	

** $P < .01$

4) 소속감

(1) 소속감 여부

가족,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지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은 ‘그렇다’가 33.0%에 그친 반면 비위험군에서는 ‘그렇다’가 78.5%에 이르렀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그림4-22] 소속감 여부

[표4-38] 소속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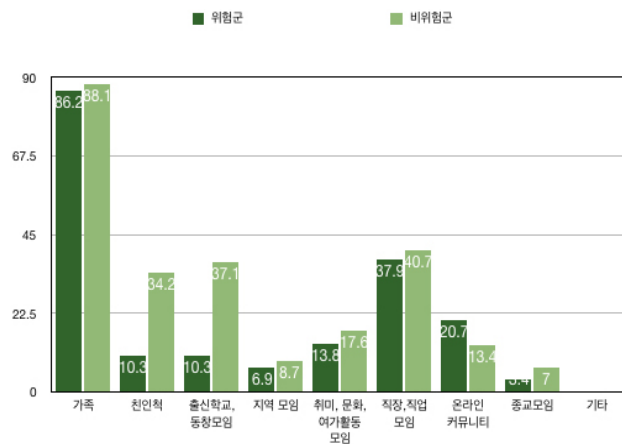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그렇다		아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29	33.0	59	67.0	85.565***
비위험군	(817)	641	78.5	176	21.5	

*** $P < .001$

(2)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위험군은 ‘가족’(86.2%), ‘직장, 직업 모임’(37.9%), ‘온라인 커뮤니티’(20.7%), ‘취미, 문화, 여가활동 모임’(13.8%), ‘출신학교, 동창모임과 친인척’(각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위험군에서는 ‘가족’이 8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장이나 직업 관련 모임’(40.7%),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37.1%), ‘친인척’(34.2%), ‘취미, 문화, 여가활동 모임’(17.6%) 등의 순으로 부분적인 차이가 있었다. 위험군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순위가 높았던 반면 비위험군에서는 ‘친인척’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림4-23] 소속감 집단

[표4-39] 소속감 집단

단위 : 명, %

구분	계	가족		친인척		출신학교, 동창모임		지역 모임		취미, 문화, 여가활동 모임		직장, 직업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종교모임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29)	25	86.2	3	10.3	3	10.3	2	6.9	4	13.8	11	37.9	6	20.7	1	3.4	0	0.0
비위험군	(641)	565	88.1	219	34.2	238	37.1	56	8.7	113	17.6	261	40.7	86	13.4	45	7.0	1	0.2

5) 외로움 정도

(1) 외로움 전반

평소의 외로움을 묻는 18개 문항을 4점으로 환산(높을수록 부정적 감정 자주 느낌)하여 평균을 계산한 결과 위험군은 3.4점, 비위험군은 2.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군이 더 높은 수준으로 평소에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차이는 의미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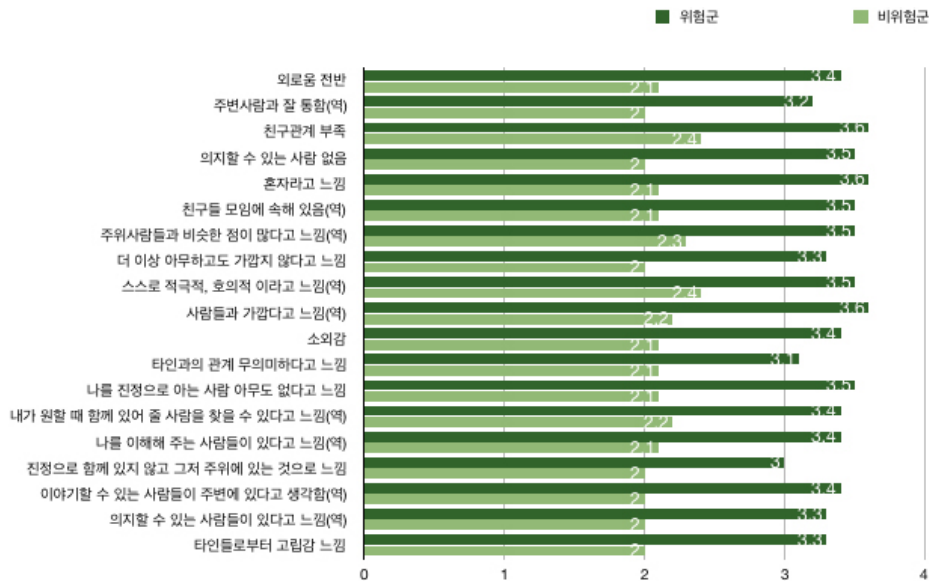
[표4-40] 외로움 전반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위험군	(88)	3.4	0.3	32.454***
비위험군	(817)	2.1	0.5	

※ 평균은 4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의미가 되도록 환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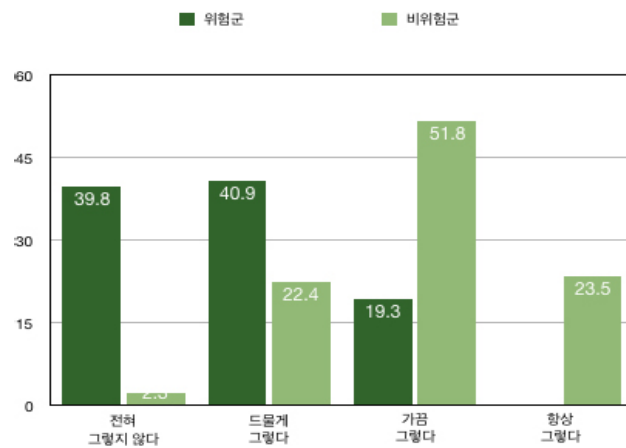
*** $P < .001$



[그림4-24] 외로움 전반

(2)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합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한다고 느끼는지 물었을 때, 위험군은 ‘드물게 그렇다’가 40.9%, ‘전혀 그렇지 않다’가 39.8%로 상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비위험군은 ‘가끔 그렇다’가 51.8%로 가장 많았으며 ‘항상 그렇다’가 23.5%로 그 뒤를 차지하였다. 즉, 위험군은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0.5%(‘전혀 그렇지 않다’+‘드물게 그렇다’)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비위험군에서는 75.3%(‘가끔 그렇다’+‘항상 그렇다’)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그림4-25]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합

[표4-41]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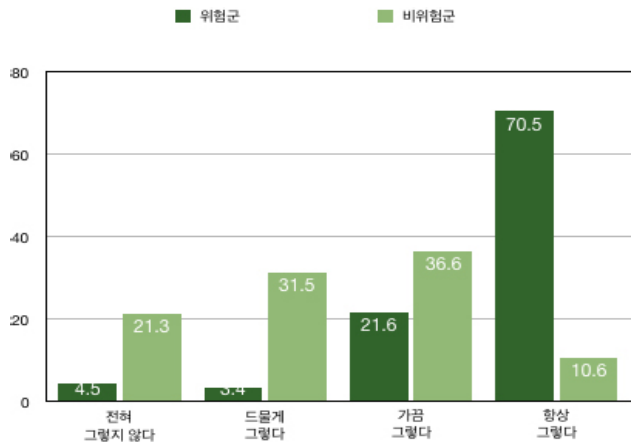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35	39.8	36	40.9	17	19.3	0	0.0	1.8	0.7	14.027***
비위험군	(817)	19	2.3	183	22.4	423	51.8	192	23.5	3.0	0.7	

*** $P < .001$

(3) 친구관계 부족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물었을 때, 위험군은 70.5%가 ‘항상 그렇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가끔 그렇다’가 35.1%로 나타났다. 반면, 비위험군에서는 ‘가끔 그렇다’가 36.6%로 가장 많았고 ‘드물게 그렇다’가 31.5%로 뒤를 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위험군은 4.5%에 그쳐 상당히 낮은 비율에 그쳤으나 비위험군에서는 21.3%로 나와 비교적 많았다. 평균값으로 보았을 때는 위험군은 3.6점, 비위험군은 2.4점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그림4-26] 친구 관계 부족

[표4-42] 친구 관계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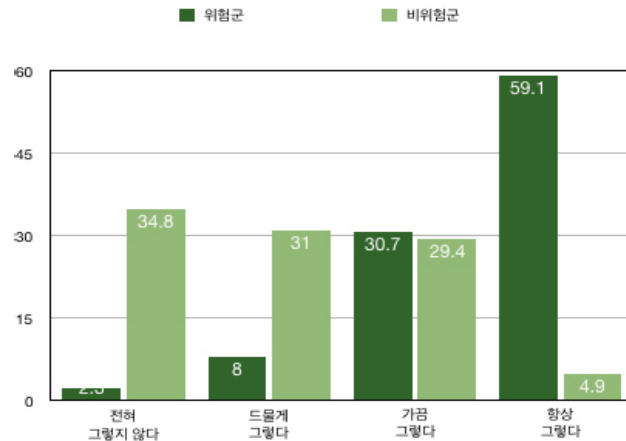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4	4.5	3	3.4	19	21.6	62	70.5	3.6	0.8	13.753***
비위험군	(817)	174	21.3	257	31.5	299	36.6	87	10.6	2.4	0.9	

*** $P < .001$

(4)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음

평소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지 물었을 때, 위험군은 ‘항상 그렇다’가 59.1%로 가장 많았으며 비위험군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34.8%가 가장 높아 차이가 있었다. 특히, 평균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위험군은 3.5점으로 나타나 비위험군 2.0점에 비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4-27]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음

[표4-43]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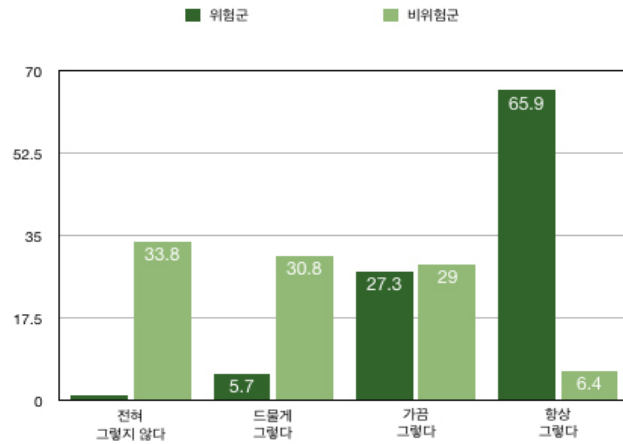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2	2.3	7	8.0	27	30.7	52	59.1	3.5	0.7	16.664***
비위험군	(817)	284	34.8	253	31.0	240	29.4	40	4.9	2.0	0.9	

*** $P < .001$

(5) 혼자라고 느낌

혼자라고 느끼는지 물었을 때, 위험군은 ‘항상 그렇다’가 65.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가끔 그렇다’가 이어 전반적으로 혼자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비위험군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33.8%로 가장 많았고 ‘드물게 그렇다’가 30.8%로 뒤따르며 위험군과는 반대의 결과로 나왔다. 평균으로 비교해보았을 때에도 위험군은 3.6점, 비위험군은 2.1점으로 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4-28] 혼자라고 느낌

[표4-44] 혼자라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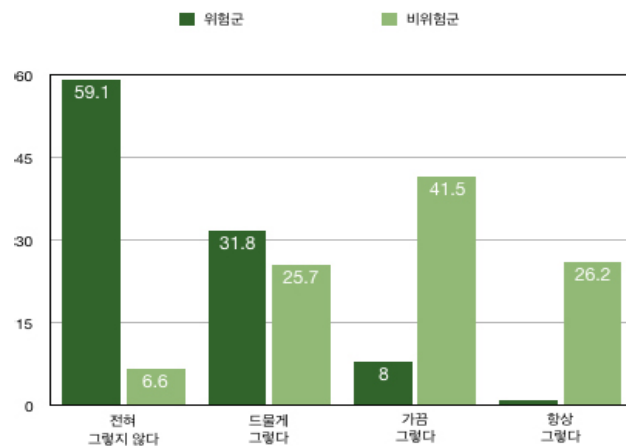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1	1.1	5	5.7	24	27.3	58	65.9	3.6	0.7	19.422***
비위험군	(817)	276	33.8	252	30.8	237	29.0	52	6.4	2.1	0.9	

*** $P < .001$

(6)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음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지 물었을 때, 위험군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59.1%로 가장 많았으며 드물게 그렇다가 31.8%로 두 번째로 많았다. 비위험군에서는 ‘가끔 그렇다’가 41.5%로 가장 많았으며 ‘항상 그렇다’가 26.2%로 그 뒤를 이었다. 이로써 위험군에서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 감정 빈도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평균으로 확인했을 때에도 위험군은 1.5점에 그친 반면 비위험군은 2.9점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4-29]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음

[표4-45]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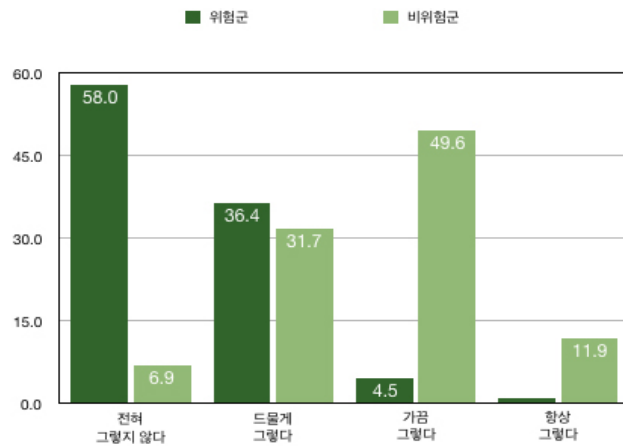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52	59.1	28	31.8	7	8.0	1	1.1	1.5	0.7	14.100***
비위험군	(81)	54	6.6	210	25.7	339	41.5	214	26.2	2.9	0.9	

*** $P < .001$

(7)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낌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끼는지 물었을 때, 위험군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58.0%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드물게 그렇다’가 36.4%로 뒤를 이었다. 비위험군에서는 ‘가끔 그렇다’가 49.6%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비율로 나타났고 다음은 ‘드물게 그렇다’가 31.7%로 뒤를 이었다. 평균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위험군은 1.5점, 비위험군은 2.7점으로 위험군에서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림4-30]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낌

[표4-46]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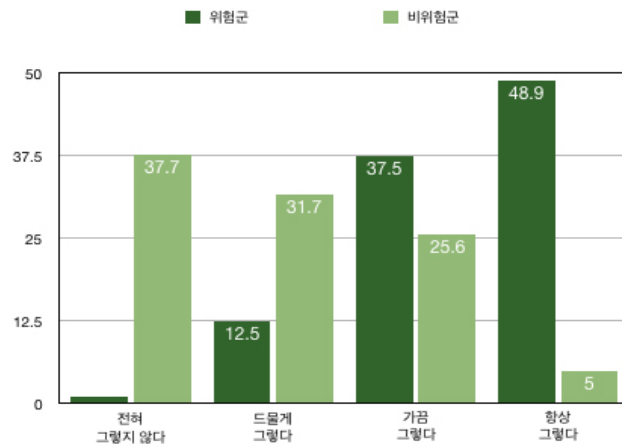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51	58.0	32	36.4	4	4.5	1	1.1	1.5	0.6	13.758***
비위험군	(817)	56	6.9	259	31.7	405	49.6	97	11.9	2.7	0.8	

*** $P < .001$

(8)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낌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끼는지 물었을 때, 위험군에서는 ‘항상 그렇다’(48.9%), ‘가끔 그렇다’(37.5%)의 순이었고 비위험군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37.7%), ‘드물게 그렇다’(31.7%)의 순으로 두 집단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났다. 즉, 위험군에서는 평소에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다고 느끼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며, 평균을 비교해보아도 위험군은 3.3점, 비위험군은 2.0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4-31]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낌

[표4-47]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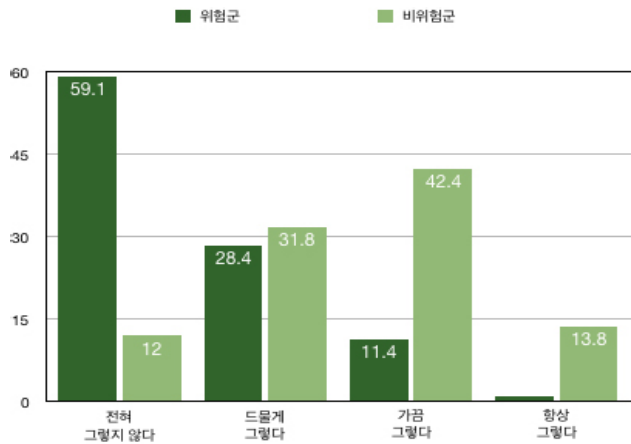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1	1.1	11	12.5	33	37.5	43	48.9	3.3	0.7	13.514***
비위험군	(817)	308	37.7	259	31.7	209	25.6	41	5.0	2.0	0.9	

*** $P < .001$

(9) 스스로 적극적, 호의적이라고 느낌

스스로 적극적, 호의적이라고 느끼는지 물었을 때, 위험군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59.1%로 가장 높았고 ‘드물게 그렇다’가 38.4%로 그 다음이었다. 비위험군에서는 ‘가끔 그렇다’가 42.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드물게 그렇다’(31.8%)였다. 두 집단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위험군은 1.5점이었던 반면 비위험군은 2.6점으로 나타나 비위험군이 스스로 적극적, 호의적이라는 데에 더욱 긍정적이었다.



[그림4-32] 스스로 적극적, 호의적이라고 느낌

[표4-48] 스스로 적극적, 호의적이라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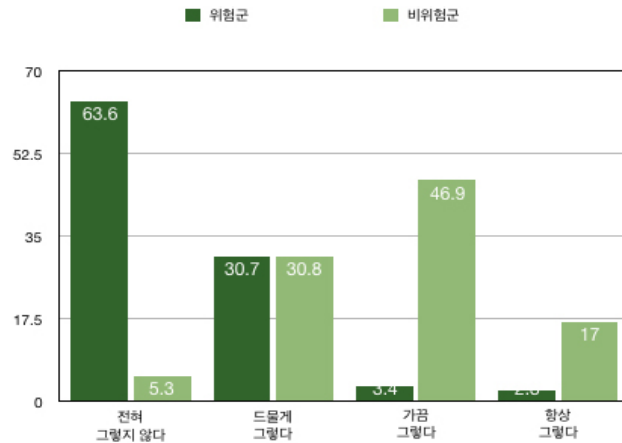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52	59.1	25	28.4	10	11.4	1	1.1	1.5	0.7	12.213***
비위험군	(817)	98	12.0	260	31.8	346	42.4	113	13.8	2.6	0.9	

*** $P < .001$

(10)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낌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끼는지 물었을 때, 위험군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63.6%), ‘드물게 그렇다’(30.7%)의 순이었으며 비위험군에서는 ‘가끔 그렇다’(46.9%), ‘드물게 그렇다’(30.8%)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에서는 위험군은 1.4점였으며 비위험군은 2.8점으로 위험군의 점수가 더욱 부정적이었다.



[그림4-33]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낌

[표4-49]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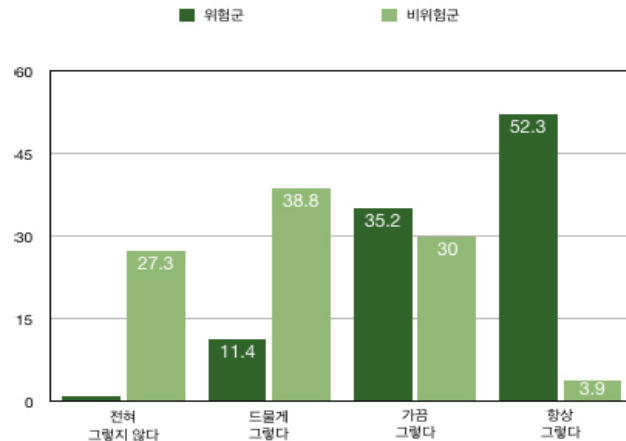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56	63.6	27	30.7	3	3.4	2	2.3	1.4	0.7	14.941***
비위험군	(817)	43	5.3	252	30.8	383	46.9	139	17.0	2.8	0.8	

*** $P < .001$

(11) 소외감

소외감을 느끼는지 물었을 때, 위험군에서는 ‘항상 그렇다’가 52.3%로 가장 높았으며 ‘가끔 그렇다’가 35.2%로 뒤를 이었다. 비위험군에서는 ‘드물게 그렇다’가 3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끔 그렇다’(30.0%)였다. 평균 점수에서는 위험군은 3.4점, 비위험군은 2.1점으로 위험군이 소외감을 느끼는 빈도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34] 소외감

[표4-50] 소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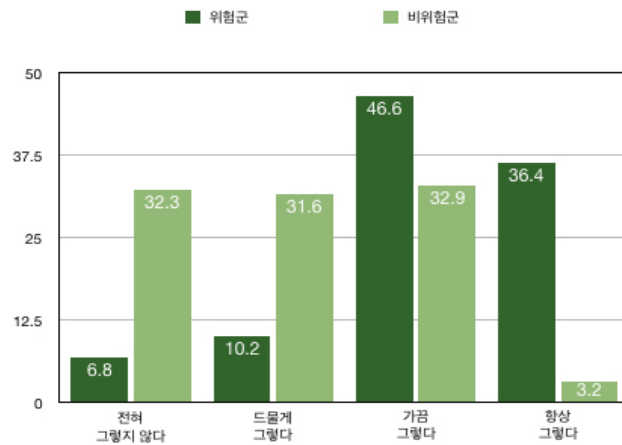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1	1.1	10	11.4	31	35.2	46	52.3	3.4	0.7	13.629***
비위험군	(817)	223	27.3	317	38.8	245	30.0	32	3.9	2.1	0.8	

*** $P < .001$

(12) 타인과의 관계 무의미하다고 느낌

타인과의 관계를 무의미하다고 느끼는지 물었을 때, 위험군은 ‘가끔 그렇다’가 46.6%로 가장 높았고 ‘항상 그렇다’가 36.4%로 그 뒤를 이어 전반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비위험군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가끔 그렇다’로 32.9%였으며 그 뒤를 ‘전혀 그렇지 않다’(32.3%)가 이었다. 위험군과 비위험군을 보았을 때, 위험군은 ‘가끔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에 대부분의 답변이 몰려 있었던 것에 반하여, 비위험군에서는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에 응답률이 고루 분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평균 점수에서는 위험군은 3.1점으로 비위험군 2.1점에 비하여 부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그림4-35] 타인과의 관계 무의미하다고 느낌

[표4-51] 타인과의 관계 무의미하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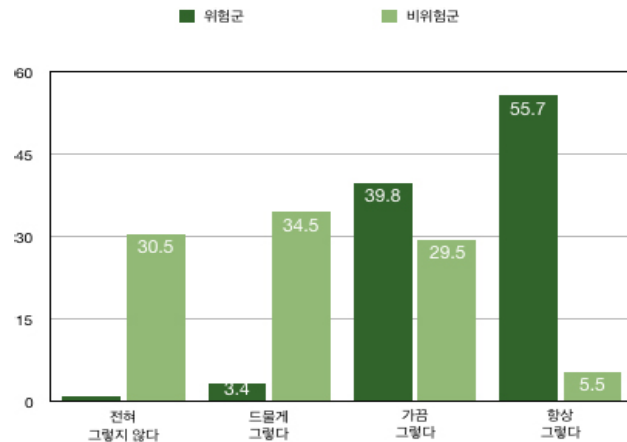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6	6.8	9	10.2	41	46.6	32	36.4	3.1	0.9	10.708***
비위험군	(817)	264	32.3	258	31.6	269	32.9	26	3.2	2.1	0.9	

*** $P < .001$

(13)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느낌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지 물었을 때, 위험군은 ‘항상 그렇다’라는 응답이 5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가끔 그렇다’로 39.8%였다. 비위험군에서는 ‘드물게 그렇다’가 34.5%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30.5%로 뒤를 이었다. 이에 위험군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평균도 위험군은 3.5점으로 나타나 비위험군 2.1점에 비하여 높은 점수였다.



[그림4-36]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느낌

[표4-52]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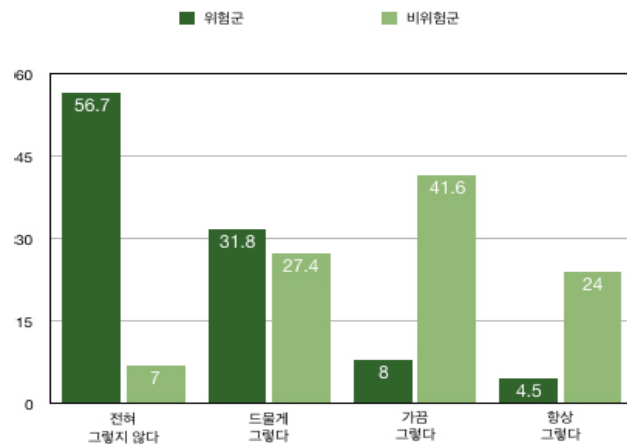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1	1.1	3	3.4	35	39.8	49	55.7	3.5	0.6	18.988***
비위험군	(817)	249	30.5	282	34.5	241	29.5	45	5.5	2.1	0.9	

*** $P < .001$

(14) 내가 원할 때 함께 있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낌

내가 원할 때 함께 있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끼는지 물었을 때, 위험군은 ‘전혀 그렇지 않다’(55.7%), ‘드물게 그렇다’(31.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위험군에서는 ‘가끔 그렇다’(41.6%), ‘드물게 그렇다’(27.4%)의 순이었다. 특히, 위험군에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낮은 수준이었다.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위험군에서는 1.6점에 그쳐 비위험군 2.8점에 비하여 부정적이었다.



[그림4-37] 내가 원할 때 함께 있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낌

[표4-53] 내가 원할 때 함께 있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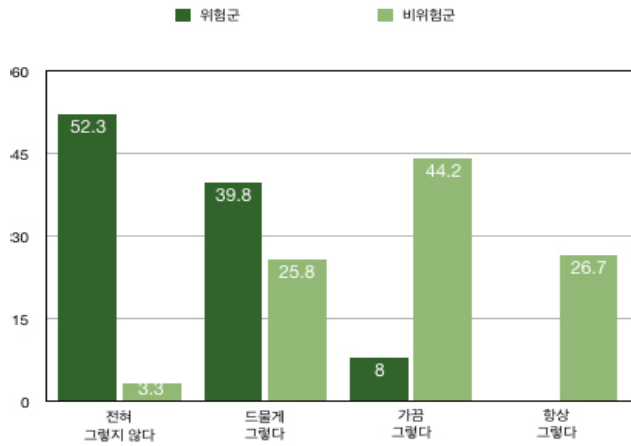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49	55.7	28	31.8	7	8.0	4	4.5	1.6	0.8	12.434***
비위험군	(817)	57	7.0	224	27.4	340	41.6	196	24.0	2.8	0.9	

*** $P < .001$

(15)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위험군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가 52.3%로 가장 많았고 ‘드물게 그렇다’가 39.8%로 뒤를 이었다. 비위험군에서는 ‘가끔 그렇다’가 4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항상 그렇다’(26.7%)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위험군의 경우 해당 문항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평균 점수에서도 위험군은 1.6점, 비위험군은 2.9점으로 나타나 위험군에게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림4-38]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낌

[표4-54]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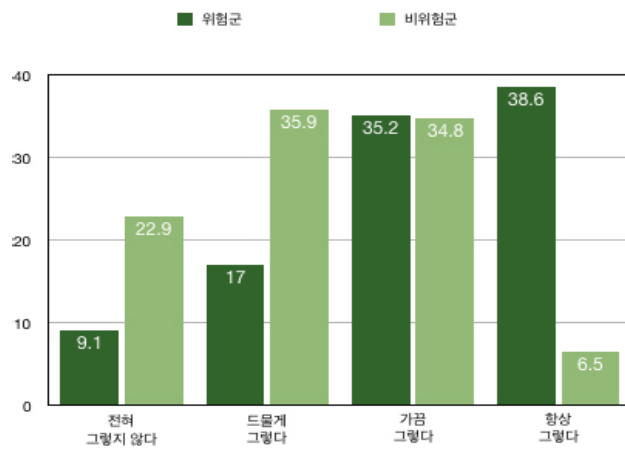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46	52.3	35	39.8	7	8.0	0	0.0	1.6	0.6	15.545***
비위험군	(817)	27	3.3	211	25.8	361	44.2	218	26.7	2.9	0.8	

*** $P < .001$

(16)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으로 느낌

사람들이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으로 느끼는지 물었을 때, 위험군에서는 ‘항상 그렇다’가 38.6%로 가장 높았고 ‘가끔 그렇다’가 35.2%로 뒤를 이어 다수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비위험군에서는 ‘드물게 그렇다’가 3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끔 그렇다’ 34.8%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위험군의 경우 9.1%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반면, 비위험군에서는 22.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평균 점수로는 위험군은 3.0점, 비위험군은 2.2점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위험군에서 더욱 부정적이었다.



[그림4-39]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으로 느낌

[표4-55]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으로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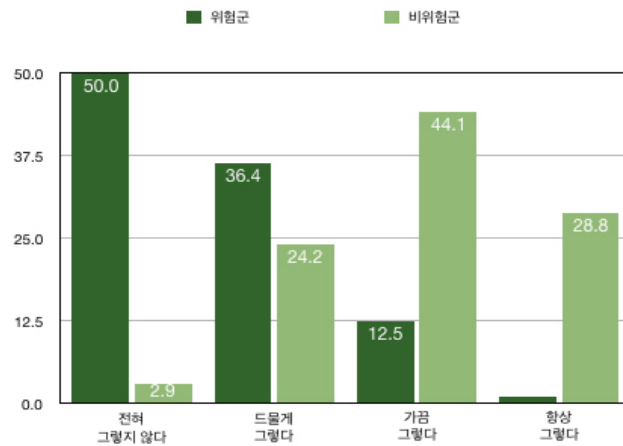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8	9.1	15	17.0	31	35.2	34	38.6	3.0	1.0	7.878***
비위험군	(817)	187	22.9	293	35.9	284	34.8	53	6.5	2.2	0.9	

*** $P < .001$

(17)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함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위험군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50%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은 ‘드물게 그렇다’로 36.4%에 이르렀다. 비위험군에서는 ‘가끔 그렇다’가 44.1%로 가장 높았고 ‘항상 그렇다’가 28.8%로 두 번째로 높아 차이가 있었다. 즉, 위험군에서 더욱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평균 점수에서도 위험군은 1.6점, 비위험군은 3.0점으로 위험군의 점수가 더욱 낮았다.



[그림4-40]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함

[표4-56]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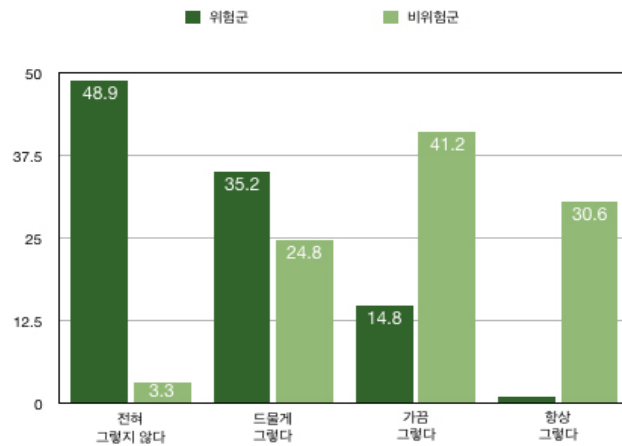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44	50.0	32	36.4	11	12.5	1	1.1	1.6	0.7	14.929***
비위험군	(817)	24	2.9	198	24.2	360	44.1	235	28.8	3.0	0.8	

*** $P < .001$

(18)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위험군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4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드물게 그렇다’가 35.2%로 나타났다. 비위험군에서는 ‘가끔 그렇다’가 41.2%, ‘항상 그렇다’가 30.6%였다. 이는 위험군에서 해당 문항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평균 점수도 위험군은 1.7점, 비위험군은 3.0점으로 위험군의 점수가 더욱 낮았다.



[그림4-41]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낌

[표4-57]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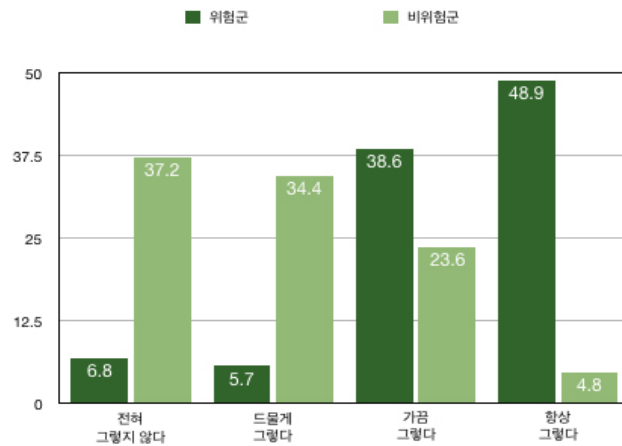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43	48.9	31	35.2	13	14.8	1	1.1	1.7	0.8	14.178***
비위험군	(817)	27	3.3	203	24.8	337	41.2	250	30.6	3.0	0.8	

*** $P < .001$

(19) 타인들로부터 고립감

타인들로부터 고립감을 느끼는지 질문했을 때, 위험군은 48.9%가 ‘항상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38.6%는 ‘가끔 그렇다’고 응답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비위험군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37.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드물게 그렇다’로 34.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에서는 위험군은 3.3점이었으며 비위험군은 2.0점으로 나타나 점수가 높은 위험군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4-42] 타인들로부터 고립감 느낌

[표4-58] 타인들로부터 고립감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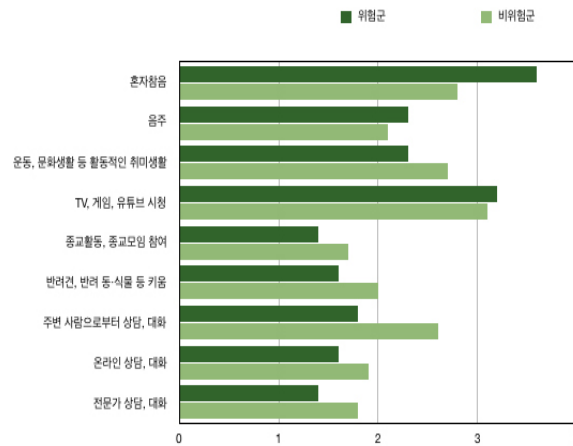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6	6.8	5	5.7	34	38.6	43	48.9	3.3	0.9	13.371***
비위험군	(817)	304	37.2	281	34.4	193	23.6	39	4.8	2.0	0.9	

*** $P < .001$

6)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방법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지를 위험군과 비위험군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위험군에서는 ‘혼자 참는다’, ‘TV, 게임, 유튜브 시청’, ‘음주’의 세 가지 방법이 비위험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험군에서는 나머지 영역들이 모두 위험군 보다 높았지만 특히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담, 대화’의 방법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4-43]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방법

(1) 혼자 참음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혼자서 그냥 참는지 물었을 때, 위험군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96.6%(‘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로 ‘그렇지 않다’ 3.4%(‘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위험군에서는 그렇다가 67.6%(‘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32.4%(‘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로 차이가 있었다.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위험군에서는 혼자 참는다는 응답률이 3.6점으로 비위험군 2.8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59] 혼자 참음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0	0.0	3	3.4	30	34.1	55	62.5	3	3.4	85	96.6	3.6	0.6	12.650***
비위험군	(817)	71	8.7	194	23.7	419	51.3	133	16.3	265	32.4	552	67.6	2.8	0.8	

*** $P < .001$

(2) 음주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술을 마시는지 물었을 때, 위험군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2.3%(‘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로 ‘그렇다’ 47.7%(‘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에 비해 약간 높았다. 한편, 비위험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0.2%(‘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로 ‘그렇다’ 39.8%(‘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위험군은 2.3점, 비위험군은 2.1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4-60] 음주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32	36.4	14	15.9	25	28.4	17	19.3	46	52.3	42	47.7	2.3	1.2	1.247
비위험군	(817)	277	33.9	215	26.3	253	31.0	72	8.8	492	60.2	325	39.8	2.1	1.0	

(3) 운동, 문화생활 등 활동적인 취미생활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운동, 문화생활 등 활동적인 취미생활을 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위험군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42.0%(‘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로 ‘그렇지 않다’ 58.0%(‘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로 나타났다. 비위험군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66.1%(‘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로 ‘그렇지 않다’ 33.9%(‘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였다. 즉, 위험군 보다 비위험군에서 ‘그렇다’라는 비율이 더 많았으며 평균 점수로도 위험군(2.3점)이 비위험군(2.7점)보다 낮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4-61] 운동, 문화생활 등 활동적인 취미생활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22	25.0	29	33.0	28	31.8	9	10.2	51	58.0	37	42.0	2.3	1.0	-4.433***
비위험군	(817)	64	7.8	213	26.1	410	50.2	130	15.9	277	33.9	540	66.1	2.7	0.8	

*** $P < .001$

(4) TV, 게임, 유튜브 시청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TV, 게임, 유튜브 시청을 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위험군은 ‘그렇다’는 응답이 85.2%(‘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였으며, 비위험군에서도 ‘그렇다’가 85.3%(‘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로 유사하였다. 평균 점수에서는 위험군이 3.2점, 비위험군이 3.1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4-62] TV, 게임, 유튜브 시청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6	6.8	7	8.0	40	45.5	35	39.8	13	14.8	75	85.2	3.2	0.9	0.553
비위험군	(817)	24	2.9	96	11.8	447	54.7	250	30.6	120	14.7	697	85.3	3.1	0.7	

(5) 종교활동, 종교모임 참여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종교활동이나 종교모임에 참여하는지 물어본 결과, 위험군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85.2%(‘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였으며, 비위험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2%(‘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로 나타나 위험군에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평균 점수로 보면, 위험군은 1.4점, 비위험군은 1.7점으로 비위험군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

[표4-63] 종교활동, 종교모임 참여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71	80.7	4	4.5	11	12.5	2	2.3	75	85.2	13	14.8	1.4	0.8	-4.213***
비위험군	(817)	468	57.3	138	16.9	161	19.7	50	6.1	606	74.2	211	25.8	1.7	1.0	

*** $P < .001$

(6) 반려견, 반려 동·식물 등 키움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반려견, 반려 동·식물 등을 키우는 지 물어본 결과, 위험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8.4%(‘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 비위험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6.0%(‘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로 살펴보면, 위험군은 1.6점, 비위험군에서는 2.0점으로 위험군의 점수가 유의한 수준으로 낮았다.

[표4-64] 반려견, 반려 동·식물 등 키움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62	70.5	7	8.0	10	11.4	9	10.2	69	78.4	19	21.6	1.6	1.0	-3.276***
비위험군	(817)	380	46.5	151	18.5	179	21.9	107	13.1	531	65.0	286	35.0	2.0	1.1	

*** $P < .001$

(7)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담, 대화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담을 받거나 대화를 나누는지 물었다. 위험군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21.6%(‘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으로 비위험군에서는 ‘그렇다’ 61.6%(‘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으로 비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평균 점수로는 위험군은 1.8점, 비위험군은 2.8점으로 비위험군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표4-65]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담, 대화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39	44.3	30	34.1	17	19.3	2	2.3	69	78.4	19	21.6	1.8	0.8	-8.756***
비위험군	(817)	95	11.6	219	26.8	384	47.0	119	14.6	314	38.4	503	61.6	2.6	0.9	

*** $P < .001$

(8) 온라인 상담, 대화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온라인에서 상담을 받거나 대화를 나누는지 물었다. 위험군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83.0%(‘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이었으며, 비위험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0.4%(‘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위험군에서 높았다. 한편, 평균 점수에서 위험군은 1.6점, 비위험군은 1.9점으로 모두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나 위험군이 더 낮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표4-66] 온라인 상담, 대화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56	63.6	17	19.3	12	13.6	3	3.4	73	83.0	15	17.0	1.6	0.9	-2.965**
비위험군	(817)	377	46.1	198	24.2	209	25.6	33	4.0	575	70.4	242	29.6	1.9	0.9	

** $P < .01$

(9) 전문가 상담, 대화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대화를 나누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위험군과 비위험군 모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위험군에서는 87.5%(‘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였으며 비위험군에서는 75.9%(‘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 23.3)였다. 평균 점수로는 위험군은 1.4점이었고 비위험군은 1.8점으로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즉, 두 집단 모두 전문가 상담이나 대화는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표4-67] 전문가 상담, 대화

단위 :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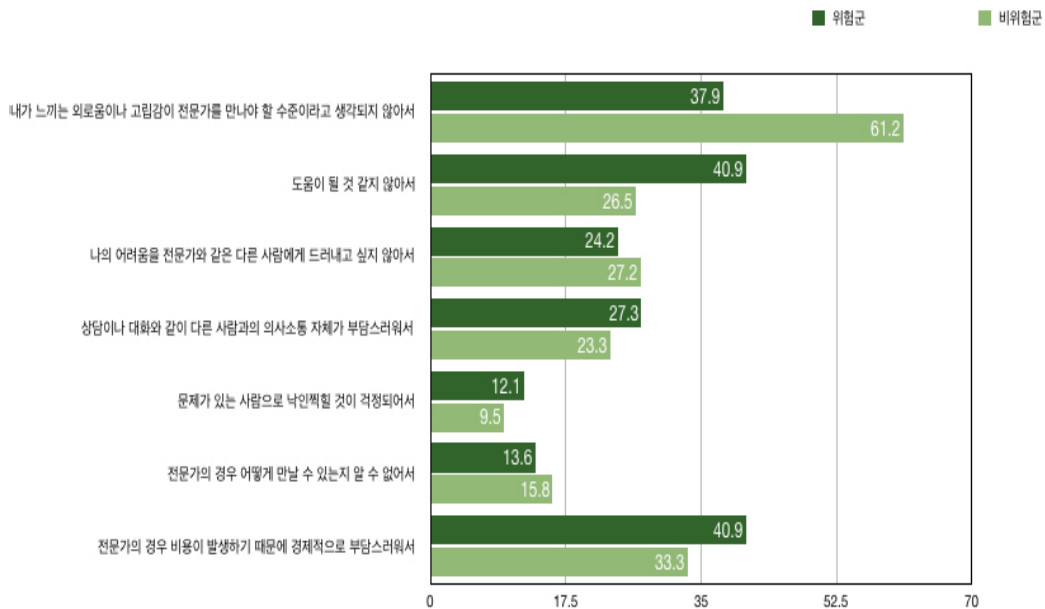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66	75.0	11	12.5	7	8.0	4	4.5	77	87.5	11	12.5	1.4	0.8	-3.585**
비위험군	(817)	430	52.6	190	23.3	163	20.0	34	4.2	620	75.9	197	24.1	1.8	0.9	

** $P < .01$

(10)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전문가 상담하지 않은 이유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대화를 나누는지 물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보았다. 위험군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40.9%), ‘전문가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40.9%), ‘내가 느끼는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전문가를 만나야 할 수준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37.9%), ‘상담이나 대화와 같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자체가 부담스러워서’(27.3%) 등의 순이었다.

한편, 비위험군에서는 ‘내가 느끼는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전문가를 만나야 할 수준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61.2%)가 가장 많았고 ‘전문가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33.3%), 나의 어려움을 전문가 등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27.2%),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험군은 외로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전문가를 만나야 할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전문가를 만나는 데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었다.



[그림4-44]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전문가와 대화, 상담하지 않은 이유 (복수 선택)

[표4-68]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전문가와 대화, 상담하지 않은 이유 (복수 선택)

단위 : 명, %

구분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66)	25	37.9	27	40.9	16	24.2	18	27.3	8	12.1	9	13.6	27	40.9	1	1.5	21.655 **
비위험군	(430)	263	61.2	114	26.5	117	27.2	100	23.3	41	9.5	68	15.8	143	33.3	4	0.9	

① 내가 느끼는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전문가를 만나야 할 수준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②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③ 나의 어려움을 전문가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④ 상담이나 대화와 같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⑤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것이 걱정되어서

⑥ 전문가(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상담가, 사회복지사 등)의 경우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서

⑦ 전문가(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상담가, 사회복지사 등)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⑧ 기타

** $P < .01$

(11)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본인 활용해본 방법 중 가장 도움 된 방법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활용해본 방법 중 가장 도움이 된 방법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은 ‘혼자서 참는다’(54.5%), ‘TV, 게임, 유튜브 시청’(52.3%), ‘운동, 문화생활 등 활동적 취미생활’(30.7%), ‘음주’(29.5%) 등의 순이었다. 비위험군에서는 ‘TV, 게임, 유튜브 시청’(44.7%), ‘주변 사람 상담, 대화’(41.6%), ‘운동, 문화생활 등 활동적 취미생활’(40.4%), ‘혼자서 참는다’(31.1%) 등의 순으로 위험군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무엇보다 상위 4개 방법을 보면 위험군은 ‘혼자서 참는다’는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며 ‘음주’가 포함되어 있었던 반면, 비위험군에서는 ‘주변 사람과의 상담과 대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4-45]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본인 활용해본 방법 중 가장 도움 된 방법 - 1+2순위

[표4-69]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본인 활용해본 방법 중 가장 도움 된 방법 - 1+2순위 (1)
단위 : 명, %

구분	계	혼자서 참는다		음주		운동, 문화생활 등 활동적인 취미생활		TV, 게임 유튜브 시청		주변 사람 상담, 대화		온라인 상담, 대화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48	54.5	26	29.5	27	30.7	46	52.3	11	12.5	2	2.3
비위험군	(817)	254	31.1	163	20.0	330	40.4	365	44.7	340	41.6	61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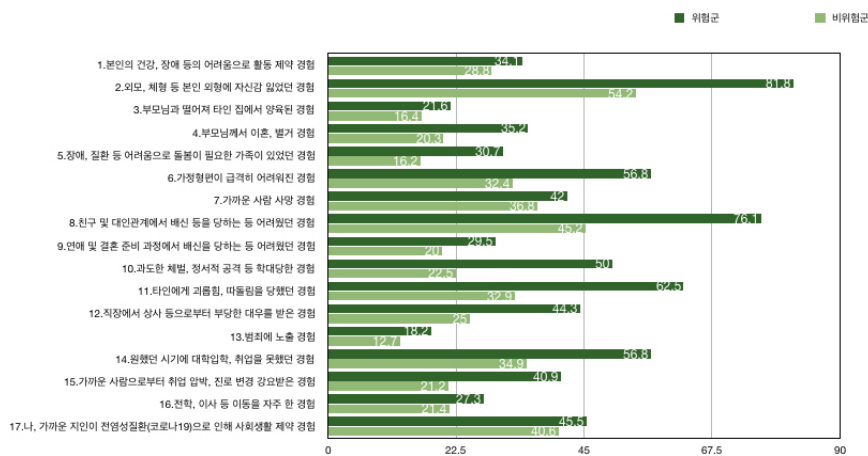
[표4-70]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본인 활용해본 방법 중 가장 도움 된 방법 - 1+2순위 (2)
단위 : 명, %

구분	계	전문가 상담, 대화		종교활동, 종교모임 참석		반려견, 반려 동·식물 기름		기타		어떤 방법도 도움 안됨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6	6.8	2	2.3	4	4.5	2	2.3	1	1.1	64.700***
비위험군	(817)	36	4.4	22	2.7	38	4.7	5	0.6	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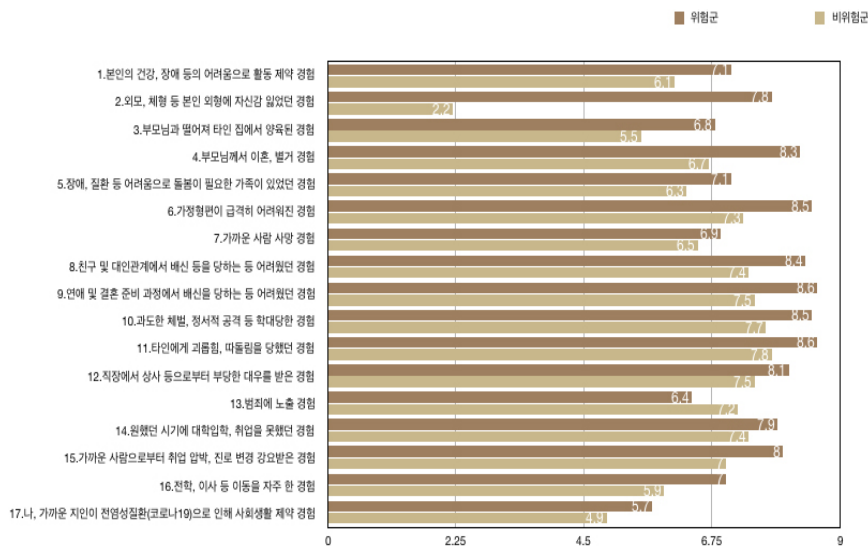
*** p < .001

7) 과거의 경험 및 해당 경험의 영향 정도

과거에 부정적인 사건 등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험했는지 여부와 각 경험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정도를 위험군과 비위험군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위험군이 관련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모, 체형 등 본인 외형에 자신감을 잃었던 경험’과 ‘친구 등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경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각 경험의 부정적 영향력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위험군의 점수가 높았으며 ‘외모, 체형 등 본인 외형에 자신감을 잃었던 경험’은 비위험군에게는 크게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위험군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4-46] 과거의 경험 여부



[그림4-47] 과거 경험의 부정적 영향 수준

(1) 본인의 건강, 장애 등의 어려움으로 활동 제약 경험

본인의 건강이나 장애 등의 어려움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은 '있다'는 응답이 34.1%로 비위험군의 '있다'(28.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4-71] 본인의 건강, 장애 등의 어려움으로 활동 제약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58	65.9	30	34.1	1.089
비위험군	(817)	582	71.2	235	28.8	

이러한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10점 만점으로 질문한 결과, 위험군은 7.1점, 비위험군은 6.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위험군이 더 심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였다.

[표4-72] 본인의 건강, 장애 등의 어려움으로 활동 제약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위험군	(30)	7.1	2.6	2.034*
비위험군	(235)	6.1	2.4	

* $P < .05$

(2) 외모, 체형 등 본인 외형에 자신감 잃었던 경험

외모나 체형 등 본인의 외형에 자신감을 잃었던 경험에 대해 물어 보았다. 그 결과, 위험군은 ‘있다’는 응답이 81.8%로 비위험군의 ‘있다’(54.2%)에 비하여 유의한 수준으로 많았다.

[표4-73] 외모, 체형 등 본인 외형에 자신감 잃었던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16	18.2	72	81.8	24.669***
비위험군	(817)	374	45.8	443	54.2	

*** $P < .001$

이러한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10점 만점으로 질문한 결과(10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큼), 위험군은 7.8점, 비위험군은 6.7점이었다. 위험군의 점수가 유의한 수준으로 더 높았다.

[표4-74] 외모, 체형 등 본인 외형에 자신감 잃었던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위험군	(72)	7.8	1.8	4.670***
비위험군	(443)	6.7	2.2	

*** $P < .001$

(3) 부모님과 떨어져 타인 집에서 양육된 경험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사람 집에서 양육된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은 ‘있다’는 응답이 21.6%였다. 반면, 비위험군은 16.4%가 ‘있다’고 응답하여 차이가 있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4-75] 부모님과 떨어져 타인 집에서 양육된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69	78.4	19	21.6	1.523
비위험군	(817)	683	83.6	134	16.4	

이러한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한 결과, 위험군은 6.8점, 비위험군은 5.5점으로 나타나 위험군에서의 점수가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수준이었다.

[표4-76] 부모님과 떨어져 타인 집에서 양육된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위험군	(19)	6.8	2.3	2.250*
비위험군	(134)	5.5	2.4	

* $P < .05$

(4) 부모님께서 이혼, 별거 경험

부모님께서 이혼 혹은 별거를 한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은 35.2%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위험군은 20.3%가 있다고 응답하여 위험군에 비해 관련 경험이 없었던 응답자가 많았으나 이러한 결과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4-77] 부모님께서 이혼, 별거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57	64.8	31	35.2	10.369**
비위험군	(817)	651	79.7	166	20.3	

** $P < .01$

부모님의 이혼, 별거 경험이 현재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물어본 결과, 위험군에서는 8.3점, 비위험군에서는 6.7점으로 나타났다. 즉, 위험군이 해당 경험을 더욱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수준이었다.

[표4-78] 부모님께서 이혼, 별거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위험군	(31)	8.3	2.4	3.454***
비위험군	(166)	6.7	2.4	

*** $P < .001$

(5) 장애, 질환 등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었던 경험

정서·정신·신체 건강의 장애, 질환 등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었던 경험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위험군은 30.7%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비위험군은 16.2%가 '있다'고 응답하여 위험군의 경험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표4-79] 장애, 질환 등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었던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61	69.3	27	30.7	11.573***
비위험군	(817)	685	83.8	132	16.2	

***P < .001

가족을 돌보았던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미친 영향을 질문한 결과, 위험군은 7.1점, 비위험군은 6.3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에서 모두 보통 이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위험군이 더 높기는 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4-80] 정서, 정신, 신체건강 장애, 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었던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위험군	(27)	7.1	2.6	1.456
비위험군	(132)	6.3	2.7	

(6)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에서는 ‘있다’는 응답이 56.8%로 비위험군(32.4%)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수준이었다.

[표4-81]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38	43.2	50	56.8	20.813***
비위험군	(817)	552	67.6	265	32.4	

*** $P < .001$

해당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미친 부정적 영향 정도를 질문한 결과, 위험군에서는 8.5점, 비위험군에서는 7.3점으로 나타났다. 위험군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수준이었다.

[표4-82]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위험군	(50)	8.5	1.8	3.583***
비위험군	(265)	7.3	2.2	

*** $P < .001$

(7) 가까운 사람 사망 경험

가까운 사람이 사망한 경험이 있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위험군은 ‘있다’는 응답이 42.0%였고 비위험군은 36.8%였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4-83] 가까운 사람 사망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51	58.0	37	42.0	0.919
비위험군	(817)	516	63.2	301	36.8	

가까운 사람의 사망을 경험한 것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한 결과, 위험군은 3.1점, 비위험군은 6.5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4-84] 가까운 사람 사망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위험군	(37)	6.9	3.1	0.915
비위험군	(301)	6.5	2.5	

(8) 친구 및 대인관계에서 배신 등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

친구 및 대인관계에서 배신 등을 당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있다’는 응답이 위험군에서는 76.1%, 비위험군에서는 45.2%로 나타났다. 위험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표4-85] 친구 및 대인관계에서 배신 등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21	23.9	67	76.1	30.522***
비위험군	(817)	448	54.8	369	45.2	

*** $P < .001$

상기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본 결과, 위험군은 8.4점, 비위험군은 7.4점으로 위험군에서의 점수가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표4-86] 친구 및 대인관계에서 배신 등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위험군	(67)	8.4	1.8	3.734***
비위험군	(369)	7.4	2.0	

*** $P < .001$

(9) 연애 및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배신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

연애 및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배신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 물어 보았다. 위험군은 29.5%, 비위험군은 20%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위험군에서 경험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표4-87] 연애 및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배신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62	70.5	26	29.5	4.426*
비위험군	(817)	654	80.0	163	20.0	

* $P < .05$

이러한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미친 부정적 영향 정도를 확인해보면 위험군은 8.6점, 비위험군은 7.5점으로 나타났다. 위험군이 더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유의한 수준이었다.

[표4-88] 연애 및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배신을 당하는 등 어려웠던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위험군	(26)	8.6	1.2	3.845***
비위험군	(163)	7.5	2.1	

*** $P < .001$

(10) 과도한 체벌, 정서적 공격 등 학대당한 경험

과도한 체벌, 정서적 공격 등 학대당한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위험군에서는 ‘있다’는 응답이 50.0%이었으며, 비위험군에서는 22.5%가 ‘있다’고 응답하여 위험군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표4-89] 과도한 체벌, 정서적 공격 등 학대당한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44	50.0	44	50.0	31.829***
비위험군	(817)	633	77.5	184	22.5	

*** $P < .001$

과도한 체벌, 정서적 공격 등 학대의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위험군에서는 8.5점, 비위험군에서는 7.7점으로 나타났다. 위험군의 부정적 영향이 비위험군에 비하여 더 컸는데 이는 유의한 수준의 차이였다.

[표4-90] 과도한 체벌, 정서적 공격 등 학대당한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위험군	(44)	8.5	1.7	2.400*
비위험군	(184)	7.7	2.0	

* $P < .05$

(11) 타인에게 괴롭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타인에게 괴롭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있다'는 응답은 위험군이 62.5%, 비위험군이 32.9%였다. 위험군이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표4-91] 타인에게 괴롭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33	37.5	55	62.5	30.232***
비위험군	(817)	548	67.1	269	32.9	

*** $P < .001$

타인에게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의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 정도를 질문한 결과, 위험군은 8.6점, 비위험군은 7.8점이었다. 위험군에서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두 집단의 점수 차이는 유의한 수준이었다.

[표4-92] 타인에게 괴롭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위험군	(55)	8.6	1.7	2.686**
비위험군	(269)	7.8	2.0	

** $P < .01$

(12) 직장에서 상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직장에서 상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을 질문하였다. 위험군의 경우 44.3%, 비위험군의 경우 25.0%가 ‘있다’고 응답하여 위험군에서 경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표4-93] 직장에서 상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49	55.7	39	44.3	15.142***
비위험군	(817)	613	75.0	204	25.0	

*** $P < .001$

직장에서 상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한 결과, 위험군은 8.1점, 비위험군은 7.5점으로 확인되었다. 위험군에서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표4-94] 직장에서 상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위험군	(39)	8.1	1.6	2.064*
비위험군	(204)	7.5	2.1	

* $P < .05$

(13) 범죄(스토킹,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 경험

범죄(스토킹,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있다’는 응답이 위험군에서는 18.2%였고 비위험군에서는 12.7%였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4-95] 범죄(스토킹,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72	81.8	16	18.2	2.053
비위험군	(817)	713	87.3	104	12.7	

범죄 노출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부정적 영향 정도를 미쳤는지 질문한 결과, 위험군은 6.4점, 비위험군은 7.2점으로 나타났다. 위험군에 비하여 비위험군의 점수가 더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4-96] 범죄(스토킹,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위험군	(16)	6.4	2.6	-1.309
비위험군	(104)	7.2	2.2	

(14)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 취업을 못했던 경험

원했던 시기에 대학 입학, 취업을 못했던 경험에 대해 물었다. 위험군의 경우 56.8%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비위험군은 34.9%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위험군에서 관련 경험을 한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표4-97]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 취업을 못했던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38	43.2	50	56.8	16.394***
비위험군	(817)	532	65.1	285	34.9	

*** $P < .001$

상기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한 결과, 위험군은 7.9점, 비위험군은 7.4점이었다. 위험군에서 비위험군 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4-98] 내가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 취업을 못했던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위험군	(50)	7.9	2.3	1.594
비위험군	(285)	7.4	2.1	

(15)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 진로 변경 강요받은 경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 진로 변경 강요받은 경험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위험군에서는 40.9%였으며 비위험군에서는 21.2%였다. 위험군의 경험율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표4-99]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 진로 변경 강요받은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52	59.1	36	40.9	17.419***
비위험군	(817)	644	78.8	173	21.2	

*** $P < .001$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 진로 변경 등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위험군은 8.0점, 비위험군은 7.0점으로 나타나 위험군에서의 점수가 유의한 수준으로 더 높았다.

[표4-100]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 진로 변경 강요받은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위험군	(36)	8.0	2.0	2.319*
비위험군	(173)	7.0	2.2	

* $P < .05$

(16) 전학, 이사 등 이동을 자주 한 경험

전학, 이사 등 이동을 자주 한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은 27.3%가 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위험군은 21.4%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표4-101] 전학, 이사 등 이동을 자주 한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64	72.7	24	27.3	1.586
비위험군	(817)	642	78.6	175	21.4	

전학, 이사 등 이동을 자주 한 경험이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한 결과 위험군은 7.0점, 비위험군은 5.9점이었다. 위험군이 비위험군에 비하여 높은 점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특히, 비위험군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지만 위험군에서는 '보통'과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큼'의 중간 정도로 나타나 위험군에서 전학, 이사 등의 잦은 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4-102] 전학, 이사 등 이동을 자주 한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위험군	(24)	7.0	2.6	1.994*
비위험군	(175)	5.9	2.5	

* $P < .05$

(17) 나, 지인이 전염성질환으로 사회생활 제약 경험

응답자나 또는 가까운 지인이 전염성질환(코로나19)으로 인해 사회생활 제약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위험군과 비위험군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위험군의 경우 45.5%였으며, 비위험군에서는 40.6%로 나타났다.

[표4-103] 나, 가까운 지인이 전염성질환(코로나19)으로 인해 사회생활 제약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없다		있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48	54.5	40	45.5	0.762
비위험군	(817)	485	59.4	332	40.6	

상기 경험으로 인한 외로움 및 고립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질문한 결과, 위험군은 5.7 점, 비위험군은 4.9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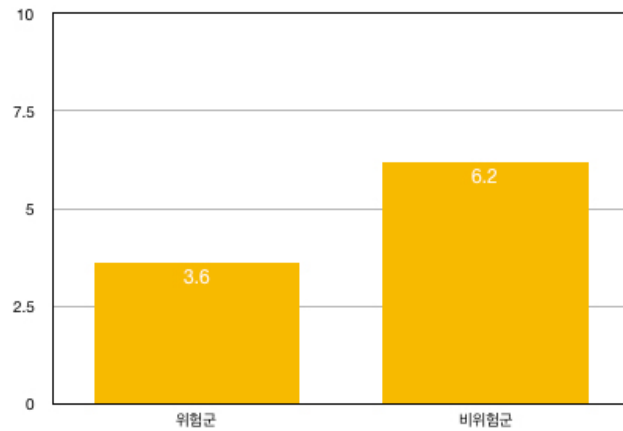
[표4-104] 나, 가까운 지인이 전염성질환(코로나19)으로 인해 사회생활 제약 경험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위험군	(40)	5.7	3.3	1.729
비위험군	(332)	4.9	2.8	

8) 행복감

응답자에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했을 때 요즘의 행복감은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위험군은 3.6점으로 보통 이하의 수준이었으며, 비위험군은 6.2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4-48] 행복감

[표4-105] 행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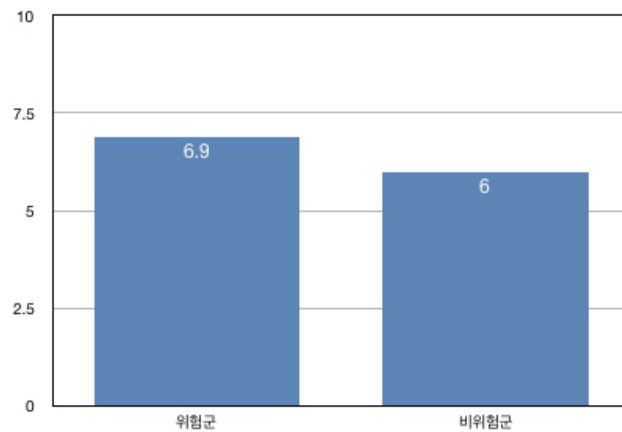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위험군	(88)	3.6	2.6	-9.159***
비위험군	(817)	6.2	2.0	

*** $P < .001$

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응답자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에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하여 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0점 만점에 10점에 가까울수록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이 과거에 비해 더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험군은 6.9점, 비위험군은 6.0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위험군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립과 외로움이 더 심각해졌다고 느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4-49] 코로나19발생 전후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변화 정도

[표4-106] 코로나19발생 전후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변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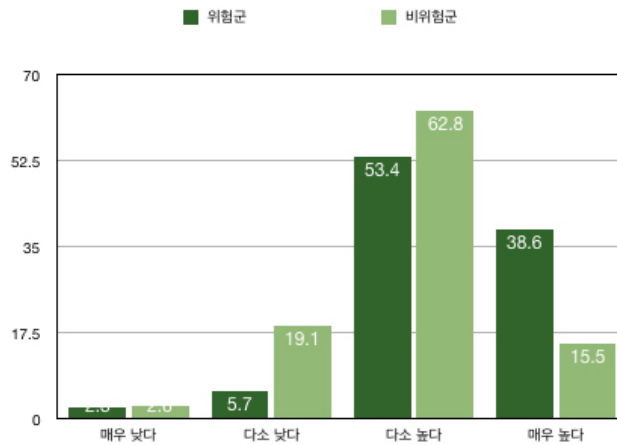
단위 : 명, 점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위험군	(88)	6.9	1.7	4.342***
비위험군	(817)	6.0	1.7	

*** $P < .001$

4.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한 인식도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험군에서는 ‘다소 높다’(53.4%), ‘매우 높다’(38.6%), ‘다소 낮다’(5.7%), ‘매우 낮다’(2.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위험군에서는 ‘다소 높다’가 6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다소 낮다’(19.1%), ‘매우 높다’(15.5%), ‘매우 낮다’(2.6%)가 따르고 있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높다’(‘다소 높다’+‘매우 높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위험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준다. 평균점수로 환산해 보았을 때는 4점 만점에서 위험군이 3.3점, 비위험군이 2.9점으로 위험군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4-50]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고립 문제 심각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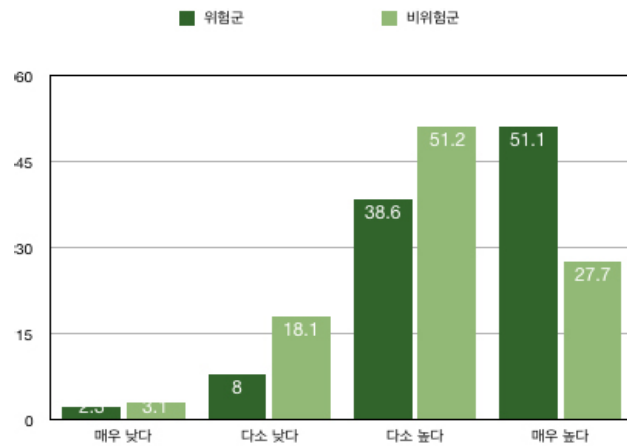
[표4-107]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고립 문제 심각 정도

단위 : 명, %, 점

구분	계	매우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매우 높다		낮다		높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2	2.3	5	5.7	47	53.4	34	38.6	7	8.0	81	92.0	3.3	0.7	4.964***
비위험군	(817)	21	2.6	156	19.1	513	62.8	127	15.5	177	21.7	640	78.3	2.9	0.7	

*** $P < .001$

우리 사회의 고독사 문제 심각정도에 대해서는 위험군의 경우 ‘매우 높다’가 51.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소 높다’가 38.6%로 뒤를 이었다. 이로써 ‘높다’는 응답은 전체의 89.8%로 나타났다. 비위험군은 ‘다소 높다’가 51.2%로 가장 많아 위험군과 차이가 있었으며 그 뒤를 ‘매우 높다’가 27.7%, ‘다소 낮다’ 18.1%, ‘매우 낮다’ 3.1%의 순이었다. 비위험군도 위험군과 같이 ‘높다’(‘다소 높다’+‘매우 높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전체의 78.8%로 많았다. 평균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에 위험군은 3.4점, 비위험군은 3.0점으로 위험군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고독사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4-51] 우리 사회의 고독사 문제 심각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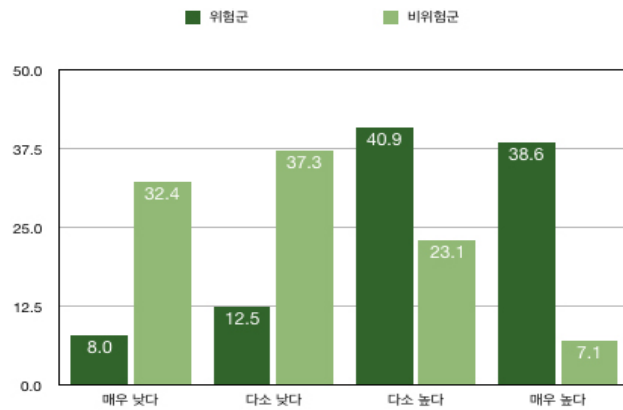
[표4-108] 우리 사회의 고독사 문제 심각 정도

단위 : 명, %, 점

구분	계	매우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매우 높다		낮다		높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2	2.3	7	8.0	34	38.6	45	51.1	9	10.2	79	89.8	3.4	0.7	4.136***
비위험군	(817)	25	3.1	148	18.1	418	51.2	226	27.7	173	21.2	644	78.8	3.0	0.8	

*** $P < .001$

마지막으로 본인에게도 고독사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위험군에서는 ‘다소 높다’가 40.9%, ‘매우 높다’가 38.6%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비위험군에서는 ‘다소 낮다’가 32.4%, ‘매우 낮다’가 32.4%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낮다’(‘매우 낮다’+‘다소 낮다’)는 비위험군, ‘높다’(‘다소 높다’+‘매우 높다’)는 위험군에서 각각 많았으며 평균으로도 위험군은 3.1점, 비위험군은 2.0점으로 나타나 위험군에서 본인의 고독사 위험을 더욱 높게 인식하였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4-52] 본인에게도 고독사의 위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표4-109] 본인에게도 고독사의 위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단위 : 명, %, 점

구분	계	매우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매우 높다		낮다		높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7	8.0	11	12.5	36	40.9	34	38.6	18	20.5	70	79.5	3.1	0.9	10.260 ***
비위험군	(817)	265	32.4	305	37.3	189	23.1	58	7.1	570	69.8	247	30.2	2.0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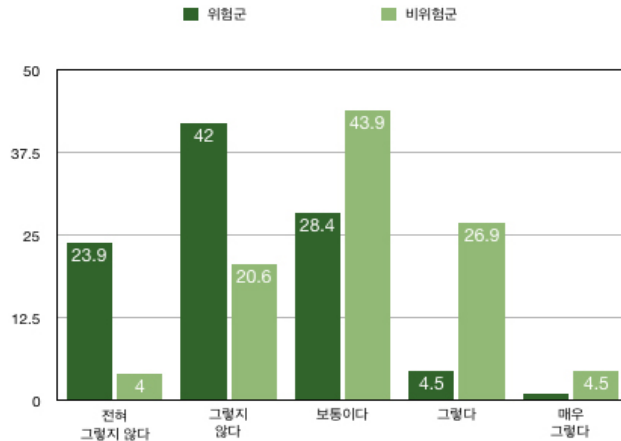
*** $P < .001$

5. 건강 특성

1) 신체적 건강

(1) 주관적 신체적 건강 수준

주관적 신체적 건강 수준을 확인한 결과, 위험군은 ‘그렇지 않다’가 42.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보통이다’(28.4%), ‘그렇지 않다’(20.6%) 등이었다. 비위험군에서는 ‘보통이다’가 43.9%, ‘그렇다’ 43.9%, ‘그렇다’ 2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 응답을 합산해보면, 비위험군은 24.6%였으나 위험군에서는 65.9%에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체적 건강 수준을 5점 만점의 평균으로 전환하였을 때에는 위험군에서는 2.2점, 비위험군에서는 3.1점으로 위험군이 비위험군에 비하여 유의한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53] 주관적 신체적 건강 수준

[표4-110] 주관적 신체적 건강 수준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21	23.9	37	42.0	25	28.4	4	4.5	1	1.1	58	65.9	5	5.7	2.2	0.9	-8.939 ***
비위험군	(817)	33	4.0	168	20.6	359	43.9	220	26.9	37	4.5	201	24.6	257	31.5	3.1	0.9	

*** $P < .001$

(2) 건강, 장애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사회활동의 제한 정도

건강,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를 질문한 결과, 위험군에서는 10점 만점에 5.0점으로 나타나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비위험군에서는 3.6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만점에 가까울수록 제한이 큼). 즉, 위험군에서 건강으로 인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제한정도가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표4-111] 건강,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사회활동에 제한 받고 있는 정도

단위 :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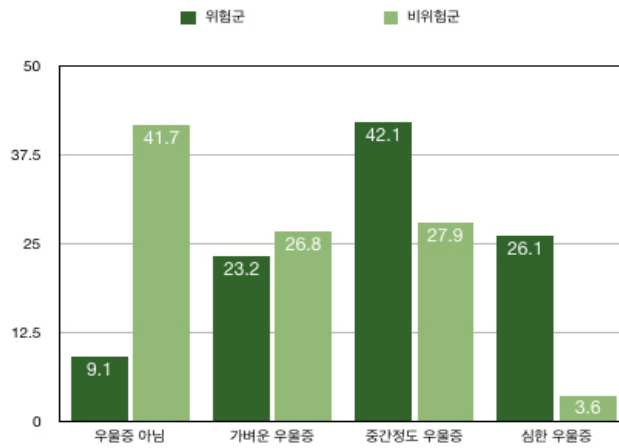
구분	계	평균	표준편차	t/F
위험군	(88)	5.0	3.0	4.239***
비위험군	(817)	3.6	2.8	

*** $P < .001$

2) 정신적 건강수준

(1) 우울수준

응답자의 우울 수준을 살펴본 결과, 위험군에서는 ‘중간정도 우울증’이 42.1%로 가장 많았으며 ‘심한 우울증’(26.1%), ‘가벼운 우울증’(23.2%), ‘우울증 아님’(9.1%)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비위험군에서는 ‘우울증 아님’이 4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간 정도 우울증’(27.9%), ‘가벼운 우울증’(26.8%), ‘심한 우울증’(3.6%)가 뒤를 따랐다. 즉, 위험군에서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향이 비위험군에 비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평균점수로 살펴보면 27점 만점에서 위험군은 13.8점, 비위험군은 7.2점으로 나타나 위험군의 우울점수가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



[그림4-54] 우울수준

[표4-112] 우울수준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우울증 아님		가벼운 우울증		중간정도 우울증		심한 우울증		$X^2 F$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8	9.1	20	23.2	37	42.1	23	26.1	98.416 ***	13.8	7.0	8.545 ***
비위험군	(817)	341	41.7	219	26.8	228	27.9	29	3.6		7.2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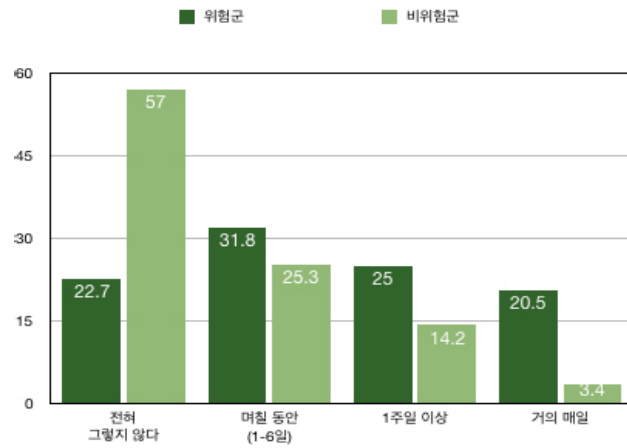
*** $P < .001$

(2) 자살에 대한 생각 및 행동

최근 1년 동안 자살에 대한 생각과 행동 등을 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여 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자살 생각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위험군과 비위험군이 차이가 있었다. 위험군의 경우 ‘며칠 동안’(31.8%), ‘1주일 이상’(25.0%), ‘전혀 그렇지 않다’(22.7%), ‘거의 매일’(20.5%)의 순이었으며, 비위험군은 ‘전혀 그렇지 않다’(57.0%), ‘며칠동안’(25.3%), ‘1주일 이상’(14.2%), ‘거의 매일’(3.4%)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비위험군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57.0%로 절반 이상이었지만 위험군에서는 22.7%에 그쳤으며, ‘거의 매일’의 비율도 20.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4-55]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

[표4-113]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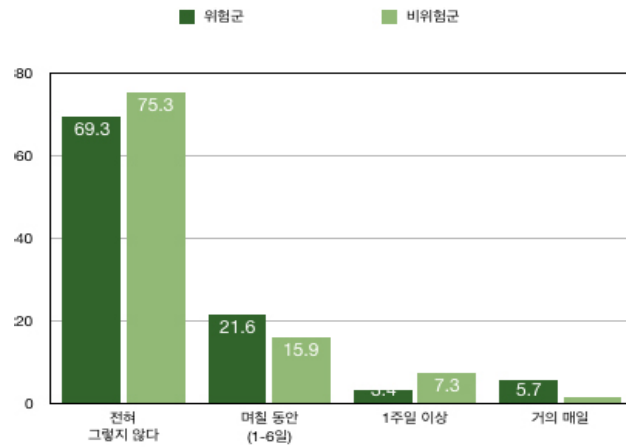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며칠 동안 (1~6일)		1주일 이상		거의 매일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20	22.7	28	31.8	22	25.0	18	20.5	70.094***
비위험군	(817)	466	57.0	207	25.3	116	14.2	28	3.4	

*** $P < .001$

② 자살계획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을 때, 위험군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69.3%, ‘며칠 동안’이 21.6%, ‘거의 매일’이 5.7%, ‘1주일 이상’이 3.4%였고 비위험군은 ‘전혀 그렇지 않다’(75.3%), ‘며칠 동안’(15.9%), ‘1주일 이상’(7.3%), ‘거의 매일’(1.5%)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가 많기는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위험군의 비율이 적은 것만큼, 위험군에서는 자살을 계획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다는 것이다.



[그림4-56] 최근 1년 동안 자살계획

[표4-114] 최근 1년 동안 자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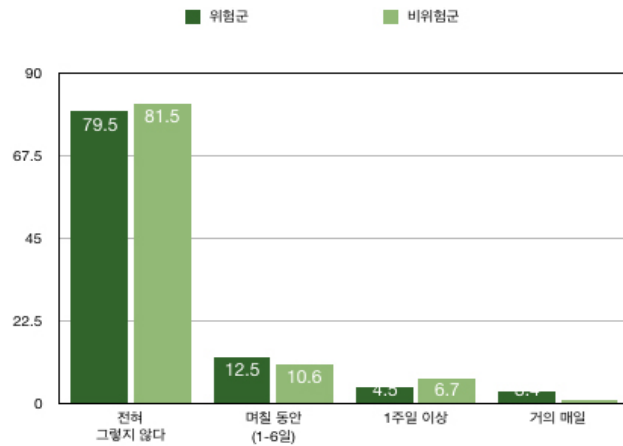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매일 동안 (1~6일)		1주일 이상		거의 매일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61	69.3	19	21.6	3	3.4	5	5.7	11.207*
비위험군	(817)	615	75.3	130	15.9	60	7.3	12	1.5	

* $P < .05$

③ 자살 시도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위험군에서 79.5%, 비위험군에서는 81.5%로 두 집단 모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위험군의 비율(79.5%)이 약간 낮기는 하였지만 비위험군(81.5%)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실제 이러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주목해볼 점은 ‘거의 매일’과 같은 가장 심각한 수준에서는 위험군의 비율이 더 높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위험군에서도 위험군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림4-57] 최근 1년 동안 자살 시도

[표4-115] 최근 1년 동안 자살 시도

단위 : 명, %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며칠 동안 (1~6일)		1주일 이상		거의 매일		$\chi^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70	79.5	11	12.5	4	4.5	3	3.4	4.062
비위험군	(817)	666	81.5	87	10.6	55	6.7	9	1.1	

3) 건강행태

운동 빈도는 위험군과 비위험군이 유의한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위험군에서는 ‘거의 하지 않음’이 47.7%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비위험군도 ‘거의 하지 않음’이 가장 많기는 하였지만 25.3%로 나타나 위험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위험군이 15.9%로 비위험군 10.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위험군은 운동 빈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경우와 거의 하지 않은 경우의 상반된 결과가 모두 우세하다는 특성이 있었다.

[표4-116] 운동 빈도

단위 : 명, %

구분	계	거의 매일		주 3회 이상		주 2회		주 1회		월 1~2회		거의 하지 않음		$\chi^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14	15.9	10	11.4	9	10.2	6	6.8	7	8.0	42	47.7	26.540***
비위험군	(817)	87	10.6	177	21.7	141	17.3	108	13.2	97	11.9	207	25.3	

*** $P < .001$

음주 빈도는 위험군은 ‘마시지 않았다’가 23.9%로 가장 많았으며 ‘한 달에 1번 미만’, ‘한 달에 2~4번’이 17.0%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 뒤를 따랐다. 비위험군에서는 ‘한달에 2~4번’이 24.0%로 가장 많았고 ‘마시지 않았다’(21.3%), ‘한 달에 1번 정도’(16.3%) 등의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위험군과 비위험군의 음주 빈도 수준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는 하였는데 다만 ‘일주일에 4번 이상’이라는 응답이 위험군에서는 12.5%로 나타나 5.6%였던 비위험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4-117] 음주 빈도

단위 : 명, %

구분	계	마시지 않았다		한 달에 1번 미만		한 달에 1번 정도		한 달에 2~4번		일주일에 2~3번 정도		일주일에 4번 이상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21	23.9	15	17.0	13	14.8	15	17.0	13	14.8	11	12.5	7.982
비위험군	(817)	174	21.3	146	17.9	133	16.3	196	24.0	122	14.9	46	5.6	

흡연 여부를 살펴보았다. 위험군과 비위험군 모두 ‘피우지 않는다’가 70% 이상으로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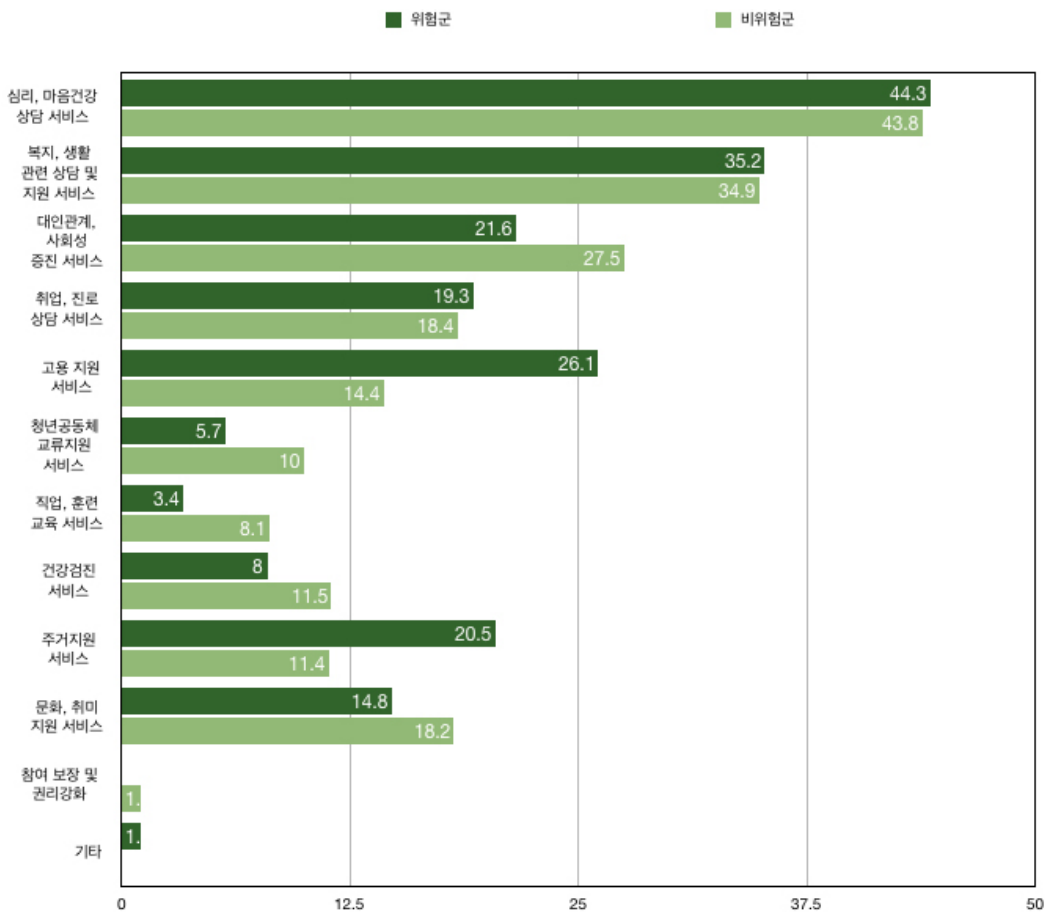
[표4-118] 흡연 여부

단위 : 명, %

구분	계	피우지 않는다		피운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68	77.3	20	22.7	0.066
비위험군	(817)	641	78.5	176	21.5	

6. 정책 수요

청년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위험군과 비위험군 모두 ‘심리,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는 ‘복지, 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로 나타났다. 3순위부터는 차이가 있어서 위험군에서는 ‘고용지원 서비스’,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등의 순이었으며, 비위험군에서는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서비스’, ‘취업, 진로 상담 서비스’, ‘문화, 취미 지원 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그림4-58] 청년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 등 해소 위해 필요한 지원 - 1+2순위 (1)

[표4-119] 청년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 등 해소 위해 필요한 지원 - 1+2순위 (1)

단위 : 명, %

구분	계	상담 서비스		복지, 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		대인관계, 사회적응 증진 서비스		취업, 진로 상담 서비스		고용 지원 서비스		청년공동체 교류지원 서비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39	44.3	31	35.2	19	21.6	17	19.3	23	26.1	5	5.7
비위험군	(817)	358	43.8	285	34.9	225	27.5	150	18.4	118	14.4	8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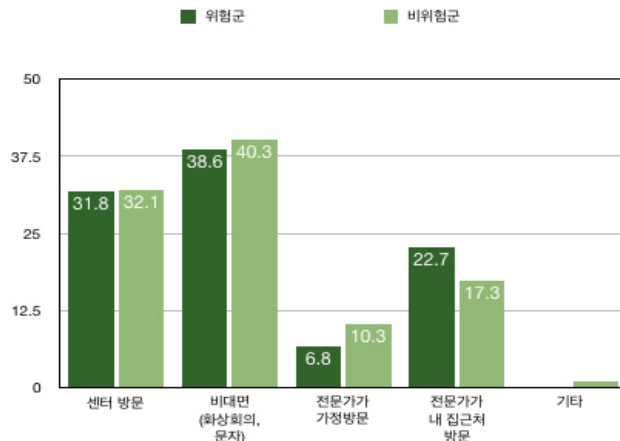
[표4-120] 청년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 등 해소 위해 필요한 지원 - 1+2순위 (2)

단위 : 명, %

구분	계	직업, 훈련 교육 서비스		건강검진 서비스		주거지원 서비스		문화, 취미 지원 서비스		참여 보장 및 권리강화		기타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3	3.4	7	8.0	18	20.5	13	14.8	0	0.0	1	1.1	23.722*
비위험군	(817)	66	8.1	94	11.5	93	11.4	149	18.2	9	1.1	3	0.4	

*P < .05

관련하여 만약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면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 지 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위험군과 비위험군 모두 '비대면', '센터 방문', '전문가가 내 집 근처 방문', '전문가가 가정방문' 등의 순으로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4-59]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이용하기 위해 전문가 만나야 한다면 선호 방법

[표4-121]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이용하기 위해 전문가 만나야 한다면 선호 방법

단위 : 명, %

구분	계	센터 방문		비대면 (화상회의, 문자)		전문가가 가정방문		전문가가 내 집 근처 방문		기타		X ²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28	31.8	34	38.6	6	6.8	20	22.7	0	0.0	2.456
비위험군	(817)	262	32.1	329	40.3	84	10.3	141	17.3	1	0.1	

7. 정주특성

고향이 대전인지 혹은 본가가 대전인지 여부를 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위험군과 비위험군 모두 대전이 고향이나 본가가 대전인 경우가 많았는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4-122] 고향이 대전 또는 본가 대전 여부

단위 : 명, %

구분	계	예		아니오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59	67.0	29	33.0	0.086
비위험군	(817)	535	65.5	282	34.5	

대전의 총 거주기간을 확인한 결과, 위험군과 비위험군 모두 '25년 이상'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년 이상 25년 미만'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거주기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두 집단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4-123] 대전 총 거주기간 (1)

단위 : 명, %

구분	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7	8.0	4	4.5	5	5.7	8	9.1	10	11.4
비위험군	(817)	28	3.4	39	4.8	64	7.8	73	8.9	96	11.8

[표4-124] 대전 총 거주기간 (2)

단위 : 명, %

구분	계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7	8.0	9	10.2	10	11.4	28	31.8	6.369
비위험군	(817)	87	10.6	65	8.0	118	14.4	247	30.2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위험군과 비위험군 모두 ‘어느 정도 그렇다’가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위험군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25.2%였던 반면 위험군에서는 8.0%로 차이가 있었다. 응답 중 긍정적 응답(‘어느 정도 그렇다’+‘매우 그렇다’)을 합산해보면 위험군에서는 52.3%, 비위험군에서는 67.9%로 나타나 비위험군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5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해보면, 위험군은 3.4점, 비위험군은 3.9점으로 비위험군의 거주 만족도가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

[표4-125] 대전광역시 거주 만족도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7	8.0	7	8.0	28	31.8	39	44.3	7	8.0	3.4	1.0	-4.73***
비위험군	(817)	14	1.7	37	4.5	211	25.8	349	42.7	206	25.2	3.9	0.9	

*** $P < .001$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거주 희망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위험군은 ‘어느 정도 그렇다’(35.2%), ‘보통이다’(13.6%), ‘그렇지 않은 편이다’(14.8%), ‘매우 그렇다’(13.6%) 등의 순이었다. 비위험군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다’(40.4%)가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하였지만 그 뒤로 ‘매우 그렇다’(28.6%), ‘보통이다’(22.8%) 등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어느 정도 그렇다’+‘매우 그렇다’)만을 합산해보면 위험군은 48.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 반면 비위험군에서는 69.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로 환산했을 때에도 위험군은 3.3점, 비위험군은 3.9점으로 비위험군에서 거주 희망정도가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표4-126] 대전광역시 거주 희망정도

단위 :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험군	(88)	7	8.0	13	14.8	25	28.4	31	35.2	12	13.6	3.3	1.1	-4.475***
비위험군	(817)	14	1.7	53	6.5	186	22.8	330	40.4	234	28.6	3.9	1.0	

*** $P < .001$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앞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외로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군과 그렇지 않았던 비위험군을 구분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도 위험군으로 분류한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여 어떤 모습의 청년들이 고립위험이 높은 청년인지를 알아 이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위험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본 장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위험군과 비위험군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청년의 보편적인 특성이 두 집단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위험군이 갖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위험군과 비위험군 모두 상근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비중이 높았다는 것은 위험군이라하여 현재 완전한 고립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구직과 이직의 비율이 높았던 것은 현재에 불만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차이가 났던 부분은 위험군이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았다는 점이며 스스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로 평가한다는 점이었다. 즉, 위험군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지만 주관적, 객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건강과 관련된 지표에서 위험군의 수준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주관적인 신체적 수준을 비롯하여 우울과 같은 정신적 건강 수준도 비위험군에 비해 낮았고 자살에 대한 생각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위험군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현재 마련되어 있는 관련 정책들이 과연 위험군 청년에게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이들이 실제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의 장벽은 어떠한지 등을 심도있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역으로 건강수준이 낮은 청년이 위험수준이 높다고 볼 수도 있는 만큼 이들을 찾아 적절한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중요하다.

셋째, 위험군의 경우 평소의 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더 오랫동안 이러한 외출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교류하지 않은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장기간 고립위험의 수준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외출 정도가 낮아진 계기는 위험군과 비위험군의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 모두에서 ‘취업의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주요 이유로 나와 이러한 부분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위험군의 경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위험군이 그만큼 관련 자원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위험군의 부족한 자원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위험군과

비위험군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망의 유형은 대부분 개인적 자원망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 친구 등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청년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사적 관계망 안에서 해결이 되며 공적 자원의 활용은 그만큼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섯째, 위험군이 가족, 친인척, 친구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대면, 비대면 교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위험군이 타인과의 교류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한편, 대면 교류만이 아니라 비대면 교류에서도 위험군이 교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면과 비대면의 교류 양상이 비교적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에서는 위험군이 비위험군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특이점이 보이기도 하였다. 즉,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대개 직접 만나서 관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남을 갖게 된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비대면 교류가 위험군 청년에게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교류 방법이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이는 소속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위험군은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비위험군에 비해 집단별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소속감에서는 위험군이 갖는 소속감이 더 컸다. 이는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개발할 때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여섯째, 위험군을 외로움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한 만큼 전반적인 외로움 영역에서 위험군이 느끼는 외로움의 정도가 비위험군에 비해서 높았다. 외로움이 갖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외로움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외로움 수준이 높더라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외로움의 수준과 외로움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군의 경우 ‘혼자 참는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러한 방법이 실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전문가나 친구 등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활동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낮은 편으로 나타나 적절히 외로움에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를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경제적 부담’, ‘낙인’, ‘대화를 나누는 것의 어려움’ 등에서 비위험군 보다 높은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다. 즉, 이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위험군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위험군의 37.9%는 자신의 외로움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 있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일곱째, 위험군의 경우 비위험군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험을 더욱 많이 경험하였고 그 영향력 또한 더욱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험군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본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더욱 심해졌다고 느꼈다는 점도 주목이 필요하다. 이는 동일한 경험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 만큼 위험군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위험군의 경우 부정적인 경험의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부정적인 생애경험을 낮추고 그것이 외로움 등의 정신건강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위험군의 경우 비위험군에 비하여 우리 사회의 고독사와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그리고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을 더욱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청년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데에 더 큰 위험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개인의 불안을 높이고 그 자체가 위험군의 상황을 더욱 악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군의 청년이 스스로에 대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험군과 비위험군의 정책 수요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그만큼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적 수요가 다각적이면서도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비록 두 집단 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이나 서비스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위험군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에 대한 고민은 더욱 개별화되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

코로나19와 청년의 삶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코로나19와 청년 삶의 주요 지표 변화

제3절 소결



제5장 코로나19와 청년의 삶

제1절 조사개요

본 장에서는 2019년과 2021년에 조사된 대전시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이전(2019)과 이후(2021)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다만 연도별 비교에 있어서 2019년에는 20대가 2021년에는 30대가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일부 감안하여 분석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 2021년에만 조사한 문항 역시 포함하였으며, 일상생활의 변화 인식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예측이라는 큰 두 개의 틀에 마스크착용, 배달배송으로 인한 소비활동의 증가, 재택근무, 온라인학습, 직장회식 및 친목모임 감소 등의 항목을 다루었다.

본 장에서는 2030 청년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2019년 조사 자료의 경우 나이를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조사된바, 분석 연령을 만20세~39세로 하였기 때문이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대전시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만18세~39세)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제2절 코로나19와 청년 삶의 주요 지표 변화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전시 2030청년세대(만20세~39세)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2019년과 2021년 모두 여성이 50%를 살짝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2019년에는 20~29세가 53.6%, 30~39세가 46.4%였으나, 2021년에는 30~39세가 54.9%, 20~29세가 45.1%로 차이를 보였다. 거주지역으로는 2019년에는 유성구 거주자가 29.7%로 가장 많았고 2021년에는 서구가 28.7%로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2019년과 2021년 모두 대학교(4년제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5%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대학교(4년제 미만)으로 27%~31%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2030 청년세대 응답자가 거주하는 주택형태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택은 아파트로 2019년과 2021년 모두 55%정도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연립주택, 단

독주택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점유형태로는 2019년의 경우 자가가 60.1%, 전세가 22.4%, 보증부 월세가 15.8%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의 경우 자가가 43.4%로 그 비중이 낮아졌고, 전세가 34.8%로 높아졌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 역시 20.6%로 2019년에 비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거주기간은 2019년에는 평균 21년(SD = 10.38)이었으며, 2021년에는 20년(SD = 10.23)으로 기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 형태에서 자가 비중이 줄고 보증부 월세의 비중이 증가한 것과 연결해 볼 때, 2021년에 외부에서 유입된 인력이 더 많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5-1]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점

구분		계		2019		2021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124	100	2,703	100	3,421	100
성별	남성	2,938	48.0	1,320	48.38	1,618	47.3
	여성	3,186	52.0	1,383	51.2	1,803	52.7
연령대	20~29세	2,992	48.9	1,448	53.6	1,544	45.1
	30~39세	3,132	51.1	1,255	46.4	1,877	54.9
거주 지역	동구	1,045	17.1	467	17.3	578	16.9
	중구	1,118	18.3	532	19.7	586	17.1
	서구	1,594	26.0	613	22.7	981	28.7
	유성구	1,636	26.7	803	29.7	833	24.4
	대덕구	731	11.9	288	10.7	443	13.0
최종 학력	초등학교	2	0.0	1	0.0	1	0.0
	중학교	13	0.2	9	0.3	4	0.1
	고등학교	637	10.4	317	11.7	320	9.4
	대학(교)(4년제 미만)	1,795	29.3	750	27.8	1,045	30.6
	대학교(4년제 이상)	3,558	58.1	1,565	57.9	1,993	58.3
	대학원 석사과정	112	1.8	58	2.2	54	1.6
	대학원 박사과정	7	0.1	3	0.1	4	0.1
주택 형태	단독주택	771	12.6	451	16.7	320	9.4
	아파트	3,433	56.1	1,505	55.7	1,928	56.4
	연립주택/다세대주택	1,782	29.1	677	25.1	1,105	32.3
	기타(오피스텔 등)	138	2.3	70	2.6	68	2.0
점유 형태	자기집	3,107	50.7	1,624	60.1	1,483	43.4
	전세	1,797	29.3	604	22.4	1,193	34.8
	보증금 있는 월세	1,134	18.5	428	15.8	706	20.6
	보증금 없는 월세	20	0.3	18	0.7	2	0.1
	무상 및 기타	66	1.1	29	1.1	37	1.1
		빈도		평균		표준편차	
대전거주기간	2019	2,703		21.1		10.4	
	2022	3,421		20.4		10.2	
						t	
						2.6647**	

**P < .01

2.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영역의 변화 인식

1) 일상생활의 변화 인식

(1) 마스크 착용

2021년에 조사된 대전시 사회조사의 청년응답자 중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일상변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7.0%로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착용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48.7%로 가장 높았으며,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41.4%로 그 뒤를 이었다. 변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9.9%로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5-2] 마스크착용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3,421	100
마스크착용의 인식	긍정적	2,976	87.0
	부정적	445	13.0
마스크착용의 지속가능성	코로나 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1,415	41.4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1,666	48.7
	변화가 가속될 것이다	340	9.9

(2) 배달 배송으로 인한 소비활동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변화 중 배달과 배송으로 인한 소비활동의 증가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67.2%로 부정적이라는 의견 32.8%에 비해 2배 이상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2.0%로 과반수이었으며, 변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0%로 그 뒤를 이었다.

[표5-3] 배달배송으로 인한 소비활동 증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3,421	100
배달배송 소비활동 증가 인식	긍정적	2,299	67.2
	부정적	1,122	32.8
배달배송 소비활동 증가 지속가능성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647	19.0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1,764	52.0
	변화가 가속될 것이다	1,010	29.0

2) 사회활동 양상 변화

(1) 재택근무

코로나19로 인한 일상변화 중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73.8%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26.2%로 나타났다. 향후 재택근무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이전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7.1%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0.6%로 그 뒤를 이었다. 변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2.3%로 나타났다.

[표5-4] 재택근무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3,421	100
재택근무 인식	긍정적	2,526	73.8
	부정적	895	26.2
재택근무 지속가능성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1,610	47.1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1,390	40.6
	변화가 가속될 것이다	421	12.3

(2) 온라인학습

온라인 학습의 증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른 영역에 비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높았으며 44.1%로 나타났다. 향후 온라인 학습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40.8%로 나타났다.

[표5-5] 온라인 학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3,421	100
온라인 학습 인식	긍정적	1,913	55.9
	부정적	1,508	44.1
온라인 학습 지속가능성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1,608	47.0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1,394	40.8
	변화가 가속될 것이다	419	12.3

(3) 직장 회식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 중 직장 회식 감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인식이 64.0%,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36.0%로 나타났다. 회식 감소에 대해서는 향후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2%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38.8%로 그 뒤를 이었다.

[표5-6] 직장 회식 감소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3,421	100
직장회식 감소 인식	긍정적	2,191	64.0
	부정적	1,230	36.0
직장회식 감소 지속가능성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1,545	45.2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1,327	38.8
	변화가 가속될 것이다	549	16.0

(4) 친목 모임 감소

코로나19 유행 이후 친목 모임이 감소된 것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비율이 57.3%로 긍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친목 모임 감소 변화는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48.6%로 나타났고,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36.5%로 그 뒤를 이었다.

[표5-7] 친목모임 감소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3,421	100
친목모임 감소 인식	긍정적	1,960	57.3
	부정적	1,461	42.7
친목모임 감소 지속가능성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1,663	48.6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1,248	36.5
	변화가 가속될 것이다	510	14.9

(5) 집에서 하는 여가와 취미

집에서 하는 여가와 취미활동이 증가했다는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1.4%,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8.6%로 나타났다. 재택에서의 여가취미 증가경향이 향후 지속가능할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45.1%로 가장 높았으며,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응답이 34.6%로 그 뒤를 이었다. 변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20.4%로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8] 재택여가 취미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3,421	100
재택 여가취미 인식	긍정적	2,102	61.4
	부정적	1,319	38.6
재택 여가취미 지속가능성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1,183	34.6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1,541	45.1
	변화가 가속될 것이다	697	20.4

3. 코로나19 전후 삶의 변화(2019년, 2021년 비교)

1) 가족 관계

(1)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에 대한 생각을 코로나19 전후로 t-test 분석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 둘 간의 차이는 유효했다. 2021년에는 2019년에 비해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하는 것이 좋다’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의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나뉘었음을 볼 수 있다.

[표5-9] 결혼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

구분	계		2019		2021		t/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124	100	2,703	100	3,421	100	53.9967***
반드시 해야 한다	384	6.3	139	5.1	245	7.2	
하는 것이 좋다	2,436	39.8	1,105	40.8	1,331	38.9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2,629	42.9	1,218	45.1	1,411	41.3	
하지 않는 것이 좋다	411	6.7	121	4.5	290	8.5	
하지 말아야 한다	80	1.3	32	1.2	48	1.4	
잘 모르겠다	184	3.0	88	3.3	96	2.8	

*** $P < .001$

(2) 가족 간 소통

가족 간 소통에 대해 1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 5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 응답한 것을 역코딩하여 살펴본 결과, 5점 만점에 2019년에는 4.12(SD = 0.66), 2021년에는 4.25(SD = 0.77)로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가족 간 소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 = -6.3963$, $p < .001$)

[표5-10] 가족 간 소통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2019	2,703	4.1	0.6	-6.3963***
2021	3,421	4.2	0.7	

*** $P < .001$

(3) 배우자 관계 만족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관계에 대해 만족하냐는 질문에 1 ‘매우 만족’ ~ 5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것을 역코딩하여 살펴본 결과, 5점 만점에 2019년에는 4.2(SD = 0.72), 2021년에는 4.2(SD = 0.65)로 나타났으며, 시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5-11] 배우자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2019	861	4.2	0.7	-0.4506
2021	1,261	4.2	0.6	

(4) 자녀관계 만족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 대해 1 ‘매우 만족’ ~ 5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것을 역코딩하여 살펴본 결과, 5점 만점에 2019년에는 4.3(SD = 0.71), 2021년에는 4.2(SD = 0.73)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5-12] 자녀관계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2019	675	4.3	0.7	1.5736
2021	821	4.2	0.7	

(5) 자기부모 관계만족도

자기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에 대해 1 ‘매우 만족’ ~ 5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것을 역코딩하여 살펴본 결과, 5점 만점에 2019년에는 4.08(SD = 0.75), 2021년에는 3.88(SD = 0.77)로 코로나19 이후에 자기 부모와의 관계 만족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 = 9.9776$, $p < .001$).

[표5-13] 자녀부모 관계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2019	2,677	4.0	0.7	9.9776***
2021	3,389	3.8	0.7	

*** $P < .001$

(6) 배우자 부모 관계만족도

배우자 부모가 있는 경우 그들과의 관계 만족도에 대해 1 ‘매우 만족’ ~ 5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것을 역코딩하여 살펴본 결과, 5점 만점에 2019년에는 3.75(SD = 0.84), 2021년에는 3.43(SD = 0.80)으로 코로나 이후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t = 8.6633$, $p < .001$).

[표5-14] 배우자 부모 관계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2019	849	3.7	0.8	8.6633***
2021	1,240	3.4	0.7	

*** $P < .001$

(7) 형제자매 관계 만족도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에 대해 1 ‘매우 만족’ ~ 5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것을 역코딩하여 살펴본 결과, 5점 만점에 2019년에는 3.9(SD = 0.75), 2021년에는 3.6(SD = 0.77)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 = 14.1362, p < .001$).

[표5-15] 형제자매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2019	2,386	3.9	0.7	14.1362***
2021	2,970	3.6	0.7	

*** $P < .001$

(8) 배우자 형제자매 관계 만족도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에 대해 1 ‘매우 만족’ ~ 5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것을 역코딩하여 살펴본 결과, 5점 만점에 3.66(SD = 0.83), 2021년에는 3.33(SD = 0.73)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 = 9.5794, p < .001$).

[표5-16] 배우자 형제자매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2019	842	3.6	0.8	9.5794***
2021	1,237	3.3	0.7	

*** $P < .001$

(9) 전반적인 가족 관계 만족도

전반적으로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만족도에 대해 1 ‘매우 만족’ ~ 5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것을 역코딩하여 살펴본 결과, 5점 만점에 4.01(SD = 0.73), 2021년에는 3.73(SD = 0.73)으로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가족관계에서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17]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2019	2,703	4.0	0.7	14.8208***
2021	3,421	3.7	0.7	

*** $P < .001$

2) 사회적 관계와 지지

(1) 직장 구성원 간 소통

직장 구성원 간의 소통에 대해 1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 5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 응답한 것을 역코딩하여 살펴본 결과, 5점 만점에 2019년에는 4.43(SD = 0.74), 2021년에는 4.24(SD = 0.75)로 코로나19 이후 소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t = 6.4016, p < .001$).

[표5-18] 직장 구성원 간 소통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2019	1,851	4.4	0.7	6.4016***
2021	2,611	4.2	0.7	

*** $p < .001$

(2) 이웃 간 소통

이웃 간 소통에 대해 1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 5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 응답한 것을 역코딩하여 살펴본 결과, 5점 만점에 2019년에는 2.6(SD = 0.97), 2021년에는 2.8(SD = 0.90)으로 코로나 이후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 = -1.9270, p < .05$).

[표5-19] 이웃 간 소통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2019	2,703	2.6	0.9	-1.9270*
2021	3,421	2.8	0.9	

* $p < .05$

(3) 세대 간 소통

세대 간 소통에 대해 1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 5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 응답한 것을 역코딩하여 살펴본 결과, 5점 만점에 2019년에는 2.9(SD = 0.90), 2021년에는 2.8(SD = 0.86)로 코로나 이후 세대 간 소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t = 2.1802, p < .05$).

[표5-20] 세대 간 소통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2019	2,703	2.9	0.8	2.1802*
2021	3,421	2.8	0.8	

* $p < .05$

(4) 집안일 부탁 도움

몸이 아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비교해본 결과 2019년에는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7.1%였으나, 2021년에는 80.9%로 감소하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 = 41.7946$, $p < .001$).

[표5-21] 집안일 부탁도움

단위 : 명, %

구분	계		2019		2021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다	4,905	83.8	2,355	87.1	2,550	80.9	41.7946***
없다	951	16.2	348	12.9	603	19.1	

*** $p < .001$

(5) 많은 돈 빌릴 때 도움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2019년에는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6.4%, 2021년에는 76.1%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5-22] 많은 돈 빌릴 때 도움

단위 : 명, %

구분	계		2019		2021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다	4,465	76.3	2,065	76.4	2,400	76.1	0.0624
없다	1,391	23.7	638	23.6	753	23.9	

(6) 우울할 때 도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2019년에는 92.7%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21년에는 99.0%가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여 2021년에 조금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 = 155.7800$, $p < .001$).

[표5-23] 우울할 때 도움

단위 : 명, %

구분	계		2019		2021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다	5,627	96.1	2,505	92.7	3,122	99.0	155.7800***
없다	229	3.9	198	7.3	31	1.0	

*** $p < .001$

3) 일자리와 경제

(1) 소득과 소비

① 소득 수준 만족도

소득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소득 수준 만족도에 대해 1 ‘매우 만족’ ~ 5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것을 역코딩하여 살펴보았다. 5점 만점에 2019년에는 3.15(SD = 0.67)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2.91(SD = 0.77)로 소득 수준에서의 만족도가 보통 이하로 떨어졌다.

[표5-24] 소득수준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2019	1,788	3.1	0.6	11.0758***
2021	2,775	2.9	0.7	

*** $P < .001$

② 소비생활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에 대해 1 ‘매우 만족’ ~ 5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것을 역코딩하여 살펴본 결과, 2019년에는 5점 만점에 3.2(SD = 0.63), 2021년에는 3.1(SD = 0.69)으로 나타났다으며 코로나19 이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 = 5.3674$, $p < .001$)

[표5-25] 소비생활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2019	2,703	3.2	0.6	5.3674***
2021	3,421	3.1	0.6	

*** $P < .001$

③ 임금 또는 소득 만족도

임금 또는 소득 만족도를 1 ‘매우 만족’ ~ 5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하게 하여 역코딩하여 살펴본 결과, 2019년에는 5점 만점에 3.3(SD = 0.76)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에는 2.9(SD = 0.83)으로 보통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t = 18.6395$, $p < .001$).

[표5-26] 임금 또는 소득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2019	1,771	3.3	0.7	18.6395***
2021	2,602	2.9	0.8	

*** $P < .001$

(2) 취업자의 경제활동

① 현재 경제활동 상태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본 결과 2019년의 경우 현재 일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5.6%였으며, 지금은 일하지 않지만 이전에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9.1%, 평생 일하지 않은 경우가 15.3%로 나타났다.

[표5-27] 2019년 경제활동 상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2,703	100
현재 일한다	1,773	65.6
일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516	19.1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414	15.3

2021년의 경우, 최근 1주일 이내에 일한 경우가 76.1%로 나타났으며, 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3.9%로 나타났다.

[표5-28] 2021년 경제활동 상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3,421	100
최근1주일 내 일하였다	2,602	76.1
최근1주일 내 일하지 않았다	819	23.9

② 직장

직장을 확인한 결과, 2019년에는 ‘중소기업’ 64.1%, ‘대기업’ 10.2%, ‘자영업’ 6.8%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2021년에는 ‘중소기업’ 44.5%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자영업 9.4%, 대기업 9.2%, 벤처기업 8.1%로 나타나 2019년과 차이가 있었다($\chi^2 = 279.9964$, $p < .001$).

[표5-29] 직장

단위 : 명, %

구분	계		2019		2021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4,375	100	1,773	100	2,602	100	279.9964***
국가기관	220	5.0	105	5.9	115	4.4	
공기업(공사, 공단)	276	6.3	79	4.5	197	7.6	
대기업	420	9.6	181	10.2	239	9.2	
벤처기업	279	6.4	68	3.8	211	8.1	
외국계 기업	120	2.7	29	1.6	91	3.5	
전문직 기업(법률 회사 등)	219	5.0	40	2.3	179	6.9	
중소기업(벤처기업 제외)	2,293	52.4	1,136	64.1	1,157	44.5	
해외 취업	6	0.1	2	0.1	4	0.2	
자영업(창업 등)	365	8.3	121	6.8	244	9.4	
기타	177	4.1	12	0.7	165	6.3	

*** $P < .001$

③ 직종 및 종사상 지위

일하는 상태인 경우 직업을 살펴본 결과 2019년의 경우, 사무종사자가 52.2%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종사자 18.0%, 판매 종사자 11.7%, 기능원 7.1%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사무종사자가 41.5%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서비스 종사자가 25.3%로 높았으며, 판매종사자 10.6%로 소폭 낮았다. 그리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7.3%로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chi^2 = 96.8426$, $p < .001$).

[표5-30] 직종

단위 : 명, %

구분	계		2019		2021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4,375	100	1,773	100	2,602	100	96.8426***
관리자	50	1.1	9	0.5	41	1.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76	6.3	87	4.9	189	7.3	
사무종사자	2,005	45.8	925	52.2	1,080	41.5	
서비스 종사자	977	22.3	319	18.0	658	25.3	
판매 종사자	483	11.0	207	11.7	276	10.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	0.1	1	0.1	5	0.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72	6.2	126	7.1	146	5.6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76	4.0	64	3.6	112	4.3	
단순노무 종사자	105	2.4	24	1.4	81	3.1	
군인	22	0.5	8	0.5	14	0.5	
기타	3	0.1	3	0.2	0	0.0	

*** $P < .001$

직장에서의 지위를 확인한 결과 2019년(94.5%)과 2021년(93.0%)의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적은 비율이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021년이 2019년에 비해 소폭 높았다($\chi^2 = 23.7454$, $p < .001$).

[표5-31]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

구분	계		2019		2021		$\chi^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4,375	100	1,773	100	2,602	100	23.7454***
임금 근로자	4,096	93.6	1,675	94.5	2,421	93.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29	3.0	29	1.6	100	3.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30	3.0	64	3.6	66	2.5	
무급 가족 종사자	20	0.5	5	0.3	15	0.6	

*** $P < .001$

④ 일 내용 만족도

일의 내용에 있어서도 1 ‘매우 만족’ ~ 5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하게 하여 역코딩하여 살펴본 결과, 2019년에는 5점 만점에 3.44(SD = 0.79)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였으나, 2021년에는 2.68(SD = 0.76)으로 보통 이하로 낮아졌다($t = 31.5934$, $p < .001$).

[표5-32] 일 내용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2019	1,773	3.4	0.7	31.5934***
2021	2,602	2.6	0.7	

*** $P < .001$

⑤ 근로환경 만족도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1 ‘매우 만족’ ~ 5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하게 하여 역코딩하여 살펴본 결과, 2019년에는 5점 만점에 3.3(SD = 0.80)이었으나 2021년에는 2.7(SD = 0.73)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t = 25.5958$, $p < .001$).

[표5-33] 근로환경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2019	1,773	3.3	0.8	25.5958***
2021	2,602	2.7	0.7	

*** $P < .001$

⑥ 근로 시간 만족도

근로 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1 ‘매우 만족’ ~ 5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하게 하여 역코딩하여 살펴보았다. 2019년에는 3.3(SD = 0.83), 2021년에는 2.8(SD = 0.76)으로 나타나 코로나 이후에 근로 시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1.7642$, $p < .001$).

[표5-34] 근로 시간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2019	1,773	3.3	0.8	21.7642***
2021	2,602	2.8	0.7	

*** $p < .001$

⑦ 이직 생각

현재 이직할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이직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019년 74.3%였으나 2021년에는 61.0%로 그 비중이 낮았다. 반면 ‘이직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019년 14.0%에 비해 2021년 24.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chi^2 = 90.1100$, $p < .001$).

[표5-35] 이직 생각

단위 : 명, %

구분	계		2019		2021		$\chi^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4,375	100	1,773	100	2,602	100	90.1100***
이직 할 생각이 있다	876	20.0	248	14.0	628	24.1	
이직 할 생각이 없다	2,906	66.4	1,318	74.3	1,588	61.0	
잘 모르겠다	593	13.6	207	11.7	386	14.8	

*** $p < .001$

⑧ 이직 고려이유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안정적인 직장을 원해서’라는 응답이 2019년에 39.5%, 2021년에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비중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21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연봉에 대한 불만족’이었으며 약 20% 정도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더 큰 회사로 옮기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10% 정도로 나타났다. 연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 = 21.2613$, $p < .05$).

[표5-36] 이직 고려이유

단위 : 명, %

구분	계		2019		2021		$\chi^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876	100	248	100	628	100	21.2613*
기업의 성장가능성/비전이 없어 보여서	53	6.1	25	10.1	28	4.5	
안정적인 직장을 원해서	397	45.3	98	39.5	299	47.6	
연봉에 불만족해서(연봉을 더 높이기 위해)	182	20.8	51	20.6	131	20.9	
찾은 야근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58	6.6	14	5.7	44	7.0	
복리후생이 불만족스러워서	37	4.2	8	3.2	29	4.6	
상사/동료에 대한 불만	14	1.6	7	2.8	7	1.1	
일에 대한 성취감이 낮아서	23	2.6	9	3.6	14	2.2	
더 큰 회사로 옮기고 싶어서	95	10.8	29	11.7	66	10.5	
가족 구성원 돌봄 때문에	6	0.7	2	0.8	4	0.6	
개인적(육아, 결혼, 건강 등) 이유	10	1.1	4	1.6	6	1.0	
기타	1	0.1	1	0.4	0	0.0	

* $P < .05$

⑨ 일과 가정생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과 관련한 질문에서 2019년의 경우 ‘일·가정 둘 다 비슷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7.7%, ‘일을 우선시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0.6%, ‘일을 우선시 한다’는 응답이 20.1%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일·가정 둘 다 비슷하게 생각 한다’는 의견이 36.8%로 1% 가량 낮아졌으며, ‘일을 우선시 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35.5%로 5%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우선시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8.2%로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감소하였다($\chi^2 = 15.2252$, $p < .01$).

[표5-37] 일과 가정생활

단위 : 명, %

구분	계		2019		2021		$\chi^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4,375	100	1,773	100	2,602	100	21.2613*
일을 우선시한다	829	19.0	356	20.1	473	18.2	
일을 우선시하는 편이다	1,466	33.5	542	30.6	924	35.5	
일과 가정생활 둘 다 비슷하게 생각한다	1,625	37.1	668	37.7	957	36.8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는 편이다	372	8.5	166	9.4	206	7.9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	83	1.9	41	2.3	42	1.6	

* $P < .05$

(3) 미취업자의 경제활동

① 향후 취업 의사

일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에 향후 취업 의사를 확인한 결과 2019년은 85.9%가 취업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나 2021년에는 그 비율이 감소하여 78.5%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 = 16.4945$, $p < .001$).

[표5-38] 향후 취업의사

단위 : 명, %

구분	계		2019		2021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749	100	930	100	819	100	16.4945***
있다	1,442	82.5	799	85.9	643	78.5	
없다	307	17.6	131	14.1	176	21.5	

*** $P < .001$

②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구해본 적 없다’는 의견이 2019년 67.1%, 2021년 53.5%로 가장 높았으나 그 비중은 2021년에 줄었다. 반면 2019년의 경우, 대전 지역 외 타지역 일자리를 구한 경우가 14.0%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의 경우 26.1%로 그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chi^2 = 41.2764$, $p < .001$).

[표5-39] 구직활동 여부

단위 : 명, %

구분	계		2019		2021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442	100	799	100	643	100	16.4945***
대전 지역 내 일자리만 구해봤다	271	18.8	148	18.5	123	19.1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 일자리도 구해봤다	280	19.4	112	14.0	168	26.1	
타지역의 일자리만 구해봤다	11	0.8	3	0.4	8	1.2	
구해본 적 없다	880	61.0	536	67.1	344	53.5	

*** $P < .001$

③ 구직시 고려사항

구직시 고려사항으로 2019년에는 ‘고용이 안정된 직장’이 26.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이 22.2%, ‘소득이 더 높은 일’이 13.5%, ‘탄력근로가 가능한 일’이 11.4%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고용이 안정된 일’에 대한 응답 비율은 19.9%로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소득이 더 높은 일’의 비중이 19.9%로 2019년에 비해 높아졌다.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에 대한 응답은 12.8%로 크게 줄었으며, 대신 ‘탄력적인 근로가 가능한 일’에 대한 응답 비중이 15.6%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에 대한 응답 비중도 2019년(10.4%)에 비해 2021년(14.8%)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chi^2 = 45.1159$, $p < .001$).

[표5-40] 구직시 고려사항

단위 : 명, %

구분	계		2019		2021		$\chi^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442	100	799	100	643	100	16.4945***
보수는 낮더라도 업무시간이 짧은 일	101	7.0	58	7.3	43	6.7	
소득이 더 높은 일	236	16.4	108	13.5	128	19.9	
탄력적인 근로가 더 가능한 일	191	13.3	91	11.4	100	15.6	
향후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	178	12.3	83	10.4	95	14.8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	44	3.1	24	3.0	20	3.1	
흥미와 적성이 맞는 일	259	18.0	177	22.2	82	12.8	
고용이 안정된 일(정년 보장 등)	338	23.4	210	26.3	128	19.9	
이전에 하던 일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일	19	1.3	9	1.1	10	1.6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	64	4.4	33	4.1	31	4.8	
명예와 명성이 있는 일	11	0.8	5	0.6	6	0.9	
기타	1	0.1	1	0.1	0	0.0	

*** $p < .001$

④ 근무하고 싶은 직장

향후 근무하고 싶은 직장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19년에는 ‘공기업’ 26.6%, ‘국가 기관’ 23.4%, ‘대기업’이 22.4%로 높게 나타났으나, 2021년에는 ‘공기업’ 24.9%, ‘국가 기관’ 21.1%, ‘대기업’ 18.8%로 그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전문직(법률 회사 등)’에 대한 비중은 2019년(5.33%)에서 2021년 13.8%로 크게 높아졌다($\chi^2 = 140.6631$, $p < .001$).

[표5-41] 근무하고 싶은 직장

단위 : 명, %

구분	계		2019		2021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124	100	2,703	100	3,421	100	140.6631***
국가기관	1,359	22.1	635	23.4	724	21.1	
공기업(공사, 공단)	1,575	25.7	720	26.6	855	24.9	
대기업	1,254	20.4	608	22.4	646	18.8	
벤처기업	233	3.8	120	4.4	113	3.3	
외국계 기업	261	4.2	115	4.2	146	4.2	
전문직 기업(법률 회사 등)	617	10.0	144	5.3	473	13.8	
중소기업(벤처기업 제외)	210	3.4	103	3.8	107	3.1	
해외 취업	162	2.6	57	2.1	105	3.0	
자영업(창업 등)	449	7.3	197	7.2	252	7.3	
기타	4	0.7	4	0.1	0	0	

*** $P < .001$

⑤ 근무하고 싶은 이유

앞선 질문과 관련하여 선택한 직장에서 근무한 이유를 확인한 결과 고용의 안정성이 2019년 25.8%, 2021년 24.9%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임금과 수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019년 24.8%, 2021년 19.3%로 나타나 2019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 = 65.0530$, $p < .001$).

[표5-42] 근무하고 싶은 이유

단위 : 명, %

구분	계		2019		2021		X^2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124	100	2,703	100	3,421	100	65.0530***
적성과 흥미	938	15.3	409	15.1	529	15.5	
사회적 공헌·봉사 및 사회적 인정	565	9.2	246	9.1	319	9.3	
자기 발전의 추구	675	11.0	283	10.5	392	11.5	
임금과 수입	1,328	21.7	669	24.8	659	19.3	
고용의 안정성	1,547	25.3	696	25.8	851	24.9	
직장(일자리)까지 거리가 가까움	157	2.6	42	1.6	115	3.4	
시간적 여유로움	342	5.6	111	4.1	231	6.8	
장래가 유망한 창의적·도전적 직장	391	6.4	177	6.6	214	6.3	
근로환경	180	2.9	69	2.6	111	3.2	
기타	1	0.0	1	0.0	0	0.0	

*** $P < .001$

⑥ 직업선택시 어려움

직업 선택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 ‘학력이나 기능, 자격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2019년 31.5%, 2021년 31.7%로 가장 높았으며, ‘취업 정보의 부족’이 2019년 18.7%, 2021년 17.2%로 나타났다.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2019년 14.8%, 2021년 12.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2019년 11.9%에서 2021년 14.4%로 높아졌다($\chi^2 = 25.1076$, $p < .01$).

[표5-43] 직업선택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

구분	계		2019		2021		$\chi^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124	100	2,703	100	3,421	100	25.1076**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1,092	17.8	505	18.7	587	17.2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831	13.6	400	14.8	431	12.6	
경험이 부족해서	813	13.3	322	11.9	491	14.4	
성별을 차별하기 때문에	105	1.7	50	1.9	55	1.6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아서	1,936	31.6	852	31.5	1,084	31.7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149	2.4	54	2.0	95	2.8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468	7.6	195	7.2	273	8.0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437	7.1	206	7.6	231	6.8	
창업자금이 부족해서	282	4.6	112	4.1	170	5.0	
기타	11	0.2	7	0.3	4	0.1	

** $P < .01$

4) 기타 정책에 대한 의견

(1) 필요한 공공시설(1순위 기준)

대전시2030 청년들이 생각하는 필요한 공공시설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의견이 25.7%로 가장 높았으나, 2021년에는 19.8%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대신 2021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이 2019년(18.0%)에 비해 24.5%로 증가하였다.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의견은 2019년과 2021년 모두 24%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019년 11.0%에서 2021년 7.6%로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문화예술공연시설’은 2019년 8.1%에서 2021년 12.5%로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chi^2 = 114.0534$, $p < .001$).

[표5-44] 필요한 공공시설(1순위)

단위 : 명, %

구분	계		2019		2021		χ^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124	100	2,703	100	3,421	100	114.0534***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1,328	21.7	491	18.0	837	24.5	
공원, 녹지, 산책로	1,372	22.4	695	25.7	677	19.8	
보건의료시설(공공병원, 보건소 등)	1,478	24.1	649	24.0	829	24.2	
사회복지시설(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	561	9.2	302	11.0	259	7.6	
공영주차시설	434	7.1	182	6.7	252	7.4	
문화예술공연시설	645	10.5	219	8.1	426	12.5	
도서관	176	2.9	98	3.6	78	2.3	
체육시설 및 경기장	129	2.1	66	2.4	63	1.8	
기타	1	0.0	1	0.0	0	0.0	

*** $p < .001$

(2) 필요한 복지서비스(1순위 기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고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2019년 38.0%에서 2021년 42.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득 지원 서비스’ 역시 2019년 16.2%에서 2021년 25.4%로 증가하였다. 반면 ‘보건의료 서비스’는 2019년 11.2%에서 2021년 5.6%로 감소하였으며, ‘보육 및 교육 서비스’도 2019년 7.9%에서 2021년 4.7%로 비중이 감소하였다($\chi^2 = 186.1043$, $p < .001$)

[표5-45] 필요한 복지서비스(1순위)

단위 : 명, %

구분	계		2019		2021		χ^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124	100	2,703	100	3,421	100	186.1043***
고용(취업) 지원 서비스	2,482	40.5	1,026	38.0	1,456	42.6	
소득 지원 서비스	1,307	21.3	437	16.2	870	25.4	
주거 관련 서비스	851	13.9	391	14.5	460	13.5	
안전 관련 서비스	375	6.1	187	6.9	188	5.5	
보건의료 · 건강관리 서비스	496	8.1	303	11.2	193	5.6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	375	6.1	213	7.9	162	4.7	
여가 · 문화 향유 지원 서비스	237	3.9	145	5.4	92	2.7	
기타	1	0.0	1	0.0	0	0.0	

*** $p < .001$

(3) 구직시 필요한 지원정책

구직시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보제공’이 2019년 39.9%에 비해 2021년 48.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고용정보제공’은 2019년 26.0%에서 2021년 21.5%로 감소하였다. ‘직업상담’의 경우에도 2019년 13.9%에서 2021년 9.3%로 감소하였으며, ‘직업교육훈련’의 경우 2019년 10.4%에서 2021년 13.1%로 증가하였다($\chi^2 = 20.7723$, $p < .01$).

[표5-46] 구직시 필요한 지원정책

단위 : 명, %

구분	계		2019		2021		χ^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442	100	799	100	643	100	20.7723**
희망취업분야 업무 및 전망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628	43.6	319	39.9	309	48.1	
직업교육 훈련	167	11.6	83	10.4	84	13.1	
고용정보 제공 및 소개	346	24.0	208	26.0	138	21.5	
직업상담 및 적성 검사	171	11.9	111	13.9	60	9.3	
취업을 위한 기초 교육(이력서 쓰기, 면접 준비 등)	91	6.3	58	7.3	33	5.1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	38	2.6	19	2.8	19	3.0	
기타	1	0.1	1	0.1	0	0.0	

** $P < .01$

(4) 출산시 필요한 지원정책(1순위 기준)

자녀 출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정책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자녀 출산비 지원의 확대’가 2019년 29.5%, 2021년 29.8%로 공통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 양육비 지원’의 경우 2019년 29.1%에서 2021년 27.1%로 소폭 감소하였다. ‘근로 취업 관련 유연근무제’에 대한 의견은 2019년 9.5%에서 2021년 12.5%로 증가하였다($\chi^2 = 18.6198$, $p < .01$).

[표5-47] 출산시 필요한 지원 정책

단위 : 명, %

구분	계		2019		2021		χ^2 F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5,400	100	2,476	100	2,924	100	18.6198**
자녀 출산비 지원 확대	1,603	29.7	731	29.5	872	29.8	
자녀 양육비, 교육비 등 지원	1,514	28.0	721	29.1	793	27.1	
보육시설 확충	843	15.6	384	15.5	459	15.7	
산후 도우미 지원 확대	297	5.5	148	6.0	149	5.1	
불임부부(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211	3.9	110	4.4	101	3.5	
근로·취업 관련 지원(육아휴직제 확대, 유 연근무제 확산, 노동시장 복귀지원 등)	598	11.1	234	9.5	364	12.5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인구교육, 예비부모강좌 등)	226	4.2	102	4.1	124	4.2	
아빠의 육아 참여 지원	108	2.0	46	1.9	62	2.1	

*** $p < .001$

제3절 소결

대전시 청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 변화에 대한 생각에는 차이가 있었다. 2021년 사회조사 응답을 분석한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상 변화에는 85% 이상이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 뒤로 재택근무, 원격 및 유연근무제의 확산이 70% 이상, 배송배달의 증가와 집에서 하는 여가와 취미의 증가, 직장 회식의 감소는 60% 이상이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반면 온라인 학습의 경우 55%정도 만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친목이나 사교 목적의 모임이 감소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57%가량 나온 것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030청년들의 고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순한 친목이나 사교모임의 증가보다는 친밀감이 높은 소수의 집단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적절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에서의 변화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부분은 배달/배송을 통한 소비활동 증가(52.0%)이었으며, 마스크 착용(48.7%), 재택에서의 여가 취미 경향(45.1%)이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친목 모임(48.6%)과 온라인 학습(47.0%), 직장 회식(45.2%)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2019년과 2021년 대전시 사회조사에 응답한 2030 청년들의 삶의 변화를 t-test를 통해 비교하였다. 가족 관계의 경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나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감소하면서 가족 간의 소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부모와의 관계 만족이나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코로나19 이후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인 가족관계만족도 역시 코로나19 이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통이 증가한 반면 가족 관계에서는 불만족한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배우자 관계 만족이나 자녀 관계 만족의 경우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직장 구성원 간의 소통이나 세대 간 소통은 감소하고 이웃 간의 소통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한 결과 몸이 아픈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에 도움받을 사람은 감소하였으나,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상대가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소득수준 만족, 소비생활 만족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후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임금 및 소득만족도, 일 내용 만족도, 근로환경 및 근로시간 만족도로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일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낮아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이직하고 싶다는 의견이 증가하였으며, 이직의 고려사항으로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직장에 대한 불안정성에 가장 불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과 가정생활에 관한 균형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이후 일을 우선시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의 비중이 2019년 약 82%에 비해 2021년 약 79%로 낮아진 것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취업 의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반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비중이 코로나19 이후 감소하였다는 것은 고무적이며, 대전 지역 뿐 아니라 타지역의 일자리를 구해보았다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향후 대전 지역 내 일자리를 더 많이 확보하여 청년들이 외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공기업과 국가 기관, 대기업이었으나, 취업의 어려움에 학력이나 기능, 자격이 맞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아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맞춤형 취업 정보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 외 취업 정보나 경험이 부족해서 취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욕구를 확인한 결과 필요한 공공시설로 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예술공연시설의 확충에 대한 의견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경우 고용(취업)지원서비스가 크게 증가하였고, 소득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한 것을 보아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직 시 필요한 지원책의 경우 취업 분야의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크게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코로나19 이후 대면으로 직장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보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자녀의 출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근로 취업관련 유연근무제에 대한 의견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것은 코로나 이후 자가 격리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하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데 예상하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6장

제언 도출



제6장 제언 도출

1. 청년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

1) 조례를 통한 법적 기반 마련

청년 조례를 고도화하여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전시에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으며 해당 조례를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고용, 창업, 능력개발,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 생활, 문화 활성화, 교류 확대, 참여 확대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제6조), 이러한 시행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제7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은 삶의 다양한 영역이 원인이 되고 동시에 결과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주거, 복지, 고용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에 대한 수요가 드러났다. 특히, 외로움 등의 위험군 청년이 갖는 어려움이 드러난 만큼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 조례의 큰 주제 영역 안에서 외로움 등의 문제가 얼마나 다루어질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각 영역별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인 만큼 외로움의 여러 수준이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조례의 적극적 운용을 통해 청년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튼튼히 갖추는 것이다. 이에 기존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고도화하여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중요한 이슈로 상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혹은 새로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조례가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대전시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수준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이 위험군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위험군 청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으로써 실제 조례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개정 혹은 제정을 통하여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직접 다루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고립을 핵심 주제로 제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

례」는 좋은 예시다. 청년조례에서 다루지 못하는 고립의 영역을 분명히 하면서 고립청년의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고립청년 발굴’, ‘실태조사’, ‘지원사업’, ‘민간전문가 활용’ 등을 조항에 포함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특히, 실태조사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대상자 발굴과 고립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외에 군산시의 조례에서는 청소년 대상 외로움 치유를 위해 기관연계, 심리검사 및 치료지원, 전문가 상담 등을 명시하고 있고, 부산시의 경우 외로움 치유센터, 외로움 치유 전문가 양성교육, 외로움 치유 및 행복증진 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표6-1]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조항

구분	내용
기본계획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등
고립청년 발굴	고립청년 발굴의 주체: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발굴위한 지역연계 네트워크 구축 노력: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 바탕
실태조사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음
지원사업	1. 고립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

이처럼 대전시도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의 외로움, 우울, 불안,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조례가 담아내고 문제해결과 지원을 위한 행정력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대전시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전시의 기존 관련 조례와의 관계까지 고민해야 한다. 사회적 고립의 이슈가 청년기에서만 문제가 아니며 과거의 경험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청년기에 대응하는 것은 생애 전반을 고려하는 근본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대응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등 다양한 조례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주제가 배제되지 않고 충분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움직일 수 있도록 조례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 강화

청년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 문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로움 등에 대한 시민 전반의 인식 전환과 사회적인 관심을 고취해야 한다. 본 연구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미 청년은 청년세대가 갖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외로움이 사람들 간에 전해지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네트워크 안에서 계속 발현된다고 알려진 만큼(Cacioppo, Fowler, & Christakis, 2009) 현재의 청년세대들이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외로움 위험군에서 나타난 특징들은 외로움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행복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고취되고 공론화되어 외로움 등이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기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과정에서 외로움 등을 느끼는 개인이 이러한 상황이 단지 자신의 개인적 문제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외로움이 주는 사회적인 낙인, 편견 등을 줄여나가면서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해 관련 이슈를 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할 것이다.

2.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로의 재편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재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들이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다. 외로움과 고립은 사회적 교류를 원활히 하지 않는 상황에서 초래되는 만큼 일부 청년층에서는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찾고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의 도움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자원망은 가족, 친구, 연인 등 사적 자원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의 활용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문가를 찾아가고자 할 때도 전문가를 어떻게 만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응답도 상당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다수의 청년이 외로움과 고립의 경험이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전략은 ‘혼자 참는다’거나 ‘TV, 유튜브 등을 시청’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응이 일방적으로 잘 못 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외로움 등을 느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고 어디에서 관련 정보나 서비스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제안한다.

1) 대전 청년 포털 등 청년 플랫폼의 기능 고도화

대전청년포털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정보전달에서 나아가 소통과 아카이빙까지 가능한 종합적인 플랫폼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먼저, 정보전달기능이 수요자에게 더욱 친화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에 외로움 등의 어려움을 가진 청년이 자신의 문제에 대응하고 싶다면 온라인으로는 대전청년포털에 접속하여 바로 관련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대전청년포털은 대전을 대표하는 청년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대전시의 청년이 이용가능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 복지, 문화 등 일부 영역에서는 서비스의 목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유관 홈페이지를 전달함으로써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외로움이나 고립을 경험하는 청년이 스스로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공, 민간 서비스의 목록을 전달하여 청년이 쉽게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소통에 대한 기능이다.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결과는 나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 간 소통할 수 있는 장을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오픈채팅방과 연결하여 청년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다수의 다른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 대면 활동을 하여 자조 모임이나 공동체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임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플랫폼 안에 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년 간 소통만이 아니라 유사한 환경의 청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응 방법,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장으로서 플랫폼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작게는 청년 간의 의견이나 경험 공유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내용이 플랫폼을 통해 쌓이고 관리되어 정보화되는 아카이브로 역할 한다면 사회적 대응을 위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2) 청년을 대상으로 한 광역-기초 전달체계의 개편

대전시 청년세대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수정 및 보완하여 광역-기초 단위의 전달체제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관한 문제만 보더라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다. 사회적 역할, 성별, 연령별 차이는 물론 원인과 결과, 수준과 상황 등 다양한 영역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외로움 등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복합적인 서비스 전반을 조율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광역기관이 필요하다.

이에 광역의 구심점 역할을 중심으로 기초의 실천적 역할이 운영될 수 있다면 전달체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청년의 서비스 접근성 또한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예로 서울시의 경우, 광역의 ‘청년활동지원센터’와 기초 실천 기관인 ‘오랑’이 운영되고 있다. 오랑에서는 청년을 대면할 수 있는 ‘공간’과 청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청년이 각 지역의 오랑을 방문하여 자신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통찰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전에도 ‘대전청년내일센터’와 일부 자치구에 ‘청년 공간’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기능을 재편하여 대전청년내일센터를 광역으로 하여 각 청년 공간을 공간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할 수 있다. 특히, 기초 단위의 실천 기관이 운영된다면 청년이 이용하고 접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에서 위험군에서 비대면 교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이 비대면을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을 선호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대면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비대면이라도 교류하려고 시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비대면 교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고립의 이슈를 고려하는 이상 장기적으로 대면 교류를 확대하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 단위의 센터들이 운영됨으로써 청년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달성될 것이다. 이에 기본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마련을 기반으로 해당 기관이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마련

구체적으로 전달체계가 마련되는 것은 취약 청년에게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장기간 고립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군의 청년을 과연 누가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현재로서는 분명히 내리기 어렵다. 청년은 지금까지 사회복지서비스의 당사자로서 여겨지지 않았던 대상으로, 성인이자 활발한 활동을 하는 건강한 세대라는 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 그런 이유로 청년에게도 관련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음을 상정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는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하지만 청년 취약층의 경우 장기간의 통합적인 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할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개인마다 그 수준과 양상에 차이가 있으며, 청년 개인

의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개인의 맞춤형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의 외로움과 고립 수준도 다르며 각자의 상황에 따른 문제의 원인과 해결도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욕구에 대응해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서울연구원, 2018). 이는 처방이라는 말과 같이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약물 위주의 치료가 아니라 대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비약물적 도움(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 거점 의료기관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사회적 처방 활동가가 대화를 기반으로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맞춤형 사회적 처방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이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든 개인이 사회적 처방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서 자신에게 맞는 대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청년 등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본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3. 청년 대상 서비스 강화

1) 위험도 진단

실태조사 결과에서 자신이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등의 측면에서 고위험군에 속하면서도 정작 그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청년세대가 많았다. 이는 청년에게 자신의 현 상황을 진단하여 알려주는 기능이 없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청년들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에 개입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등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진단은 일반 사회적인 진단으로 청년 대상으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대전광역시 청년 전반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수준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사를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기존 조사를 활용하여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관한 질문을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년 개인이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책 대상으로서의 고위험군을 스크리닝할 때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의 수준은 물론 그 문제의 유발 원인을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개입과 진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한 스스로

외로운 감정을 인지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감정을 다루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적절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원인이 고려되었듯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이 기질적으로 타고난 개인적 정서인지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의 산물인지, 혹은 인간 관계나 취업에서의 실패 등 생애주기상 과업 달성의 좌절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이고 후천적 결과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만 어떤 유형의 서비스 지원이 최적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이 자신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수준과 관련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 발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청년들을 찾아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해야 한다. 이는 두 가지 맥락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실질적으로 고립되어 활동하지 않는 집단이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도 도출되었듯이 청년의 일부는 ‘방 밖으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거나 ‘필수생활을 위해서만 외출하는’ 등 상대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드러났으며 일부에서는 7년 이상의 장기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외로움 등의 위험군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한계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은둔위험군으로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차적으로 대전시에 생활하고 있는 이미 위험한 상황이거나 경계에 있을 수 있는 은둔위험청년을 발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활동은 하고 있을지라도 외로움이 높은 청년에 대한 발굴이다. 본 연구결과에 나타났듯이 외로움 수준이 위험군이라도 상근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적인 고립과 외로움, 고립감 등을 느끼는 부분이 동일하지는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수치가 높았던 것은 외로움 등을 느끼는 것이 청년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처럼 완전한 고립상태가 아닌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으나 외로운 청년을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의 경우 어딘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외로움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해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칠 위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방안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통한 공모사업 실시 및 인센티브 제공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는 환경과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사회 전반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공적 자원망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대학,

기업, 병원, 사회복지기관, 상담센터 등 청년이 접하는 다양한 민간 영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목록을 견고하게 구축해내는 것은 다양한 민간의 영역들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많은 기관이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서비스와 지원의 노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여러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이 지역 청년들의 외로움 등에 관한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자를 모집하여 발굴하고 서비스를 개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2) 청년 접점 홍보를 통한 발굴전략 마련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등을 경험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즉, 청년을 겨냥한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기업 등 민간조직을 활용하는 발굴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배달서비스의 활용을 제안한다. 최근 다수의 청년이 일상에서 배달서비스를 많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외로움 등에 대한 간단한 체크리스트와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등에 대해 소개한 홍보물을 배달음식 등과 함께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든 사회적 공헌 등을 통한 간접적인 홍보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대전시의 입장에서든 위험 상태에 있는 청년을 찾고 지원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는 포괄적인 홍보를 통한 발굴이다.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청년 혹은 청년의 주변인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활용이 불가하다. 특히, 대부분의 기존 홍보들은 대부분 단위 사업별로 홍보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진 청년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시작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따라서 대전시 차원에서 청년들이 많은 대학교, 직장, 주변 상가, 여러 기업, 유명 관광지 등과 협업하여 홍보함으로써 외로움과 고립을 경험하는 청년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지원

(1) 공적 지원구조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한 청년자조모임 등 청년조직 운영

청년의 욕구와 상황이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한 개입전략 중 하나는 자조모임이다. 즉, 유사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서로 간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공간과 기회 등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연구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청년의 성별, 사회적 역할, 연령, 위험도 등 다양한 성향에 따라 특성이 다르며 청년마다 특정의 관심사는 상이할 수 있다. 이에 자조모임이 구성되어 같은 공감대 즉 특정 어려움은 물론 취미, 여가, 문화, 지역활동, 대화, 일상나눔, 출산과 육아 등 어떤 형태로 구성되든 그것이 청년의 관계망이 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이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동기마련과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과 공간적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스스로 움직이고 공적 조직이 이를 지원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대전시-자치구-동으로 연결되는 공적 구조 내에서 지원구조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청년조직이 형성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조직에 대하여 대전시에서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각 구가 관리하며 동 주민센터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 등 다양한 구조가 가능하다.

한편, 이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임의 첫 시작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관심사를 중심으로 바로 사람을 모집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기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모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자조모임 등 청년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부분적으로 드러났듯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조직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힘든 청년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공적, 사적 유관기관이 동참하여 청년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계획하여 청년이 자신의 관심사에 적합하게 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다양한 기관이 함께 한다면 청년들의 관계 형성 모임 내에서 자원에 대한 대여, 참여 가능 콘텐츠 확대, 모임의 장소 확대 등 다양한 부가적인 이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위험군 청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전반적으로 외로움과 고립을 다룰 수 있는 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청년은 그동안 대부분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지 않았던 만큼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자체가 양적으로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운 상황은 상당히 많고 외로움 위험군이 가지고 있는 건강 등의 어려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가 양적으로 확충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강관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위험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이 비위험군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았던 점은 위험군에 대한 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도 외로움이 흡연 등과 같이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가 보고되어 온 상황에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예방적 차원에서 건강한 식습관, 건강행태 개선 등에 대한 교육과 활동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대전시에서 진행 중인 심리 건강, 신체 건강 서비스를 확대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응적 차원에서 악화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특히, 위험군 청년은 스스로의 사회경제적으로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급여 역시 비위험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청년을 외로움과 고립으로 이끈 다양한 원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아존중감 고취, 가족관계 개선, 대인관계 증진 교육, 실패에 대한 경험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외로움과 고립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적 대응 전략 마련

본 연구에서는 청년에게 발생하는 외로움 등의 문제가 과거 생애 전반을 거치며 경험해 온 부정적 사건 등과 관련이 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생애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고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이 겪는 현재의 우울이 과거 아동, 청소년기의 경험에서도 초래하고 있으며 성인으로서 겪어온 경험이 쌓이면서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각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동, 청소년기에는 학교와 가정 안팎의 예방과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따돌림이나 괴롭힘, 학대, 부모의 이혼, 전학 후 적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 청소년기에는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기관들이 부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기능을 점검하여 아동,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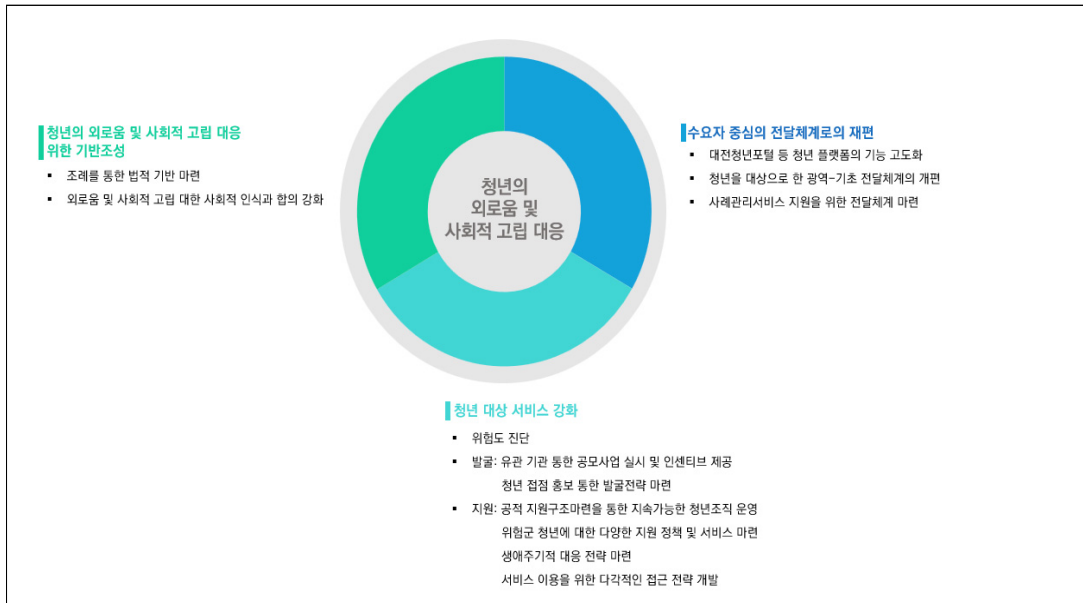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 청소년기 이외에도 청년은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경험과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도출되었듯이 청년기의 주요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주거/금융/법률 등’ 성인이 되어 겪을 수 있는 주요 전문적 이슈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또한 직장에서 상사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취업 등의 실패, 압박 등과 같은 다양한 경험들이 청년기라는 생애주기에 수행해야 하는 과업에 의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를 원활히 해결하고 안정적인 성인기에 돌입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직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전략 개발

청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단순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 전략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청년의 다수는 비대면 사회를 경험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경험하였다. 이에 코로나19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자주 경험하였던 회식문화, 가정 외부에서 즐기는 활동 등이 아닌 가정 중심의, 개인의 삶과 개인 공간 중심의 새로운 삶의 형태가 드러난 것이다. 이는 사적인 영역이 보장되는 것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청년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청년에게 있어 새로운 형태의 교류를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개인의 사적영역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타인과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교류 형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청년이 친목이나 사교 목적의 모임이 감소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청년에게 있어 모임이나 만나는 사람의 양적 확대보다는 친밀감 있는 소수의 교류가 더 적합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이처럼 청년이 타인과 교류하고 관계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교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림6-1]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수현, 이동형, 최주희(2022).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사회적 고립과 지각된 학교 풍토의 조절된 매개효과. *교육과학연구*, 53(3), 125-149.
- 강진호, 박아름, 한승태(2020).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5), .
- 김성아(2022). 고립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정책에의 함의. *보건복지포럼*(2022.03.), 74-86.
- 김재우(2015). 사회적 지지와 연결망 배태: 자아연결망 다층분석의 활용. *한국사회학*, 49(1), 43-76.
- 남재욱(2020). 코로나19와 청년의 삶: 노동, 이행,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보장포럼 자료집*, 22-41.
- 노리나 허츠(2021). 고립의 시대(홍정인, 번역). 경기: 웅진지식하우스.
- 류정희, 전진아, 이상정, 이주연, 정익중, 유민상(2018).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정책적 대응.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주연, 김수진, 성기옥(2022).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방안 연구. 대전: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 박주홍(2019). 부산시 외로움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부산: 부산복지개발원.
- 배정희(2022). 코로나19 전후 청년 우울 변화궤적과 영향요인. 2022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5(0), 21-45.
- 보건복지부a(2021).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b(2021). 2021년 건강검진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서영석, 안수정, 김현진, 고세인(2020). 한국인의 외로움: 개념적 정의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일반*, 39(2), 205-247.
- 서울시청년활동센터(2021).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2020년, 2021년 참여자 조사분석. 서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서울특별시(2020). 서울청년실태조사. 서울: 서울특별시.
- 송선주, 고성희, 김지영, 김현경(2022). 재가노인의 허약, 우울 및 외로움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연구*, 30(3), 139-146.
- 유민상, 신동훈(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혜준(2018). '외로움'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접근과 정책적 함의. *The HRD Review*, (2018.12.), 152~167.
- 이려정, 정병웅(2020). 지각된 외로움과 일상적 SNS 활동, 사회적 고립감 간 관계 연구. *관광연구논총*, 32(1), 3-24.
- 이문웅(1998). 현대 한국인의 의식과 관행조사 CODE BOOK.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홈페이지

- (<http://www.kosssda.snu.ac.kr/>).
- 이소영, 최혜진(2021).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의 일상생활 변화 잠재계층유형, 영향요인 및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학교사회복지*, 53, 401-427.
- 이은환(2020). 코로나19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414), 1-25.
- 임윤서(2022). 포토보이스를 통해 본 비대면 시대 청년의 불안 경험. *문화와 융합*, 44(6), 789-818.
- 임형문 외(2020).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 광주: 풀인사이트.
- 정세정, 김문길, 김태완, 김동진, 김성아, 이원진, 이혜정, 임덕영, 함선유, 류진아, 홍성운(202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진은주, 황석현(2019). 한국판 UCLA 외로움 척도 3판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6(10), 53-80.
- 최상미, 주영선(2021). 빈곤 청년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소득 감소와 행복: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9, 33-60.
- 최현영, 이동혁(2016). '홀로 있음'에서 고독과 외로움간의 차이탐색. *청소년학연구*, 23(12), 77-103.
- 최희경, 이선희(2022). 지역사회 노인의 외로움 중재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의 효과 분석 및 개발안 마련: 체계적 문헌고찰. *근관절건강학회지*, 29(1), 28-40.
- 통계청(2019). 2019 사회조사 조사표.
- 황수진, 홍진표, 안지현, 김명현, 정서현, 장혜인(2021).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60(4), 291-297.
- Aknin, L. B., De Neve, J. E., Dunn, E. W., Fancourt, D. E., Goldberg, E., Helliwell, J. F., & Ben Amor, Y.(2022). Mental health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COVID-19 pandemic.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7(4), 915-936.
- Anderson, C. A., Horowitz, L. M., & French, R. D.(1983). Attributional style of lonely and depressed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1), 127-136.
- Cacioppo, J. T., Fowler, J. H., & Christakis, N. A.(2009). Alone in the crowd: The structure and spread of loneliness in a large social net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6), 977-991.
- Duck, S., Pond, K., & Leatham, G.(1994). Loneliness and the evaluation of relational event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2), 253-276.
- Heinrich, L., & Gullone, E.(2006).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Loneliness: A Literatur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695-718.
- <http://dx.doi.org/10.1016/j.cpr.2006.04.002>

- H.M. Government(2018). A Green Future: Our 25 Year Plan to Improve the Environment.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
- Mascherini, M.(2022). 코로나19 위기가 청년층에 미친 영향. 국제노동브리프, 20(4), 9-21.
- The Joe Cox Loneliness Commission on Loneliness(2017). Combating loneliness one conversation at a time: A call to action. London: The Joe Cox Loneliness Commission on Loneliness.
- Perlman, D., & Peplau, L. A.(1981).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Loneliness. In R. Gilmour, & S. Duck (Eds.), Personal Relationships: 3. Relationships in Disorder (pp. 31-56). London: Academic Press.
- Pierce, M., Hope, H., Ford, T., Hatch, S., Hotopf, M., John, A., & Abel, K. M.(2020). Mental health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longitudinal probability sample survey of the UK population. The Lancet Psychiatry, 7(10), 883-892.
- Weiss, R. S.(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The MIT Press.
- 서울연구원(2018).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으로 시민건강 증진, <https://www.si.re.kr/node/60698> (2022.12.15.에 인출)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부록

설문조사표



응답자코드

청년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청년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 청년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에 대한 현실을 이해하고 더욱 효과적인 정책적 실천적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자발적인 참여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귀하께서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약 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설문조사 도중에 불편하시다면 휴식을 취한 후 재개할 수 있고 혹은 응답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오직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및 제60조(비밀유지 등)에 의해 철저히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2년 10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 연구기관: (재)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담당자: 류주연 선임연구원 / 연락처: 042-331-5069)
- 조사기관:

〈 개인정보 제공 및 면접참여 동의서 〉

-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성별, 나이, 전화번호 등입니다.
-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하는 설문면접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1학기 2기

응답자 : (서명)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귀하

응답자		면담일자	2022년 월 일
조사자	(인)	관리자	(인)

스크리닝

1. 귀하의 출생년월일을 기입해주시시오. (1982.11.~2004.10.사이 출생)

① 만18세~39세(만 세)

② 청년범위 아님(조사 중단)

2. 귀하는 대전광역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조사 중단)

3. 귀하는 대전의 어느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계십니까?

① 동구 ② 중구 ③ 서구 ④ 유성구 ⑤ 대덕구

기초 문항

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5. 귀하의 현재 주민등록지는 대전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2-3년제) 재학(휴학포함)

⑤ 전문대학(2-3년제) 졸업

⑥ 대학교(4년제) 재학(휴학포함)

⑦ 대학교(4년제) 졸업

⑧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

⑨ 대학원 졸업

7. 귀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이란 직장을 다니거나 자기사업을 하는 것,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도와주는 것 등을 포함함)

① 있다 (주평균: 시간) → 8번으로 이동

(휴직 중일 경우 주평균 시간을 0시간으로 기입, 최대 일 20시간 가정, 최댓값 140시간)

② 없다(일자리 찾고 있는지 여부) → 9번으로 이동

※ 다음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경제활동)**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여러 일을 한 경우에는 **주업**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현재 일하지 않는 분은 9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8. 귀하는 어떤 지위로 일하고 계십니까?

- | | |
|-------------------------------|-------------------------|
| ① 상용직 근로자(1년 이상 계약) | ② 임시직 근로자(1개월~1년 미만 계약) |
| ③ 일용직 근로자(1개월 미만 계약) | ④ 자영업 등 사업 |
| ⑤ 무급가족종사자 | ⑥ 프리랜서 |
| ⑦ 특수고용직(학습지 교사, 캐디, 배달앱종사자 등) | ⑧ 기타() |

- ☐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 ☐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 조직에 전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를 말함
- ☐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 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통신업체의 현장 출동 설치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있음

8-1. (문8에서 상용근로자 또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를 선택하신 분만 응답) 일하시는 근로 시간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제 근로 ② 전일제 근로

- ☐ 시간제 근로: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 전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가 아닌 사업체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하는 자(예: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2-3교대제 근무 등)

9. 귀하는 현재 구직 및 이직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0. 귀하는 현재 구직이나 이직을 실제 준비 중이십니까?

- ① 그렇다 (10-1) ② 없다

10-1. 귀하는 일을 구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총 년 개월

사회적 교류와 외로움, 사회적 고립

11. 귀하는 평소 외출하십니까?

- ① 자기 방,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 (11-1로 이동)
- ② 생필품 구입, 간단한 산책 등 필수생활 유지를 위해서만 집 밖으로 외출한다 (11-1로 이동)
- ③ 여가, 직장 및 학교 등 다양한 교류 및 활동을 위해 집 밖으로 외출한다

11-1. ①, ②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 ⑥ 7년 이상

11-2. ①, ②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로 실패로
-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 ③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껴서
- ④ 장애·질병 등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 ⑥ 온라인 게임 등을 길게 하면서
- ⑦ 중독(토트 등 도박, 약물 등)의 문제로
- ⑧ 기타()

1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보기> 중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없다	있다	있다면	
			1순위	2순위
(1)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3)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4) 내가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5)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①	②		
(6)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①	②		
(7)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보기>		
① 가족	② 친인척	③ 연인(데이트 상대)
④ 친구나 직장동료	⑤ 이웃	⑥ 선생님(출신학교 교사 및 교수 등)
⑦ 공공기관(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취업관련 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⑧ 민간기관(사회복지기관, 청년단체 등 취업관련 기관 제외한 민간기관)		
⑨ 취업지원센터(대학 내 취업센터, 고용공단 등 정부 취업지원 기관 등)		
⑩ 종교단체	⑪ 2순위 없음	
⑫ 기타()		

13. 귀하는 다음의 각 집단의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대면 형태로 평소 얼마나 자주 교류하십니까?

교류란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일주일에 매일 같이 사람들과 직접 만난다면 ‘거의 매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항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번이상)
(1)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2)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3)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 교류(업무상 교류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5)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14. 귀하는 다음의 각 집단의 사람들과 인터넷(SNS), 전화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평소 얼마나 자주 교류하십니까?

교류란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일주일에 매일 같이 온라인으로 연락한다면 ‘거의 매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항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번이상)
(1) 가족들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2)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3) 연인,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4) 이의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비대면 교류(업무상 교류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5)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15. 귀하는 현재 가족,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 ① 그렇다(15-1로 이동) ② 아니다

15-1. (15에서 ① 응답자만) 다음 중 귀하는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소속감을 느끼시는 집단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가족 ② 친인척 ③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
④ 지역 모임 ⑤ 취미/문화/여가활동 모임 ⑥ 직장이나 직업 관련 모임
⑦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의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 인터넷 사이트 등)
⑧ 종교모임 ⑨ 기타()

16. 다음 문항을 읽고 평소 얼마나 자주 이러한 감정을 느끼시는지 응답해주시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친구 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더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스스로 적극적이고 호의적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소외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미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내가 원할 때 함께 있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나를 정말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7. 귀하는 평소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혼자서 그냥 참는다	①	②	③	④
(2) 술을 마신다	①	②	③	④
(3) 운동, 문화생활 등 활동적인 취미생활을 한다	①	②	③	④
(4) TV, 게임, 유튜브 시청 등으로 마음을 달랜다.	①	②	③	④
(5) 종교활동을 하거나 종교모임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6) 반려견, 반려 동식물 등을 키운다	①	②	③	④
(7) 주변 사람(가족,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교수, 학교 선생님 등)으로부터 상담을 받거나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8) 온라인(현실에서는 모르지만 소셜 미디어 등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 또는 익명게시판 등)에서 상담을 받거나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9) 전문가(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상담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상담을 받거나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10) 기타()				

17-1. 17문항의-(9)에서 ①선택한 경우,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낄 때 전문가와 대화하거나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 선택하세요.

- ① 내가 느끼는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전문가를 만나야 할 수준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 ②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③ 나의 어려움을 전문가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 ④ 상담이나 대화와 같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 ⑤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것이 걱정되어서
- ⑥ 전문가(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상담가, 사회복지사 등)의 경우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서
- ⑦ 전문가(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상담가, 사회복지사 등)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 ⑧ 기타

17-2. 17문항에서 본인이 활용해본 방법 중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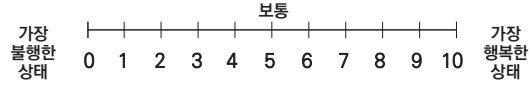
- ① 혼자서 그냥 참는다
- ② 술을 마신다
- ③ 운동, 문화생활 등 활동적인 취미생활을 한다
- ④ TV, 게임, 유튜브 시청 등으로 마음을 달랜다
- ⑤ 주변 사람(가족,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교수, 학교 선생님 등)으로부터 상담을 받거나 대화를 나눈다
- ⑥ 온라인(현실에서는 모르지만 소셜 미디어 등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 또는 익명게시판 등)에서 상담을 받거나 대화를 나눈다.
- ⑦ 전문가(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상담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상담을 받거나 대화를 나눈다
- ⑧ 종교활동을 하거나 종교모임에 참여한다
- ⑨ 반려견, 반려 동식물 등을 키운다
- ⑩ 기타
- ⑪ 어떤 방법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18. 귀하께서는 어릴 적부터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던 경우, 해당 경험이 현재의 외로움, 고립감 등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없다	있다	있었다면 현재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없음(0점)-----매우 큼(10점)
(1) 본인의 건강이나 장애 등의 어려움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경험	①	②	부정적 영향 전혀 미치지 않음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큼
(2) 외모나 체형 등 본인의 외형에 자신감을 잃었던 경험	①	②	0 1 2 3 4 5 6 7 8 9 10
(3) 부모님과 떨어져서 다른 사람 집에서 양육된 경험	①	②	0 1 2 3 4 5 6 7 8 9 10
(4) 부모님께서 이혼 혹은 별거를 한 경험	①	②	0 1 2 3 4 5 6 7 8 9 10
(5) 정서·정신·신체 건강의 장애, 질환 등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었던 경험	①	②	0 1 2 3 4 5 6 7 8 9 10
(6)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①	②	0 1 2 3 4 5 6 7 8 9 10
(7) 가까운 사람이 사망한 경험	①	②	0 1 2 3 4 5 6 7 8 9 10
(8) 친구 및 대인관계에서 배신 등을 당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	①	②	0 1 2 3 4 5 6 7 8 9 10
(9) 연애 및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	①	②	0 1 2 3 4 5 6 7 8 9 10
(10) 과도한 체벌, 정서적 공격 등 학대를 당한 경험	①	②	0 1 2 3 4 5 6 7 8 9 10
(11)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①	②	0 1 2 3 4 5 6 7 8 9 10
(12) 직장에서 상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①	②	0 1 2 3 4 5 6 7 8 9 10
(13) 범죄(스토킹,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되었던 경험	①	②	0 1 2 3 4 5 6 7 8 9 10
(14) 내가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 취업을 못했던 경험	①	②	0 1 2 3 4 5 6 7 8 9 10
(15)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을 받거나 진로 변경을 강요받은 경험	①	②	0 1 2 3 4 5 6 7 8 9 10
(16) 전학이나 이사 등 이동을 자주 한 경험	①	②	0 1 2 3 4 5 6 7 8 9 10
(17) 나 혹은 가까운 지인이 전염성질환(코로나19)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제약된 경험	①	②	0 1 2 3 4 5 6 7 8 9 10

19. 귀하는 요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점



건강

20. 귀하는 (지난 1년 기준) 평소 운동을 하십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주 3회 이상 ③ 주2회 ④ 주1회 ⑤ 월1~2회 ⑥ 거의 하지 않음

21. 귀하는 (지난 1년 기준) 평소 술을 드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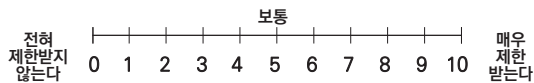
- ① 마시지 않았다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달에 1번 정도
④ 한달에 2~4번 ⑤ 일주일에 2~3번 정도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22. 귀하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피우지 않는다 ② 피운다

23. 귀하는 평소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4. 귀하는 현재 (신체 및 정신) 건강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점



25.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얼마나 자주 겪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며칠 동안 (1~6일)	1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2)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①	②	③	④
(4)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5) 식욕이 줄었다.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①	②	③	④
(6)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8)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다. 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9)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6.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	한두번 있다	가끔 있다 (3~5회)	자주 있다 (6회 이상)
(1) 귀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등의 자살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2)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3)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정책 수요

27. 청년의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심리·마음건강 상담 서비스(인간관계 고민 등)
- ② 복지·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생계급여, 청년 수당 등)
- ③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서비스(인간관계 개선 훈련 등)
- ④ 취업·진로 상담 서비스(취업준비, 일자리 알선 등)
- ⑤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 ⑥ 청년 공동체 교류지원 서비스(동아리 및 소모임 구성 등)
- ⑦ 직업·훈련 교육 서비스(기술교육, 직업교육 등)
- ⑧ 건강검진 서비스(신체건강검진, 정신건강검진 등)
- ⑨ 주거지원 서비스(편하게 지낼 수 있는 독립된 공간 제공 등)
- ⑩ 문화·취미 지원 서비스(독서, 영화, 취미 지원 등)
- ⑪ 참여 보장 및 권리강화(청년 정치참여 마련 등)
- ⑫ 기타

28.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이용하기 위해 전문가(담당자)를 만나야 된다면, 다음 중 어느 방법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 ① 내가 담당센터에 찾아가는 방법(센터 방문)
- ②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법(온라인 화상회의, 문자 등)
- ③ 전문가(담당자)가 내 집으로 찾아오는 방법(가정 방문)
- ④ 전문가(담당자)가 내 집 근처의 장소로 찾아오는 방법(카페, 공동회의실 등)
- ⑤ 기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한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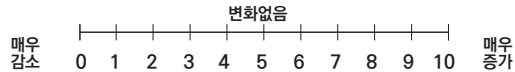
29. 다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매우 높다
(1)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2) 우리 사회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3) 본인에게도 고독사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0. 코로나19 발생 전(2020년 2월 이전)과 비교해 귀하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이 어떻게 변했는지 표기해 주십시오.

() 점



인구사회학적 특성

31. 귀하는 고향이 대전이거나 본가(부모님의 거주지)가 대전입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2. 귀하의 대전 총 거주기간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 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2년 미만
- ③ 2년 이상~3년 미만
- ④ 3년 이상~5년 미만
- ⑤ 5년 이상~10년 미만
- ⑥ 10년 이상~15년 미만
- ⑦ 15년 이상~20년 미만
- ⑧ 20년 이상~25년 미만
- ⑨ 25년 이상

33.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34. 대전광역시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5. 현재 거주하는 주거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일반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
② 아파트(주거전용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③ 연립주택·다세대주택(원룸, 빌라 등)/오피스텔
④ 비거주용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내 주택
⑤ 기숙사
⑥ 고시원
⑦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쪽방 등
⑧ 기타()

36. 현재 거주하는 주거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나 사글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나 사글세
⑤ 무상 ⑥ 기타()

☐ 사글세: 세입자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일시불로 미리 내는 것

37. 귀하가 현재 함께 사는 가구원(동거인)은 본인을 포함하여 총 몇 명입니까? ()명

37-1. 한 명 이상이라면 다음 중 함께 사는 가구원(동거인)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 ④ 모 ⑤(외)조부 ⑥(외)조모 ⑦ 형제자매 ⑧ 친구, 동료 ⑨ 기타

38.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혼(결혼하지 않음) ② 기혼(결혼함) ③ 사실혼(동거) ④ 사별이혼별거

39. 귀하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자녀가 있으십니까?

- ① 없다
② 있다(명)

40. 귀하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셨습니까?

- ①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다(본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음)
②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다(본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음)

41.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용돈 포함)? 평균 만원 (2022년 상반기 기준)
(소득: 근로소득+가족 등으로부터의 용돈 + 임대소득 등 월평균 소득)

42.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낮음		〈-----〉		높음	
하의 하	하의 상	중의 하	중의 상	상의 하	상의 상
①	②	③	④	⑤	⑥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 2022-9]

청년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에 관한 연구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인: 김 인 식

발 행 처: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우: 34917)

전 화: 042-331-5069

팩 스: 042-331-8924

홈페이지: <http://daejeon.pass.or.kr>

ISBN 979-11-92238-24-1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있습니다.
